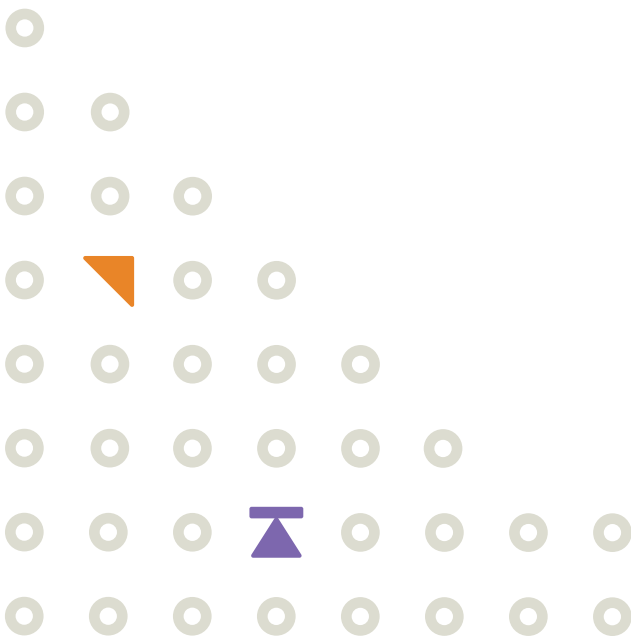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송리라
남미자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연구 책임 송 리 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남 미 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지원 최 금 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전임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발행인 김혜순

발행일 2025년 11월 30일

발행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20-3900

홈페이지 www.gwff.kr

인쇄 경성문화사

I S B N 978-89-6432-703-6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 발 간 사 □

청소년기는 앞으로의 생애과정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평등 인식 형성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페미니즘의 부상과 동시에 등장한 페미니즘 백래시 현상 속 청년세대 내 젠더의식의 성별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세대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이 향후 청년기로 이어지는 가치관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청소년 내 존재하는 성별 인식 차이를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중, 고등학생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청소년기 주된 사회적 맥락이라 할 수 있는 가정, 또래관계와 학교 및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성평등 의식 및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성평등 의식과 태도는 성역할 태도뿐 아니라 양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등으로 다차원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에서 여자 청소년에 비해 변화가 느린 혹은 저항하는 남자 청소년의 양상이 드러났으며, 또래문화, 온라인 활동과 디지털 불안 및 진로와 가족 가치관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성평등 태도 유형화를 한 결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진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 성평등 민감성 증진을 위한 성평등 교육의 콘텐츠와 교육방식의 개선 및 성평등 교육의 권리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 제도적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제14차 경기GPS를 실시해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GPS에 참석하여 귀한 의견을 주신 토론자분들과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 설계에서부터 조사 및 자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구책임자인 송리라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남미자 연구위원, 그리고 연구지원을 맡은 최금순 연구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가 경기도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진전을 위한 성평등 교육 설계 및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1월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연구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청소년기는 향후 생애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평등 인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임. 최근 페미니즘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집단적 견제와 반발로서 '페미니즘 백래시'가 등장했음. 페미니즘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주요 담론으로 부상했고, 특히 청년 남성에서 반페미니즘 인식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음.
- 문제는 청년세대 내 다차원적 젠더의식 및 '젠더갈등'으로 불리는 성별 인식 차이 양상이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임. 또래집단, 특히 남학생 또래문화의 남성성 규범이 여성혐오 정서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으며, 온라인은 혐오 확산의 장이 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주된 사회적 맥락인 가정, 또래관계와 학교 및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성평등 의식 및 태도를 살피고자 함. 이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들이 마주한 성평등 의식의 진전 혹은 역행, 페미니즘 백래시라고 보여지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전반적인 성평등 의식의 진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첫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성역할 태도, 양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및 페미니즘 인식의 최근 변화 양상을 살핌. 또한 청소년의 가족, 또래문화, 온라인 및 학교 내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을 살핌으로써 실태조사 설문 영역을 확정함.
- 둘째, 성인과 청소년 대상 기존 성평등 의식 조사 검토를 통해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문항을 개발함.
- 셋째, 경기도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평등 실태 현황을 파악함. 전

반적인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또래문화, 디지털 문화, 학교생활 및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살핌.

- 넷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가. 젠더의식의 변화와 다차원적 구성

- 기존 연구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성별에 따른 노동 및 돌봄 분담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며,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전통주의에서 평등주의로 수렴할 것으로 가정해 옴. 그러나 성별직무분리 지속과 더불어 임금격차 감소, 남성의 가사참여 증가가 정체되며 이러한 가정에 의문이 제기됨. 여성의 성평등 의식은 교육수준 및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한편, 남성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더딤. 또한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평등주의적 태도를 보이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페미니즘 백래시 영향으로 일관된 평등주의적 진전이 아닌 혼재된 양상을 보임.
- 청년층에서는 평등주의적 태도와 반페미니즘 정서가 공존하는데 20, 30대 여성의 70~80%가 성평등이 미달되었다고 인식한 반면, 남성은 30~40% 수준에 그쳐 성별 인식 격차가 뚜렷함. 특히 청년 남성에서는 ‘남성 우월주의’와 ‘남성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한 반페미니즘 정서가 강화되고 있음. 최근의 ‘젠더갈등’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의식을 성역할 태도뿐 아니라 양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페미니즘 인식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

나. 성평등 인식 형성의 중요 시기로서 청소년기

-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오랫동안 보호와 규제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사회, 정치적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젠더 민감성과 평등의식을 가진 주체로 부상함.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가 집중되며 젠더 사회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임. 이때 형성된 젠더 인식은 생애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
- 여학생은 여성차별·혐오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반면, 남학생은 여성 권리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양상이 청소년 세대로 전이 및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다. 청소년의 또래문화 속 나타나는 성별 갈등, 혐오 및 페미니즘 백래시

1) 청소년기 젠더의식 형성에서 가족의 역할

- 부모의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 분담은 청소년 자녀의 젠더의식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아버지의 평등적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 참여 및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자녀의 성평등적 태도와 연관됨.
- 청소년의 젠더의식은 부모뿐 아니라 친구, 학급 친구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됨. 청소년은 부모, 친구의 젠더의식이 상이할 경우 평등주의적 신념을 가진 집단의 태도에 적응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중 친구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나타남.

2) 청소년기 또래문화와 젠더의식의 형성: 남성 또래문화의 특수성

- 청소년기는 사회화 과정이 부모에서 또래로 전환되는 시기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가치, 태도, 규범을 공유하며 정체성을 형성함. 또래관계의 질은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청소년기의 또래문화는 강한 집단 감정에 기반하여 감정을 매개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또래집단의 규범이 강화되고 재생산되며 젠더규범 역시 동일함. 청소년은 또래집단을 통해 성 정체성과 젠더규범을 학습하고 수행하며 기존의 성별 이분법 또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기도 함. 이러한 경험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성 청소년은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토대로 젠더규범이 형성되는 경향이 나타남.
- 남성 청소년에서는 남성 동성사회성(male homosexuality)이 나타나며, 이는 여성 및 동성애 혐오를 기반으로 유지됨. 남성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 정서 강화는, 현재 젠더 질서에서 성적 주체로서의 남성과 동일시되고 싶으나 동일시 될 수 없는 심리적 불안과 연결됨.
- 최근 청소년 세대는 성별 인식의 변화와 젠더 이슈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그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청소년기 또래문화는 비슷한 연령, 성별, 학년 등의 동질성 속에서 사회적으로 동일시하면서 형성되며, 또래집단은 서로에게 근접성을 느끼고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져 혼자일 때는 하지 않을 행동을 또래집단에서는 하게 됨. 즉, 또래집단 내 공동의 가치, 태도 등의 규범을 따르도록 하는

무언의 압력이 존재함을 고려해야 함.

3) 온라인을 매개로 한 또래문화의 구축 및 혐오 공유

- 청소년에게 온라인은 정보를 공유하고 습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관계맺기의 장이 되고 있음. 온라인 미디어 이용 패턴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데, 여성 청소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와 확장을 위해, 남성 청소년은 게임 등 놀이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온라인 문화의 한 축으로 여성혐오가 자리잡고 있으며, 게임 등으로 확장된 혐오 문화는 청소년 또래문화의 한 영역으로, 혐오 발화는 남성성 인정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함. 온라인 공간에서 문화형성 방식과 영역이 달라지면서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의 성평등 격차 역시 커지고 있음.
- 여성 청소년은 스쿨미투, 12.3계엄 등 사회운동을 통해 온라인 연대를 오프라인 광장으로 확장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공론화하는 활동에 참여함. 그러나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 외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은 기존의 사회규범을 재현하는 경향이 존재함.
- 남성 청소년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회적으로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에 쉽게 동의하지 못함. 사회적 분위기 변화로 인해 수업시간 또는 학교의 공론장에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남성 청소년들은 그들의 불만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게 되고, 그들의 감정은 특정한 방향, 예컨대 여성혐오, 역차별 등으로 흐르게 됨.
- 온라인 커뮤니티 내 동질화된 의견이 공유화된 내러티브로서 공통의 감각을 만들고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짐. 그러한 집단 정체성의 형성은 우리 바깥의 타자와의 경계를 공고히 하고 배제하는 근거로 작용함. 문제는 특정 방향으로 편향된, 여성혐오적이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라는 공통 감각은 편향적 온라인 매체의 사용으로 더욱 극단적이 된다는 것임.

4) 학교 내 페미니즘 백래시와 능력주의와의 연결

- 청소년 사이 차별과 혐오는 일상화되었으며, 유희(놀이) 차원에서 소비되고 있음. 문제는 그 대상이 되는 이들인 여성, 성소수자 등이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임.

학교라는 공간은 공평해 보이는 공간이나, 이 공간 안에서 차별, 배제, 혐오가 구조화되어 재생산되는 장소이기도 함.

- 학교 내 페미니즘 백래시는 실재하며, 그 구체적 양상은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교사와 학생에 대한 조롱, 성평등을 지향하는 동아리 게시물의 훼손, 페미니즘적 수업에 대한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성불평등적 인식과 반페미니즘 행동이 확산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과 성소수자 학생과 교사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함.
- 페미니즘 백래시는 성평등이 오히려 불평등을 확산시킨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신자유주의 및 능력주의와 연결됨. 능력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을 훼손하는 것으로 페미니즘이 지목됨. 능력주의를 내면화한 (주로 남성) 청소년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 전통적 남성성과 동일시될 수 없는 이유를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닌 여성과 소수자를 방해자로 지목하면서, 남성 청소년의 남성성에 대한 동일시가 더욱 강화됨. 더불어 학교에서 공고하게 작동하는 능력주의는 남성 청소년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과 백래시에 관한 관심 또는 교육을 어렵게 만들음.

라. 기존 성평등 조사

1) 경기도 성평등 의식 관련 조사

-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전국 단위 양성평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단위 조사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경기도 차원의 별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
- 경기도에서는 2012년과 2016년에는 성평등 정책 수립 방향에 초점을 둔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2023년은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함. 2023년 조사는 경기도민(만 19세-65세)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의 변화와 성별, 세대별 인식 차이를 살피고자 기획됨.

2) 청소년 성평등 관련 조사 현황

- 양성평등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15-18세)이 포함되며 일부 영역(가족생활 일부, 사회

관계 및 사회참여, 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성평등 의식, 양성평등 수준, 건강, 인권과 안전 등에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조사됨. 또 다른 전국 단위 청소년 대상 조사로 최윤정 외(2020)는 청소년기 특성에 초점을 두어, 학교에서의 성평등 문화와 자주 접하는 온라인, 대중문화 및 또래관계 속에서 성평등 의식의 형성과정을 살펴봄.

-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혐오문화와 성희롱 문화는 또래집단 문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와 문화 콘텐츠에는 성인 세대의 잘못된 성차별적 인식과 혐오적 태도가 내재되어 있고, 이것이 다수의 매체를 통해 청소년 세대에 전수되고 있음을 보여줌.
-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평등 관련 실태가 총 세 건 진행됨.
 - 양정선(2020)은 청소년의 가족생활 및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중 가족가치관 및 성평등 의식, 부모의 부모 간 성평등 정도와 부모(보호자) 양육의 성평등 인식 정도 등을 질문함.
 - 이해정 외(2020)는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성적 실천 및 성평등 관련 교육 참여 경험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청소년들의 젠더의식, 학교생활 속 성차별, 성적 괴롭힘에 관한 인식과 경험, 한국 사회의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 성적 권리 및 실천, 교육 참여 등이 주요 문항임.
 - 남미자 외(2022a)는 페미니즘 백래시 현상에 주목하여 학교에서 백래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남성성과 능력주의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의 연관 속에서 페미니즘 백래시 인식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핌.

3.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가.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개요

[표 1]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경기도에 재학 중인 중2, 중3, 고1, 고2 학생
목표 표본	총 1,000명 (여학생 500명, 남학생 500명)
표집 방법	층화 다단계 집락추출법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학교 우편조사
조사 기간	2025.06.30.-2025.07.18.(약 3주 소요)
조사 기관	(주)현대리서치
조사 내용	청소년 응답자 기본사항과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가족문화, 또래문화, 디지털문화, 학교생활, 일, 가족 가치관

- 최종 응답 인원은 1,008명이며 가중치를 적용한 인원은 1,000명임. 여학생 48.4%, 남학생 51.6%로 유사하게 집계되었다. 학교급과 학년에서는 중학교 2학년 28.4%, 중학교 3학년 26.6%, 고등학교 1학년 22.3%, 고등학교 2학년 22.6%에 해당함. 권역별로는 도농복합남부 31.4%, 도농복합북부 13.6%, 도시남부 41.3%, 도시북부 12.2%임.

나.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1) 성평등 의식

-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가장 보수적으로 응답한 항목은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평균 2.66점, 동의 62.8%)이며, 보수성이 낮은 항목은 ‘맞벌이 부부여도 육아와 가사일의 책임은 여자가 더 크다’(평균 1.80점, 동의 17.6%)임.
 - 모든 문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보수적이었으며, 성별 격차가 가장 컸던 문항은 ‘여자는 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취직시켜야 한다’ 였음(여학생 1.65점, 남학생 1.99점).
- **온정적 성차별주의:** 차별 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남성은 여성보다 강하므로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평균 2.36점, 동의 47.2%)이며, 차별 수준이 낮은 항목은 ‘부모님이 아들보다 딸에게 얹전한 행동과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평균 1.84점, 동의율 21.2%)임.
- **적대적·현대적 성차별주의, 군복무 인식:** 동의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남성의 군복무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평균 3.12점, 동의율 78.7%)이며, 다음은 ‘우리 사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의 입장에서만 판단한다’(평균 2.58점, 동의율 60.7%)임.
- **남성성 규범:** ‘남자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가 남성성 규범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평균 1.85점, 동의율, 21.9%), ‘남자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숨겨야 한다’가 가장 낮았음(평균 1.50점, 동의율 8.6%).

2)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의식

-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온라인상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이 가

장 심각하다고 인식함(평균 3.17점,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비율 84.6%). 젠더갈등이 화두가 되는 것에 비해 청소년들은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차별, 혐오, 폭력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을 기준으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사회적 갈등 인식 수준을 높게 응답함.
- **현재 성평등 수준 인식:**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평등을 응답한 비율은 25.2%, 여성에 불평등 35.6%, 남성에 불평등 39.2% 순임. 평균 기준 0.14점으로, 전반적으로 남성에 불평등으로 응답함.
- **10년 후 성평등 수준 인식:** 평등으로 응답한 비율(41.7%), 남성에 불평등(41.4%), 여성에 불평등(16.9%) 순임. 평균 기준으로는 0.56점으로 남성에 불평등으로 응답하였으며, 현재 성평등 수준보다 향후 불평등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함.

3) 페미니즘 인식과 성평등 관심 정도

- **페미니즘 정의 인식:** 약간 알고 있다(37.7%), 전혀 알지 못한다(30.2%), 별로 알지 못한다(20.2%), 매우 잘 알고 있다(11.9%) 순으로, 청소년의 절반은 알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함.
-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페미니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제외) 모든 문항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음.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이다' 문항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남(평균 2.73점, 동의율 64.4%).
 -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성별+학교급별로도 나타나 남자 고등학생,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순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함.
- **페미니스트 정체화 수준:** 페미니즘을 알고 있는 청소년 중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는 경우는 14.9%에 불과함.

4) 혐오 표현,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인식

- 청소년들은 혐오표현,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평균 3.05점 이상, 동의율 78% 이상으로 사회적 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높게 나타남.

다. 청소년의 가족 내 성평등 현황

1) 가족문화

- **가족 내 성차별 경험:** 가정에서 부모(보호자)나 형제로부터 성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은 35.2%(전혀없다 64.8%를 제외하고 모두 합한 비율)였으나, 성차별 경험이 있더라도 자주있는 경우는 3.7%로 적은 비율임.
- **가족 내 가사·양육·경제활동 현황:** 가사일 등 집안일 담당에서는 어머니(93.7%), 아버지(49.7%), 본인(25.3%), 본인 외 형제(14.7%) 순으로 어머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양육과 교육 담당 비율에서도 어머니(90.1%), 아버지(55.7%), 본인(8.1%), 본인 외 형제(4.3%) 순으로 어머니의 비율이 높음. 경제활동 담당에서는 아버지(95.3%), 어머니(70.5%), 본인 외 형제(7.1%) 순으로 가사일이나 교육과 다르게 아버지 비율이 높아짐.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 간 차이는 가사일과 교육에 비해 크지 않음.
- **부모님(보호자) 양육태도 성평등 정도:** 아버지 양육태도의 성평등 정도는 성평등함(53.3%), 매우 성평등함(41.1%), 성차별적임(3.8%), 매우 성차별적임(0.8%) 순임. 어머니 양육태도의 성평등 정도에서도 성평등함(52.6%), 매우 성평등함(42.4%), 성차별적임(4.4%), 매우 성차별적임(0.4%) 순으로 성평등한편이라고 응답함 비율이 높음.

라. 청소년의 또래문화와 학교생활

1) 또래관계의 질과 또래압력

- **청소년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 양적 측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친하게 지내는 수가 적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함. 또한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주로 동성친구였음.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를 제외하고 성별이 다른 친구는 1명을 넘지 않음.
- **또래관계의 질:**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만족스럽고, 관계가 좋다고 인식하는 편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또래관계의 질이 높은 편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교급이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남.

- **또래압력:** 또래유행, 또래눈치, 일상활동에서는 어느 정도 압력을 느끼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일탈행동에서는 또래압력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또래눈치의 문항들의 점수가 높아 청소년들이 주로 눈치를 보는 방식으로 또래압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

- 모든 문항의 평균 점수가 1.7점 이하로 나타나, 대체로 관계 영역에서 진보적 성역할 태도를 보임. ‘스킨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에서 가장 보수적이었으며(평균 1.7점, 보수적 15.8%), ‘연애를 하려면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평균 1.68점, 보수적 14.6%) 순임.

3) 교사의 성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

- 학생들이 교사의 성차별 수준을 높게 인식한 문항은 ‘학교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남학생에게만 요청한다’(평균 2.62점, 동의율 62.2%)로, 나머지 문항들에서는 교사의 성차별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게 인식함. 조사 결과 적어도 교사들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성적 농담을 하는 교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

- 대체로 학교에서의 성차별 수준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 권리와 편의를 더 고려한다’ 문항(평균 2.05점, 동의율 24.6%)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함. 반면 ‘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은 내신이나 학교 성적에 피해를 본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함(평균 1.55점, 동의율 7.1%).
-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서로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남학생은 학교가 여학생에게 좀 더 편향적이고 그에 따라 남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성별+학교급에서는 중학교 학교급에서 성별에 따른 성차별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남.

마. 청소년의 디지털 문화

1) 온라인 활동

- **온라인 활동 참여:** 인스타그램의 참여율(85.5%)이 가장 높으며, 개인방송 콘텐츠 시청(76.7%), 온라인 게임/모바일 게임/메타버스 및 VR게임 등(81.7%), 인공지능 챗봇 이용(79.9%), 틱톡(48.2%),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42.1%) 순임.
 -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인공지능 챗봇 이용에서는 여학생이, 개인방송 콘텐츠 시청과 틱톡, 게임에서는 남학생의 참여경험률이 두드러짐. 성별+학교급별 참여율에서 나타난 차이는 대부분 성별에 의한 것임.
- **SNS 활동 목적:** 친구들과의 소통 및 대화(87.0%), 웃긴 글/영상 보기(78.7%), 친구들과 소식 얻기(78.3%) 순임. 여학생과 고등학생에서 SNS가 사회적 활동의 장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
- **개인방송 콘텐츠 시청 내용:** 웃긴영상(76.5%), 게임(65.9%), 먹방, 맛집(37.3%)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여학생에서는 웃긴영상, 남학생에서는 게임이 주된 목적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뚜렷함.

2) 디지털 관련 불안 수준

- 청소년의 디지털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모든 문항의 평균은 2.07점 이상으로, 불안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나는 온라인에서 개인신상이 노출될까봐 불안하다'에서 높게 나타남(평균 2.33점, 불안높음 40.9%).

바. 청소년의 성폭력 인식과 경험 및 성평등 교육 현황

1) 성폭력에 대한 인식

-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은 편이나, '연인 간 폭력은 때린 사람만을 탓할 수 없다(3.16점)'와 '성폭력은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하는 등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3.26점)'에서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2) 학교 내외 성폭력 경험

- **성폭력 경험:** 성적 농담(45.3%), 성차별적 발언(39.3%), 외모 등 신체에 대한 평가(37.6%) 순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 경험 시 대처 방법:** 주된 방법으로 그냥 넘어감(69.0%), 친구에게 상담(27.0%), 부모님께 상담(16.6%) 순으로 응답함.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친구와 부모님께 상담 비율이 높았으며, 남학생은 담임선생님과 상담, 행위자(가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 및 경찰 신고 비율도 적지 않음.
- **성폭력 경험 시 그냥 넘어간 이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42.7%),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28.6%),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행위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14.7%) 순임.

3) 학교 내 성평등·성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 경험:** 청소년의 약 64.8%가 교육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 진행자는 외부강사(63.9%), 담임 교사(19.1%), 교과 교사(13.5%) 순이었음. 교육 방식은 학급별 교육(66.2%), 전체 집합교육(29.6%), 모둠, 개인별 교육(4.2%)이며, 교육 방법은 영상시청(55.5%), 강사(교사) 강의(42.0%), 토론식(1.5%) 순으로 진행됨.
- **학교 내 성교육 경험:** 청소년의 77.6%가 성교육을 이수했으며, 교육 진행자로 외부강사(58.3%), 교과 교사(18.0%), 담임 교사(15.5%) 순으로 나타남. 성교육 방식은 학급별 교육(67.3%)이 다수이며, 전체 집합교육(29.1%), 모둠, 개인별 교육(3.6%) 비중은 작음. 성교육 방법으로는 영상시청(52.8%), 강사(교사)강의(44.6%) 순임.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경험:** 약 83.2%가 교육 경험이 있으며, 교육 진행자는 외부강사(55.1%), 담임 교사(21.7%), 교과 교사(18.4%)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교육방식으로는 학급별 교육(66.9%), 전체 집합교육(30.2%), 모둠, 개인별 교육(2.9%) 순이며, 교육 방법은 영상시청(62.8%), 강사(교사) 강의(35.1%), 토론식(1.4%) 순임.
- **학교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생각:**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여준다’와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에는 동의 비율이 높았으나(각 54.6%, 50.7%), ‘늘 새롭고 흥미롭다’와 ‘성별 갈등을 완화시킨다’에서는 비동의 비율이 높음(각 74.6%, 85.9%).

사. 청소년의 진로, 가족 가치관

1) 진로·직업관련 성평등 태도

-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문항에서 가장 보수적 태도를 보였으며(보수적 비율 45.5%), ‘아동이나 환자 노인을 돌보는 직업은 여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에서는 가장 평등적 태도를 보였음(평등적 비율 83.1%).
- **일 관련 성차별주의:** 전체 문항 평균이 2점 이하로 일 관련 성차별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 리더십이 부족해서다’에 비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평균 1.56점, 동의율 7.2%), ‘남성의 월급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평균 1.99점, 동의율 28.6%)에서 비동의 비율이 가장 낮음.
- **희망 전공 계열:** 경기도 청소년의 희망 전공 계열은 예체능계열(25.6%), 사회계열(16.7%), 공학계열(15.5%) 순임.
 -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사회계열과 의약계열을, 남학생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선호 비율이 높음. 성별+학교급별로도 이와 같은 경향은 이어져 학교급보다는 성별 선호도에 따라 희망 계열이 나타남.
- **직업 선택 기준:** 수입, 연봉(62.1%), 개인적 관심과 흥미(57.4%), 적성과 소질(44.2%), 일과 삶의 조화(12.6%), 고용안정성(11.3%) 순임.
- **직장 조직문화 속 차별 인식:** 모든 문항 평균 점수가 2.05점 이상으로, 대체로 직장 조직문화 내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평균 2.36점, 성차별 인식 비율 44.3%) 문항의 인식률이 높았으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에서 인식이 낮음(평균 2.05점, 성차별 인식 비율 23.5%).

2) 연애와 결혼 및 자녀가치관

- 조사 응답자 중 15.6%가 현재 연애 중이며, 현재 비연애 중인 청소년 중 51.4%가 연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성인이 되었을 때 연애나 결혼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하는 비율은 약 22.1%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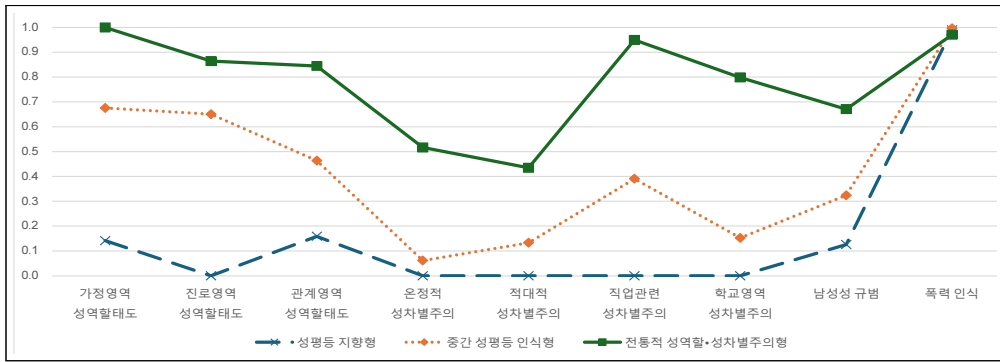
- 향후 결혼의향: 전체 기준 62.6%의 청소년이 향후 결혼 의향이 있으며, 16.2%는 결혼 의향 없음, 21.2%는 잘 모르겠다임.
 - 결혼 의향이 없는 청소년의 주된 비혼 이유는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부담(44.0%), 혼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서(34.1%), 나에게 적절한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19.0%) 순임.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자녀계획과도 강하게 연결되는 사회적 규범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 향후 자녀출산생각: 결혼의향보다 낮은 49.1%가 자녀 출산의향이 있음.
 - 비출산 생각 이유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50.6%),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 때문에(40.3%), 출산의 고통이 두려워서(26.0%) 순임.

아.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인식 현황: 성평등 태도 유형화

1) 성별 성평등 태도 유형화

- 성별 성평등 인식 잠재집단분석: 3개 영역의 성역할 태도(가정 영역, 진로 영역, 관계 영역), 4개 영역 성차별주의(온정적, 적대적, 일 관련, 학교 영역), 남성성 규범 및 폭력에 대한 인식의 총 9개 영역의 응답을 바탕으로 성별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성평등 태도 유형화를 시도하여 성별 각 3개 집단을 도출함.
- 여자 청소년 잠재집단 분석 결과: 성평등 지향형(33.3%), 중간 성평등 인식형(52.8%),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13.9%)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으로 성평등 지향형의 경향을 보임.
 - 성평등 지향형은 진로 영역 성역할 태도와 성차별주의 인식이 매우 낮음. 그에 비해 가정과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 및 남성성 규범은 상대적으로 높음. 중간 성평등 인식형에서는 온정적, 적대적, 학교영역 성차별주의 및 남성성 규범은 성평등 지향형에 가까웠으나 가정, 진로 영역 성역할 태도에서는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 가까움.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와 일 관련 성차별주의는 중간에 위치함.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는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와 일 관련 성차별주의가 특히 높게 위치함. 반대로 온정적, 적대적 성차별주의 및 남성성 규범은 상대적으로 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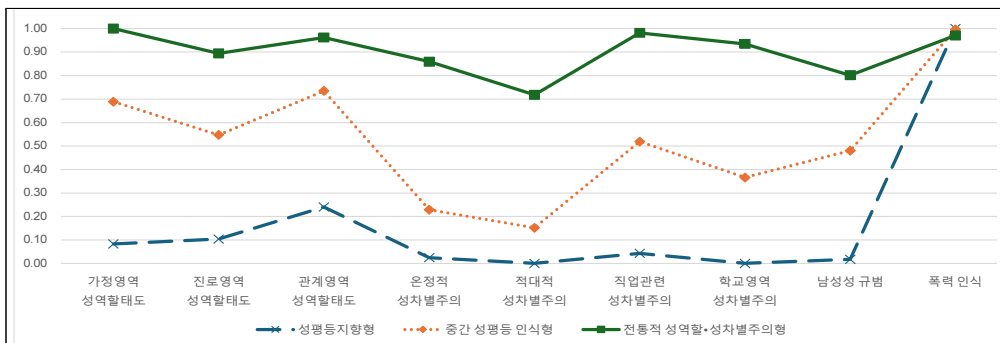
[그림 1] 여학생의 성평등 태도 유형화



○ 남자 청소년 잠재집단 분석 결과: 중간 성평등 인식형(56.9%),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25.7%), 성평등 지향형(17.4%) 순으로 구성됨. 여학생에 비해 성평등 지향형은 적고,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임.

- 성평등 지향형은 성역할 태도에 비해 성차별주의와 남성성 규범인식이 낮음. 성역할 태도에서는 관계영역 성역할 태도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남. 중간 성평등 인식형은 성역할 태도와 남성성 규범은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 가깝다면, 온정적,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성평등 지향형에 근사함.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은 폭력 인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성차별주의 중 사회적 규범의 측면이 아니라 직접 체감하는 학교 영역의 성차별주의나 체감하게 될 직업 관련 성차별주의 인식이 특히 높다는 특징을 보임.

[그림 2] 남학생의 성평등 태도 유형화



2) 성평등 태도 유형별 특징

- **여학생의 성평등 태도 유형별 특징:** 성평등 태도 유형과 또래관계의 질, 또래압력 및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이 연관됨.
 - 또래관계의 질: 성평등 지향형에서는 또래관계의 질이 높음 비율이 높았던 반면,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는 가장 낮았으며, 또래관계의 질 낮음 비율이 세 유형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즉, 여학생에서는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성평등 태도 지향형에 속하며, 낮을수록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 속하는 경향이 존재함.
 - 또래압력: 또래관계의 질과 반대로 성평등 지향형은 또래압력이 낮은 비율이,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는 또래압력이 높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성평등 태도가 또래 관계를 통해 강화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 중간 성평등 인식형과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 연애나 결혼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하는 비율이 성평등 지향형에 비해 높음.
- **남학생의 성평등 태도 유형별 특징:** 성평등 태도 유형과 학업성적, 미래계층인식, 또래압력 및 현재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과 10년 후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이 연관됨.
 - 주관적 학업성적: 성평등 지향형에서만 상위권 비중이 높고, 나머지 두 유형에서는 하위권 비율이 높음.
 - 미래계층인식: 세 유형에서 모두 상승, 부동, 하강 순으로 나타나, 성평등 지향형에서는 상승(49.02%)과 부동 비율(44.44%)이 유사하며 하강 비율(6.54%)이 상당히 적은 한편, 중간 성평등 인식형(28.28%)과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22.01%)에서는 하강 비율이 적지 않음.
 - 또래압력: 여학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평등 지향형에서는 또래 압력이 낮은 비율이 가장 높고,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는 또래압력 중간 비율이 높았음.
 - 현재 및 10년 후 성평등 수준: 현재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1.06점), 중간 성평등 인식형(0.90점), 성평등 지향형(0.37점) 순으로 남성에게 더 불평등으로 응답함. 또한 세 유형에서 모두 현재 대비 10년 후 남성에게 더 불평등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1.60점)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성평등 지향형 0.51점, 중간 성평등 인식형 1.15점)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전망 정도가 크게 나타남.

4. 결론

가.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변화가 느린 혹은 저항하는 남자 청소년

- 청소년 내 가정 영역의 성역할 태도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가족 내 돌봄에 있어서는 엄마의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성차별주의 응답에서는 모두 남학생의 차별수준이 높지만, 성별 격차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남. 남성성 규범을 측정하는 모든 항목에서도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으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적극성과 경쟁에 대한 태도에 더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남.
- 여학생은 현재와 미래 모두 여성 불평등에게 불평등하며 향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남학생은 현재보다 미래에 남성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여학생은 페미니즘에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이고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화 수준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더 부정적이고 정체화가 낮아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성별로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함.

2) 혐오,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의 높은 공감대

- 경기도 청소년들은 혐오 표현, 성차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여학생들이 구조적 불평등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음.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성범죄 처벌 강화와 같은 항목에서는 높은 동의율을 보여 문제의 심각성에 일정 부분 공감함.

3) 가정 내 성별화된 역할 분담과 관계 인식에서의 차이

- 청소년은 부모의 역할이 성별화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을 평등하다고 보았음. 또한 성별에 따라 부모님의 역할을 해석하여, 역할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이 성별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

4) 청소년의 또래문화에서의 성차

- 청소년의 또래문화는 전반적으로 동성 중심의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음. 남학생은 더 많은 친구가 있음에도 또래관계의 질 점수는 여학생보다 낮은 반면, 여학생은 친구 수는 적지만 관계의 질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어 친구 규모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함. 또래관계 속 청소년들은 또래압력을 경험했으며, 특히 여학생은 또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또래로부터의 평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음.
- 청소년의 관계 영역에서의 성역할 태도의 경우, 성평등 의식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연애나 데이트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남성 주도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음.
- 학교 맥락에서도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남학생이 교사의 성차별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최근 남성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역차별' 담론과 연결될 수 있음. 학교생활 전반에서도 남학생은 학교가 여학생을 더 배려한다고 느끼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의 불성실한 학업 태도로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고 인식하여 서로 다른 피해 의식을 지님. 이러한 인식은 학교 내 성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줌.

5) 온라인 활동과 디지털 불안에서 나타난 성차

- 청소년은 성별 및 학교급에 따라 플랫폼 이용과 콘텐츠 접속에 차이가 존재하며, 디지털 이용에서의 위험 인식 역시 같은 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관계 유지를 중심에 둔 여학생과 중학생에서 개인정보 노출 및 공유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게 나타났고, 게임 중심 이용이 높은 남학생은 온라인 활동 빈도는 높으나 디지털 불안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성별 및 학교급별 온라인 공간에서의 안전 체감을 이용 행태와 결합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함.

6)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특성 및 학교 교육의 효과

- 청소년은 성적 농담이나 성차별적 발언 및 외모 등 신체적 평가를 빈번하게 경험함. 그러나 성폭력 경험이 있음에도 대응은 대체로 소극적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를 사

소화하거나 대응방법 인식 부족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음.

- 학교 내 교육에의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전달 방식은 일방향적임. 성평등과 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음.
- 현재 교육과정이 성평등 의식 증진과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에는 부분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성별 갈등 완화나 흥미 유발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다수가 성폭력을 사소한 일로 생각하거나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의 높은 응답률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그에 대한 대처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7) 청소년의 진로와 가족 가치관에서의 성차

- 진로 영역 성역할 태도에서 청소년들은 여전히 성별 능력 차이에 대한 전통적 관념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실제 직업에서는 성별에 따른 구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동시에 존재함.
- 일 관련 성차별주의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차별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며, 직장 조직문화에 대한 성차별 인식에서는 여학생의 민감성이 남학생보다 높음.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단계임에도 일 관련 성차별주의가 성별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태도는 향후 실제 노동시장 참여 과정에서의 젠더불평등과도 연관될 가능성이 존재함.

8) 청소년의 성평등 태도 유형화

- 여학생은 '성평등 지향형'과 '중간 성평등 인식형'이 다수를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성평등 성향을 보인 한편, 남학생은 '중간 성평등 인식형'과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의 비중이 높고, '성평등 지향형'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음. 이는 여학생에게 성평등 의식이 더 수용되며, 남학생에게는 전통적 규범 및 차별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줌. 동일한 성평등 지향형에 속할지라도 여학생은 사회적, 제도적 성차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중심이라면,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가정과 관계 측면의 성역할에서 보수적 태도를 보임.

- 청소년의 성평등 태도는 또래관계와 미래전망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되는 양상을 보임. 여학생의 경우 성평등 지향형은 또래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하고 또래압력을 낮게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는 또래관계의 질이 낮고 또래압력이 높은 비율이 두드러짐. 여학생에서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또래관계가 성평등적 태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줌. 또한 여학생은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평등 지향형은 연애나 결혼과 같은 성인기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과 중간 성평등 인식형에서 두려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또래와의 관계 경험뿐 아니라 향후 관계에 대한 인식 역시 여학생의 성평등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남학생에서는 또래관계의 질보다는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학업성적과 미래계층 인식, 성평등 수준에 대한 사회적 전망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됨. 성평등 지향형은 상위권의 학업성적과 긍정적인 미래계층 인식을 보였으나, 중간 성평등 인식형과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은 하위권 성적 비율이 높고, 미래 계층 전망에서도 '하강'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청소년기 남학생의 성평등 태도는 성인기로의 이행 후 지위불안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결합하여 더욱 강화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함. 또한 남학생은 성평등 수준 인식에서 현재뿐 아니라 10년 후에도 남성이 더 불평등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 이러한 부정적 전망이 가장 두드러짐. 이는 남학생의 성평등 태도가 사회 전반의 성평등 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함.

나. 정책제언

-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성별로, 개별 특성보다 여학생·남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성평등 태도를 구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다수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교육 방향에 따라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은 감소하고 성평등 지향형이 확대될 수 있음. 이에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 정책은 학교 교육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청소년의 성평등 민감성 증진을 위한 성평등 교육(콘텐츠 측면)

- **현실을 담은 성평등 교육의 실행:** 청소년의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페미니스트로의 정체화 등은 학교 성평등 교육이 청소년의 실제 젠더 경험과 괴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앞으로의 성평등 교육은 성역할 고정관념·차별 해소뿐 아니라 젠더, 섹슈얼리티, 페미니즘의 정의·역사 등 포괄적 내용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청소년이 실제 마주하는 젠더 이슈를 다루어야 함.
- **젠더 민감성이 반영된 진로 교육:** 성별 고정관념은 여전히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별 직종분리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 성별 능력 인식과 직무분리에는 혼재된 태도를 보임. 노동시장 내 성차별(ex)성별 임금 격차)을 정당화하는 태도가 일부 존재하기도 함. 청소년 진로교육의 방향을 기존의 직업탐색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젠더 민감성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함. 진로교육 담당자뿐 아니라 교과·담임교사 등도 젠더 민감성을 바탕으로 진로지도를 수행해야 하며, 교육과정 전반에 성평등적 시각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성차별주의 인식 현황과 완화를 위한 접근:** 청소년의 성역할 태도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바람직함에 기초하여 평등적 경향을 보였으나, 학교나 군복무 등 실제 갈등이 드러나는 문항에서는 성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성차별주의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개인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학교의 성평등 교육은 성차별을 ‘옳지 않다’는 규범적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갈등과 차별 경험을 해석하며 성평등적 시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남성성 규범과 실천의 이해를 통한 성평등 교육 방향:** 성평등 교육은 능력주의적 경쟁 구조 속에서 남성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위협받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남학생이 고정된 ‘남성다움’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관계 맺기, 감정 표현, 돌봄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함.
-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성폭력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은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실제 상황에서 활용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지침을 제공해야 함.

2) 청소년의 성평등 민감성 증진을 위한 성평등 교육(교육방식)

- **성평등 교육의 통합적 시행:** 성적 권리, 성차별, 성폭력 예방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고, 인권과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스웨덴, 영국, 캐나다,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은 이를 법제화하여 교과 내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에서도 이를 참고해 발달단계별 성평등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토론식 성평등 교육:**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토론식 수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학생이 직접 경험한 성차별 사례나 사회적 젠더 이슈를 주제로 한 토론,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교수방법을 도입해야 함.
- **성평등 교육의 질 제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표준 교안 마련과 강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해야 함. 또한 성평등 교육의 운영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성평등 교육 전환을 위한 토대로써 학교 문화의 민주화:** 성평등 관련 논의가 학생 주도의 일상적 대화와 학교 의사결정 구조 안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학교 내 민주적 참여 문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3) 법, 제도적 노력

- **성평등 교육의 권리화 및 양적 확보:** 성평등 교육을 일회적 의무 과정이 아닌, 성장 과정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접근가능한 권리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의 최소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첫 번째 안은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3조에 따른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임. 두 번째 안은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 교육 권리 조례」(가칭)를 제정하여, 독립적인 성평등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방안임.
- **교육청 내 성평등 전담 부서 신설:** 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교원 대상 젠더 민감성 교육 및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내 성평등 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수적임.

- **교사의 젠더 민감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첫째, 젠더 민감성 증진을 주제로 한 교사 연수를 정기적 실시, 둘째,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 및 학교 내 성차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학교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셋째, 성평등이 특정 성별의 특혜가 아닌 모두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는 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남학생만의 역할 분담이나 수업 중 성적 농담 등에 대한 학교 차원의 개선이 필요함.
- **정책추진 기반 구축:**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 교육 권리 조례」(가안)를 제정하여, 학교 안팎에서 경기도 청소년이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교육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조례 제정을 통해 성평등 교육을 청소년의 권리로 명시하고, 최소 기준과 양적·질적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지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7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젠더의식의 변화와 다차원적 구성	11
2. 성평등 인식 형성의 중요 시기로서 청소년기	14
3. 청소년의 또래문화 속 나타나는 성별 갈등, 혐오 및 페미니즘 백래시	15
가. 청소년기 젠더의식 형성에서 가족의 역할	15
나. 청소년기 또래문화와 젠더의식의 형성: 남성 또래문화의 특수성	16
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또래문화의 구축 및 혐오 공유	18
라. 학교 내 페미니즘 백래시와 능력주의와의 연결	20
4. 청소년 성평등 관련 법령 및 정책	23
5. 기존 성평등 조사	27
가. 경기도 성평등 의식 관련 조사	27
나. 청소년 성평등 관련 조사 현황	31

제3장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1. 조사 설계 방법	41
가. 조사 대상	41
나. 표본 설계	41
다. 가중치 산정	42

라. 조사 내용	46
마. 응답자 일반적 특성	52
2.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55
가. 성평등 의식	55
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75
다. 페미니즘 인식과 성평등 관심 정도	84
라. 혐오 표현,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인식	93
3. 청소년의 가족내 성평등 현황	97
가. 가족문화	97
4. 청소년의 또래문화와 학교생활	107
가. 또래관계의 질	107
나. 또래압력	110
다.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	113
라. 교사의 성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	117
마.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	121
5. 청소년의 디지털 문화	126
가. 온라인 활동	126
나. 디지털 관련 불안 수준	137
6. 청소년의 성폭력 인식과 경험 및 성평등 교육 현황	140
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	140
나. 학교 내외 성폭력 경험	145
다. 학교 내 성평등·성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151
7. 청소년의 진로, 가족 가치관	167
가. 진로·직업관련 성평등 태도	167
나. 연애와 결혼 및 자녀가치관	181
8.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인식 현황: 성평등 태도 유형화	191
가. 성별 성평등 태도 유형화	193
나. 성평등 태도 유형별 특징	197

제4장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207
가. 변화가 느린 혹은 저항하는 남자 청소년	207
나. 혐오,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의 높은 공감대	209
다. 가정 내 성별화된 역할 분담과 관계 인식에서의 차이	210
라. 청소년의 또래문화에서의 성차	210
마. 온라인 활동과 디지털 불안에서 나타난 성차	211
바.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특성 및 학교 교육의 효과	212
사. 청소년의 진로와 가족 가치관에서의 성차	213
아. 청소년의 성평등 태도 유형화	215
2. 정책제언	218
가. 청소년의 성평등 민감성 증진을 위한 성평등 교육: 콘텐츠 측면	218
나. 청소년의 성평등 민감성 증진을 위한 성평등 교육: 교육방식	225
다. 법, 제도적 노력	231

참고문헌	237
------------	-----

부 록	245
-----------	-----

표 목 차

[표 2-1]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4-1.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24
[표 2-2]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25
[표 2-3] 경기도교육청 2025 학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디지털]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계획	26
[표 2-4] 경기도 성평등 의식 관련 연구 주요내용	29
[표 2-5] 청소년 성평등 의식 관련 연구 주요내용	34
[표 3-1] 조사 개요	41
[표 3-2] 표본설계 절차	42
[표 3-3] 권역별 모집단-표본 비율과 평균 가중치 비교(고등학교 예시)	43
[표 3-4] 고등학교 모집단 현황	44
[표 3-5] 고등학교 조사표본 현황	44
[표 3-6] 고등학교 기본 가중치	44
[표 3-7] 고등학교 가중치(사례 수 보존)	45
[표 3-8] 중학교 모집단 현황	45
[표 3-9] 중학교 조사표본 현황	45
[표 3-10] 중학교 기본 가중치	46
[표 3-11] 중학교 가중치(사례 수 보존)	46
[표 3-12] 설문조사 주요 내용	47
[표 3-13] 설문에 활용한 주요 척도	48
[표 3-14] 응답자 개인 특성	53
[표 3-15] 응답자 사회적 배경 특성	54
[표 3-16]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인식(전체)	55
[표 3-17]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인식(성별)	57
[표 3-18]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인식(학교급별)	58
[표 3-19]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인식(성별+학교급별)	59
[표 3-20]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인식(권역별)	60

[표 3-21]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전체)	61
[표 3-22]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성별)	62
[표 3-23]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학교급별)	63
[표 3-24]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성별+학교급별)	63
[표 3-25]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권역별)	64
[표 3-26]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및 군복무 인식(전체)	65
[표 3-27]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및 군복무 인식(성별)	67
[표 3-28]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및 군복무 인식(학교급별)	68
[표 3-29]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및 군복무 인식(성별+학교급별)	69
[표 3-30]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및 군복무 인식(권역별)	70
[표 3-31] 남성성 규범 동의 수준(전체)	71
[표 3-32] 남성성 규범 동의 수준(성별)	73
[표 3-33] 남성성 규범 동의 수준(학교급별)	74
[표 3-34] 남성성 규범 동의 수준(성별+학교급별)	74
[표 3-35] 남성성 규범 동의 수준(권역별)	75
[표 3-36] 우리 사회 갈등 인식(전체)	76
[표 3-37] 우리 사회 갈등 인식(성별)	77
[표 3-38] 우리 사회 갈등 인식(학교급별)	78
[표 3-39] 우리 사회 갈등 인식(성별+학교급별)	78
[표 3-40] 우리 사회 갈등 인식(권역별)	79
[표 3-41]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81
[표 3-42] 향후 10년 후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83
[표 3-43] 페미니즘의 뜻 인식 정도(전체)	85
[표 3-44] 페미니즘 인식(전체)	86
[표 3-45] 페미니즘 인식(성별)	87
[표 3-46] 페미니즘 인식(학교급별)	87
[표 3-47] 페미니즘 인식(성별+학교급별)	88
[표 3-48] 페미니스트(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사람) 정체화 수준	89
[표 3-49]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 정도(전체)	90
[표 3-50]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 정도(성별)	91

[표 3-51]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 정도(학교급별)	91
[표 3-52]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 정도(성별+학교급별)	92
[표 3-53]	혐오표현,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등의 정도(전체)	93
[표 3-54]	혐오표현,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등의 정도(성별)	94
[표 3-55]	혐오표현,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등의 정도(학교급별)	95
[표 3-56]	혐오표현,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등의 정도(성별+학교급별)	96
[표 3-57]	가정에서 부모(보호자)나 형제로부터 성차별 경험	98
[표 3-58]	가정 내 가사일 등 집안일 담당(복수응답)	100
[표 3-59]	가정 내 자녀 양육과 교육 담당(복수응답)	101
[표 3-60]	가정 내 경제활동 담당(복수응답)	102
[표 3-61]	어머니와 아버지 간 관계 성평등 정도	103
[표 3-62]	아버지 양육태도 성평등 정도	105
[표 3-63]	어머니 양육태도 성평등 정도	106
[표 3-64]	청소년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	108
[표 3-65]	청소년 또래관계 질(전체)	109
[표 3-66]	청소년 또래관계 질	110
[표 3-67]	청소년 또래압력(전체)	111
[표 3-68]	청소년 또래압력	112
[표 3-69]	관계에 대한 태도(전체)	113
[표 3-70]	관계에 대한 태도(성별)	115
[표 3-71]	관계에 대한 태도(성별+학교급별)	116
[표 3-72]	교사의 성차별 수준 인식(전체)	117
[표 3-73]	교사의 성차별 수준 인식(성별)	119
[표 3-74]	교사의 성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학교급별)	120
[표 3-75]	교사의 성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성별+학교급별)	121
[표 3-76]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전체)	122
[표 3-77]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성별)	123
[표 3-78]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학교급별)	124
[표 3-79]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성별+학교급별)	125
[표 3-80]	온라인 활동 참여 1)인스타그램	127

[표 3-81] 온라인 활동 참여 2)틱톡	128
[표 3-82] 온라인 활동 참여 3)개인방송 콘텐츠 시청(유튜브, 트위치, SOOP(구 아프리카TV), 치지직 등)	129
[표 3-83] 온라인 활동 참여 4)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130
[표 3-84] 온라인 활동 참여 5)온라인 게임/모바일 게임/메타버스 및 VR게임 등	131
[표 3-85] 온라인 활동 참여 6)인공지능 챗봇 등(챗지피티, 이루다 등)	132
[표 3-86] SNS 활동 목적(복수응답)	134
[표 3-87] 개인방송 콘텐츠 시청 내용(복수응답)	136
[표 3-88] 디지털 불안 수준(전체)	137
[표 3-89] 디지털 불안 수준(성별)	138
[표 3-90] 디지털 불안 수준(학교급별)	139
[표 3-91] 디지털 불안 수준(성별+학교급별)	139
[표 3-92] 폭력에 대한 인식(전체)	140
[표 3-93] 폭력에 대한 인식(성별)	142
[표 3-94] 폭력에 대한 인식(학교급별)	143
[표 3-95] 폭력에 대한 인식(성별+학교급별)	144
[표 3-96] 학교 안팎 성폭력 경험을	146
[표 3-97] 성폭력 경험 시 대처 방법(복수응답)	148
[표 3-98] 성폭력 경험 시 그냥 넘어간 이유	150
[표 3-99] 양성평등 교육 경험 여부	151
[표 3-100] 양성평등 교육 진행자	152
[표 3-101] 양성평등 교육 방식	153
[표 3-102] 양성평등 교육 방법	154
[표 3-103] 성교육 경험 여부	155
[표 3-104] 성교육 진행자	156
[표 3-105] 성교육 방식	157
[표 3-106] 성교육 방법	158
[표 3-107]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경험 여부	159
[표 3-108]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자	160
[표 3-109]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방식	161

[표 3-110]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방법	162
[표 3-111]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 동의정도(전체)	163
[표 3-112]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 동의정도(성별)	164
[표 3-113]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 동의정도(학교급별)	165
[표 3-114]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 동의정도(성별+학교급별)	166
[표 3-115]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전체)	168
[표 3-116]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성별)	169
[표 3-117]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학교급별)	170
[표 3-118]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성별+학교급별)	171
[표 3-119] 일 관련 성차별주의 인식(전체)	172
[표 3-120] 일 관련 성차별주의 인식(성별)	173
[표 3-121] 일 관련 성차별주의 인식(학교급별)	173
[표 3-122] 일 관련 성차별주의 인식(성별+학교급별)	174
[표 3-123] 향후 대학교에서 전공하고 싶은 계열	175
[표 3-124] 직업 선택 기준(1+2순위)	177
[표 3-125] 직장 조직문화 내 (성)차별 인식(전체)	178
[표 3-126] 직장 조직문화 내 (성)차별 인식(성별)	179
[표 3-127] 직장 조직문화 내 (성)차별 인식(학교급별)	180
[표 3-128] 직장 조직문화 내 (성)차별 인식(성별+학교급별)	181
[표 3-129] 현재 연애 여부	182
[표 3-130] 향후 연애 의향	183
[표 3-131] 성인이 되었을 때 연애나 결혼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	184
[표 3-132] 장래 결혼 의향	186
[표 3-133] (비혼 의향인 응답자 대상) 비혼 생각 이유(1+2순위)	187
[표 3-134] 장래 자녀 출산 의향	189
[표 3-135] (비출산 의향인 응답자 대상) 비출산 생각 이유(1+2순위)	190
[표 3-136] 잠재집단분석에 활용한 영역 및 문항	191
[표 3-137] 여자 청소년 잠재집단 분류 기준과 비율	193
[표 3-138] 남자 청소년 잠재집단 분류 기준과 비율	194
[표 3-139] 여학생의 성평등 태도 유형별 특성	198

[표 3-140] 남학생의 성평등 태도 유형별 특성	202
[표 4-1] 해외 성교육프로그램 사례	227
[표 4-2] 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의 성평등 전담 부서 현황	234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8
[그림 3-1]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56
[그림 3-2] 온정적 성차별주의 동의율	61
[그림 3-3]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및 군복무 인식 동의율	66
[그림 3-4] 남성성 규범 동의율	72
[그림 3-5] 우리 사회 갈등 인식	76
[그림 3-6] 페미니즘 부정적 인식 동의율	86
[그림 3-7] 가정 내 성차별 경험 비율	98
[그림 3-8]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	114
[그림 3-9] 교사의 성차별 동의율	118
[그림 3-10] 학교생활에서 성차별 동의율	122
[그림 3-11] 디지털 불안 수준	138
[그림 3-12] 폭력 인식 수준	141
[그림 3-13] 학교 양성평등 교육 효과 동의율	164
[그림 3-14]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	168
[그림 3-15] 일 관련 성차별 동의율	172
[그림 3-16] 직장 조직문화 내 (성)차별 인식 수준	178
[그림 3-17] 여학생의 성평등 태도 유형화	195
[그림 3-18] 남학생의 성평등 태도 유형화	196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00년대 이후 나타나는 학업성취에서 여학생의 약진과 고등교육 진학률에서 여성 우위 및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는 에스핑-앤더슨이 제시했던 ‘여성 역할의 혁명’의 단면을 보여준다(에스핑-앤더슨, 2014)¹). 학교 안과 다르게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성별임금 차이나 직무분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젠더불평등이 존재함이 어느정도 수용된다. 한편에서는 교육 영역 내 여학생의 약진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이전까지,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남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의로 발전되기도 한다(엄혜진, 2022). 그러나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이어진 2018년 미투운동(me too movement)과 스쿨미투 운동 속에서 상당 수 여학생들이 학교 내 다양한 성차별 및 성폭력 경험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학교의 문화와 질서가 남성중심적인 성규범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학교 안 폭력과 차별을 발생시키는 점을 지적한다(이혜정 외, 2020). 이후 성평등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급증과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남미자 외, 2022a).

페미니즘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집단적 견제와 반발로서 페미니즘 백래시(backlash)²가 등장했다. 페미니즘은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는 주요 담론으로 부상했고, 특히 20대 남성에서 반페미니즘 인식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김선영, 2023). 언론에서는 청년세대 내 갈등이 뚜렷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청년삶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갈등 인식에 대해 청년의 47.7%가 ‘갈등이 많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갈등이 매우 많다’와 ‘갈등이 많은 편이다’ 응답을 합쳤을 때 청년 남성은 70.5%, 여성은 74.3%를 차지하여 청년층 내 갈등인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정세정 외, 2022). 그러나 젠더의식은 단일한 차원이라 할 수 없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김조은(2024)은 한국 청년층의 젠더의식이 성역할 태도(gender role attitudes)뿐 아니라 적대적 성차별(hostile sexism), 현대적 성차별(modern sexism), 온정적 성차별(benevolent sexism), 페미니즘 의식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됨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년층의 젠더의식이 성평등 지향과 반페미니즘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라 다양한 태도와 인식이 교차하는 다차원적 구조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 에스핑-앤더슨은 여성이 가정 내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가사 및 돌봄 참여는 더디게 나타나는 현상을 “끝나지 않는 혁명(the incomplete revolution)”으로 개념화하였다(에스핑-앤더슨, 2014).

2) 백래시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로 인해 자신들의 권력이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느낀 사람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의미한다(Faludi, 2009, 김재우·이수정, 2024: 260에서 재인용).

이러한 현상에서 문제는 청년세대 내 젠더갈등 양상이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페미니즘 지식이나 젠더갈등을 비롯한 페미니즘 이슈를 습득한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은 자신만의 생각을 발전시키기보다, 주로 접하는 매체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일방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김재우·이수정, 2024).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마주하는 젠더, 페미니즘 관련 지식은 젠더나 페미니즘의 정의나 의미 및 방향과 상관없이 왜곡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한편 학교 안에서도 젠더갈등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 간 갈등보다는 ‘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려고 하는 여교사 vs 여성혐오적 경향을 보이는 남학생’ 구도를 보여(남미자 외, 2022a) 청소년 내 젠더의식에서 성차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있더라도 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은 어떠한가? 최윤정 외(2020)는 사회생활 참여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 청소년 모두 거의 없는 편으로 나타났지만,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책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적합하다’, ‘맞벌이도 가능하지만 생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취직시켜야 한다’는 문항에서는 성별 격차가 나타나, 성별에 따른 역할 분리에서는 여전히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202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초(4-6학년)·중·고등학생의 96.7%가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양성평등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양성평등 의식 긍정비율이 낮아졌다(여성가족부, 2024a).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청소년 내에서도 성별, 연령별(혹은 학교급별) 성평등 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 및 태도에서 주목할 점은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이다. 최윤정 외(2020) 연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은 페미니즘을 성평등과 동의어로서 ‘좋은 것’이거나 여성다움, 남성다움이라는 성별 규범에 반대하는 것, 노동시장 내 성차별에 반대할 수 있는 담론 등으로 이해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남성 청소년들은 페미니즘을 ‘남녀 간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거나 이기주의, 여성우월주의로 언급하거나 무관심을 표하기도 한다. 남성 청소년의 페미니즘 인식과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남성 청(소)년들이 여성혐오 인식이 높거나(안상수 외, 2015), 여성에 비해 강한 백래시 인식 및 행동을 보이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있음을 보여준다(남미자 외, 2022a; 백근영·최바울, 2021). 그러나 남성 청소년 내에서도 페미니즘 인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수정·김자영(2024)은 남성 청소년들이 동일하게 페미니즘을 단순히 부정적이고 위협한 것으로 여기기보다 페미니즘을 둘러싼 이슈와 자신과의 관계 규정을 통해 다양한 갈래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평등 및 페미니즘 인식에 또래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 역시 청소년기의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남궁연·김현주(2021)는 일부 남성 청소년은 동성 또래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여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과 여성을 대상화함으로써 우월한 남성임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즉, 남성 청소년 내 남성성의 정의와 수행방식이 여성혐오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온라인은 청소년들의 혐오 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또래집단은 온라인에서 습득한 것을 반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김재우·이수정, 2024). 온라인 공간은 페미니즘에 대한 정보 습득을 넘어 디지털 성폭력³⁾을 마주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가해자 중 상당 수가 10대라는 점은 청소년에게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은 '그들만의 것'이라기보다 전체 사회의 성평등 인식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과 관련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두거나(남미자 외, 2022a; 이해정 외, 2020; 최윤정 외, 2020), 반페미니즘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으로 10대 남성 청소년을 상정하여 이들의 인식 유형을 살펴보았다(김재우·이수정, 2024; 남궁연·김현주, 2021; 이수정·김자영, 2024). 그러나 젠더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 혹은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인들 사이에서만 조장되는 것이 아닌 모든 세대의 인식과 태도 속에서 얽혀 나타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 역시 전반적인 성평등 태도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서 경기도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중상위권에서 있었던 반면, 2023년에는 중하위권으로 진입하였다. 그 주된 요인으로 양성평등의식의 하락이 지적된다. 양성평등의식은 '여성인권에 대한 태도', '성차별 경험률' 및 '가족내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구성된다. 전년 대비 경기도에서 여성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0%p 줄고(여성 2022년 75.5%→ 2023년 65.1%, 남성 2022년 85.2%→ 2023년 75.4%, 성차별 경험률은 남녀 모두에게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더 공고해진 양상을 보인다(여성가족부, 2024b).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 경기도민 양성평등의식 현황을 검토하여 성평등 인식이 역행하는 이유를 살필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성인(19-65세)을 대상으로 2023년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3)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행하는 성폭력 범죄”(김경희, 김수아, 김은경, 2020: 265)를 의미하며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적 괴롭힘, 단독방 성희롱과 성적 허위사실 유포, 신체 사진이나 성기 사진 등을 이용한 이미지 활용 디지털 성폭력, 지인합성 능력(deepfake), 비동의 촬영과 비동의 유포, 온라인 그루밍 등이 해당한다(김경희·김수아·김은경, 2020: 265-266).

실태조사」(노경혜·정형옥, 2023)를 시행한 바 있다. 성별, 연령별 성평등 인식과 실천에서의 차이를 다루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다루었으나 젠더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주체로서 또한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성 역할 태도나 성평등 의식을 포함한 젠더 사회화 과정(gender socialization)이 나타나며 젠더의식의 발달 및 구축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청소년 세대에서 나타나는 성평등 태도를 살펴보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2023년에 수행했던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며, 기존 조사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생애과정에서 성평등 인식의 중요한 시기로서 청소년기를 상정하고 10대 청소년에 주목한다. 경기도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평등 의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가치관이 청소년기 주된 사회적 맥락이라 할 수 있는 또래관계와 학교 및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연관되어 나타나는지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내에서 나타나는 성평등 의식의 진전 혹은 역행, 페미니즘 백래시라고 보여지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전반적인 성평등 의식의 진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성역할 태도뿐 아니라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 현대적 성차별주의, 페미니즘 인식의 최근 변화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또래문화와 온라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남성 청소년의 또래문화와 성평등 혹은 페미니즘 인식 간 관련성을 탐구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 역시 또래문화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성별 또래문화 속 성평등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되는지 파악한다. 또한 또래문화에서 디지털 매체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경기도 청소년의 성평등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 영역을 확정하였다.

둘째, 기존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의식 관련 조사 검토를 통해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문항 개발을 진행하였다. 청소년은 온라인을 통해 최근 한국사회의 성평등 관련 이슈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물리적으로 성인과는 다른 사회적 관계와 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성평등 실태조사가 계획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

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성평등 인식 관련 조사 검토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관계 맺기에 대한 인식, 결혼과 출산 의향, 일-가정 양립이나 직장 내 조직 문화 등 현재 청소년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구체적 상황에서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성인 대상의 성평등 관련 조사 항목을 검토하여 청소년에 맞게 수정, 적용하였다. 나아가 디지털 안전 및 성폭력과 관련한 부분을 포함하여 최근 성평등, 페미니즘 관련 구체적인 이슈를 언급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묻고자 구성하였다.

셋째,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 현황을 파악하였다. 과거와 비교하여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 인식은 높아졌다고 평가되는 한편 최근 지역성평등지수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강화는 성평등 인식의 방향이 선형적으로만 구성된다고 보기엔 어렵다. 여기에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젠더갈등 이슈나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학교 내 벌어지는 여성혐오, 페미니즘 백래시 등은 청소년 세대 내 성평등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기도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평등 인식과 성평등 수준을 포함하여 포래문화, 디지털문화, 학교생활이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경기도 10대 청소년들의 성평등 실태 현황을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세대의 성평등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그림 1-1]과 같다.

첫째,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젠더의식(성역할 태도, 성평등 인식, 페미니즘 및 젠더갈등에 대한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특히 청소년의 포래문화 속 젠더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기존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성평등 인식 및 실태조사의 기존문항 검토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문항 개발을 진행하였다. 또한 최근 성평등, 페미니즘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전체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온라인, 서면)을 4차례 실시하여 설문지 개발을 완료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앞서 경기도 교육통계DB를 활용하여 2024년 10월 1일 기준 경기도 청소년 모집단 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은 경기도 소재 학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남녀 청소년 1,000명이다. 경기도 교육통계를 바탕으로 성

별, 학급별 권역별 할당을 계획하였다⁴⁾.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은 남녀공학에 속한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성별 분리 학교가 일부, 남녀공학이면서 분반인 학교의 비중은 상당히 적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남녀공학이면서 분반인 비중이 전체의 1%를 차지하였으며, 성별 분리 학교는 5.3%, 남녀공학이면서 합반인 학교는 93.6%였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중학교 3학년에 비해 별학(고등학교 1학년 6.8%, 고등학교 2학년 7.1%)과 분반(고등학교 1학년 5.4%, 고등학교 2학년 4.1%)의 비중이 다소 높으나, 남녀공학이면서 합반의 비중이 약 8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별학과 남녀공학 분반을 제외한 남녀공학 합반인 경우만 표본에 포함하였다.

넷째, 조사 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 제안에 대한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연구 확산을 위해 기획된 GPS(Gender Policy Seminar)를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경기도 의회 의원, 교사 및 청소년 성교육 강사의 토론을 통해 정책 제언을 정교화하였다.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젠더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문헌자료 검토 · 연구계획 보고회, 보고회 결과 반영
2단계	문헌연구 및 자문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 기존문항 검토를 통한 실태조사 문항 개발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자문 의견 수렴
3단계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설계 · 경기도 교육통계를 바탕으로 성별, 학교급별, 권역별 할당 · 경기도 소재 학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1,000명 · 조사 결과 분석 및 집필
4단계	자문회의 및 토론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 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중간 보고회를 통한 전문가 자문 · 제14차 GPS 진행
5단계	보고서 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최종 집필

4)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성평등 의식 관련 기존 여러 조사에서 성별뿐만 아니라 학교급, 남녀공학 혹은 여학교 남학교인지, 남녀공학 재학 중인 경우에도 성별 분반인지에 따라 성평등 의식이나 페미니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젠더의식의 변화와 다차원적 구성
2. 성평등 인식 형성의 중요 시기로서 청소년기
3. 청소년의 또래문화 속 나타나는 성별 갈등, 혐오 및 페미니즘 백래시
4. 청소년 성평등 관련 법령 및 정책
5. 기존 성평등 조사

1. 젠더의식의 변화와 다차원적 구성

현재 한국사회의 성평등 의식은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가? 기존 연구는 성별에 따른 유급노동의 공적 영역 분리와 가족돌봄 책임에 대한 개인의 지지수준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의하고, 사회가 경제발전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근대화를 경험한다면 평등의 방향으로 문화적 태도가 수렴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Davis and Greenstein, 2009). 젠더 이데올로기의 양극단에 평등주의와 전통주의를 배치하여 점진적으로 평등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Inglehart and Norris, 2003). 그러나 상대적으로 성평등적이라 여겨지는 서구 국가들에서도 2000년대 이후 성별직무분리나 성별 임금 차의 감소세는 정체되고, 남성의 가사참여 증가율도 둔화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가정에 의문이 제기되었다(Hook, 2010; Knight and Brinton, 2017; Perales et al., 2019).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역행하는 지점을 보이고 있다. <지역성평등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여성 인권에 대한 태도나 성차별 경험률 및 가족내 성역할 고정관념은 최근 몇 년 사이 더 성별고정관념이 굳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문항 중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있어 2020년 기준 경기도에서는 47.6%가 동의했던 한편, 2023년에는 66.5%로,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있어 2020년 기준 33.7%에서 2023년에는 51.4%로 나타났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문항의 응답에서도 동의 비율이 2020년 36.1%에서 2023년 62.1%로,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라는 응답에서도 2020년 35.7%에서 2023년 63.1%로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화된 현상을 보여준다.

성평등 의식 변화의 지체 현상에 대해 잉글랜드(England, 2010)는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가라는 실제 역할의 변화와 더불어 성평등 의식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나, 남성에게는 그러한 의식의 변화가 매우 더디거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여성 내부에서도 계층에 따라 성평등 의식은 불균등하게 분포하며 그로 인해 여성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돌봄과 ‘여성 직업’에 대한 가치절하 및 보상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한다(England, 2010). 즉, 성평등 의식의 변화는 성별에 따라 또한 같은 성별 내부에서도 다른 속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젠더 이데올로기가 변화한다는 가정은 최근 출생 코호트일수록 이전 출생 코호트에 비해,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평등주의적 태도를 갖는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영국

의 패널데이터를 통해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이전 세대(older cohorts, 1940-1950년 출생)일수록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나, 나이듦(ageing)에 따라 젠더 이데올로기가 일부 진보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발견했다(Perales et al., 2019). 그러나 나이듦이 가져오는 성역할 태도 변화의 효과가 젊은 세대(1970-1980년대 출생, 2000년대 이후 성인 초기를 경험한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연구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수준, 직업 경험, 가족구성 형태 등이 훨씬 더 다양하다는 점을 꼽는다. 또한 젠더 평등 담론이 확산되었지만 동시에 백래시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SNS나 미디어를 통한 젠더 논쟁, 혐오 담론 등은 젊은 세대에게 성평등과 관련한 혼재된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젊은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지, 저출생 현상은 이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쳐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성역할에 대한 실천적 태도와 가치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태도가 일관되게 진보하거나 후퇴하기보다는 혼재되거나 유동적인 상태로 나타난다고 제시한다(Perales et al., 2019).

유사한 맥락에서 일본사회를 대상으로 한 국외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약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Piotrowski et al., 2019). 여기에서 특징적인 점은 청소년기 당시 엄마가 전업주부이며,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에 속한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아동기부터 초기 성인기에 이르는 시기까지를 가치관 형성 시기(formative years)로 정의하고, 이 시기 가족생활에서의 경험이 이후 성역할 태도에도 장기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Piotrowski et al., 2019). 위와 같은 논의는 전반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의 변화 속에서도 성별과 연령 뿐 아니라 어린시절 가족생활에서의 경험이 이후 성역할과 관련한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요컨대, 최근 출생 코호트이면서 연령이 낮을수록 평등주의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세대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여성이 더 평등주의적인 경향을 띠는 성차는 이어지나 이러한 경향 역시 가족 내에서의 경험과 최근 나타나는 백래시와 미래 전망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젠더갈등’과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젊은 층 남성들의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철회와 여성성에 대한 수용적 태도 이면에 이들 세대에서의 성차별 및 반페미니즘 의식에 대한 강화 또한 관찰된다는 점이다(김선영, 2023; 최종숙, 2020). 일례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체감도에 있어 2, 30대 여성은 70% 이상이(20대 여성

73.4%, 30대 여성 84.5%)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응답한 반면, 20대 남성은 29.2%, 30대 남성은 40.7%에 그쳤다(여성가족부, 2021). 2, 30대에서 보여주는 성평등 수준 체감에서의 격차가 40대 이상에 비해 상당히 크며, 특히 20대에서 두드러진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세대의 젠더의식이 더 이상 성역할 태도로만 측정되지 않으며 젠더갈등의 양상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과 연관된다. 김조은(2024)에 따르면 청년의 젠더의식은 성역할 태도를 넘어 온정적·적대적 성차별주의와 현대적 성차별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차원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성역할 태도도 전통적 혹은 평등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노동시장 내 성평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돌봄과 가사에서는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성역할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 본질주의(egalitarian essentialism)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Begall et al., 2023).

또한 심리학 분야에서 제시한 양가적 성차별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에 따르면, 성차별은 특정 성별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며, 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는 양가적 차원으로 구성된다(Glick and Fiske, 1997). 먼저, 부정적 평가인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의 권리 확대, 독립성,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도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하며,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조한다. 긍정적 평가인 온정적 성차별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행동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여성을 전통적 성역할로 위치시키는 태도를 의미한다. Kim(2025a)은 한국 청년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가 ‘남성 우월주의’와 ‘남성 피해의식’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고 있고 있으며, 특히 남성 피해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새로운 차원의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사한 맥락에서 현대적 성차별(modern sexism)에 대한 논의는 “성평등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페미니즘 운동이나 성평등 정책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wim and Cohen, 1997). 최근에는 남성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남성성에 대한 ‘역차별’ 담론으로도 확장되고 있다(Off et al., 2022).

즉, 한국사회의 젠더의식은 성역할 태도의 측면에서만 설명되기 어려우며, 특히 청년세대의 젠더의식은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평등 태도를 성역할 태도뿐 아니라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현대적 성차별주의를 함께 살피고자 하며, 특히 현대적 성차별주의에서도 남성성에 대한 역차별 논의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다차원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2. 성평등 인식 형성의 중요 시기로서 청소년기

한국사회에서 10대 청소년은 오랜시간 미성숙하며 불완전한 존재로서, 사회적 보호 대상 중 하나로 여겨졌다.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들의 성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는 제한되고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일련의 사회 정치적 사건들에 10대는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젠더감수성과 평등감수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평가된다(김수자, 2019: 99-101). 10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사회 현상이나 흐름을 비롯하여 이들의 경험은 성인과 다르다. 또한 전체 생애과정에서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가 집중되는 시기로서 성평등 의식을 비롯한 가치관 형성이 진전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Ullich et al., 2022).

Rosenfield(1999)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젠더화된 사회화 과정(gendered socialization)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신체적 변화 과정에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젠더를 인식하는 동시에 부모와 교사 및 또래를 비롯한 타인은 청소년에게 ‘여성됨’과 ‘남성됨’을 강조한다. 즉, 청소년기 개인들의 행동 및 사고에서 젠더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는 개인의 성격특성으로도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Rosenfield, 1999). 따라서 청소년기 형성된 젠더와 관련된 가치관은 앞으로 진전될 전체 생애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Guerreo and Schober, 2021).

Piotrowski et al(2019)은 각 출생 코호트의 아동기부터 청년기 초반까지를 ‘(가치관)형성 시기’로 정의하여, 이 시기 경험한 고유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일본의 성역할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형성 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구축되며, 이때 갖게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이후에도 지속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및 태도에 대한 파악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전체 생애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로 10대 남성 청소년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페미니즘 백래시나 극우화를 비롯한 현상은 성평등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0대 남성 청소년 내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이수정과 김자영(2024)은 10대 남성 청소년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분법적 구별에 따른 일방적 탄식형’, ‘양면성 검토에 따른 보수적 수용형’, ‘사례 이입에 따른 실리적 기대형’, ‘공감적 이해에 따른 소극적 존중형’의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 페미니즘

에 대해 단순히 부정적인 인식을 지녔다기보다, 페미니즘을 둘러싼 여러 이슈와 자신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다양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이수정·김자영, 2024). 이러한 연구 결과는 10대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현존하는 젠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10대 청소년들의 성평등 인식이 다양한 갈래가 존재함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 유형별 성평등 교육에 대한 접근을 달리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성평등 의식 및 태도에 대한 성별 격차가 청년세대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년 세대 내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아래 세대인 청소년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수행된 「양성평등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에 있어 여자 청소년은 60.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자 청소년은 31.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20대 남성(29.2%) 다음으로 남성의 동의율이 낮게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 청년 층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태도와 성평등 인식은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윤정 외(2020)의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은 우리사회가 일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및 여성혐오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자 청소년은 ‘여자들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운다’, ‘가정과 직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성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은 여성의 권리나 양성평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청년세대 내 젠더갈등이 청소년 세대에서도 재현된다 할 수 있다(최윤정 외, 2020). 따라서 청소년기에 구축된 젠더 가치관은 이후 생애 전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은 세대 간 젠더 인식의 차이 형성과 재생산을 이해하는 데 핵심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3. 청소년의 또래문화 속 나타나는 성별 갈등, 혐오 및 페미니즘 백래시

가. 청소년기 젠더의식 형성에서 가족의 역할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족 내 성역할 태도이다. 가족 내 성역할 태도는 임금 노동과 가사노동 및 돌봄 부담뿐 아니라 부부 간 관계, 나아가 양육태도와도 연관된다. Dawson et al.(2016)에 따르면 부모의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 부담은 모두 자녀의 성역할 태도와 유의미하게 연관되었다. 특히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이고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녀의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와는 관련성이 없어 아버지의 성평등적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달리 Guerrero and Schober(2021)는 어머니의 젠더의식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젠더의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시에 어머니의 취업 여부 역시 청소년의 평등적인 젠더의식과 연관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가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일 수록, 나아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경우 자녀의 성평등 의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어 부모의 성역할 태도와 더불어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장영애·김용미, 2010).

그러나 Guerrero et al.(2023)의 연구는 부모와 더불어 친구와 학급 친구가 젠더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젠더의식 형성에 있어 청소년기에도 부모의 영향력이 지속됨과 동시에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부모, 친구 및 학교 친구의 젠더의식이 서로 다를 때 청소년은 보다 평등주의적 신념을 가진 집단의 태도에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된 평등주의적 규범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본다. 또한 학급 친구보다는 친구가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때 당사자 역시 평등주의적 태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전통주의적 태도와 유사해지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Guerrero et al., 2023).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젠더의식은 친밀하게 여겨지는 또래와의 태도 차이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성평등 의식 형성은 부모의 성역할 태도의 영향을 넘어,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평등주의적 규범에 대한 적응 과정을 통해 점차 확장되고 변화하는 다층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 청소년기 또래문화와 젠더의식의 형성: 남성 또래문화의 특수성

청소년기에는 주요 사회화의 행위자(agents)가 부모에서 또래 친구들로 변화하며 인간관계 내에서 친밀성을 발전시키기 시작하고 관계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기 시작한다(Umberson and Montez, 2010; Steinberg, 2014).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서 구성원들과 사고, 가치, 태도, 규범 및 사회적 실천들을 공유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한다(Crosnoe, 2000). 이 시기에 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삶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원을 얻으면서 서로의 공통적 욕구, 규범 등을 확인하게 된다(유지연, 2017: 7). 청소년기에 또래와의 질적인 상호작용 정도, 즉 관계의 친밀도, 갈등 해결 정도 등을 의미하는 또래관계의 질은 사회성 발달, 학교 적응, 외로움 및 우울 감소 등에 영향을 준다(배성만 외, 2015). 이와 같은 또래관계의 질은 청소년기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성 정체성 형성 역시 청소년기의 발달 과정에 있으며, 청소년에게 또래와의 상호작용

은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역사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젠더규범과의 영향을 주고받는 까닭이다. 특히 청소년기 또래문화는 집단 감정이 강력하게 작동하는데, 가치, 규범 등을 감정을 통해 공유하게 된다. 감정은 단순히 나 또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는 우리가 타자에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효과이다(Amed, S., 2014; 2023). 이는 청소년의 젠더규범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오윤선, 황인숙, 2016).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은 특정집단, 예컨대 또래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공유된 규범을 강화하고 재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또래문화와 규범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젠더규범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젠더규범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또래문화는 기존의 성별 이분법 또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실천 행위가 기존의 젠더규범을 공고히 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기 성별 서로 다른 또래문화 속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젠더규범을 재생산하고 실천하기도 한다. 실제로 젠더 이슈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는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를테면 페미니즘 백래시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백래시 행동에 있어서 남학생이 페미니즘 백래시에 대해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실제 백래시 행동에서도 여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미자 외, 2023). 그 밖에도 여학생의 미투운동 지지는 2/3에 가까우나, 남학생의 경우는 미투운동에 동의하는 정도가 절반에도 이르지 않는다(최윤정 외, 2019b: 383-386). 이러한 차이는 페미니즘 수용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예컨대, 여성 청소년은 2015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감각을 공유하면서, 불평등화된 젠더 위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으나(남미자, 2019), 남성 청소년은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토대로 젠더규범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 물론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남성 청소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남성 청소년의 또래문화는 사회적으로 퍼져있는 여성혐오를 토대로 한 역차별 담론의 실천 장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크다.

특히 남성 청소년은 그들이 규정한 남성성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친구를 또래집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남성들 간에 배타적으로 형성되는 강한 유대 관계”, 즉 남성 동성사회성(male homosexuality)이 나타난다(남미자 외, 2022b: 33). 남성 동성사회성은 이브 세즈웁(Sedgwick, 1985)이 제안한 개념으로, 여성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성적 주체로서 남성 존재의 동성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담론의 실천이다. 남성 동성사회성은 여성 및 동성애 혐오를 기반으로 유지되며, 성적 주체로서의 남성과 동일시되지 못하는 남성 역시 배제된다(우에노 지즈코, 2010). 따라서 남성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여성혐오 정서

의 강화는 현재의 젠더 질서 내에서 성적 주체로서의 남성과 동일시되고 싶으나 동일시 될 수 없는 심리적 불안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남성 청소년의 정서를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의 시간〉은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소년의 시간〉의 주인공인 제이미는 연애와 성관계를 원하지만 좌절된, 이른바 ‘인셀(Incel: Involuntary Celibate, 비자발적 독신자)’이다. 여성의 대부분이 상위 남성 20%에 끌린다는 담화를 통해 자신이 경험하는 성적 좌절을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으로 전이시킨다. 즉, 남성성의 위기라는 정동은 모순적이게도 마초적 남성을 갈구하는 방향으로 발현된다(이선옥, 2015). 이러한 청(소)년의 여성혐오 정서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재현되고 확장된다.

최근 청소년 세대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성별 인식의 변화와 젠더 이슈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 역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또래집단은 성별 갈등, 혐오 표현, 페미니즘 백래시 등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다. 청소년기 또래문화는 가치관 형성의 핵심 토대이다. 청소년기는 보호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로, 사회적 관계가 또래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 또래문화는 비슷한 연령, 성별, 학년 등의 동질성 속에서 사회적으로 동일시하면서 형성된다.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은 서로에게 근접성을 느끼고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를 사회화시키는 까닭에서, 혼자 있을 때는 하지 않는 행동을 또래집단 속에서는 하게 된다. 즉, 또래집단 내에서 공동의 가치, 태도 등의 규범을 수행하도록 하는 무언의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이혜미 외, 2016). 이와 같은 또래압력은 청소년에게 사회성 발달, 자아효능감 등의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발생시킨다. 예컨대 이혜미 외(20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온라인 유해정보 노출 또는 일탈행위의 동인으로 또래와의 관계 유지와 동조, 즉, 또래압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청소년기 또래문화는 가족에서 또래로 사회화의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젠더 의식 형성의 핵심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래문화와 젠더규범은 긴밀하게 연관되며, 특히 남성 청소년의 또래문화는 성별 이분법과 여성혐오 정서를 토대로 형성 및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또래문화의 구축 및 혐오 공유

청소년에게 온라인이라는 시공간은 정보를 공유하고 습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관계맺기의 장이다. 온라인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일상적 공간으로써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장으로서 기능한다(이혜정·임혜경, 2024).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3-2027)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은 디지털과 함께 성장하며 문화에 익숙하며 관련 온라인 및 기기 활용에도 능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정의된다(관계부처합동, 2023:5).

한편, 청소년의 온라인 미디어 이용 패턴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오랫동안 논의 돼 왔다. 여성 청소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남성 청소년은 게임 등 놀이의 도구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송요셉 외, 2009). 상대적으로 남성 청소년의 온라인 문화는 유희, 오락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극단적인 성차별적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온라인 게임 유저 거의 대부분이 혐오 발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된다(김미선 외, 2019; 오마이뉴스, 2017.3.6.). 온라인 게임에서의 혐오 발언은 주로 여성과 성소수자를 향한 것이며, 그런 까닭에 남성 청소년 유저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온라인 문화의 한 축으로 여성혐오가 자리잡고 있다. 게임과 같은 놀이의 영역에서는 기술 영역의 남성의 우위를 전제하고, 여성을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한 이들끼리의 협업을 통해서, 기존의 남성성 규범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김수아·이예슬, 2017). 게임 등으로 확장된 혐오 문화는 청소년 또래문화의 한 영역으로, 특별히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더라도 일상적 언어로 여성 및 소수자 혐오 발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혐오 발화가 남성성 인정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경향신문, 2025.3.3.). 온라인 공간에서의 문화형성 방식과 영역이 달라지면서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의 성평등 격차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을 주로 의사소통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연대의 사회적 경험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스쿨미투, 12.3계엄 등에서 여성 청(소)년은 온라인 혹은 SNS와 같은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환대와 연대의 경험은 온라인을 넘어 광장으로 확장이 되었다(유현미 외, 2025). 이에 여성 청(소)년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부끄러운 경험으로 여기던 전통적 사고와 달리 피해사례를 공론화하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 외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은 기존의 사회규범을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남성 청소년들은 이러한 여성 청소년의 대응에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이라고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또 상대적으로 성희롱·성폭력 대한 감수성과 인식 수준이 낮은 남성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며 이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다(최윤정 외, 2019a: 301-302). 사회적 분위기 변화로 인하여 수업시간 또는 학교의 공론장에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남성 청소년들은 그들의 불만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게 되고, 그 속에서 그들의 감정은 특정한 방향, 예컨대 여성혐오, 역차별 등으로 흐르게 된다.

김수아와 이예슬(2017)은 온라인 공간을 남성-약자와 여성-메갈-범죄자로 대비하는 담론을 확장편향시키는 장소로 명명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내 동질화된 의견이 공유화된 내러티브로서 공통의 감각을 만들고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집단 정체성의 형성은 우리 바깥의 타자와의 경계를 공고히 하고,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뿐 아니라 담론의 확장편향에 있어서 유튜브, 웹툰 및 웹소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특정 방향으로 편향된, 예컨대 여성 혐오적이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라는 공통 감각은 편향적 온라인 매체의 사용으로 더욱 극단적으로 된다는 데 있다. 온라인은 성평등과 관련한 최근의 이슈 및 여러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주된 통로가 되어 청소년들의 젠더규범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최윤정 외, 2021).

특히 10대 남자 청소년들은 온라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페미니즘과 관련된 정보를 접함으로써 성차별, 젠더폭력, 성평등 및 페미니즘 백래시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보고된다(김재우·이수정, 2024; 남미자 외, 2022a; 최윤정 외, 2020). 이혜정 외(2022)는 온라인에서 접하는 성 표현물들의 대부분은 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 질서가 반영되어 있으며,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여성의 몸은 이성애 관계에서 성적 대상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이 디지털 성폭력과도 연관됨을 밝혔다. 예컨대 2024년 이슈화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⁵⁾’는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서 10대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⁶⁾. 딥페이크 성범죄는 불특정의 누군가가 아닌 같은 반 친구 혹은 교사를 대상으로 벌어지기도 한다⁷⁾. 이 지점에서 현재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및 태도는 온라인 공간의 이용과 자주 접하는 매체의 콘텐츠와 연관되어 살펴야 함을 알 수 있다.

라. 학교 내 페미니즘 백래시와 능력주의와의 연결

결과적으로 청소년 사이에서 차별과 혐오는 일상화되었으며, 유희(놀이)의 차원에서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이들, 예컨대 여성, 성소수자 등이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청소년의 여성혐오와 반페미니즘 정서는 범죄로 이어지

5) 김수아(2024)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2010년대 중반 개인의 이미지와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여 유포하는 소위 ‘지인합성’문제가 생성형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확산”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수아, 2024: 189-190).

6) 뉴스1(2025.3.30.). “딥페이크 10대에서 폭넓게 발생...강한 처벌 인식 심어줘야”,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734018>(최종검색일: 2025.5.13.).

7) 여성신문(2025.4.11.). “폭행 불법촬영 딥페이크...소년들 범죄 타겟 된 여성 교사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579>(최종검색일: 2025.5.13.).

기도 하는데,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가해자 중 10대 청소년 비율이 80%를 상회한다(송승현 외, 2025). 이러한 직접적 행동은 여성혐오적 정서를 기반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라고 볼 수 있다. 최윤정 외(2019a)에 의하면, 학교생활 중에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구분하거나 특정 성에 대한 비하나 조롱 등의 발언을 성차별 경험을 한 여학생은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우며, 그런 발언의 행위자 절반 이상이 남학생이다. 또한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를 했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비율 역시 70%를 상회하여, 혐오 정서가 실제 가해 행동으로도 전환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라는 공간은 경우 모두가 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평해 보이는 공간이나 이 공간 안에서 차별, 배제, 혐오가 구조화되어 재생산되는 장소이기도 하다(이혜정 외, 2019). 또래문화 속에서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작동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외모 평가와 조롱은 청소년 집단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특히 남성 청소년 사이에서는 여성혐오적 언행이 놀이문화로 정당화되기도 한다(김애라, 2017; 이혜정 외 2020: 4 재인용)⁸⁾.

최근 10대 남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극우화’ 현상⁹⁾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젠더, 계층,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며 페미니스트, 소수자 등 특정 집단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된다. 중고등학교 내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인식과 행동이 실재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러한 인식과 행동이 높게 나타난다는 남미자 외(2022a)의 연구 역시 학교가 성불평등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는 실재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러한 인식과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 양상은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교사와 학생에 대한 조롱, 성평등을 지향하는 동아리 게시물의 훼손, 페미니즘적 수업에 대한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결국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성불평등적 인식과 반페미니즘 행동이 확산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과 성소수자 학생과 교사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 할 수 있다.

8)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장 제1절 제5조 1항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항에는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학교 현실에서는 빈번하게 인권 침해 및 차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9) 주간경향(2025.3.10.). “극우 세계관,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주류”,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503030600021&code=115(최종검색일: 2025.5.13.).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는 페미니즘 운동의 성장 과정에서 언제나 나타난 현상이다(남미자 외, 2023: 91). 즉, 성평등 때문에 개인의 불안과 불평등이 확산되었다고 확신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까닭에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는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와 연결되며, 최근에는 페미니즘을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능력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을 훼손하는 것으로 페미니즘을 지목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내면화한 세대로서 현재 청소년의 여성 및 소수자 혐오, 더 나아가 백래시 등 혐오 행동의 기저에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능력주의적 접근 속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력을 가질 수 없는 남성 청(소)년들은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을 불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사실상 학교는 능력주의로 점철된 경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능력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 작금의 현실에서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능력없음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남미자, 2019). 즉, 여성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가 아닌 능력의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젠더 권력을 은폐하는 동시에 성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가부장적 질서와 사회구조에 의한 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 곧 페미니스트들은 특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둔갑된다(김수아·이예슬, 2017). 이는 일상에서 느끼는 좌절, 소외, 배제, 도태, 방임 등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김현수, 2025). 능력주의를 내면화한 (주로 남성) 청소년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상화된 남성성과 동일시할 수 없는 상태의 원인을 여성과 소수자에게 투사하게 된다. 동일시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화된 남성성, 즉, 전통적 남성성과 동일시될 수 없는 이유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고 여성과 소수자를 방해자로 지목하면서 남성 청소년의 남성성에 대한 동일시는 더욱 강화된다.

남성 청소년들은 남성성으로의 동일시에 실패하게 되어 '약한 남성' 된다는 것을 유리 지하실에 갇히는 것과 같다고 느낀다. 즉 여성이 느끼는 유리 천장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김현수, 2025: 114-115). 이때의 불안과 공포는 남성성에 대한 동일시에 대한 욕구를 더욱 강화하게 되며, 남성성으로의 동일시에 실패하게 하는 대상으로 여성과 소수자를 지목한다. 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행동으로 이어진다.

교육 현장에서 공고하게 작동하는 능력주의는 남성 청소년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과 백래시에 관한 관심 또는 교육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억압, 불공정, 차별을 겪었다고 인식하는 소위 '약한 남성'으로 정체화되는 남성 청소년들이 반페미니즘을 일종의 게이트웨이로 극우

파시즘으로까지 연결하고 있다. 극우 청소년들의 “어떤 사람들은 죽여도 돼”와 같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과 행동에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은 제노사이드의 징후인 까닭에(신진욱, 2025.9.12.), 청소년 페미니즘의 백래시 문제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관심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4. 청소년 성평등 관련 법령 및 정책

현재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 교육)¹⁰⁾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¹¹⁾을 법적 기반으로 하며,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24.10.21. 교육부)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편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양성평등교육은 안전·건강, 인성, 민주시민 교육 등과 통합하거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양성평등교육에 할당된 시간이 온전히 양성평등교육으로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교과서 내 성인지 관점 반영, 교사 연수, 폭력 예방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표 2-1]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4-1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이다. ‘양성평등교육 활성화’의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의 일환으로 최근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를 발간 및 배포한바 있다. 양성평등교육을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교육부, 2015.10.14.), 교과 수업 중 양성평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

10)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다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11)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1.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2.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3.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4.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이 해당함. 또한 ③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표 2-1]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4-1.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구분	내용	세부내용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교과서 개발 및 수정·보완 시 성인지 관점 반영	- 성인지적 초·중등학교 교과서 개발을 위한 자료 개발·배포 - 교과서 모니터링 내 성인지적 관점 지속 반영
	범교과 학습주제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건강, 진로, 인권, 이성,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양성 평등교육 연계 강화 - 통합적 양성평등교육 추진을 위한 범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배포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교육 지원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양성 지원 - 학교 양성평등교육 우수 사례 발굴·보급
	양성평등 교육자료의 다양한 개발 및 확산	- 학교급별, 교과별 양성평등교육 자료 개발 - 양성평등교육 교수자료의 홍보 강화 및 확산 추진
양성평등한 진로선택 지원	여학생 STEM 분야 진출 강화	- 여학생들의 공학분야 진로 확대를 위한 공학전공 체험, 진로 교육, 멘토링 등 추진
	학교 진로교육에서의 성인지 관점 강화	- 교원 대상 진로교육 시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교육 환경 성차별 개선	(예비)교원 대상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실시	- 예비교원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 적용 - 교원 및 학교 관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성인지 교육 강화	-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내 성인 지감수성 교육 강화 - 주요 종사자 대상 양성평등한 아동·청소년 지도서 개발 및 배포
	학교 생활지도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 개선	- 학교의 성차별적 생활지도 및 교사의 성차별적 언행 예방 위 한 인식 개선 자료 개발 -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학교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성별 균형 확보를 위한 시도별 기준 마련
	학교 시설 및 물리적 환경 운영에서의 성차별 개선	- 남녀학생 탈의실 분리 및 시설 확충 -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등 주요 시설에서의 불법카메라, 외부 관찰 가능성 등 점검 실시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체계 개선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통합적 운영 기반 강화	-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과의 통합 운영 기반 마련 - 정책 이해를 돕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교육청 대상 관련 간담회 실시 - 학교 현장의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학교 양성평등교육 자료 활용 지원	- 학교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취합 및 온라인 채널 탑재를 통한 교사의 수업 활용 지원
양성평등 고등교육체계 기반 마련	국립대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 양성평등 추진 실적 우수 대학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 양성평등 추진 미흡 대학에 대한 컨설팅 실시 - 대학 내 성별 다양성 추구를 위한 심포지엄 실시 등 관련 네 트워킹 강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양성평등 체제 지원	- 성차별 예방 및 양성평등 조성을 위한 대학 내 협업체계 점검 - 대학 내 양성평등 실태 점검 및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 대학 교원, 인권센터 종사자의 양성평등 전문역량 강화 지원

주: 여성가족부. (2023).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p.56-58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5 생활인성교육 정책 추진 기본계획>에서 V.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1.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 2.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운영 및 대응 체제 강화 및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난다.

[표 2-2]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구분	내용	세부내용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 내 양성평등교육 운영 지원	- 교육공동체 대상 「다가가는 양성평등up! 교육」 지원 사업 - 학교 양성평등교육 문화 확산 지원
	자율적인 양성평등교육 및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 자율적인 학교 양성평등교육 지원 -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및 대응 체제 강화	교육공동체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 교육공동체 대상 폭력 예방교육 운영의 내실화 - 학교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교육 강화 지원	- 기관별 사안처리 지원 컨설팅 강화 -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방안
	사안처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 경기도교육청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신고센터 운영 - 교육지원청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신고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한 사안처리 지원	- 기관별 예방지침 수립 및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 기관별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	- 디지털 성범죄 신고·지원 체계 홍보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지원 강화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 및 점검 체계 강화	- 학교 내 불법촬영 차단을 위한 환경 조성 - 교육공동체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주: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2025). 2025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p.36-39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을 목표로 [표 2-3]과 같이 2개 추진 영역하에 각 주요 과제 총 5개로 추진 체계를 작성하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세부내용 중 학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1. 양성평등교육 활성화-③교육공동체 대상 양성평등교육 운영에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증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④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기회 제공에서는 교육지원청 양성평등 업무담당자와 경기도교육청 직원의 양성평등교육 관련 연수가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학교 내 [디지털]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1.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②전담조직·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통합적 대응체제 마련에서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양성평등담당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디지털 등) 사

안 예방·대응 지원, 성희롱·성폭력(디지털 등) 사안 피·가해자 교육 및 피해자 보호 등 일상회복 지원이 해당한다. 2.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응-②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대응 역량강화 및 교육자료 개발의 대상으로 학생, 교직원, 양육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3.[디지털]성희롱·성폭력 피해 조치 강화-③지역연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지원 강화 측면에서 지역 내 성폭력 상담소뿐 아니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으로부터 신고·상담·치료·법률·삭제·모니터링 등을 제공받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표 2-3] 경기도교육청 2025 학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디지털]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계획

추진 영역	주요 추진 과제	세부내용
학교 양성평등 문화 확산	1.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① 학교별 양성평등교육 계획 수립 및 양성평등 실천주간 운영 ²⁾ ②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③ 교육공동체 대상 양성평등교육 운영 ④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교육 기회 제공
	2. 성별영향평가 추진	①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
학교 내 [디지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① 교육공동체 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통한 예방 강화 ② 전담조직·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통합적 대응체제 마련 ③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공정한 사안처리 강화 ④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담당자 역량강화 ⑤ 성범죄 신고의무 과태료 부과 및 성범죄 조회를 통한 예방 강화
	2.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응	①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 ②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대응 역량강화 및 교육자료 개발 ③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환경 조성
	3. [디지털]성희롱·성폭력 피해 조치 강화	① [디지털]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② [디지털]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강화 ③ 지역연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지원 강화

주: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2025). 2025 학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디지털]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계획. p.6.

살펴본 것처럼 양성평등교육 관련 법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학교 교육에서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려는 제도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을 활성화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종합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두 계획에서 모두 성평등을 단일 교과나 특화 프로그램의 영역이 아닌 학교문화 전반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2025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에 집중되어 있어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12) 학교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 양성평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및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문항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초·중등 양성평등 교육 체계 개선’은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과의 통합 운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2025 생활인성교육 정책 추진 기본계획>의 ‘자율적인 양성평등교육’ 계획의 경우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양성평등교육의 한계를 짚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5. 기존 성평등 조사

성평등과 관련한 기존 조사 현황 파악을 통해 경기도 10대 청소년의 성평등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성평등 태도는 전반적인 사회의 젠더의식의 영향과 청소년기 고유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기존 경기도에서 행해진 성평등 의식 관련 연구와, 전국과 광역시도 단위에서 진행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의식 관련 조사를 검토하였다.

가. 경기도 성평등 의식 관련 조사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13)에 따라 전국 단위에서 양성평등실태조사를 5년을 주기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과 실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노경혜·정형욱, 2023).

경기도에서 진행된 성평등 의식 관련한 조사로는 「2012년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정형욱·안태윤, 2012),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정형욱·신경아, 2016) 및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노경혜·정형욱, 2023)가 존재한다. 2012년과 2016년에 진행된 두 연구에서도 젠더기반 폭력이나 성평등 의식,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 및 여성정책과 성평등과의 관련성 등 성평등과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어 수행되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경기도민의 성평등 정책 수립에 집중되어 있어 성역할 태도나 경제활동 시 차별의 경험 등 성평등 인식 및 태도 파악에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진행된 2023년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성평등 의식, 성차별 경험을 파

13)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 제1항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시하여야 함이 제시되어 있다.

악하고자 했으며 경제활동과 안전 영역 등을 확장하여 사회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평등 실태를 살펴보았다. 해당 조사는 2023년 5월 12일부터 6월 6일까지 조사회사가 소유한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최종 수집된 인원은 2,016명이다. 연구 결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그와 관련한 다양한 가치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성별, 세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다(노경혜·정형욱, 2023).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에 있어 성별, 세대별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수적 태도를 보인다. 남성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성차별주의 태도(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모두에 있어 여성보다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여성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여성 내 세대 간 차이가 존재했다. 반면 남성은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여성에 비해 적었는데, 대표적으로 20, 30대 남성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동의를 보였으나, 남성의 지위변화에 대해서는 가장 수용적인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강한 남성이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적대적 성차별주의 태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 성평등정책과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20, 30대 남성들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둘째, 성평등 가치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성역할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성평등 수용과 관련한 문항과 성평등 가치에 대한 동의와 실천 관련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의하여, 연구자들은 성평등이 하나의 도덕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성역할에도 변화가 있다는 점은 수용하나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는 문항의 응답에서는 성별, 연령별로 큰차이가 없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돌봄역할에 대한 기대와 모성에 대한 신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자녀유무와 자녀 성별에 따라 성평등 수준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이 달리 나타났다. 여성들은 유자녀이면서 아들만 가진 경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와 미래의 성평등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반면, 남성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여성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넷째,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속된다는 것으로, 경기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가사 및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한 경우더라도 남성에 비해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들은 정책 제언의 첫 번째 내용으로 ‘젠더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을 꼽았다. 여성들은 성평등 가치를 남성보다 빨리 수용하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남성에서는 20, 30대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나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같은 청년세대 내 성평등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 사회의 젠더 등에 대한 인식에서도 응답자의 80.1%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30대 이하에서 두드러졌다(노경혜·정형욱, 2023: 253-254).

이와 같이 청년세대에서 보여지는 젠더갈등에 대한 성별 격차와 경향은 청소년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을 통해 청년세대 내 벌어지는 서로 다른 성별에 대한 혐오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및 페미니즘 백래시에 대한 견해를 비롯한 성평등과 관련한 정보를 직,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세대와의 연속선상에서, 곧 성인기에 진입할 세대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형성과 유지 및 확산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4] 경기도 성평등 의식 관련 연구 주요내용

조사명	연구대상 및 방법	구분	주요내용
정형욱·안태윤. (2012).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거주 만19~64세 남녀가구주 여성가구원 1,995가구 3,647명 설문조사	여성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여부, 고용형태, 종사산업, 종사직업, 월평균급여, 일·가정 양립 어려움, 근로시간 구직여부 및 희망고용형태, 구직어려움, 구직활동하지 않는 이유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취약계층 여성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여성지원정책 미혼모 지원정책 여성노인 지원정책 여성 장애인 지원정책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 취약계층 여성정책 우선순위
		여성폭력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정책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위한 정책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여성건강, 문화,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상태,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정책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희망하는 평생교육 분야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학전 자녀유무(만 6세미만), 자녀현황, 자녀 양육의 어려움, 취학전 자녀양육 정책 우선순위 취학자녀 유무,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 순위

조사명	연구대상 및 방법	구분	주요내용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계획,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의 중요도
		정책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여성·가족정책 향상도,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가족정책
정형욱·신경아. (2016).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거주 만19~64세 성인남녀 1,045명 설문조사	성평등 의식 및 사회변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 생각하고 있는 성평등 의식 10년 후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
		성차별 경험 및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 유무 현재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생각 10년 후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변화에 대한 전망
		경기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들의 중요성 경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성평등 정책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경력유지(경력단절예방)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 고용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 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지역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 경기도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
노경혜·정형욱. (2023).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도거주 만19~64세 성인남녀 2,016명 설문조사	도입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지역, 성별, 연령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분업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 (남성/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변화하는 젠더관계 및 역할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성역할 변화 수용 정도 성차별주의 태도(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 및 관심과 실천, 성별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및 미래 성평등 수준 전망(10년 후) 삶의 만족

조사명	연구대상 및 방법	구분	주요내용
		가족가치 및 가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상태 및 가족구성 • (미혼/비혼) 결혼에 대한 태도 • (무자녀)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 • (유배우자) 부부간 역할 분담과 평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적 의사결정자 - 주 역할수행자 및 역할분담의 공평성 - 부부간 평등 인식 • (유배우자) 맞벌이 여부 및 부부간 소득비교
		경제활동	경제활동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 사업체 규모, 월평균 근로소득, 직장에서의 지위, 근로시간 형태, 종사자 성비 등 근로조건 • (취업자) 성차별적 인사관행 및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 (취업자) 일-생활균형제도 이용의 용이성 • (취업자) 일과 가사 및 자녀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 • (비취업자) 과거 경제활동 여부 및 일을 그만둔 이유 • (비취업자) 향후 경제활동 계획 유무 및 일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차별과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 • 외모를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 • 안전 관련 두려움 및 불안 • 폭력상황 목격 시 행동의지
		성평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정책 관련 생각 •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중요도 •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
		개인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경기도 거주기간, 주관적 계층의식

나. 청소년 성평등 관련 조사 현황

중앙정부에서는 5년 주기로 양성평등실태조사를 실시하며, 2016년과 2021년 2회 진행되었다. 최근인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대상은 전국 4,490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다. 총 8,358명의 응답자 중 청소년에 해당하는 15-18세도 포함된다. 성인과 모든 문항이 동일하지는 않지만(청소년 대상 문항에는 가족생활 일부, 사회관계 및 사회참여 일부 및 경제활동 영역이 빠짐) 성평등 의식 및 한국 사회 양성평등 수준, 건강, 인권과 안전 등 문항에 있어서는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실행하고 있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전체 조사 결과 보도자료 중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에 있어 20-30대 여성은 70%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남성 청소년에서는 31.5%, 20대에서는 29.2%만이 동의하여 젊은 세대 내 성별 격차가 큼을 보여주

었다(마경희 외, 2021: 6-7). 또한 온라인 상 벌어지는 성적 대상화 문항에 있어 청소년 여성이 가장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청소년 남성의 경우 20, 30대에 비해서는 심각성을 높이지 느끼고 있었으나 그 이후 연령대의 인식과 유사하여(마경희 외, 2021: 14), 청소년 내에서도 성별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포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태도연구(I)」(최윤정 외, 2020), 교육부에서 실행한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연구」(2019)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초점을 둔 것이기는 하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2021)에서도 양성평등의식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최윤정 외(2020)는 청소년기 특성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들의 주된 장소가 되는 학교에서의 성평등 문화와 자주 접하는 온라인, 대중 문화 및 포래관계 속에서 성평등 의식의 형성 과정을 살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규모 실태조사 뿐 아니라 FGI를 통해 포래 관계에서 성별 분리 현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혐오문화와 성희롱 문화는 포래집단 문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와 문화 콘텐츠에는 성인 세대의 잘못된 성차별적 인식과 혐오적 태도가 내재되어 있고, 이것이 다수의 매체를 통해 청소년 세대에 전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남성 청소년은 게임과 스포츠를 통해, 여성 청소년은 SNS 이용을 포함한 소통을 통해 포래 관계가 유지되며 성별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 성평등 이해 및 성별 격차 역시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전국 단위 외에도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충남 청소년 성평등 및 성태도 인식 현황 분석 연구」가 시행되어, 전반적 성평등 인식에서부터 학교생활, 가족생활, 사회경제적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평등 인식 뿐 아니라 성 지식, 교제 시 의사결정, 성폭력 및 성폭력 관련 성 태도 의식이 연구된 바 있다. 특히 성교육과 성 지식 획득 경로, 성에 대한 고민 의논 대상 등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어 성평등 인식에서 성교육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연구되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에 주목하여 온라인 매체 이용 현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조사하였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주요 항목으로 다루었다.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청소년으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대상자의 일부로 청소년을 포함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광주의 경우 전체 1,800명의 조사 대상자 중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305명이 포함되어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성차별 경험, 젠더폭력 등에 대한 항목이 연령에 따른 구분없이 조사되었다. 한편,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로 한 조사(총 2,256명)와 더불어 만 15-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244명)을 포함하였으며 성인 조사와 청소년 조사의 주요 문항(성인: 경제활동, 가사 가족돌봄 및 시간활용/청소년: 가족생활 및 가치관, 학교생활)을 달리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경기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는 총 세 건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는 성평등이 주요 주제는 아니나, 양정선(2020)은 청소년의 가족생활 및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중 가족가치관 및 성평등 의식, 부모의 부부 간 성평등 정도와 부모(보호자) 양육의 성평등 인식 정도 등을 질문하였다.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2학년 총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진행된 결과, 남성 청소년은 여성 청소년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 의식 중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크다'와 '성별에 따라 각자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에 있어 성별 격차가 큼을 보여주었다. 양정선(2020)은 가부장적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성평등 의식을 갖추기도 전에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 노출되면서,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반복되고 여성혐오가 나타난다고 제시하며 경기도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향상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이해정 외(2020)는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성적 실천 및 성평등 관련 교육 참여 경험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내 고등학교 2학년 1,8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의 젠더의식, 학교생활 속 성차별, 성적 괴롭힘에 관한 인식과 경험, 한국 사회의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 성적 권리 및 실천, 교육 참여 등이 질문되었다. 이해정 외(2020)는 교실 수업 속 성차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진로 직업과 관련한 성역할의 강조에 있어서는 성별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성적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우리 사회의 성적 이슈에 대한 심각성에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남성 청소년의 40%가 미투운동을 지지하며, 성차별과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비롯하여 성평등 운동을 지지하는 응답도 다수 존재하여, 남성 청소년 내 격차 역시 다룰 필요성을 제기한다.

남미자 외(2022a)는 최근 이슈화된 페미니즘 백래시 현상에 주목하여 학교에서 백래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더불어 남자 청소년들의 남성성과 능력주의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의 연관 속에서 페미니즘 백래시 인식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경기도 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총 1,865명이 응답하였다. 남미자 외(2022a)는 페미니즘 백래시는 학교 내 실재하는 현상으로서 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기보다, 학교가 건강한 방식으로 발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페미니즘 (재)교육을 통해 학교 안에서 페미니즘 백래시 이슈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5] 청소년 성평등 의식 관련 연구 주요내용

	연구대상 및 방법	구분	주요내용
마경희 외. (2021).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연구.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전국 4,490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총 8,358명 만15세-18세 (2003년-2006년 출생자) 326명	성평등 의식 및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고정관념 • 변화하는 성역할과 지위에 대한 태도 • 우리사회 남성과 여성의 평등 수준 •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 5년 뒤 남성과 여성의 평등 수준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 삶에 대한 만족도
		가족 가치관 및 가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노동 부담 • 결혼의사 • 부부간 역할분담 및 평등의식 • 돌봄활동 참여 및 자녀계획
		사회관계 및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시민의견 수렴 활동 및 정책적 활동 참여 경험 및 의사 • 정치·사회적 이슈 관련 온라인 활동 정도 • 관심 있는 뉴스 및 관심사에 대한 정보 습득 매체
		시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영역별 현재 사용하는 시간 및 희망 사항 • 시간 부족 인식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건강상태, 정신건강(우울, 자살생각) • 현재 고민 • 외모 차별 피해 경험, 외모 만족도 • 자신의 체형에 대한 평가, 현재 다이어트 여부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
		인권과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허용도, 폭력 상황별 목격자 행동 의지 • 낮은 사람으로부터 성추행 성폭력 등 위협적 상황 경험 •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성추행 성폭력 등 위협적 상황 경험 • 온라인 범죄피해 불안,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의 심각성 • 인터넷에서의 성적 대상화 등 문제의 심각성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상태 및 병행 활동 • 근로자 성별 비율, 성차별적 조직 문화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의 용이성 • 월평균 임금, 순수익 • 자영업자(또는 고용주)의 사업체 경영의 어려움 • 구직활동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창업의향
최윤정 외. (2019).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연구.	실태조사(온라인) 학생 144,472명 교사 35,558명	학생의 성희롱·성폭력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성희롱 • 학교생활에서의 불법촬영 및 유포 경험 • 강제추행 및 강제 성관계 경험
		학생과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응 역량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현황 • 학교의 스킴미투 현황과 조치

	연구대상 및 방법	구분	주요내용
교육부.	FGI 학생 7인 교사 및 기타	학생과 교원의 양성평등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의식 • 성희롱·성폭력 통념 • 소속 학교의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
		스쿨미투의 전개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현실 • 스쿨미투의 발단과 특성 • 다양한 스쿨미투 전개 양상 • 사건 해결에서의 어려움 • 징계·처벌 과정에서의 문제들 • 스쿨미투 이후 학교의 변화
		학교 성인권 환경과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의 특성 • 학교 구성원들의 양성평등 의식과 관점의 차이 • 경직된 학교문화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교육의 실태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및 성교육 개선방안
최윤정 외. (2020).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태도 연구(1): 남녀청소년의 또래문화와 젠더의식 격차 비교.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실태조사 초6학년~고2학년 8,921명 (초6년 1,217명, 중2년 4,426명, 고2년 3,278명)	청소년의 온라인 문화와 대중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온라인 문화 • 청소년의 음란물 소비 문화 • 청소년의 연예인 팬덤문화 • 청소년의 외모 인식과 꾸밈문화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성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또래관계 / 연애관계 / 성 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진로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학교교육 및 학교생활 인식 • 청소년의 진로와 여성의 사회참여 인식
	FGI 중고등 25명, 초중고 교사 8명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페미니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 청소년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청소년 문화와 또래관계의 성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청소년의 게임, 스포츠, 'B급/병맛' 문화 • 소통과 친구 수, 평판 중심의 여성 청소년 문화 • 또래관계의 성별 분리
		친밀한 관계 및 청소년 성 문화에서의 젠더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애 문화와 성적 친밀성 • 청소년 성 문화와 또래관계 • 성폭력 경험
장근영·임지연. (202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실태조사 초등 951명, 중등 1,415명, 고등 1,432명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 행복도
		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소장 책 권수, 용돈 • 부모님과 식사 횟수, 부모관계 신뢰도
		학교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친구관계 신뢰 스트레스 • 랜덤채팅 이용현황
		양성평등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의식
		온라인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활동 내용, • 익명계정 보유여부, 오픈채팅 참여 빈도
		온라인 성적 침해경험 온라인 그루밍 노출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생활 실태 • 실제 디지털 성적 침해 및 온라인 그루밍 노출 실태

연구대상 및 방법	구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교육 경험 보호기관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교육과 관련 기관 인지도 영역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등
<p>안세아. (2022). 충남 청소년 성평등 및 성태도 인식 현황 분석 연구. 충남사회 서비스원.</p>	<p>실태조사 충남거주 14세이상~19세이하 500명</p>	<p>일상생활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 가족 / 친구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몸과 정신 등을 둘러싼 주변 안전에 대한 만족도
		<p>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입장에서 현재/5년 후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 • 남성의 입장에서 현재/5년 후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
		<p>성평등 관련 인식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성평등 인식 • 학교 / 가족 / 사회경제적 영역 관련 성평등 인식
		<p>성태도 관련 인식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지식 관련 성태도 인식 • 교제 시 의사결정 관련 성태도 인식 • 성폭력 / 성콘텐츠 관련 성태도 인식
		<p>성평등 및 성태도 관련 교육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 경험여부 / 성교육 장소 및 시간 • 인상 깊은 교육 내용 및 희망하는 교육 내용 • 성교육 전과 후의 변화 / 성교육 적정 시기 • 성교육을 통해 배우고 싶은 내용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지식 획득 경로 • 성에 대한 고민 의논 대상 • 청소년들의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요인별 중요도
	<p>FGI 14세이상~19세이하 청소년 10명 (남5명, 여5명)</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 가족 / 사회경제적 영역 관련 성평등 인식 • 성지식 관련 성태도 인식 • 교제 시 의사결정 관련 성태도 인식 • 성폭력 / 성콘텐츠 관련 성태도 인식
<p>박영주. (2022). 대구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대구시행복진흥 사회서비스원.</p>	<p>실태조사 대구 거주 초중고 944명 (초5학년 331명, 중2학년 302명, 고2학년 311명)</p>	<p>매체 이용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평균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간(서비스) • 비밀계정 및 오픈채팅 사용 여부 •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과 만남 경험
		<p>성역할 고정관념 및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역할 고정관념 및 부모친구와의 관계 <p>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범작성 및 심각성 인식, 대처방법 인지 • 메타버스 내 아바타 보유여부 및 인식 • 온라인 성범죄 피해 여부 및 대처/가해여부 •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연락 또는 직접만남 경험
		<p>예방교육 인식 및 정책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위클래스 여부 및 이용 경험 • 개인정보 보호교육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여부 • 온라인 그루밍 인지도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
<p>김정란·김혜신. (2020). 광주지역 성평등인식조사. 광주 여성가족재단.</p>	<p>실태조사 광주거주 10대~60대 남녀 1,800명 (17세~19세 305명, 20대 329명,</p>	<p>성평등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 여성 권리요구에 대한 태도 • 여성 /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 부계 중심적 가족제도에 대한 태도 •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p>성평등수준 성차별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 지역의 성평등수준 인식 • 성차별 경험

	연구대상 및 방법	구분	주요내용
	30대 309명 40대 308명, 50대 320명, 60대 313명)	젠더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에 대한 태도 • 폭력에 대한 대응 • 젠더폭력 심각성 인지수준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의식 	
가족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 동거 / 자녀에 대한 태도 	
삶에 관한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목표 중요도 • 주관적 삶의 만족도 	
김정란. (2020).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인천 여성가족재단.	실태조사 인천거주 만19세이상 2,256명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인식 • 인천시에서 개선해야 할 성 불평등 문제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의 성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 • 출산휴가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 • 인천광역시의 추진정책에 대한 생각
		가사·가족 돌봄 및 시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의 가사 및 돌봄 분담 • 배우자와의 평등 관계
		안전 및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 경험 여부 및 대처방법 • 젠더폭력 관련 정책 필요도
	인천시 주요 양성평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도 	
	실태조사 만15~18세 청소년 244명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 인식 등 • 성별 이미지
		가족생활 및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대한 의견
		안전 및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 경험 여부 및 대처방법 • 젠더폭력 관련 정책 필요도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 이수경험 및 확대 필요성 • 양성평등 교육 경험 등
	인천시 주요 양성평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도 	
양정선.(2020). 경기도 청소년의 가족생활 실태조사.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실태조사 (대면, 온라인) 경기도 중학교 2학년 449명, 고등학교 2학년 451명	주관적 안녕감 및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도, 근심 걱정 정도, 우울수준, 삶의 만족도 • 자아존중감 • 스트레스 인지도, 스트레스 요인 • 관계 만족도 및 평소 생활 만족도 • 미디어 사용
		가족에 대한 인식과 가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보호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 • 부모(보호자)와 활동 정도 •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견해 • 가족인식 및 태도 / 이상적인 자녀 수 • 부모의 정서적 지원 • 부모의 비용부담에 대한 견해 • 가족 의사소통 정도 • 가족구성원의 가사노동 참여 정도
		성평등 의식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역할 태도 • 부모의 평등 정도 • 부모(보호자) 양육태도의 성평등 정도
		코로나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에 대한 감정 •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인스턴트, 편의점 음식 식사 정도

	연구대상 및 방법	구분	주요내용
		일반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이후 동급생과 연락 정도 코로나19가 학업 목표, 꿈에 미친 영향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코로나19가 부모(보호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도 가족구성원, 주관적 계층의식, 부모 학력, 부모 직업, 주관적 학업 성적 수준
		젠더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의식 및 성역할 규범
이해정 외. (2020). 학교의 젠더 질서와 페미니즘 교육의 방향: 학교교육의 성 정치학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 연구원.	실태조사(온라인) 경기도 고등학교 2학년 1,857명	학교생활 속 성차별에 관한 인식 및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차별에 대한 인식 성적괴롭힘에 대한 인식 성차별 및 성적 괴롭힘 경험 경험 시 대응행동
		우리 사회 젠더이슈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차별 문제 관심도 여성 및 성소수자의 성차별 문제 심각성 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 성평등 운동에 대한 인식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 권리 의식 성적 권리 실천 및 경험, 실천의 어려움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참여 여부 및 운영시간 교육진행자, 교육방식, 교육방법 교육 만족도 및 효과 / 교육 요구사항
		기타 교육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여부 및 활동 여부 학교 밖 교육 참여 기관
		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 및 교육 개선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정보(고등학교 유형 및 남녀공학 여부) 개인 특성(성별, 거주지역 등)
남미자 외. (2022). 중고등학교의 페미니즘 백래시 실태와 대응 방안 모색. 경기도교육 연구원.	실태조사(온라인) 중학교 3학년 921명, 고등학교 2학년 944명	백래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미니즘 백래시 인식 동의 정도
		백래시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미니즘 백래시 행동 여부
		남성성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성 규범 동의 정도
		능력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력주의 동의 정도
		학교 성평등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성평등 문화 정도
		백래시 피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미니즘 백래시 피해 경험 여부
		백래시 피해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미니즘 백래시 피해 대응 방법
		페미니즘 내용 취득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미니즘 내용 취득 경로
		페미니즘 반대 또는 비판 내용 취득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미니즘 반대 또는 비판의 내용 취득 경로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학교 유형(학교급, 남녀공학 여부 및 남녀분반 여부) 		



III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1. 조사 설계 방법
2.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3. 청소년의 가족내 성평등 현황
4. 청소년의 또래문화와 학교생활
5. 청소년의 디지털 문화
6. 청소년의 성폭력 인식과 경험 및 성평등 교육 현황
7. 청소년의 진로, 가족 가치관
8.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인식 현황
: 성평등 태도 유형화

1. 조사 설계 방법

가. 조사 대상

본 조사는 경기도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들의 성평등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여 경기도 청소년의 성평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일반계 남녀공학 합반에 재학 중인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 모든 학생으로 정의하였다¹⁴⁾. 표본추출을 통해 남녀 학생 각 500명, 총 1,000명을 조사 목표 수로 설정하였다. 조사 목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목적고, 실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는 표본추출틀 구성 단계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개요는 [표 3-1]과 같다.

[표 3-1]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경기도 소재 남녀공학 합반에 재학 중인 중2, 중3, 고1, 고2 학생
목표 표본	총 1,000명 (여학생 500명, 남학생 50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학교 우편조사
조사 기간	2025. 06. 30. - 2025. 07. 18. (약 3주 소요)
조사 기관	(주)현대리서치

나. 표본 설계

조사 결과를 경기도 전체 학생 의견으로 일반화하기 위해 표본의 대표성과 통계적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층화 다단계 집락추출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모집단의 지역적 특성을 오차 없이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를 5개 권역¹⁵⁾으로 구분하여 층화를 진행하였다. 표본설계 절차는 아래 [표 3-2]와 같다.

각 층 내에서 표본학교를 추출하였으며, 이때 모집단 비율이 낮은 농촌 권역의 사례수 확보를 위해 중고등학교 각 2개교를 비비례할당(임의 할당)하였다. 이후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해

14) 중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이며, 고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7명으로, 학교 당 한 학급을 조사진행하기 때문에 학급 당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교 표본추출을 진행함.

15) 5개 권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음. 도시남부: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과천 / 도시북부: 고양, 의정부, 구리, 동두천 / 도농복합남부: 용인, 화성, 평택, 김포, 광주, 이천, 안성, 여주 / 도농복합북부: 남양주, 파주, 양주 / 농촌: 양평, 가평, 연천

서는 권역별 학생 수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 학교를 배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된 표본 학교 내에서는 조사 대상 학년의 1개 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학생을 전체 조사하는 집락추출 방식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중학교의 학년 선택 시 첫 번째 학교는 2학년 1개 학급, 두 번째 학교는 3학년 1개 학급, 세 번째 학교는 2학년 1개 학급, 네 번째 학교는 3학년 1개 학급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을 진행하였다.

[표 3-2] 표본설계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층화)	경기도를 5개 권역(농촌, 도농복합 남부, 도농복합 북부, 도시 남부, 도시 북부)으로 구분하여 층화함
2단계 (학교 선정)	각 층 내에서 표본 학교를 추출함. 모집단 비율이 낮은 농촌 권역은 비비례 할당을 진행함. 나머지 4개 권역은 권역별 학생 수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잔여 표본 학교(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17개교)를 체계적으로 배분함
3단계 (학급 선정 및 조사)	최종 선정된 표본 학교 내에서는 조사 대상 학년의 1개 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학생 전체를 조사함(집락추출 방식)

다. 가중치 산정

1) 가중치 부여의 목적 및 방법

본 조사는 농촌 권역에 대한 비비례 할당과 집락추출 방식이 적용되어 응답자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권역, 학교급, 학년, 성별) 분포를 실제 모집단의 분포와 일치시켜,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가중치 산정 방식으로는 복잡한 표본설계를 효과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방법을 적용하였다.

가) 기본 가중치 (모집단 대표 가중치)

표본이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도록 값을 조정하는 가중치로, 적용 시 전체 사례 수가 모집단 수(428,057명)와 같아진다. ‘권역 × 학교급 × 학년 × 성별’로 구성된 각 층(Cell)별로 모집단과 표본의 비율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기본 가중치} = \text{해당 층(Cell)의 모집단 학생 수} / \text{해당 층(Cell)의 실제 조사된 표본 수}$$

나) 가중치 조정계수 및 최종 적용 가중치 (사례 수 보존 가중치)

실제 조사는 목표했던 1,000명이 아닌 1,008명으로 완료하였다. 또한, 기본 가중치를 그대로 분석에 적용하면 전체 사례 수(N)가 모집단 크기인 428,057로 나타나 결과표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가중치의 상대적인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중치의 전체 합이 목표 표본 수인 1,000이 되도록 크기를 조정하는 '가중치 조정계수'를 활용하였다.

$$\text{가중치 조정계수} = \text{목표 표본 수 (1,000)} / \text{전체 모집단 수 (428,057)} = 0.00233614$$

최종 가중치는 각 응답자의 기본 가중치에 위에서 산출한 '가중치 조정계수'를 곱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될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각 응답자의 기본 가중치} \times \text{가중치 조정계수 (0.00233614)}$$

다) 농촌 권역 비비례 할당에 대한 가중치 처리

본 조사는 모집단 비율이 중학교 1.3%, 고등학교 1.6%에 불과한 농촌 권역의 분석 안정성을 위해 표본의 20%(약 100명)를 의도적으로 할당하는 과대추출을 실시하였다. 가중치는 이러한 추출 확률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모집단에 비해 표본이 '과도하게' 많이 뽑힌 농촌 지역은 한 명의 응답자가 대표해야 할 모집단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므로 가중치가 낮게 산출된다. 반면, 모집단에 비해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게 뽑힌 도시남부 지역은 한 명의 응답자가 더 많은 인원을 대표해야 하므로 가중치가 높게 산출된다.

아래 [표 3-3]은 고등학교 사례를 통해 이러한 원리를 보여준다. 농촌의 표본 비율(20%)은 모집단 비율(1.6%)의 12.5배에 달하지만,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불비례가 교정되어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게 된다.

[표 3-3] 권역별 모집단-표본 비율과 평균 가중치 비교(고등학교 예시)

(단위: 명, %)

권역	모집단 학생 수	모집단 비율	표본 학생 수	표본 비율	산출된 평균 가중치
농촌	3,802	1.6%	100	20.0%	30.82
도시남부	77,926	40.5%	100	20.0%	779.26

2) 최종 데이터 및 가중치 표

가) 고등학교 데이터 및 가중치

[표 3-4] 고등학교 모집단 현황

(단위: 명)

구 분	고1_남	고1_여	고2_남	고2_여	계
농촌	769	789	778	746	3,082
도농복합남부	15,379	14,968	14,963	14,988	60,298
도농복합북부	6,888	6,766	6,847	6,726	27,227
도시남부	20,135	18,335	20,654	18,802	77,926
도시북부	6,004	5,615	6,497	5,856	23,972
계	49,175	46,473	49,739	47,118	192,505

[표 3-5] 고등학교 조사표본 현황

(단위: 명)

구 분	고1_남	고1_여	고2_남	고2_여	계
농촌	10	17	14	13	54
도농복합남부	34	47	37	43	161
도농복합북부	11	15	13	14	53
도시남부	50	56	23	57	186
도시북부	10	17	7	19	53
계	115	152	94	146	507

[표 3-6] 고등학교 기본 가중치

(단위: 명)

구 분	고1_남	고1_여	고2_남	고2_여
농촌	76.900	46.412	55.571	57.385
도농복합남부	452.324	318.468	404.405	348.558
도농복합북부	626.182	451.067	526.692	480.429
도시남부	402.700	327.411	898.000	329.860
도시북부	600.400	330.294	928.143	308.211

[표 3-7] 고등학교 가중치(사례 수 보준)

(단위: 명)

구 분	고1_남	고1_여	고2_남	고2_여
농촌	0.180	0.108	0.130	0.134
도농복합남부	1.057	0.744	0.945	0.814
도농복합북부	1.463	1.054	1.230	1.122
도시남부	0.941	0.765	2.098	0.771
도시북부	1.403	0.772	2.168	0.720

나) 중학교 데이터 및 가중치

[표 3-8] 중학교 모집단 현황

(단위: 명)

구 분	중2_남	중2_여	중3_남	중3_여	계
농촌	826	782	797	710	3,115
도농복합남부	19,917	18,524	18,334	17,182	73,957
도농복합북부	8,115	7,861	7,634	7,365	30,975
도시남부	26,462	24,477	25,147	22,968	99,054
도시북부	7,445	7,169	7,103	6,734	28,451
계	62,765	58,813	59,015	54,959	235,552

[표 3-9] 중학교 조사표본 현황

(단위: 명)

구 분	중2_남	중2_여	중3_남	중3_여	계
농촌	10	13	16	10	49
도농복합남부	39	37	44	34	154
도농복합북부	11	13	16	10	50
도시남부	48	51	47	52	198
도시북부	12	13	9	16	50
계	120	127	132	122	501

[표 3-10] 중학교 기본 가중치

(단위: 명)

구 분	중2_남	중2_여	중3_남	중3_여
농촌	82.600	60.154	49.813	71.000
도농복합남부	510.692	500.649	416.682	505.353
도농복합북부	737.727	604.692	477.125	736.500
도시남부	551.292	479.941	535.043	441.692
도시북부	620.417	551.462	789.222	420.875

[표 3-11] 중학교 가중치(사례 수 보존)

(단위: 명)

구 분	중2_남	중2_여	중3_남	중3_여
농촌	0.193	0.141	0.116	0.166
도농복합남부	1.193	1.170	0.973	1.181
도농복합북부	1.723	1.413	1.115	1.721
도시남부	1.288	1.121	1.250	1.032
도시북부	1.449	1.288	1.844	0.983

라. 조사 내용

설문조사의 내용은 [표 3-12]와 같이 청소년 응답자 기본사항과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가족문화, 또래문화, 디지털문화, 학교생활, 일, 가족 가치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설문지는 [부록] 참조).

[표 3-12] 설문조사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응답자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학년, 성별 - 부모님 학력, 형제자매 유무 - 주관적 학업 성적, 주관적 가정 형편 인식, 향후 계층 이동 전망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영역 성역할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남성성 규범 - 사회 갈등 인식 - 페미니즘 인식, 페미니즘 내용 동의, 페미니스트 정체화 - 성평등 관심 활동 - 현재 전반적 성평등 수준 인식, 10년 후 전반적 성평등 수준 변화 인식
가족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성차별 경험 여부 - 가정 내 가사일, 자녀 양육과 교육 담당 및 일하는 가족 구성원 - 어머니와 아버지 간 관계 성평등 정도, 양육태도 성평등 정도
또래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 - 또래관계의 질, 또래압력 -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 폭력 인식
디지털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활동 참여, 활동 목적 - 디지털 관련 불안 수준 - 디지털 성폭력 인식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영역 성차별주의 인식 - 학교 안팎 성차별 경험, 성차별 경험시 대처 방식, 미대처 이유 - 양성평등교육·성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진행자, 진행방식, 진행방법 - 학교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생각
일, 가족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영역 성역할 태도, 일 관련 성차별주의 인식 - 향후 희망 전공 계열, 직업 선택 기준 - 직장 조직문화 내 차별 인식 - 연애 여부, 연애 의향, 향후 연애나 결혼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정도, 결혼 의향, 비혼 생각 이유, 출산 의향, 비출산 생각 이유 - 혐오 표현,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동의 정도

설문에 활용한 주요 척도는 [표 3-13]과 같다. 총 11개의 척도의 문항 수는 최소 4개에서 최대 15개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모두 0.7 이상으로 각 영역의 인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중 남성성 규범의 신뢰도 계수는 0.9086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3-13] 설문에 활용한 주요 척도

영역	문항 수	문항 출처	세부 문항	Cronbach's α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6	경기도교육청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문항」 ¹⁶⁾ 중 성역할 규범, 가정영역 노경혜, 정형옥(2023) I.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문항 중 일부	맞벌이도 가능하지만 생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일의 일차적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 맞벌이 부부여도 육아와 가사일(청소, 요리 등)의 책임은 여자가 더 크다 여자는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취직시켜야 한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역코딩)	0.7327
진로 영역 성역할 태도	5	경기도교육청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문항」 중 성역할 규범, 진로영역	남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다 공구 또는 기계를 다루는 일은 남자에게 더 잘 어울린다 경찰, 군인,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이나 국방과 관련된 직업은 남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아동이나 환자, 노인을 돌보는 직업은 여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남학생이 원하는 직업과 여학생이 원하는 직업이 대체로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0.8641
관계 영역 성역할태도	5	경기도교육청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문항」 중 성역할 규범, 관계영역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연애를 하려면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 데이트 비용은 남성이 더 많이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데이트에는 남성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거나 여성을 데리러 가는 것이 당연하다 스킨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크다	0.8670
온정적 성차별주의	4	최윤정 외(2020)	여자는 남자보다 감성적이다 남성은 여성보다 강하므로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부모님이(보호자가) 아들보다 딸에게 안전한 행동과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0.7061

16) 경기도교육청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문항」은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에서 2025년에 발행한 「2025 학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디지털]성희롱·성폭력 근절 기
반 구축 계획」에 수록되어 있음.

영역	문항 수	문항 출처	세부 문항	Cronbach's α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8 (적대적 성차별주의 6, 현대적 성차별주의 2)	최윤정 외(2020) F. 청소년의 학교생활과의식, 여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문항과 여성의 권리/양성평등 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문항 재구성	여자들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운다 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여성의 권리가 늘어날수록 남성의 권리는 침해된다 미투운동은 전체 남성들을 성범죄의 가해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우리 사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의 입장에서만 판단한다 별 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을 여자들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평등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0.8718
직업관련 성차별주의	5	최윤정 외(2020) F. 청소년의 학교생활과의식, 여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문항 재구성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책(회장, 사장, 대표이사 등)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적합하다 여자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리더십이 부족해서다 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역코딩) 남성의 월급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0.8755
학교 영역 성차별주의	6	최윤정 외(2020) F. 청소년의 학교생활과의식, 남학생 또는 여학생과의 학교생 활에 관한 학생의 생각 문항 재구성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남학생에게만 요청한다 학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 권리와 편의를 더 고려한다 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은 내신이나 학교 성적에 피해를 본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수행평가 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다른 과업/과제를 부여하거나,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모둠활동이나 팀프로젝트 등에서 남학생들의 불성실한 학업태도 때문에 여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우리 학교 수업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발표를 많이 하는 분위기이다	0.7448
남성성 규범	6	한유정(2022)	남자는 겁이 나도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 남자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숨겨야 한다 남자는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자는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남자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자는 필요할 때 물리적인 싸움에도 기꺼이 개입해야 한다	0.9086

영역	문항 수	문항 출처	세부 문항	Cronbach's α
폭력에 대한 인식	9	경기도교육청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문항」 중 폭력에 대한 인식	스킨십을 하려 할 때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스킨십을 해도 된다는 뜻이다 연인 간의 폭력은 때린 사람만을 탓할 수 없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거절해도 계속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남자가 괴롭히는 것은 좋아한다는 표시다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야한 농담이나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다 '몸매 좋다'와 같은 말을 불쾌하게 들을 사람은 없다 동성 간에는 성희롱이 일어날 수 없다 악의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은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 성폭력은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하는 등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	0.8108
또래관계의 질	13	배성만 외(2015) 또래관계의 질 척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나는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나는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나는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나는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나는 나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0.8001

영역	문항 수	문항 출처	세부 문항	Cronbach's α	
또래압력	15	유지연(2017) 또래압력 척도	또래유행	웃을 입을 때 친구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을 쓴다 유행과 다르지만 남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웃을 즐겨 입는다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0.8450
			또래눈치	신체적인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숨기려고 노력한다 친구들 시선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순간을 주저한 적이 있다 친구들이 거는 기대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친구들이 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임에 참석하기도 한다 나는 수업 중에 내가 한 질문에 대해 친구들이 웃는다면 당황해 한다 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알려거나 학급에서 그러한 생각을 나누는 것을 부끄럽게 느낀다	
			일상활동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또래친구들이 좋아한다면 유행하는 유튜브, TV프로그램, 영화, 음악 등을 보고 듣기도 한다 다른 친구들을 비웃거나 놀리는 무리에 함께 한 적이 있다 나는 집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친구들이 독서실에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면 따르는 편이다	
			일탈행동	버스를 타고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중에 친구들이 무질서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행동할 때가 있다 나는 수학여행이나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을 친구들과 함께 한 적이 있다 나는 자율학습시간에 떠들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기도 한다	

- 주: 1) 성역할 태도와 성차별주의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폭력에 대한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인식이 높아 반대 맥락으로 구성됨
2) 폭력에 대한 인식 영역을 제외하고 영역별 문항의 맥락이 다르게 구성된 문항은 문항 뒤에 (역코딩)으로 표시함
3) 또래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부정 문항(1, 3, 5, 7, 9, 11, 12, 13)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항목에 대한 또래관계의 질이 좋음

마. 응답자 일반적 특성

본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청소년의 특성은 [표 3-14]와 [표 3-15]와 같다. 최종 응답 인원은 1,008명이었으며 성별, 학교급 및 권역별 조정을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 인원은 1,000명이다. 가중치를 부여한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학생 48.4%, 남학생 51.6%로 유사하게 집계되었다. 학교급과 학년에서는 중학교 2학년 28.4%, 중학교 3학년 26.6%, 고등학교 1학년 22.3%, 고등학교 2학년 22.6%에 해당하여,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인원이 줄어들었다. 학교급과 성별을 함께 보면 여자 중학생 26.6%, 남자 중학생 28.4%, 여자 고등학생 21.9%, 남자 고등학생 23.1%로, 각 학교급에서 남학생의 비중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다.

권역에서는 농촌은 비비례할당으로 표본학교를 할당하여, 가중치 전에는 10.2%였으나 가중치를 적용한 후에는 1.4%였다. 경기도 권역별 청소년 규모에 따라 도농복합남부 31.4%, 도농복합북부 13.6%, 도시남부 41.3%, 도시북부 12.2%이다.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피기 위해 부모의 학력수준을 살피고자 하였다. 아버지 학력 분포를 보면 4년제 대학졸업이 4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모르는 경우도 32.4%였다. 다음으로는 고졸 이하(11.7%), 대학원 졸업 이상(7.7%), 전문대졸(3.7%), 해당없음(1.0%) 순이었다. 어머니 학력도 대졸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모름(32.1%), 고졸 이하(15.5%), 대학원 졸업 이상(7.7%), 전문대졸(5.3%), 해당없음(0.2%) 순으로 나타나, 아버지 학력에 비해 대졸 비율이 적고 전문대졸과 고졸 이하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형제자매 유무에서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0%로 10명 중 8명의 청소년이 형제자매가 있었다.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학업성적에서는 중위권이 65.7%로 가장 많았으며, 하위권 17.4%, 상위권 17.0% 순이었다. 가중치 조정 후 상위권과 하위권의 비율은 줄고, 중위권의 비율이 높아졌다. 가정의 경제수준을 보면 중산층 81.2%, 상위층 15.5%, 하위층 3.4% 순으로 나타나,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수였다. 미래 계층 인식의 경우 현재와 비교하여 미래에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은 45.4%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은 31.3%, 하강은 23.3%로 나타났다.

[표 3-14] 응답자 개인 특성

(단위: 명, %)

구분		가중치 미부여		가중치 부여
		사례수	비율	비율
전체		1,008	100.0	100.0
성별	여자	547	54.3	48.4
	남자	461	45.7	51.6
	기타, 대답하고 싶지 않음	0.0	0.0	0.0
학교급, 학년	중학교 2학년	247	24.5	28.4
	중학교 3학년	254	25.2	26.6
	고등학교 1학년	267	26.5	22.3
	고등학교 2학년	240	23.8	22.6
학교급, 성별	여자 중학생	249	24.7	26.6
	남자 중학생	252	25.0	28.4
	여자 고등학생	298	29.6	21.9
	남자 고등학생	209	20.7	23.1
권역	농촌	103	10.2	1.4
	도농복합남부	315	31.3	31.4
	도농복합북부	103	10.2	13.6
	도시남부	384	38.1	41.3
	도시북부	103	10.2	12.2

주: 1) 이하 모든 표에서 사례 수는 가중치를 부여한 조사 응답자임.

2) 가중치 적용 결과는 표본설계 변수인 성별과 학교급 및 권역은 목표모집단 비율로 조정된 결과임.

[표 3-15] 응답자 사회적 배경 특성

(단위: 명, %)

구분		가중치 미부여		가중치 부여
		사례수	비율	비율
전체		1,008	100.0	100.0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126	12.5	11.7
	전문대졸	39	3.9	3.7
	대졸	439	43.6	43.5
	대학원 졸업 이상	76	7.5	7.7
	모름	314	31.2	32.4
	해당없음	14	1.4	1.0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155	15.4	15.5
	전문대졸	54	5.4	5.3
	대졸	402	39.9	39.2
	대학원 졸업 이상	81	8.0	7.7
	모름	313	31.1	32.1
	해당없음	3	0.3	0.2
형제자매 유무	있음	834	82.7	82.0
	없음	174	17.3	18.0
학업성적	상위권	377	37.4	17.0
	중위권	228	22.6	65.7
	하위권	403	40.0	17.4
경제수준	상위층	115	11.4	15.5
	중산층	438	43.5	81.2
	하위층	455	45.1	3.4
미래 계층 인식	상승	435	43.2	45.4
	부동	373	37.0	31.3
	하강	200	19.8	23.3

2.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가. 성평등 의식

1)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경기도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평등 인식을 살피기 위해 가정 영역에서의 성역할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및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태도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가정 영역에서의 성역할 태도는 총 6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6]과 같다. 매우 그렇다=1~전혀 그렇지 않다=4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인 것으로 보기 위해 반대 맥락인 6)번을 제외하고 평균 점수는 역코딩한 값을 산출하였다.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중 가장 점수가 높았던 항목은 '5)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로 2.66점이었다. 세부 응답에서는 해당 문항에 동의(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비율이 62.8%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1)맞벌이도 가능하지만 생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2.01점), '2)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일의 일차적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1.92점) 순으로 나타났다. '3)맞벌이 부부여도 육아와 가사일(청소, 요리)의 책임은 여자가 더 크다'는 1.8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3-16]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인식(전체)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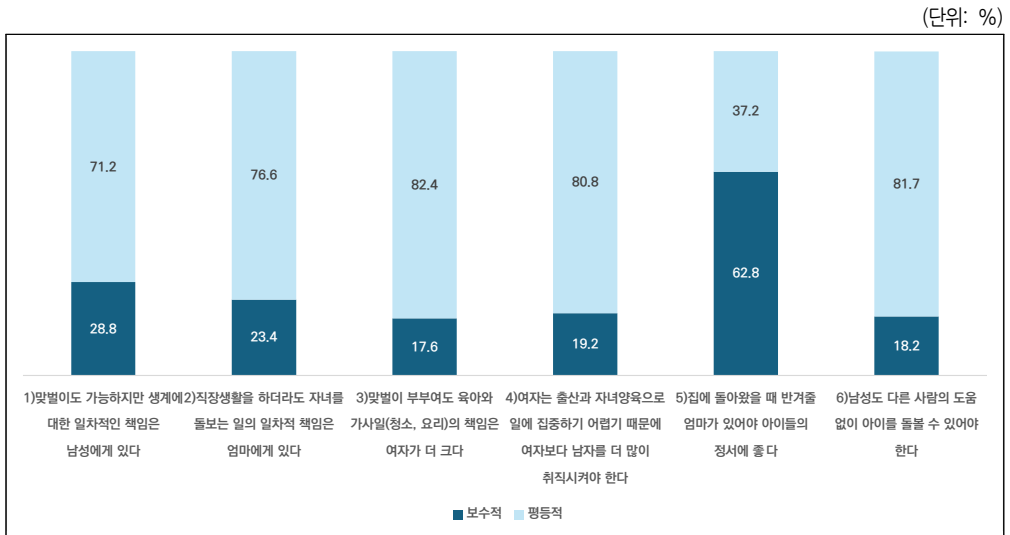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맞벌이도 가능하지만 생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1,000	1.9	26.9	41.9	29.3	2.01 (0.80)
2)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일의 일차적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	1,000	1.5	21.9	43.4	33.2	1.92 (0.78)
3)맞벌이 부부여도 육아와 가사일(청소, 요리)의 책임은 여자가 더 크다	1,000	1.5	16.1	43.4	39.0	1.80 (0.76)
4)여자는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취직시켜야 한다	1,000	2.5	16.7	41.6	39.2	1.82 (0.79)
5)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1,000	17.0	45.8	23.8	13.4	2.66 (0.91)
6)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1,000	35.1	46.6	12.9	5.3	1.88 (0.83)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인 것으로 보기 위해 6)번을 제외하고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에서 보수적 응답률(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을 보았을 때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평등적 응답의 비율보다 훨씬 낮아,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에서는 한 발 나아간 측면을 보인다. 그러나 '5)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에서는 보수적 응답률이 62.8%로 월등히 높아, 돌봄 부문에 있어서는 엄마의 역할을 여전히 기대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할 수 있다.

[그림 3-1]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주: 보수적=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평등적=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인식에 있어서는 모든 문항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t검증 결과 성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남학생 간 인식 차이가 가장 컸던 문항은 '4)여자는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취직시켜야 한다'였다. 여학생은 1.65점인데 비해 남학생은 1.99점으로 0.34점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5)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에서 여학생 2.51점, 남학생 2.81점으로 응답하여 0.3점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2)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일의 일차적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와 '6)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두 항목에서 모두 여학생 1.83점, 남학생 1.94점으로 0.11점 차이를 보여 성별 인식의 차이가 가장 작았다.

[표 3-17]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인식(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484)	남학생 (N=516)	T
1)맞벌이도 가능하지만 생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2.51	2.81	26.43***
2)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일의 일차적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	1.83	1.94	4.69*
3)맞벌이 부부여도 육아와 가사일(청소, 요리)의 책임은 여자가 더 크다	1.66	1.93	32.54***
4)여자는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취직시켜야 한다	1.65	1.99	47.87***
5)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2.51	2.81	26.43***
6)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1.83	1.94	4.69*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임.

2) *p<.10, *p<.05, **p<.01, ***p<.001

학교급별 성역할 태도 인식을 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높아,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2), 3), 4), 6)번의 네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인식의 차이가 가장 컸던 문항은 '3)맞벌이 부부여도 육아와 가사일의 책임은 여자가 더 크다'로 중학생 1.91점, 고등학생 1.67점으로 0.24점 차이를 보였다. 한편 '6)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에 있어 중학생 1.95점, 고등학생 1.81점으로 0.14점의 차이가 있어,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3-18]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인식(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교 (N=550)	고등학교 (N=450)	T
1)맞벌이도 가능하지만 생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2.03	2.00	0.31
2)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일의 일차적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	1.98	1.85	6.98**
3)맞벌이 부부여도 육아와 가사일(청소, 요리)의 책임은 여자가 더 크다	1.91	1.67	24.58***
4)여자는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취직시켜야 한다	1.87	1.77	4.52*
5)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2.67	2.66	0.01
6)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1.95	1.81	7.42**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임.

2) *p<.10, *p<.05, **p<.01, ***p<.001

성별과 학교급 차이를 동시에 살펴보았을 때에는 성별 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대체로 남자 중학생이 제일 점수가 높으며, 다음으로는 남자 고등학생,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나 남자 중학생이 가장 보수적이고, 여자 고등학생이 가장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였다.

또한 학교급보다 성별이 집단의 차이를 가르는 요인이 되었다. 여자 고등학생과 남자 중학생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문항은 '3)맞벌이 부부여도 육아와 가사일의 책임은 여자가 더 크다'였으며 여자 고등학생 1.51점, 남자 중학생 2.02점으로 0.51점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6)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에 있어서는 여자 고등학생 1.71점, 남자 중학생 1.97점으로 0.26 차이를 나타냈다.

[표 3-19]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인식(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266)	남자 중학생 (N=284)	여자 고등학생 (N=219)	남자 고등학생 (N=231)	F
1)맞벌이도 가능하지만 생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1.87	2.17	1.80	2.18	16.07***
2)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일의 일차적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	1.86	2.09	1.71	1.98	11.05***
3)맞벌이 부부여도 육아와 가사일(청소, 요리)의 책임은 여자가 더 크다	1.79	2.02	1.51	1.83	19.81***
4)여자는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취직시켜야 한다	1.75	1.99	1.53	1.99	19.41***
5)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2.52	2.81	2.51	2.81	8.79***
6)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1.92	1.97	1.71	1.90	4.59**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임.

2) *p<.10, **p<.05, ***p<.01, ****p<.001

권역별 가정 영역에서의 성역할 태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모든 항목에서 순서가 동일한 것은 아니나 대체로 농촌이 성역할 태도 점수가 높아 보수적이었으며, 도농복합북부가 낮은 점수를 보여 평등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표 3-20]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인식(권역별)

(단위: 명, 점)

구분	농촌 (N=14)	도농복합 남부 (N=314)	도농복합 북부 (N=136)	도시남부 (N=413)	도시북부 (N=122)	F
1)맞벌이도 가능하지만 생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2.13	2.00	1.97	2.03	2.02	0.22
2)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일의 일차적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	2.01	1.91	1.87	1.93	1.91	0.21
3)맞벌이 부부여도 육아와 가사일(청소, 요리)의 책임은 여자가 더 크다	1.82	1.78	1.80	1.82	1.79	0.17
4)여자는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취직시켜야 한다	1.72	1.82	1.88	1.81	1.84	0.33
5)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2.68	2.67	2.60	2.69	2.63	0.33
6)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1.97	1.91	1.88	1.86	1.90	0.23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임.

2) *p<.10, *p<.05, **p<.01, ***p<.001

2) 온정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4개의 항목으로 측정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를 기준으로 '2)남성은 여성보다 강하므로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가 2.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2.26점), '1)여자는 남자보다 감성적이다'(2.10점), '4)부모님(보호자가) 아들보다 딸에게 양전한 행동과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1.84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응답을 보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긍정(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이 2)번은 47.2%, 4)번은 21.2%로 문항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3-21]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전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여자는 남자보다 감성적이다	1,000	4.6	28.9	38.0	28.5	2.10 (0.87)
2)남성은 여성보다 강하므로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	1,000	6.9	40.3	34.9	17.9	2.36 (0.85)
3)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1,000	5.3	35.2	39.7	19.7	2.26 (0.83)
4)부모님이(보호자가) 아들보다 딸에게 안전한 행동과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1,000	3.5	17.7	37.6	41.2	1.84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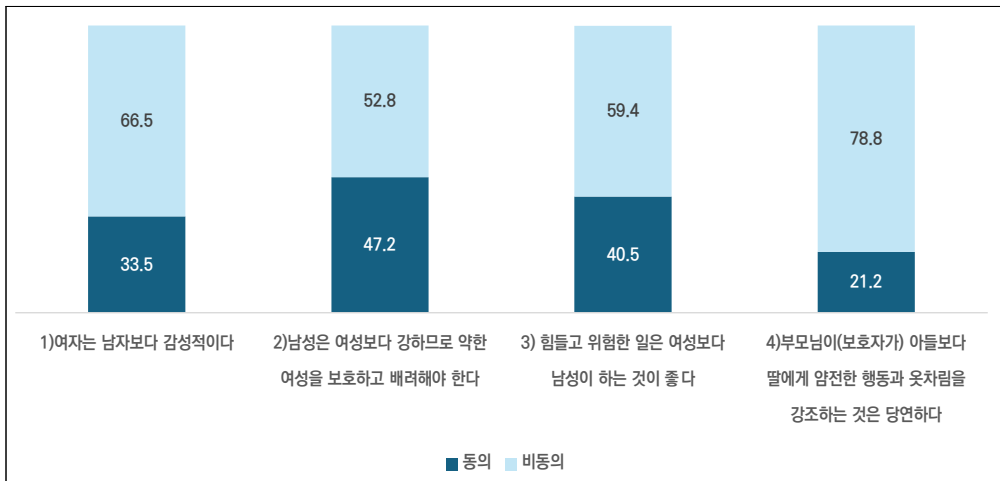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값을 산출함.

온정적 성차별주의 동의율(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은 전반적으로는 낮았지만, '2)남성은 여성보다 강하므로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의 동의율은 47.2%, '3)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에서는 40.5%로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3-2] 온정적 성차별주의 동의율

(단위: %)



주: 동의=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비동의=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로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의 차이를 본 결과, '2)남성은 여성보다 강하므로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를 제외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번 역시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성차가 존재했다. 모든 문항에서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점수가 높아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가 가장 컸던 문항은 '3)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에서 여학생 1.69점, 남학생 1.97점으로 0.28점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4)부모님이(보호자가) 아들보다 딸에게 안전한 행동과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여학생 2.31점, 남학생 2.41점으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며 성차가 0.1점으로 가장 작았다.

[표 3-22]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484)	남학생 (N=516)	T
1)여자는 남자보다 감성적이다	2.01	2.17	8.52**
2)남성은 여성보다 강하므로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	2.15	2.36	3.04+
3)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1.69	1.97	16.96***
4)부모님이(보호자가) 아들보다 딸에게 안전한 행동과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2.31	2.41	27.42***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학교급별로는 '1)여자는 남자보다 감성적이다'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해당 문항에서 중학생은 2.03점, 고등학생은 2.17점으로 응답하여, 고등학생이 좀 더 높은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2)번과 4)번 문항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3)번에 한하여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교 (N=550)	고등학교 (N=450)	T
1)여자는 남자보다 감성적이다	2.03	2.17	6.25*
2)남성은 여성보다 강하므로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	2.25	2.27	1.24
3)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1.84	1.82	0.14
4)부모님이(보호자가) 아들보다 딸에게 안전한 행동과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2.34	2.39	0.14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성별+학교급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 결과에 따르면 2)번을 제외한 3문항에서 집단 간 유의성이 있었다. 대체로 남자 고등학생이 가장 점수가 높고, 남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여자 중학생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에 따라 여학생에서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순서가 동일하지 않았다. 성별+학교급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 보여지는 차이는 학교급보다는 성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24]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266)	남자 중학생 (N=284)	여자 고등학생 (N=219)	남자 고등학생 (N=231)	F
1)여자는 남자보다 감성적이다	1.98	2.08	2.05	2.28	5.42**
2)남성은 여성보다 강하므로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	2.14	2.36	2.17	2.37	1.24
3)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1.73	1.95	1.65	1.99	5.70**
4)부모님이(보호자가) 아들보다 딸에게 안전한 행동과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2.29	2.39	2.34	2.43	9.59***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권역별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체로 농촌이 모든 문항에서 점수가 가장 높아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았다. 반대로 1)번, 3)번, 4)번 문항에서는 도농복합남부가, 2)번 문항에서는 도시북부가 가장 낮아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낮은 편이었다.

[표 3-25]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권역별)

(단위: 명, 점)

구분	농촌 (N=14)	도농복합 남부 (N=314)	도농복합 북부 (N=136)	도시남부 (N=413)	도시북부 (N=122)	F
1)여자는 남자보다 감성적이다	2.21	2.05	2.10	2.14	2.07	0.59
2)남성은 여성보다 강하므로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	2.45	2.25	2.32	2.26	2.20	1.21
3)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1.93	1.78	1.89	1.86	1.83	0.51
4)부모님이(보호자가) 아들보다 딸에게 안전한 행동과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2.49	2.32	2.49	2.37	2.29	0.57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3)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군복무 인식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6개 항목으로 측정했으며 성별 권리,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구성되며, 현대적 성차별주의는 2개 항목으로 성평등을 위한 정책 필요에 대한 문항이고, 군복무 인식은 2개 항목으로 군복무 성차별 및 보상 인식으로 구성된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고, 군복무 인식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평균 점수가 높았던 것은 '10)남성의 군복무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3.12점)였다. 응답범주별로 보면 매우 그렇다가 40.6%, 대체로 그렇다가 38.1%로, 10명 중 약 8명의 청소년이 군복무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5)우리 사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의 입장에서만 판단한다'(2.58점), '9)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불평등하다'(2.48점), '6)별 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을 여자들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2.36점) 순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우리 사회는 이미 평등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1.79점)와 '1)여자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운다'(1.84점), '2)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1.91점) 순으로 적대적, 현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표 3-26]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및 군복무 인식(전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여자들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운다	1,000	3.9	13.0	46.7	36.5	1.84 (0.79)
2)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1,000	2.9	16.1	50.3	30.6	1.91 (0.76)
3)여성의 권리가 늘어날수록 남성의 권리는 침해된다	1,000	7.7	24.4	38.9	29.0	2.11 (0.91)
4)미투운동은 전체 남성들을 성범죄의 가해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1,000	9.0	32.4	35.5	23.1	2.27 (0.92)
5)우리 사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의 입장에서만 판단한다	1,000	14.6	46.1	21.6	17.7	2.58 (0.94)
6)별 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을 여자들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1,000	11.0	30.6	41.6	16.8	2.36 (0.89)
7)우리 사회는 이미 평등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1,000	3.4	12.0	44.3	40.2	1.79 (0.78)
8)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000	7.0	28.7	48.1	16.2	2.27 (0.81)
9)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불평등하다	1,000	17.8	28.1	38.2	15.9	2.48 (0.96)
10)남성의 군복무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1,000	40.6	38.1	14.4	6.9	3.12 (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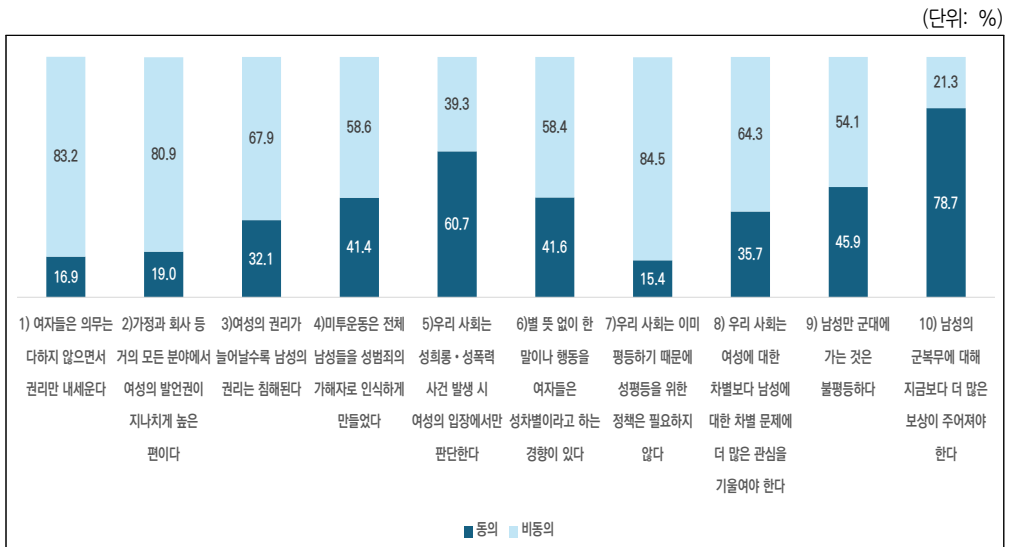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값을 산출함.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동의율(매우 그렇다+그렇다)은 문항별 편차가 컸다. ‘5)우리 사회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시 여성의 입장에서만 판단한다’에서는 60.7%가 동의한 반면, ‘1)여자들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운다’에서는 16.9%로 나타나,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구성하는 인식의 맥락에 따라 수준이 높고, 낮음이 나타난다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현대적 성차별주의 문항 간 동의율 편차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8)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에서 35.7%가 동의하여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군복무 인식 있어서는 적대적, 현대적 성차별주의 문항에 비해 동의율이 높았으며, 특히 ‘10)남성의 군복무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에 있어 78.7% 동의율로 나타나, 경기도 청소년들이 군복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및 군복무 인식 동의율



주: 동의=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비동의=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로 보면 전체 문항에 있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검증 결과에서도 모든 문항에서 성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관계없이 '10)남성의 군복무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에서는 '1)여자들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운다'(1.53점)가, 남학생은 '7)우리 사회는 이미 평등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1.96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평균 기준 성별격차가 가장 컸던 문항은 '9)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불평등하다'였다. 여학생은 2.09점인데 비해, 남학생은 2.84점으로 약 0.75점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3)여성의 권리가 늘어날수록 남성의 권리는 침해된다'로, 여학생 1.78점, 남학생 2.42점으로 약 0.64점 차이가 나타났다.

[표 3-27]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및 군복무 인식(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484)	남학생 (N=516)	T
1)여자들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운다	1.53	2.14	172.67***
2)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1.66	2.15	113.49***
3)여성의 권리가 늘어날수록 남성의 권리는 침해된다	1.78	2.42	139.36***
4)미투운동은 전체 남성들을 성범죄의 가해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1.99	2.54	96.96***
5)우리 사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의 입장에서만 판단한다	2.33	2.81	70.45***
6)별 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을 여자들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2.12	2.58	69.58***
7)우리 사회는 이미 평등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1.60	1.96	57.38***
8)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2	2.49	92.63***
9)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불평등하다	2.09	2.84	182.82***
10)남성의 군복무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2.87	3.36	80.04***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다음은 학교급별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이다. 대체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게서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급별 유의한 항목은 '3) 여성의 권리가 늘어날수록 남성의 권리는 침해된다', '4)미투운동은 전체 남성들을 성범죄의 가해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6)별 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을 여자들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8)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의 4개 항목이었다. 또한 '2)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와 '9)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불평등하다'에서는 90% 신뢰수준에서 학교급별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학교급별로 '10)남성의 군복무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고등학생(3.14점)이 중학생(3.11점)에 비해 더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급별 평균 점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문항은 '3)여성의 권리가 늘어날수록 남성의 권리는 침해된다'와 '6)별 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을 여자들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였다.

[표 3-28]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및 군복무 인식(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교 (N=550)	고등학교 (N=450)	T
1)여자들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운다	1.83	1.86	0.45
2)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1.95	1.87	3.03+
3)여성의 권리가 늘어날수록 남성의 권리는 침해된다	2.19	2.01	9.17**
4)미투운동은 전체 남성들을 성범죄의 가해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2.34	2.20	5.85*
5)우리 사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의 입장에서만 판단한다	2.62	2.52	2.41
6)별 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을 여자들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2.44	2.26	10.24**
7)우리 사회는 이미 평등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1.76	1.82	1.52
8)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32	2.20	6.20*
9)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불평등하다	2.53	2.41	3.77+
10)남성의 군복무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3.11	3.14	0.36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성별과 학교급별로는 성별 결과와 동일하게 전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자 고등학생이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가장 낮으며, 여자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 남자 중학생 순으로 나타나, 성별과 학교급 모두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성별과 학교급별 적대적 성차별주의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10)남성의 군복무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였으며, 이 경우에는 남자 고등학생(3.38점), 남자 중학생(3.34점), 여자 고등학생(2.89점), 여자 중학생(2.85점) 순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남자 중학생과 가장 낮았던 여자 고등학생의 평균 점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항목은 '9)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불평등하다'로, 남자 중학생 2.94점, 여자 고등학생 2.09점으로 0.85점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3)여성의 권리가 늘어날수록 남성의 권리는 침해된다'로 남자 중학생 2.49점, 여자 고등학생 1.68점으로 0.81점 차이로 나타났다.

[표 3-29]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및 군복무 인식(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266)	남자 중학생 (N=284)	여자 고등학생 (N=219)	남자 고등학생 (N=231)	F
1)여자들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운다	1.48	2.15	1.59	2.12	58.40***
2)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1.69	2.20	1.64	2.09	39.11***
3)여성의 권리가 늘어날수록 남성의 권리는 침해된다	1.86	2.49	1.68	2.33	50.23***
4)미투운동은 전체 남성들을 성범죄의 가해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2.08	2.57	1.88	2.49	34.95***
5)우리 사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의 입장에서만 판단한다	2.43	2.79	2.20	2.83	26.18***
6)별 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을 여자들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2.18	2.68	2.06	2.45	27.32***
7)우리 사회는 이미 평등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1.58	1.92	1.62	2.01	19.80***
8)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6	2.57	1.98	2.40	33.46***
9)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불평등하다	2.09	2.94	2.09	2.72	64.00***
10)남성의 군복무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2.85	3.34	2.89	3.38	26.78***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성역할 태도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다르게 권역별 차이가 일부 존재했다. ‘4)미투운동은 전체 남성들을 성범죄의 가해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5)우리 사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의 입장에서만 판단한다’에서 권역 간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했다. 또한 ‘6)별 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을 여자들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에서도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항목을 살펴보면 4)번 문항에서는 도시남부와 도시북부가 2.34점, 도농복합북부 2.29점, 농촌 2.24점 도농복합남부 2.14점 순으로 나타났다. 5)번 문항에서는 도시북부 2.69점, 농촌과 도시남부 2.65점, 도농복합북부 2.51점, 도농복합남부 2.46점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도시북부 청소년들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3-30]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및 군복무 인식(권역별)

(단위: 명, 점)

구분	농촌 (N=14)	도농복합 남부 (N=314)	도농복합 북부 (N=136)	도시남부 (N=413)	도시북부 (N=122)	F
1)여자들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운다	1.95	1.80	1.79	1.87	1.89	0.7
2)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2.01	1.82	1.95	1.96	1.93	1.71
3)여성의 권리가 늘어날수록 남성의 권리는 침해된다	2.16	2.06	2.03	2.14	2.22	0.97
4)미투운동은 전체 남성들을 성범죄의 가해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2.24	2.14	2.29	2.34	2.34	2.39*
5)우리 사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의 입장에서만 판단한다	2.65	2.46	2.51	2.65	2.69	2.41*
6)별 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을 여자들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2.51	2.24	2.39	2.39	2.49	2.25+
7)우리 사회는 이미 평등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1.83	1.75	1.76	1.78	1.95	1.7
8)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41	2.24	2.21	2.27	2.36	0.73
9)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불평등하다	2.36	2.46	2.37	2.52	2.52	0.86
10)남성의 군복무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3.19	3.10	3.18	3.13	3.08	0.31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4) 남성성 규범

이번에는 경기도 청소년들의 남성성 규범 인식을 6가지 항목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성 규범에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순으로 나타나, 남성성 규범 동의에 부정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5)남자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1.85점), ‘4)남자는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1.77점) 순으로 높았다. 반면 ‘2)남자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숨겨야 한다’(1.50점), ‘1)남자는 겁이 나도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1.53점)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3-31] 남성성 규범 동의 수준(전체)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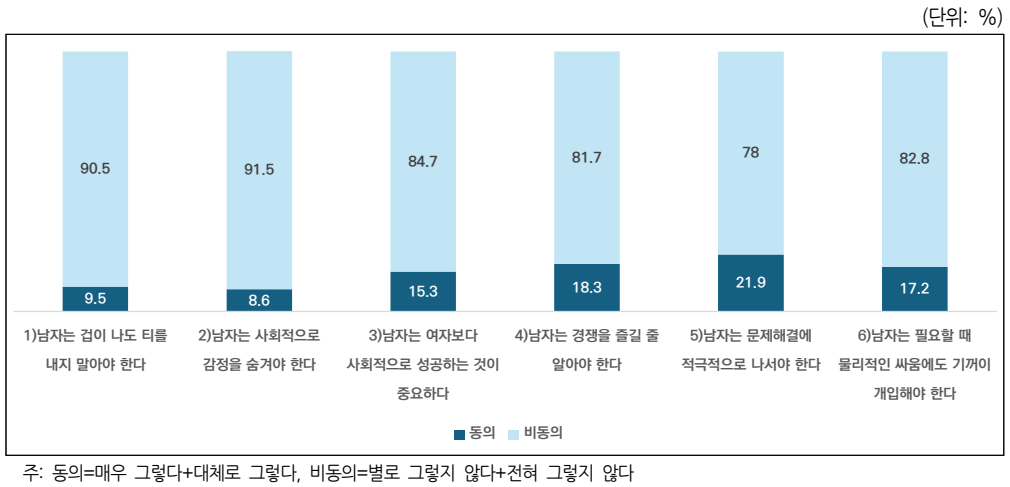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남자는 겁이 나도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	1,000	2.2	7.3	31.9	58.6	1.53 (0.73)
2)남자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숨겨야 한다	1,000	2.1	6.5	30.4	61.1	1.50 (0.71)
3)남자는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0	4.8	10.5	32.1	52.6	1.68 (0.85)
4)남자는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1,000	5.5	12.8	35.3	46.4	1.77 (0.87)
5)남자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000	4.5	17.4	36.2	41.8	1.85 (0.87)
6)남자는 필요할 때 물리적인 싸움에도 가까이 개입해야 한다	1,000	5.9	11.3	31.2	51.6	1.72 (0.89)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성 규범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값을 산출함.

남성성 규범에 대한 동의율은 대체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2)남자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숨겨야 한다’(8.6%)와 ‘1)남자는 겁이 나도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9.5%) 동의율이 낮았다. 반면 ‘5)남자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에서는 21.9%의 동의율을 보여 남성성을 측정하는 문항 간 응답의 차이가 존재했다.

[그림 3-4] 남성성 규범 동의율



성별 결과를 보면 '6)남자는 필요할 때 물리적인 싸움에도 기꺼이 개입해야 한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성 규범 동의에 성별 인식 차이가 있다. 6)번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남학생의 남성성 규범 동의 정도가 여학생에 비해 높았다. 또한 성별에 관계 없이 가장 높은 동의정도를 보였던 문항은 '5)남자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로 여학생 1.58점, 남학생 2.1점으로 남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다.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 문항은 '4)남자는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로 여학생 1.46점, 남학생 2.07점으로 0.61점의 차이가 존재했다. 다음으로 '3)남자는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에서 여학생 1.39점, 남학생 1.95점으로 0.56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3-32] 남성성 규범 동의 수준(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484)	남학생 (N=516)	T
1)남자는 겁이 나도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	1.32	1.73	87.49***
2)남자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숨겨야 한다	1.26	1.72	115.90***
3)남자는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39	1.95	141.55***
4)남자는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1.46	2.07	141.55***
5)남자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58	2.10	98.20***
6)남자는 필요할 때 물리적인 싸움에도 기꺼이 개입해야 한다	1.96	1.73	87.75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성 규범 동의 정도가 높음.

2) *p<.10, *p<.05, **p<.01, ***p<.001

학교급에서는 남성성 규범 동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평균 기준 '2)남자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숨겨야 한다'에서 중학생 1.48점, 고등학생 1.52점으로, '4)남자는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에서 중학생 1.77점 고등학생 1.78점, '5)남자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에서 중학생 1.84점, 고등학생 1.86점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남성성 규범 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1)남자는 겁이 나도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 '3)남자는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5)남자는 필요할 때 물리적인 싸움에도 기꺼이 개입해야 한다'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그 차이 역시 크지 않았다.

[표 3-33] 남성성 규범 동의 수준(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생 (N=550)	고등학생 (N=450)	T
1)남자는 겁이 나도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	1.54	1.52	0.08
2)남자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숨겨야 한다	1.48	1.52	0.72
3)남자는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65	1.71	1.37
4)남자는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1.77	1.78	0.00
5)남자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84	1.86	0.24
6)남자는 필요할 때 물리적인 싸움에도 기꺼이 개입해야 한다	1.73	1.70	2.00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성 규범 동의 정도가 높음.
 2) *p<.10, *p<.05, **p<.01, ***p<.001

성별과 학교급별로는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학교급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단 간 차이는 성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이 유사한 평균 점수로 남성성 규범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그에 비해 여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유사한 평균 점수에서 낮게 나타났다.

[표 3-34] 남성성 규범 동의 수준(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266)	남자 중학생 (N=284)	여자 고등학생 (N=219)	남자 고등학생 (N=231)	F
	1)남자는 겁이 나도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	1.29	1.77	1.35	
2)남자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숨겨야 한다	1.25	1.69	1.28	1.74	38.90***
3)남자는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38	1.90	1.39	2.01	42.47***
4)남자는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1.45	2.07	1.47	2.07	47.11***
5)남자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55	2.10	1.61	2.10	32.90***
6)남자는 필요할 때 물리적인 싸움에도 기꺼이 개입해야 한다	1.47	1.96	1.44	1.95	29.28***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성 규범 동의 정도가 높음.
 2) *p<.10, *p<.05, **p<.01, ***p<.001

권역별로는 '5)남자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해당 문항의 경우 도농복합북부 2.06점, 농촌 2.03점, 도농복합남부 1.88점, 도시북부 1.79점, 도시남부 1.77점 순으로 남성성 규범 동의 수준이 높았다. 또한 권역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5)번 문항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2)남자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숨겨야 한다'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3-35] 남성성 규범 동의 수준(권역별)

(단위: 명, 점)

구분	농촌 (N=14)	도농복합 남부 (N=314)	도농복합 북부 (N=136)	도시남부 (N=413)	도시북부 (N=122)	F
1)남자는 겁이 나도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	1.69	1.56	1.54	1.52	1.46	0.59
2)남자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숨겨야 한다	1.58	1.50	1.53	1.47	1.50	0.23
3)남자는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80	1.67	1.68	1.66	1.72	0.18
4)남자는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2.02	1.81	1.84	1.72	1.74	1.05
5)남자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3	1.88	2.06	1.77	1.79	3.41**
6)남자는 필요할 때 물리적인 싸움에도 기꺼이 개입해야 한다	1.88	1.69	1.82	1.70	1.71	0.78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성 규범 동의 정도가 높음.

2) *p<.10, **p<.05, ***p<.01, ****p<.001

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1)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성평등 수준을 직접 질문하는 것에 앞서, 경기도 청소년들이 가진 젠더를 둘러싼 사회의 여러 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묻고자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5가지 항목으로 사회 갈등을 살펴보았을 때, 평균 기준 '4)온라인상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이 3.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5)온라인상 나타나는 남성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2.96점, '2)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차별, 혐오, 폭력'과 '3)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차별, 혐오, 폭력' 2.85점, '1)여성과 남성 간 갈등' 2.84점 순으로 나타났다. '젠더갈등'이 화두가 되는 것에 비해 청소년들은 오히려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차별, 혐오, 폭력이 더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표 3-36] 우리 사회 갈등 인식(전체)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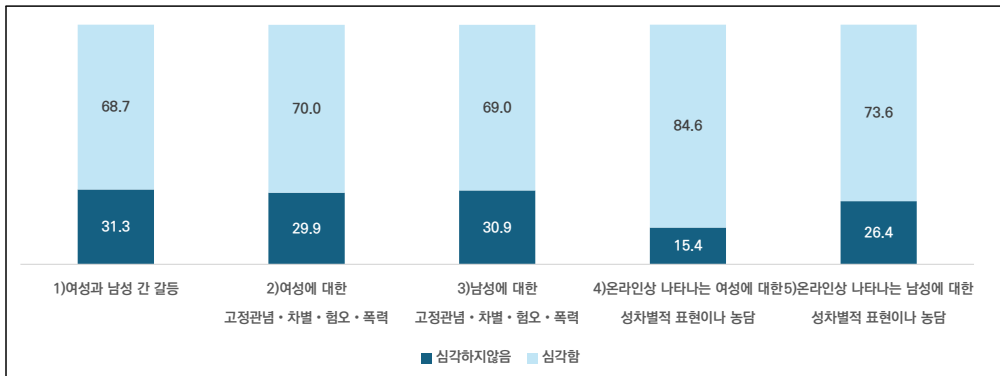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평균 (표준편차)
1)여성과 남성 간 갈등	1,000	3.2	28.1	50.4	18.3	2.84 (0.75)
2)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차별·혐오·폭력	1,000	3.7	26.2	51.5	18.5	2.85 (0.76)
3)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차별·혐오·폭력	1,000	3.6	27.3	49.2	19.8	2.85 (0.77)
4)온라인상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1,000	2.2	13.2	50.0	34.6	3.17 (0.73)
5)온라인상 나타나는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1,000	3.8	22.6	47.1	26.5	2.96 (0.80)

주: 1) 1=전혀 심각하지 않다 ~ 4=매우 심각하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우리 사회 갈등 인식은 대체로 심각(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하다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4)온라인상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에서는 84.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5)온라인상 나타나는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73.6%), ‘2)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차별·혐오·폭력’(70.0%) 순이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5] 우리 사회 갈등 인식

(단위: %)



주: 심각=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 심각하지 않음=전혀 심각하지 않다+심각하지 않다

성별로는 '1)여성과 남성 간 갈등', '5)온라인상 나타나는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적 갈등 인식 수준이 높았으며,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4)온라인상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으로 여학생 3.3점, 남학생 3.05점으로 0.25점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3)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차별·혐오·폭력'에서는 여학생 2.82점, 남학생 2.88점으로 남학생이 더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유일한 문항이었다.

[표 3-37] 우리 사회 갈등 인식(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484)	남학생 (N=516)	T
1)여성과 남성 간 갈등	2.80	2.87	1.8
2)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차별·혐오·폭력	2.95	2.76	16.43***
3)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차별·혐오·폭력	2.82	2.88	1.64***
4)온라인상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3.30	3.05	30.93***
5)온라인상 나타나는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2.98	2.95	0.4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2) *p<.10, *p<.05, **p<.01, ***p<.001

학교급별 갈등 인식에서는 앞서 살펴본 성별 갈등 인식과 다르게 '1)여성과 남성 간 갈등'에서만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중학생 2.78점, 고등학생 2.91점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다른 문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38] 우리 사회 갈등 인식(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교 (N=550)	고등학교 (N=450)	T
1)여성과 남성 간 갈등	2.78	2.91	7.29**
2)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차별·혐오·폭력	2.83	2.87	0.51
3)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차별·혐오·폭력	2.86	2.84	0.19
4)온라인상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3.18	3.16	0.26
5)온라인상 나타나는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2.98	2.94	0.52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2) *p<.10, *p<.05, **p<.01, ***p<.001

성별과 학교급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1)여성과 남성 간 갈등’, ‘2)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차별·혐오·폭력’ 및 ‘4)온라인상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1)번 문항의 경우 남자 고등학생 2.94점, 여자 고등학생 2.87점, 남자 중학생 2.81점, 여자 중학생 2.75점 순으로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2)번과 4)번에서는 여자 고등학생, 여자 중학생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학교급보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다.

[표 3-39] 우리 사회 갈등 인식(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266)	남자 중학생 (N=284)	여자 고등학생 (N=219)	남자 고등학생 (N=231)	F
1)여성과 남성 간 갈등	2.75	2.81	2.87	2.94	3.04*
2)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차별·혐오·폭력	2.93	2.75	2.97	2.77	5.66***
3)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차별·혐오·폭력	2.83	2.90	2.81	2.87	0.62
4)온라인상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3.32	3.05	3.28	3.04	10.44***
5)온라인상 나타나는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3.03	2.93	2.92	2.97	1.12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2) *p<.10, *p<.05, **p<.01, ***p<.001

권역별 청소년들의 사회 갈등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1)여성과 남성 간 갈등'이 유일했다. 도농복합남부 2.90점, 도농복합북부 2.89점, 도시남부 2.83점, 농촌 2.77점, 도시북부 2.65점 순으로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다른 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대체로 도농복합남부와 도농복합북부의 청소년들이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권역과의 평균에서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3-40] 우리 사회 갈등 인식(권역별)

(단위: 명, 점)

구분	농촌 (N=14)	도농복합 남부 (N=314)	도농복합 북부 (N=136)	도시남부 (N=413)	도시북부 (N=122)	F
1)여성과 남성 간 갈등	2.77	2.90	2.89	2.83	2.65	2.63*
2)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차별·혐오·폭력	2.75	2.87	2.87	2.83	2.84	0.18
3)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차별·혐오·폭력	2.86	2.86	2.94	2.82	2.87	0.65
4)온라인상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3.12	3.19	3.21	3.18	3.07	0.8
5)온라인상 나타나는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2.90	3.00	3.01	2.92	2.98	0.66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2) *p<.10, *p<.05, **p<.01, ***p<.001

2) 현재 성평등 수준 인식

경기도 청소년들의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4=여성에게 매우 불평등~0=평등~4=남성에게 매우 불평등의 9점 적도로 질문하였다. 전체 기준 평등을 응답한 비율은 25.2%로 상당 수 청소년들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중 여성에 불평등하다는 비율은 35.6%, 남성에게 불평등은 39.2%로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여성 불평등 비율에 비해 3.6%p 높았다.

그러나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여성에 불평등 비율이 56.0%, 남학생은 16.4%로 39.6%p 차이를, 여학생이 남성에게 불평등에 응답한 비율은 17.8%, 남학생은 59.3%로 41.5%p로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에게 불평등으로 응답한 비율에서 성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남성에게 불평등 응답 비율이 42.5%, 고등학생은 여성에게 불평등 비율이 39.9%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학교급 간 응답 차이가 존재했다. 평균에서도 중학생은 0.29점, 고등학생은 -0.04점으로 중학생은 남성 불평등에, 고등학생은 여성 불평등으로 응답한 경향을 보인다. 성별과 학교급을 함께 살펴보면 평균 기준 여자 중학생 -0.47점, 여자 고등학생 -0.79점, 남자 중학생 1.01점, 남자 고등학생 0.67점으로 여학생은 여성 불평등에, 남학생은 남성 불평등으로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학생 내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여성에게 불평등으로 응답했으며, 남학생에서는 남자 중학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더 남성에게 불평등으로 답하여 성별, 학교급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권역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평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든 권역에서 남성에게 불평등으로 응답한 경향이 있었다. 농촌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도농복합북부가 가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표 3-41]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	㉤ 평등	㉥+㉦	㉧+㉨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 +㉫+㉬ 여성에게 불평등	㉭+㉮ +㉯+㉰ 남성에게 불평등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00	2.7	33.0	25.2	33.5	5.8	35.6	39.2	0.14 (1.53)	-	
성별	여자	484	5.3	50.7	26.2	16.1	1.7	56.0	17.8	-0.61 (1.31)	303.94***
	남자	516	0.2	16.2	24.3	49.8	9.5	16.4	59.3	0.86 (1.36)	
학교급	중학교	550	2.0	30.0	25.5	34.2	8.3	32.0	42.5	0.29 (1.53)	12.15***
	고등학교	450	3.5	36.5	24.8	32.6	2.6	39.9	35.3	-0.04 (1.50)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4.2	45.8	29.9	18.1	2.0	50.1	20.0	-0.47 (1.28)	107.80***
	남자+중학교	284	0.0	15.2	21.4	49.1	14.3	15.2	63.4	1.01 (1.39)	
	여자+고등학교	219	6.7	56.6	21.7	13.7	1.4	63.2	15.1	-0.79 (1.33)	
	남자+고등학교	231	0.4	17.4	27.8	50.6	3.7	17.8	54.3	0.67 (1.30)	
권역	농촌	14	0.0	23.5	29.5	40.5	6.6	23.4	47.0	0.53 (1.31)	0.79
	도농복합남부	314	3.0	30.7	30.2	29.5	6.6	33.8	36.0	0.12 (1.52)	
	도농복합북부	136	3.2	36.9	22.7	34.0	3.2	40.1	37.1	0.06 (1.52)	
	도시남부	413	2.4	33.7	23.0	35.8	5.1	36.2	40.9	0.12 (1.53)	
	도시북부	122	2.0	32.5	22.3	34.5	8.7	34.5	43.2	0.32 (1.54)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3) 10년 후 성평등 수준 인식

경기도 청소년들이 현재 성평등 수준의 응답범주에서 대체로 남성에게 불평등으로 응답한 비율(39.2%)이 높았던 한편, 10년 후 성평등 수준에서는 평등으로 응답한 비율(41.7%)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남성에게 불평등 41.4%, 여성에게 불평등 16.9%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0.56점으로 현재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균 점수가 0.14점이었던 것에 비해 0.42점 더 남성에게 불평등으로 인식했다. 향후 성평등 수준 인식에 있어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요인은 성별과 학교급이 유일했다. 성별+학교급의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기준 여자 고등학생 -0.16점, 여자 중학생 -0.03점으로 여성에게 불평등으로, 남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16점으로 남성에게 불평등으로 응답했다. 현재에 대한 인식과 동일하게 10년 후 성평등 수준 인식에서도 여학생, 여학생 중에서도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여성에게 불평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남학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차이가 없었다. 현재 인식과 향후 인식 간 차이를 보면 여학생은 여성에게 불평등으로 응답했으나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남학생은 남성에게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향후 전망에서도 성별에서는 여학생은 여성에게 불평등을, 남학생은 남성에게 불평등 경향으로 응답했으며,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남성에게 불평등으로 답했다. 권역에서는 모두 남성에게 불평등으로 답했으며, 도시북부가 가장 점수가 컸고, 도농복합남부가 가장 작았다.

[표 3-42] 향후 10년 후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	㉤ 평등	㉥+㉦	㉧+㉨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 +㉫+㉬ 여성에게 불평등	㉭+㉮ +㉯+㉰ 남성에게 불평등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00	2.5	14.5	41.7	29.8	11.6	16.9	41.4	0.56 (1.52)	-	
성별	여자	484	4.3	25.0	47.0	21.4	2.4	29.3	23.7	-0.09 (1.27)	206.27
	남자	516	0.6	4.6	36.7	37.7	20.3	5.3	58.0	1.16 (1.48)	
학교급	중학교	550	2.3	13.9	43.4	27.9	12.6	16.2	40.4	0.59 (1.54)	0.50
	고등학교	450	2.6	15.3	39.6	32.2	10.5	17.8	42.6	0.52 (1.50)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3.8	21.7	50.2	22.3	2.0	25.5	24.3	-0.03 (1.21)	69.08***
	남자+중학교	284	0.9	6.6	37.1	33.0	22.3	7.5	55.4	1.16 (1.58)	
	여자+고등학교	219	4.9	29.0	43.2	20.2	2.6	33.9	22.9	-0.16 (1.34)	
	남자+고등학교	231	0.4	2.1	36.2	43.4	17.8	2.6	61.3	1.16 (1.35)	
권역	농촌	14	1.0	10.3	47.3	30.0	11.4	11.2	41.4	0.68 (1.40)	0.42
	도농복합남부	314	1.1	13.8	48.4	24.7	11.8	15.1	36.5	0.54 (1.47)	
	도농복합북부	136	1.6	18.6	41.6	26.6	11.5	20.2	38.2	0.48 (1.54)	
	도시남부	413	3.9	14.5	38.0	32.4	11.2	18.4	43.6	0.55 (1.57)	
	도시북부	122	1.8	12.0	36.4	37.2	12.5	13.9	49.7	0.71 (1.47)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다. 페미니즘 인식과 성평등 관심 정도

1) 페미니즘 정의 인식

이번 절에서는 경기도 청소년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페미니스트로의 정체화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3-43]은 페미니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 기준 약간 알고 있다 37.7%, 전혀 알지 못한다 30.2%, 별로 알지 못한다 20.2%, 매우 잘 알고 있다 11.9% 순으로 나타나 절반 정도는 알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모르고 있다 응답했다. 페미니즘 인식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 학교급, 성별+학교급에서 유의했다.

먼저 성별로는 여학생은 전혀 알지 못한다가 38.0%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으며, 약간 알고 있다 36.1%, 별로 알지 못한다 18.8%, 매우 잘 알고 있다 7.0% 순이었다. 그에 비해 남학생은 약간 알고 있다 39.2%, 전혀 알지 못한다 22.9%, 별로 알지 못한다 21.5%, 매우 잘 알고 있다 16.5%로 여학생에 비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은 전혀 알지 못한다가 37.1%로 가장 높았으며, 약간 알고 있다(32.6%), 별로 알지 못한다(21.4%) 순이었다면, 고등학생은 약간 알고 있다가 43.9%로 가장 높고, 전혀 알지 못한다(21.8%), 별로 알지 못한다(18.7%) 순으로 응답하여 학교급 간 응답의 차이를 보인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응답에서는 중학생 8.9%, 고등학생 15.6%로 약 6.7%p 차이가 존재했다.

성별+학교급별로는 가장 많은 응답에서 여자 중학생은 전혀 알지 못한다(43.4%)를 응답했으며 다른 집단에서는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약간 알고 있다 비율에서 남자 중학생은 약34.1%, 여자 고등학생 42.4%, 남자 고등학생 45.4%로 나타났다. 한편 매우 잘 알고 있다 응답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중학생에서는 5.6%p(여자 중학생 6.0%, 남자 중학생 11.6%), 고등학생에서는 14.2%p(여자 고등학생 8.3%, 남자 고등학생 22.5%)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이 페미니즘을 잘 알고 있다 응답한 비율이 네 집단 중 가장 높았다.

[표 3-43] 페미니즘의 뜻 인식 정도(전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약간 알고 있다	별로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χ^2
전체		1,000	11.9	37.7	20.2	30.2	-
성별	여자	484	7.0	36.1	18.8	38.0	39.78***
	남자	516	16.5	39.2	21.5	22.9	
학교급	중학교	550	8.9	32.6	21.4	37.1	38.14***
	고등학교	450	15.6	43.9	18.7	21.8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6.0	31.0	19.7	43.4	82.7***
	남자+중학교	284	11.6	34.1	23.1	31.2	
	여자+고등학교	219	8.3	42.4	17.8	31.5	
	남자+고등학교	231	22.5	45.4	19.5	12.6	
권역	농촌	14	10.7	43.9	22.7	22.7	12.84
	도농복합남부	314	13.3	34.1	17.3	35.3	
	도농복합북부	136	11.8	38.0	23.4	26.8	
	도시남부	413	11.6	41.3	20.6	26.5	
	도시북부	122	9.5	33.8	22.3	34.4	

주: 1) 1=매우 잘 알고 있다 ~ 4=전혀 알지 못한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값을 산출함.

3) *p<.10, *p<.05, **p<.01, ***p<.001

2)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다음은 페미니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제외하고 페미니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698명을 대상으로 페미니즘 내용에 대한 인식 정도를 질문한 결과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페미니즘 인식을 측정한 4가지 항목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3)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이다'(2.73점), '4)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2.67점), '1)페미니즘은 남성에게 불이익을 준다'와 '2)페미니즘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2.66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4] 페미니즘 인식(전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페미니즘은 남성에게 불이익을 준다	698	12.9	48.0	31.0	8.1	2.66 (0.80)
2)페미니즘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698	15.0	44.5	31.8	8.6	2.66 (0.84)
3)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이다	698	18.9	45.5	25.7	9.9	2.73 (0.88)
4)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698	17.0	43.5	29.5	10.0	2.67 (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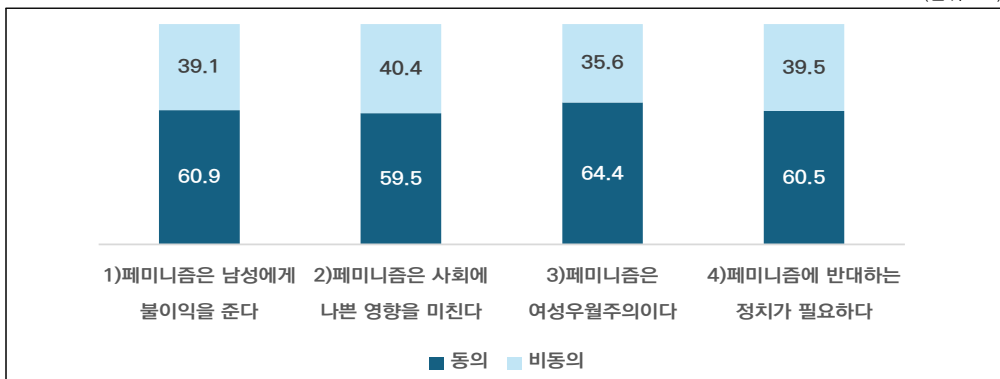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점수가 높을수록 페미니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값을 산출함.

[그림 3-6]에서 비율로 보았을 때에도 모든 항목에서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의 응답이 약 60% 이상으로 나타나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페미니즘을 알고 있는 청소년 10명 중 6명이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3)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이다’라는 문항에 동의율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페미니즘 부정적 인식 동의율

(단위: %)



주: 동의=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비동의=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로 페미니즘 인식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4)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에 있어 여학생 2.25점, 남학생 3.00점으로 0.75점의 차이를 보인다.

[표 3-45] 페미니즘 인식(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300)	남학생 (N=398)	T
1)페미니즘은 남성에게 불이익을 준다	2.26	2.96	157.65***
2)페미니즘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2.25	2.97	155.29***
3)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이다	2.40	2.99	88.09***
4)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2.25	3.00	154.71***

주: 1) 페미니즘 뜻 인식 정도에 4=전혀 알지 못한다를 제외하고 1=매우 잘 알고 있다~3=별로 알고 있지 못한다로 응답한 청소년
 2) 점수가 높을수록 페미니즘 인식이 부정적임.
 3) *p<.10, *p<.05, **p<.01, ***p<.001

학교급별로는 페미니즘 인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4)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에서만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 2.74점, 고등학생 2.61점으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3-46] 페미니즘 인식(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교 (N=550)	고등학교 (N=450)	T
1)페미니즘은 남성에게 불이익을 준다	2.66	2.65	0.02
2)페미니즘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2.68	2.64	0.26
3)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이다	2.78	2.69	1.71
4)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2.74	2.61	3.85+

주: 1) 페미니즘 뜻 인식 정도에 4=전혀 알지 못한다를 제외하고 1=매우 잘 알고 있다~3=별로 알고 있지 못한다로 응답한 청소년
 2) 점수가 높을수록 페미니즘 인식이 부정적임.
 3) *p<.10, *p<.05, **p<.01, ***p<.001

성별+학교급별 페미니즘 인식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남자 고등학생에서 페미니즘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다음으로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학교급 내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남녀 고등학생 간 차이가 가장 많이 났던 문항은 '4)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로 남학생은 3.01점, 여학생은 2.07점으로 응답하여 0.94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페미니즘은 남성에게 불이익을 준다'로 고등학교 남학생 3.0점, 여학생 2.18점으로 0.82점의 차이가 있었다. 남자 고등학생의 반페미니즘 정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한편, 문항 전반에서 중, 고등학교 여학생 역시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청소년 내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7] 페미니즘 인식(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151)	남자 중학생 (N=196)	여자 고등학생 (N=150)	남자 고등학생 (N=202)	F
1)페미니즘은 남성에게 불이익을 준다	2.34	2.91	2.18	3.00	54.61***
2)페미니즘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2.31	2.96	2.19	2.98	52.37***
3)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이다	2.51	2.99	2.29	2.99	31.27***
4)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2.42	2.98	2.07	3.01	57.59***

주: 1) 페미니즘 뜻 인식 정도에 4=전혀 알지 못한다를 제외하고 1=매우 잘 알고 있다~3=별로 알고 있지 못한다로 응답한 청소년

2) 점수가 높을수록 페미니즘 인식이 부정적임.

3) *p<.10, *p<.05, **p<.01, ***p<.001

3) 페미니스트 정체화 수준

페미니즘을 알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중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는 경우(매우 그렇다 1.9%, 약간 그렇다 13.0%)는 14.9%에 불과했다. 집단별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 성별+학교급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평균 기준 여학생은 1.83점, 남학생은 1.46점으로 여학생의 페미니스트 정체화 수준이 높았다. 세부 응답에서도 여학생은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이 20.1%, 남학생은 11.0%으로 9.1%p의 차이를 보였다. 성별과 학교급에서는 평균 기준 여자 고등학생 1.91점, 여자 중학생 1.75점, 남자 고등학생 1.47점, 남자 중학생 1.46점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보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페미니스트 정체화에 대한 긍정 응답에서 여자 고등학생은 22.4%를, 남자 중학생은 9.9%를 응답하여 12.5%p의 차이를 보인다.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급에서는 고등학생이, 권역에서는 도농복합북부에서 페미니스트 정체화 수준이 높았다.

[표 3-48] 페미니스트(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사람) 정체화 수준(전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698	1.9	13.0	30.3	54.8	1.62 (0.78)	-
성별	여자	300	3.3	16.8	39.3	40.6	1.83 (0.82)	39.77***
	남자	398	0.8	10.2	23.5	65.5	1.46 (0.71)	
학교급	중학교	346	1.3	11.9	30.7	56.1	1.59 (0.75)	1.37
	고등학교	352	2.4	14.1	29.9	53.5	1.65 (0.81)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151	1.5	16.2	37.7	44.6	1.75 (0.78)	14.42***
	남자+중학교	196	1.2	8.7	25.3	64.9	1.46 (0.70)	
	여자+고등학교	150	5.0	17.4	40.9	36.7	1.91 (0.86)	
	남자+고등학교	202	0.5	11.6	21.8	66.0	1.47 (0.72)	
권역	농촌	11	0.0	10.9	41.8	47.3	1.64 (0.67)	0.20
	도농복합남부	203	2.7	15.1	25.9	56.4	1.64 (0.83)	
	도농복합북부	100	2.2	14.6	29.6	53.6	1.65 (0.81)	
	도시남부	304	1.8	10.0	33.6	54.6	1.59 (0.74)	
	도시북부	80	0.0	17.6	28.2	54.2	1.63 (0.77)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점수가 높을수록 페미니스트 정체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3) *p<.10, **p<.05, ***p<.01, ****p<.001

4)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

경기도 청소년의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을 5가지 항목으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 6번째 항목으로 관심없다에 대한 응답을 함께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는 '6)관심없다' 2.24점이었으며, '2)친구들과 이야기한다'가 2.09점, '1)관련 자료를 찾아본다' 1.86점, '3)부모님과 이야기한다' 1.82점, '4)선생님과 이야기한다' 1.59점, '5)집회나 행사에 참여한다' 1.46점 순이었다. 청소년은 성평등과 관련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것을 주로 행하고 있었다. 반대로 선생님과 논의하거나 집회나 행사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9]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 정도(전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관련 자료를 찾아본다	1,000	4.7	12.3	47.2	35.9	1.86 (0.80)
2)친구들과 이야기한다	1,000	5.9	24.2	42.9	27.0	2.09 (0.86)
3)부모님과 이야기한다	1,000	3.6	13.6	43.6	39.1	1.82 (0.80)
4)선생님과 이야기한다	1,000	2.2	5.4	42.0	50.4	1.59 (0.69)
5)집회나 행사에 참여한다	1,000	1.9	3.7	33.0	61.4	1.46 (0.66)
6)관심없다	1,000	23.0	41.6	24.2	11.2	2.24 (0.93)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기 위해 6)번을 제외하고는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성별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1)관련 자료를 찾아본다', '2)친구들과 이야기한다', '6)관심없다'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5)집회나 행사에 참여한다'에서도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번, 2)번, 5)번에 있어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점수가 높게 나타나 남학생이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친구들과 이야기한다'에서 남학생이 더 많이 활동한다는 점은 남학생의 또래 내 성평등, 페미니즘 지식과 인식이 더 활발히 교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남학생의 성평등 인식은 또래 문화 속에서 어떤 지식과 인식이 오고가는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6)번 문항에서 여학생은 2.30점, 남학생은 2.18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관심없다에 더 많이 응답했다.

[표 3-50]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 정도(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484)	남학생 (N=516)	T
1)관련 자료를 찾아본다	1.79	1.92	7.02**
2)친구들과 이야기한다	2.01	2.17	8.68**
3)부모님과 이야기한다	1.84	1.80	0.85
4)선생님과 이야기한다	1.57	1.61	1.01
5)집회나 행사에 참여한다	1.42	1.50	3.35+
6)관심없다	2.30	2.18	4.23*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을 더 많이 함.

2) *p<.10, **p<.05, ***p<.01, ****p<.0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1)관련 자료를 찾아본다’, ‘2)친구들과 이야기한다’ 및 ‘6)관심없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세 항목에서 모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점수가 높았다. 학교급별에서도 친구들과 이야기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활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던 3)번, 4)번, 5)번에 있어서도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고등학생의 점수가 중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표 3-51]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 정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교 (N=550)	고등학교 (N=450)	T
1)관련 자료를 찾아본다	1.78	1.95	11.34***
2)친구들과 이야기한다	2.00	2.19	12.33***
3)부모님과 이야기한다	1.79	1.86	1.85
4)선생님과 이야기한다	1.57	1.62	1.34
5)집회나 행사에 참여한다	1.45	1.47	0.2
6)관심없다	2.15	2.35	11.75***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을 더 많이 함.

2) *p<.10, **p<.05, ***p<.01, ****p<.001

성별+학교급별로도 '1)관련 자료를 찾아본다', '2)친구들과 이야기한다' 및 '6)관심없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전체 평균에서 '6)관심없다'를 제외하고는 '2)친구들과 이야기한다'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1)관련 자료를 찾아본다' 순이었다. 각 집단별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2)번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이 2.2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 고등학생 2.11점, 남자 중학생 2.08점, 여자 중학생 1.92점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여자 중학생이 가장 덜하고 있었다. 1)번에서도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나 남자 고등학생이 관련 자료를 가장 많이 찾아보고, 여자 중학생이 가장 덜 찾아보고 있었다. 한편 '6)관심없다'에서는 여자 고등학생 2.42점, 남자 고등학생 2.28점, 여자 중학생 2.20점, 남자 중학생 2.09점 순으로 나타났다. 1)번과 2)번 응답 경향과 다르게 여자 고등학생이 성평등에 관심있다고 응답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남자 중학생이 가장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52]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 정도(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151)	남자 중학생 (N=196)	여자 고등학생 (N=150)	남자 고등학생 (N=202)	F
1)관련 자료를 찾아본다	1.71	1.85	1.88	2.01	6.18***
2)친구들과 이야기한다	1.92	2.08	2.11	2.27	7.08***
3)부모님과 이야기한다	1.77	1.80	1.93	1.79	1.93
4)선생님과 이야기한다	1.57	1.57	1.58	1.66	1.05
5)집회나 행사에 참여한다	1.40	1.51	1.45	1.49	1.43
6)관심없다	2.20	2.09	2.42	2.28	5.35**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관심 관련 활동을 더 많이 함.

2) *p<.10, *p<.05, **p<.01, ***p<.001

라. 혐오 표현,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인식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혐오표현,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동의 정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대응에 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6개의 항목 모두 3.1점 이상으로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평균 점수가 가장 큰 것은 '2)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3.42점)였다. 다음으로는 '3)취업과 임금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3.23점), '1)온라인 사이트나 미디어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3.10점)와 '5)학교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3.10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응답비율에서도 동의한다는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약 78% 이상으로 사회적 대응에 대한 경기도 청소년들의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번 문항에 대한 동의는 89.3%로 10명 중 9명의 청소년들이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3-53] 혐오표현,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동의 정도(전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온라인 사이트나 미디어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1,000	33.4	46.8	16.1	3.7	3.10 (0.80)
2)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1,000	54.4	34.9	8.6	2.1	3.42 (0.73)
3)취업과 임금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1,000	39.8	46.4	11.4	2.4	3.23 (0.75)
4)교사들의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000	30.0	48.1	18.7	3.2	3.05 (0.78)
5)학교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1,000	34.1	45.4	16.7	3.9	3.10 (0.81)
6)전체 국민 성평등 의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1,000	32.0	45.6	17.8	4.6	3.05 (0.82)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대응 동의 수준이 높도록 측정하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성별 사회적 대응 등의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6개 문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또한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아 여학생이 사회적 대응에 좀더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기준 성별 차이가 가장 컸던 문항은 '3)취업과 임금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로 여학생 3.43점, 남학생 3.05점으로 0.38점의 차이를 보였다. 조직문화 내 존재하는 성차별 인식에서도 여학생 점수가 높았던 것과도 동일한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6)전체 국민 성평등 의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로 여학생 3.23점, 남학생 2.88점으로 0.35점 차이가 있었다. 차이가 가장 적었던 것은 '4)교사들의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로 여학생 3.17점, 남학생 2.93점으로 0.24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3-54] 혐오표현,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동의 정도(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484)	남학생 (N=516)	χ^2
1)온라인 사이트나 미디어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3.27	2.94	42.94***
2)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3.58	3.26	50.44***
3)취업과 임금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43	3.05	71.32***
4)교사들의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3.17	2.93	24.75***
5)학교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3.24	2.97	28.60***
6)전체 국민 성평등 의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3.23	2.88	45.01***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대응 동의 정도가 높음.

2) *p<.10, **p<.05, ***p<.001

한편, 학교급별 사회적 대응 동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문항은 '2)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에서 유일했다. 해당 항목에서 중학생은 3.36점, 고등학생은 3.48점으로 고등학생의 인식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3)취업과 임금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를 제외하고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55] 혐오표현,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동의 정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생 (N=550)	고등학생 (N=450)	T
1)온라인 사이트나 미디어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3.11	3.09	0.08
2)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3.36	3.48	6.83**
3)취업과 임금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21	3.26	1.00
4)교사들의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3.06	3.04	0.1
5)학교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3.11	3.08	0.34
6)전체 국민 성평등 인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3.06	3.03	0.31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대응 동의 정도가 높음.

2) *p<.10, *p<.05, **p<.01, ***p<.001

성별+학교급별로는 6개 문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학교급에 관계 없이 여학생들의 동의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여학생 내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동의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남학생 내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일관된 경향이 존재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던 '2)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에서 여자 고등학생(3.68점), 여자 중학생(3.50점), 남자 고등학생(3.30점), 남자 중학생(3.23점) 순으로 나타나 여자 고등학생과 남자 중학생 간 0.45점의 차이가 존재했다. 다음으로 '3)취업과 임금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여자 고등학생(3.52점), 여자 중학생(3.36점), 남자 중학생(3.07점), 남자 고등학생(3.02점)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생 내 성별에 따라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표 3-56] 혐오표현,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 동의 정도(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151)	남자 중학생 (N=196)	여자 고등학생 (N=150)	남자 고등학생 (N=202)	F
1)온라인 사이트나 미디어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3.23	2.99	3.31	2.89	15.47***
2)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3.50	3.23	3.68	3.30	19.82***
3)취업과 임금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36	3.07	3.52	3.02	26.04***
4)교사들의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3.19	2.94	3.16	2.93	8.28***
5)학교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3.22	3.00	3.25	2.92	10.08***
6)전체 국민 성평등 인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3.17	2.96	3.29	2.79	17.85***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대응 동의 정도가 높음.

2) *p<.10, *p<.05, **p<.01, ***p<.001

3. 청소년의 가족내 성평등 현황

가. 가족문화

1) 가족 내 성차별 경험

이번 장은 가족 내 성차별 경험, 가사·양육·일 분담, 부모님 관계에서의 성평등 정도 및 부모님(보호자) 양육태도의 성평등 정도를 살펴으로써 청소년이 가족에서 경험하는 성평등 현황을 살피고자 기획되었다. [표 3-57]과 [그림 3-7]은 가정에서 부모(보호자)나 형제로부터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전혀 없다가 64.8%로 나머지 35.2%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거의 없다가 17.1%, 가끔있다 14.4%, 자주있다 2.9%, 매우 자주있다 0.8%로 가정 내 성차별 경험이 있더라도 자주있는 경우(자주있다+매우 자주있다)는 3.7%로 적은 비율이었다. 평균 점수에서도 전체 기준 1.58점으로 대체로 전혀없다와 거의없다 사이를 응답하는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다. 집단별 성차별 경험률에 차이가 있는지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성별, 학교급, 성별+학교급 및 권역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3-57] 가정에서 부모(보호자)나 형제로부터 성차별 경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자주있다	자주있다	가끔있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00	0.8	2.9	14.4	17.1	64.8	1.58 (0.90)	-
성별	여자	484	0.4	2.5	15.8	15.3	66.1	1.56 (0.87)	0.44
	남자	516	1.1	3.4	13.1	18.8	63.7	1.60 (0.92)	
학교급	중학교	550	0.7	3.8	15.1	14.5	66.0	1.59 (0.92)	0.15
	고등학교	450	0.9	1.8	13.5	20.3	63.4	1.57 (0.86)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0.4	3.0	18.4	15.0	63.2	1.62 (0.91)	1.72
	남자+중학교	284	0.9	4.6	12.0	14.0	68.5	1.55 (0.93)	
	여자+고등학교	219	0.3	1.8	12.6	15.8	69.5	1.48 (0.81)	
	남자+고등학교	231	1.5	1.9	14.4	24.6	57.7	1.65 (0.90)	
권역	농촌	14	0.8	0.9	7.9	32.5	57.9	1.54 (0.75)	0.98
	도농복합남부	314	0.3	1.9	14.1	14.8	68.8	1.50 (0.83)	
	도농복합북부	136	0.8	2.3	11.6	24.9	60.3	1.58 (0.85)	
	도시남부	413	1.0	3.4	14.3	18.0	63.3	1.61 (0.92)	
	도시북부	122	1.1	4.7	19.1	9.6	65.5	1.66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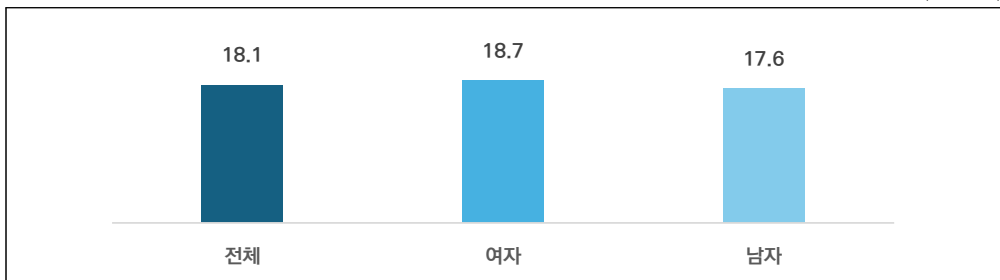
주: 1) 1=매우 자주 있다 ~ 5=전혀 없다

2)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내 성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3) *p<.10, *p<.05, **p<.01, ***p<.001

[그림 3-7] 가정 내 성차별 경험 비율

(단위: %)



주: 있음=매우 자주 있다+자주 있다+가끔있다

2) 가족 내 가사양육 경제활동 현황

다음은 가족 내 역할 담당을 질문한 문항이다. 가사일 등 집단일 담당에 있어 가장 많이 담당하는 사람은 전체 기준 어머니 93.7%, 아버지 49.7%, 본인 25.3%, 본인 외 형제 14.7%로 어머니가 담당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어머니와 아버지 간 차이는 약 44.0%p로 대부분의 가정 내 가사일은 어머니가 도맡고 있었다. 한편, 집단별로 각 담당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여학생은 어머니가 94.8%, 아버지는 45.3%, 남학생은 어머니 92.6%, 아버지 53.9%로 두 집단에서 모두 어머니가 가사일을 상당 부분 맡고 있으나, 여학생은 어머니와 아버지 간 차이를 더 크게(여학생이 응답한 어머니와 아버지 차이 49.5%p, 남학생이 응답한 어머니와 아버지 차이 38.7%p) 인지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성별만큼은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어머니와 아버지 간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며(고등학생이 응답한 어머니와 아버지 차이 45.6%p, 중학생 42.5%p), 성별+학교급에서는 여자 고등학생(50.3%p), 여자 중학생(48.9%p), 남자 고등학생(41.2%p), 남자 중학생(36.6%p) 순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간 차이를 크게 인식했다. 권역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간 차이가 도시 남부에서 49.6%p로 가장 컸으며 도농복합남부 41.5%p, 도농복합북부는 41.2%p, 도시북부 35.1%p, 농촌 32.9%p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8] 가정 내 가사일 등 집안일 담당(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어머니	아버지	본인	본인 외 형제	기타
전체		1,000	93.7	49.7	25.3	14.7	3.1
성별	여자	484	94.8	45.3	23.1	13.2	3.0
	남자	516	92.6	53.9	27.3	16.2	3.3
학교급	중학교	550	92.6	50.1	26.0	14.6	3.3
	고등학교	450	94.9	49.3	24.4	14.8	2.9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94.2	45.3	25.3	13.7	3.8
	남자+중학교	284	91.2	54.6	26.6	15.5	2.9
	여자+고등학교	219	95.7	45.4	20.4	12.5	2.0
	남자+고등학교	231	94.2	53.0	28.1	17.0	3.7
권역	농촌	14	89.7	56.8	36.4	17.2	5.9
	도농복합남부	314	95.2	53.7	26.4	16.3	2.3
	도농복합북부	136	89.7	48.5	22.5	7.0	6.6
	도시남부	413	95.1	45.5	25.3	14.1	3.3
	도시북부	122	89.7	54.6	24.1	21.1	0.6

양육과 교육 담당 비율에서는 어머니 90.1%, 아버지 55.7%, 본인 8.1%, 본인 외 형제 4.3% 순으로 나타나 가사일에 비해 어머니 비중은 약간 줄고, 아버지는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34.4%p 더 많이 담당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어머니와 아버지 격차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학생은 40.3%p, 남학생은 28.9%p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학교급에서는 고등학생이 40.7%p, 중학생 29.3%로 응답했다. 여학생과 고등학생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간 차이가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학교급에서는 여자 고등학생(47%p), 남자 고등학생(34.7%p), 여자 중학생(34.6%p), 남자 중학생 (24.2%p) 순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간 역할 간 차이가 큰 것으로 응답했다. 권역에서는 도농복합북부 42.1%, 도시남부 35.8%p, 도농복합남부 32.7%p, 도시북부 27.1%p, 농촌 18.4%p로 응답하여 도농복합북부와 농촌 간 인식 차이가 크게 있었다.

[표 3-59] 가정 내 자녀 양육과 교육 담당(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어머니	아버지	본인	본인 외 형제	기타
전체		1,000	90.1	55.7	8.1	4.3	2.7
성별	여자	484	92.8	52.5	6.3	4.2	2.0
	남자	516	87.5	58.6	9.9	4.4	3.2
학교급	중학교	550	87.6	58.3	9.4	4.2	3.8
	고등학교	450	93.1	52.4	6.7	4.5	1.2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90.3	55.7	6.9	5.2	3.4
	남자+중학교	284	85.0	60.8	11.6	3.2	4.2
	여자+고등학교	219	95.7	48.7	5.5	3.0	0.4
	남자+고등학교	231	90.6	55.9	7.8	5.9	2.0
권역	농촌	14	84.4	66.0	10.4	5.3	2.5
	도농복합남부	314	90.2	57.5	10.8	7.2	1.6
	도농복합북부	136	88.7	46.6	11.0	4.5	3.2
	도시남부	413	90.8	55.0	6.1	2.6	2.6
	도시북부	122	89.3	62.2	4.6	2.6	4.9

[표 3-60]은 가정 내 경제활동 담당을 살펴본 결과이다. 아버지 95.3%, 어머니 70.5%, 본인 외 형제 7.1% 순으로, 가사일과 교육과 다르게 아버지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와 아버지 간 차이는 24.8%p로, 가사일과 교육에 비해 크지 않았다. 경기도 청소년은 어머니가 가사일과 자녀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은 아버지보다는 적게 담당하나, 어머니의 비중이 적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여학생은 어머니 72.4%, 아버지 94.0%로 21.6%p의 차이를, 남학생은 어머니 68.8%, 아버지 96.5%로 27.7%p의 차이가 있었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은 어머니와 아버지 간 23.5%p, 고등학생은 26.3%p 차이가 나타나, 경제활동에 있어 남학생과 고등학생이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 역할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학교급에서는 남자 고등학생 28.9%p, 남자 중학생 26.6%p, 여자 고등학생 23.6%p, 여자 중학생 20.1%p 순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간 경제활동의 차이가 높게 나타난다고 응답했다. 권역별로는 도시남부 26.8%p, 도농복합남부 24.1%p, 도시북부 24%p, 도농복합북부 22.1%p, 농촌 13.7%p 순으로 응답하여, 도시남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간 경제활동의 차이

를 가장 크게, 농촌에서 가장 작게 인식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표 3-60] 가정 내 경제활동 담당(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어머니	아버지	본인	본인 외 형제	기타
전체		1,000	70.5	95.3	0.8	7.1	1.3
성별	여자	484	72.4	94.0	0.7	6.4	0.9
	남자	516	68.8	96.5	0.8	7.7	1.6
학교급	중학교	550	72.1	95.6	0.4	5.0	1.2
	고등학교	450	68.6	94.9	1.2	9.5	1.4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74.6	94.7	0.5	3.9	0.9
	남자+중학교	284	69.8	96.4	0.3	6.1	1.4
	여자+고등학교	219	69.7	93.3	0.9	9.3	0.9
	남자+고등학교	231	67.6	96.5	1.5	9.7	1.8
권역	농촌	14	78.6	92.3	0.9	10.7	0.7
	도농복합남부	314	71.2	95.3	0.3	5.1	0.9
	도농복합북부	136	69.7	91.8	3.7	8.9	1.7
	도시남부	413	70.1	96.9	0.4	7.4	1.3
	도시북부	122	70.3	94.3	0.0	8.5	1.5

3) 부모님 관계 성평등 인식 정도

이번에는 경기도 청소년이 인식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간 관계 성평등 정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 기준 평등한 편임을 응답한 비율이 91.6%로 다수였으며, 어머니에게 불평등함 5.1%, 아버지에게 불평등함 2.0% 순이었다. 대체로 평등한 편임이라고 응답했으나 아버지에게 불평등보다는 어머니에게 불평등에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았다. 집단 간 응답 차이를 보면, 여학생은 평등한 편임을 88.8%, 어머니에게 불평등함 8.1%, 아버지에게 불평등함 1.7% 순으로 응답한 한편, 남학생은 평등한 편임 94.3%, 아버지에게 불평등함 2.4%, 어머니에게 불평등함 2.2%로 응답하여, 여학생은 어머니가, 남학생은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아버지가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은 평등한 편임 91.7%, 어머니에게 불평등함 4.5%, 아버지에게 불평등함 2.5% 순으로, 고등학생도 평등한 편임 91.5%, 어머니에게 불평등함 5.8%, 아버지에게 불평등함 1.5% 순으로 응답했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어머니

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고, 아버지에게 불평등함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학교급에 따르면, 평등한 편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남자 중학생 94.8%, 남자 고등학생 93.7%, 여자 고등학생 89.2%, 여자 중학생 88.4% 순으로 응답했다. 남자 중학생은 아버지에게 불평등함을, 여자 중학생은 어머니에게 불평등함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고등학생에서도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권역에서는 평등한 편임 비율에서 도시북부가 94.5%로 가장 높았으며, 도농복합남부 92.3%, 도시남부 91.5%, 도농복합북부 88.5%, 농촌 86.2% 순으로 나타나, 도시북부가 부모님 간 관계가 가장 성평등하며, 농촌이 가장 불평등하다고 인지를 했다. 그러나 도시북부에서는 어머니에게 불평등함 비율이 높은 한편, 농촌에서는 아버지에게 불평등함 비율이 약간 높아, 불평등으로 인지하더라도 권역별 그 양상이 다름이 드러났다.

[표 3-61] 어머니와 아버지 간 관계 성평등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어머니에게 불평등함	평등한 편임	아버지에게 불평등함	해당없음
전체		1,000	5.1	91.6	2.0	1.3
성별	여자	484	8.1	88.8	1.7	1.5
	남자	516	2.2	94.3	2.4	1.1
학교급	중학교	550	4.5	91.7	2.5	1.3
	고등학교	450	5.8	91.5	1.5	1.2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8.3	88.4	2.2	1.0
	남자+중학교	284	0.9	94.8	2.7	1.6
	여자+고등학교	219	7.8	89.2	1.0	2.0
	남자+고등학교	231	3.9	93.7	1.9	0.5
권역	농촌	14	4.3	86.2	4.6	4.9
	도농복합남부	314	5.0	92.3	1.2	1.5
	도농복합북부	136	6.5	88.5	3.4	1.6
	도시남부	413	5.4	91.5	2.2	0.9
	도시북부	122	2.4	94.5	1.9	1.2

4) 부모님(보호자) 양육태도 성평등 정도

아버지 양육태도의 성평등 정도를 살펴보았다. 성평등함이 53.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매우 성평등함 41.1%, 성차별적임 3.8%, 매우 성차별적임은 0.8% 순으로 응답하여, 청소년들 다수가 아버지 양육태도가 성평등하다 인식했다. 평균을 기준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차이가 있는 집단은 없었다.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성평등함 비율은 적고, 매우 성평등함 비율이 약간 높았다. 또한 성차별적임은 높고, 매우 성차별적임은 낮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학교급에 따르면,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성평등하다(성평등함+매우 성평등함)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성차별적이다(매우 성차별적임+성차별적임)라는 응답 비율은 낮은 차이를 보인다.

성별+학교급별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성평등하다는 비율에서 남자 고등학생 55.9%, 남자 중학생 54.1%, 여자 중학생 54.0%, 여자 고등학생 48.9% 순으로 응답했다. 성차별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여자 고등학생은 같은 학교급의 남학생보다 더 높게 응답했다는 차이를 보인다. 권역에서는 성평등함 비율에서 농촌이 58.8%로 가장 높았으며, 도농복합북부 58.7%, 도시남부 52.8%, 도농복합남부 52.1%, 도시북부 51.8% 순이었다. 그러나 성차별적이라는 응답에서는 권역 간 눈에 띄는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표 3-62] 아버지 양육태도 성평등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성차별적	성차별적	성평등	매우 성평등	해당 없음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00	0.8	3.8	53.3	41.1	1.0	3.36 (0.60)	-
성별	여자	484	0.2	4.6	51.7	42.0	1.4	3.37 (0.59)	0.52
	남자	516	1.3	3.0	54.9	40.1	0.7	3.35 (0.61)	
학교급	중학교	550	0.9	3.0	54.1	41.1	0.9	3.37 (0.59)	0.13
	고등학교	450	0.6	4.8	52.5	40.9	1.2	3.35 (0.60)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0.4	3.3	54.0	41.4	1.0	3.38 (0.57)	0.24
	남자+중학교	284	1.4	2.7	54.1	40.9	0.8	3.36 (0.61)	
	여자+고등학교	219	0.0	6.3	48.9	42.8	2.0	3.37 (0.60)	
	남자+고등학교	231	1.2	3.3	55.9	39.1	0.5	3.34 (0.60)	
권역	농촌	14	0.0	3.2	58.8	34.2	3.8	3.32 (0.54)	0.83
	도농복합남부	314	0.0	3.6	52.1	43.2	1.2	3.40 (0.56)	
	도농복합북부	136	1.1	3.8	58.7	34.8	1.6	3.29 (0.59)	
	도시남부	413	1.2	4.0	52.8	41.4	0.6	3.35 (0.62)	
	도시북부	122	1.1	3.7	51.8	42.2	1.2	3.37 (0.62)	

- 주: 1) 1=매우 성차별적임 ~ 4=매우 성평등함
 2)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성평등함을 의미함.
 3) 해당없음을 제외한 총 사례수는 994명임.
 4) *p<.10, *p<.05, **p<.01, ***p<.001

어머니 양육태도의 성평등 정도에서는 성평등함 52.6%, 매우 성평등함 42.4%, 성차별적임 4.4%, 매우 성차별적임 0.4%로, 아버지 양육태도와 마찬가지로 95.0%가 성평등한편이라고 응답했다. 어머니 양육태도 평균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성별로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성평등한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95%로 동일하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교급에서는 성평등함 비율에서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성평등함 비율이 약간 높으나, 고등학생은 매우 성평등함 비율이 중학생에 비해 높아, 집단 간 응답 경향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성별+학교급별로 눈에 띄는 점은 여자 고등학생에서 성평등함 응답이 45.8%였던 것에 비해, 같은 학교급 남학생은 56.4%였으며, 여자 고등학생은 매우 성평등함 비율이 48.1%, 남학생은 39.6%로, 여학생이 더 매우 성평등하다고 느낀 비율이 높았다. 한편 성차별적(매우 성차별적임+성차별적임)이라는 응답에서 여자 고등학생은 6.0%, 남학생은 3.9%로 응답하여, 여학생이 조금 더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에서는 성평등함 응답에서 도농복합북부가 58.1% 가장 높고, 도시북부가 46.4%로 가장 낮았으나, 매우 성평등함 비율에서 도시북부(46.7%)가 도농복합북부(38.0%)에 비해 높아, 권역별 뚜렷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표 3-63] 어머니 양육태도 성평등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성차별적	성차별적	성평등	매우 성평등	해당 없음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00	0.4	4.4	52.6	42.4	0.2	3.37 (0.59)	-
성별	여자	484	0.2	4.9	50.0	44.8	0.0	3.39 (0.59)	1.29
	남자	516	0.5	3.9	55.0	40.1	0.4	3.35 (0.58)	
학교급	중학교	550	0.4	4.2	53.7	41.3	0.4	3.36 (0.59)	0.32
	고등학교	450	0.3	4.6	51.3	43.8	0.0	3.38 (0.59)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0.4	3.9	53.5	42.1	0.1	3.37 (0.58)	0.69
	남자+중학교	284	0.5	4.4	53.8	40.5	0.8	3.35 (0.59)	
	여자+고등학교	219	0.0	6.0	45.8	48.1	0.0	3.42 (0.60)	
	남자+고등학교	231	0.6	3.3	56.4	39.6	0.0	3.35 (0.58)	
권역	농촌	14	0.0	5.1	59.3	34.5	1.1	3.30 (0.56)	0.32
	도농복합남부	314	0.0	5.0	51.8	42.9	0.3	3.38 (0.58)	
	도농복합북부	136	1.1	2.9	58.1	38.0	0.0	3.33 (0.59)	
	도시남부	413	0.6	3.6	53.0	42.5	0.3	3.38 (0.59)	
	도시북부	122	0.0	6.9	46.4	46.7	0.0	3.40 (0.62)	

- 주: 1) 1=매우 성차별적임 ~ 4=매우 성평등함
 2)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성평등함을 의미함.
 3) 해당없음을 제외한 총 사례수는 998명임.
 4) *p<.10, *p<.05, **p<.01, ***p<.001

4. 청소년의 또래문화와 학교생활

가. 또래관계의 질

또래관계의 질은 관계의 친밀도, 또래 갈등의 해결 정도, 또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의 또래 간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을 다룬다. 또래관계의 질을 논의하기 전에, 또래관계의 양적 측면을 살피기 위해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래관계의 양적 측면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가 적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또한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주로 동성 친구였다. 다만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동성 친구가 여학생은 8명, 남학생은 11명이었으며, 취미나 관심사를 같이 하는 동성 친구 역시 여학생은 4명, 남학생은 6.5명으로,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동성 친구와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성별이 다른 친구는 거의 없었다.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를 제외하고, 방과후 시간을 같이 보내는 친구, 취미나 관심사를 같이 하는 친구,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중에 성별이 다른 친구는 1명을 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중학교급에서 두드러졌다. 여자 중학생과 남자 중학생 모두 관심사나 취미를 같이하는 이성 친구는 1명 내외였으며,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성 친구는 1명 미만이었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성별, 연령, 학년 등 동질성을 토대로 또래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남학생의 경우에 SNS나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동성 친구(7명) 및 취미나 관심사를 같이 하는 동성 친구(6.5명)와 비교하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성 친구는 3.5명으로 그 차이가 컸지만, 여자 청소년은 SNS나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동성 친구(3.5명) 및 취미나 관심사를 같이 하는 동성 친구(4명)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성 친구의 수(3.6명)가 비슷했다.

[표 3-64] 청소년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

(단위: 명)

구분	사례수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		방과후 시간을 같이 보내는 친구		SNS나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는 친구		내 취미나 관심사를 같이 하는 친구		나의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전체	1,000	7.2	5.4	4.2	3.0	4.2	2.8	3.9	2.6	2.2	2.4	
성별	여자	484	3.1	8.0	1.6	4.8	1.3	3.5	1.1	4.0	0.8	3.6
	남자	516	11.0	3.0	6.6	1.4	7.0	2.0	6.5	1.3	3.5	1.2
학교급	중학교	550	7.6	5.3	4.4	2.9	3.9	2.8	4.2	2.5	2.1	2.2
	고등학교	450	6.6	5.5	3.9	3.1	4.6	2.7	3.5	2.7	2.2	2.6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3.2	8.4	1.8	4.8	1.3	3.6	1.1	4.1	0.8	3.7
	남자+중학교	284	11.8	2.5	6.8	1.2	6.3	2.0	7.1	1.0	3.4	0.7
	여자+고등학교	219	3.0	7.4	1.4	4.7	1.2	3.4	1.0	3.9	0.9	3.4
	남자+고등학교	231	9.9	3.7	6.3	1.6	7.8	2.1	5.9	1.6	3.5	1.8

전반적인 또래관계의 질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평균 3점을 넘어 청소년들은 스스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만족스럽고 스스로 관계가 좋다고 인식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3)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7)나는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평균이 약 2.8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점수가 낮다. 이는 양적인 측면에 비해 청소년들이 또래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4)나는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와 ‘8)나는 나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의 평균이 각각 3.31점, 3.2점으로 높은 편인데, 이는 청소년기에 또래관계에 대한 애착을 보여준다.

[표 3-65] 청소년 또래관계 질(전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1,000	37.0	51.1	10.2	1.7	3.23 (0.70)
2)나는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1,000	4.9	19.6	54.0	21.6	2.92 (0.78)
3)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1,000	16.8	53.5	23.6	6.2	2.81 (0.78)
4)나는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	1,000	1.6	11.2	42.3	45.0	3.31 (0.73)
5)나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1,000	21.3	47.9	23.1	7.7	2.83 (0.85)
6)나는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1,000	1.5	15.4	53.0	30.1	3.12 (0.71)
7)나는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1,000	18.8	44.2	25.7	11.3	2.70 (0.90)
8)나는 나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	1,000	2.2	15.2	42.7	39.9	3.20 (0.77)
9)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1,000	23.2	65.1	9.9	1.8	3.10 (0.63)
10)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1,000	2.3	16.7	51.9	29.1	3.08 (0.74)
11)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1,000	16.1	66.9	15.8	1.2	2.98 (0.61)
12)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1,000	18.2	66.5	13.4	2.0	3.01 (0.63)
13)나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1,000	38.2	55.9	5.2	0.8	3.31 (0.61)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긍정으로 측정된 문항(1, 3, 5, 7, 9, 11, 12, 13)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항목에 대한 또래관계의 질이 좋음.

또래관계의 질을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또래관계의 질이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급이 달라지더라도 유지되었는데, 여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 모두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평균 점수가 3.1점 내외였고, 남자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은 모두 2.9점 내외였다.

[표 3-66] 청소년 또래관계 질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F
전체		1,000	3.05 (0.40)	-
성별	여자	484	3.14 (0.38)	7.66***
	남자	516	2.96 (0.39)	
학교급	중학교	550	3.06 (0.39)	0.94
	고등학교	450	3.03 (0.40)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3.15 (0.37)	19.86***
	남자+중학교	284	2.97 (0.39)	
	여자+고등학교	219	3.13 (0.38)	
	남자+고등학교	231	2.94 (0.40)	

-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좋음.
 2) 평균값은 총 13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문항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함.
 3) *p<.10, **p<.05, ***p<.001

나. 또래압력

청소년의 또래압력을 또래유행, 또래눈치, 일상활동, 일탈행동의 네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 또래유행, 또래눈치, 일상활동에서는 어느 정도 압력을 느끼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일탈행동에 있어서는 또래압력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눈치의 각 문항들의 점수 평균은 모두 2점 이상이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주로 눈치를 보는 방식으로 또래압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수업 중에 내가 한 질문에 친구들이 웃는다면 당황스럽고, 열심히 준비했다라도 친구들의 눈치가 보여 자신있게 발표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으며, 신체적인 결점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또래유행과 일상활동에서도 일정 부분 또래압력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1)웃을 입을 때 친구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을 쓴다'의 평균이 2.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청소년들이 외적인 부분에서 또래 사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67] 청소년 또래압력(전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또래 유행	1)웃을 입을 때 친구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을 쓴다	1,000	16.3	45.5	26.8	11.3	2.67 (0.88)
	2)유행과 다르지만 남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옷을 즐겨 입는다	1,000	3.7	15.8	51.1	29.4	1.94 (0.77)
	3)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1,000	2.7	14.2	48.9	34.2	1.85 (0.76)
또래 눈치	4)신체적인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숨기려고 노력한다	1,000	13.1	39.4	33.9	13.6	2.52 (0.89)
	6)친구들 시선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순간을 주저한 적이 있다	1,000	9.0	26.4	40.9	23.7	2.21 (0.90)
	7)친구들이 거는 기대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1,000	5.3	21.1	49.1	24.5	2.07 (0.81)
	8)친구들이 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임에 참석하기도 한다	1,000	6.1	31.7	38.1	24.1	2.20 (0.87)
	14)나는 수업 중에 내가 한 질문에 대해 친구들이 웃는다면 당황해 한다	1,000	9.8	30.1	41.0	19.1	2.31 (0.89)
	15)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알려거나 학급에서 그러한 생각을 나누는 것을 부끄럽게 느낀다	1,000	7.0	27.1	40.3	25.7	2.15 (0.89)
일상 활동	5)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또래친구들이 좋아한다면 유행하는 유튜브, TV프로그램, 영화, 음악 등을 보고 듣기도 한다	1,000	5.9	26.4	41.6	26.1	2.12 (0.86)
	9)다른 친구들을 비웃거나 놀리는 무리에 함께 한 적이 있다	1,000	4.4	20.7	41.8	33.1	1.96 (0.85)
	10)나는 집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친구들이 독서실에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면 따르는 편이다	1,000	6.9	21.4	36.9	34.9	2.00 (0.92)
일탈 행동	11)버스를 타고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중에 친구들이 무질서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행동할 때가 있다	1,000	3.7	21.3	43.5	31.5	1.97 (0.82)
	12)나는 수학여행이나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을 친구들과 함께 한 적이 있다	1,000	3.5	16.4	40.2	40.0	1.83 (0.82)
	13)나는 자율학습시간에 떠들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기도 한다	1,000	3.8	23.3	42.4	30.5	2.00 (0.83)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항목에 대한 또래압력이 큼.

청소년의 또래압력에 대해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또래압력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과 학교급을 모두 고려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자 중학생이 또래압력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고, 남자 중학생이 가장 적게 느꼈으나, 남자 중학생은 남자 고등학생 및 여자 고등학생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표 3-68] 청소년 또래압력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F
전체		1,000	2.12 (0.47)	-
성별	여자	484	2.16 (0.48)	2.59*
	남자	516	2.08 (0.48)	
학교급	중학교	550	2.14 (0.47)	1.61
	고등학교	450	2.09 (0.48)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2.22 (0.46)	5.39**
	남자+중학교	284	2.07 (0.47)	
	여자+고등학교	219	2.09 (0.48)	
	남자+고등학교	231	2.10 (0.48)	

-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압력이 큼.
 2) 평균값은 총 15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문항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함.
 3) *p<.10, **p<.05, ***p<.001

다.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

청소년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의 평균 점수가 1.7점 이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스킨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의 평균 점수가 1.7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4)연애를 하려면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1.68점), '2)나는 평소 친구들과 남자(친구)의 몸(매)이나 얼굴에 대한 이야기(얼평, 몸평 등)를 한다'(1.63점) 순이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있어서 성평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고정관념이 다소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1)나는 평소 친구들과 여자(친구)의 몸(매)이나 얼굴에 대한 이야기(얼평, 몸평 등)를 한다'(1.54점)와 '5)데이트 비용은 남성이 더 많이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1.54점)였다.

[표 3-69] 관계에 대한 태도(전체)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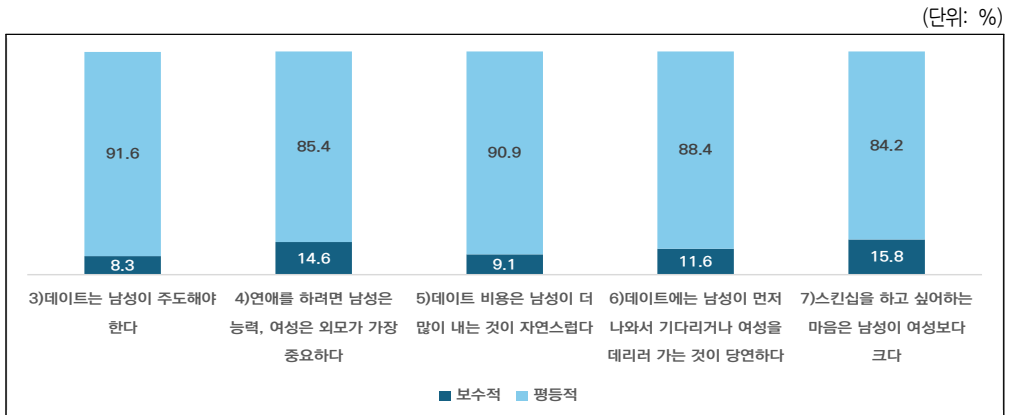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나는 평소 친구들과 여자(친구)의 몸(매)이나 얼굴에 대한 이야기(얼평, 몸평 등)를 한다	1,000	1.2	8.3	33.9	56.5	1.54 (0.70)
2)나는 평소 친구들과 남자(친구)의 몸(매)이나 얼굴에 대한 이야기(얼평, 몸평 등)를 한다	1,000	2.0	10.6	35.8	51.6	1.63 (0.75)
3)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1,000	1.4	6.9	39.9	51.7	1.58 (0.69)
4)연애를 하려면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	1,000	3.3	11.3	35.9	49.5	1.68 (0.80)
5)데이트 비용은 남성이 더 많이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1,000	1.2	7.9	35.0	55.9	1.54 (0.70)
6)데이트에는 남성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거나 여성을 데리러 가는 것이 당연하다	1,000	1.4	10.2	34.6	53.8	1.59 (0.73)
7)스킨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	1,000	1.9	13.9	36.3	47.9	1.70 (0.78)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별 관계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임.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에 보수적(매우 그렇다+그렇다) 응답률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3)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에서 보수적 응답은 8.3%로 가장 낮았으며, ‘7)스킨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에서는 15.8%로 가장 높았다. 또한 ‘4)연애를 하려면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의 응답에서도 14.6%가 보수적으로 나타나, 일부 친밀한 관계 속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



주: 1) 보수적=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평등적=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 관계영역 성역할 태도를 제시하고자 1), 2)번 항목을 제외한 3)-7) 문항을 바탕으로 작성함.

성별 관계에 대한 태도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영역에서의 성역할 태도나 성차별주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에서도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등적으로 응답했다. 문항 중 남학생은 ‘4)연애를 하려면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에 1.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여학생(1.55점)에 비해 더 보수적이었다. 여학생은 ‘1)나는 평소 친구들과 여자(친구)의 몸(매)이나 얼굴에 대한 이야기(얼평, 몸평 등)를 한다’와 ‘7)스킨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에서 1.6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동일 문항에 남학생은 차례로 1.47점, 1.77점으로 응답하여 해당 문항에서 남학생의 보수적 측면 드러났다.

[표 3-70] 관계에 대한 태도(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남학생	T
1)나는 평소 친구들과 여자(친구)의 몸(매)이나 얼굴에 대한 이야기(얼평, 몸평 등)를 한다	1.62	1.47	-3.60***
2)나는 평소 친구들과 남자(친구)의 몸(매)이나 얼굴에 대한 이야기(얼평, 몸평 등)를 한다	1.57	1.68	2.31*
3)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1.52	1.64	2.86**
4)연애를 하려면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	1.55	1.8	4.99***
5)데이트 비용은 남성이 더 많이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1.43	1.65	4.96***
6)데이트에는 남성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거나 여성을 데리러 가는 것이 당연하다	1.44	1.74	6.75***
7)스킨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	1.62	1.77	2.92**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성별 관계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임.

2) *p<.10, *p<.05, **p<.01, ***p<.001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관계 영역에서의 성역할 태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보수적으로 나타났으며, 연애 관계 측면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일부 문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예컨대, ‘6)데이트에는 남성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거나 여성을 데리러 가는 것이 당연하다’, ‘5)데이트 비용은 남성이 더 많이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3)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에서 남자 중학생 및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여자 중학생 순으로 보수적으로 응답했다. 한편, ‘4)연애를 하려면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와 ‘7)스킨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수적이었으며, 학교급보다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3-71] 관계에 대한 태도(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151)	남자 중학생 (N=196)	여자 고등학생 (N=150)	남자 고등학생 (N=202)	F
1)나는 평소 친구들과 여자(친구)의 몸(매)이나 얼굴에 대한 이야기(얼평, 몸평 등)를 한다	1.63	1.45	1.62	1.48	4.40**
2)나는 평소 친구들과 남자(친구)의 몸(매)이나 얼굴에 대한 이야기(얼평, 몸평 등)를 한다	1.59	1.64	1.55	1.73	2.52
3)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1.49	1.66	1.56	1.62	3.24*
4)연애를 하려면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	1.6	1.8	1.5	1.81	8.84***
5)데이트 비용은 남성이 더 많이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1.43	1.65	1.44	1.65	8.09***
6)데이트에는 남성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거나 여성을 데리러 가는 것이 당연하다	1.42	1.76	1.45	1.71	15.14***
7)스킨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	1.65	1.75	1.59	1.79	3.15*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성별 관계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임.

2) *p<.10, **p<.05, ***p<.01, ****p<.001

라. 교사의 성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에서 교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다만 교사와 학생은 명확한 위계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 관계 내 성차별이 발생했을 때 학생은 가장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의 성차별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교사의 성차별 수준을 높게 인식한 문항은 '1)학교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남학생에게만 요청한다' 였으며, 나머지 문항들에서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교사의 성차별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3)성차별적인 수업자료(글, 그림, 영상)를 사용한 다'(1.41점), '4)여학생은 문과, 남학생은 이과가 더 바람직하다고 권장한다'(1.38점), '5)남자는 ~해야해, 여자는 ~해야해라는 말을 한다'(1.47점)에서 점수가 낮았는데, 이와 같이 적어도 교사들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발언은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6)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1.46점)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낮지만 여전히 성적 농담을 하는 교사가 있다는 점은 향후 교사의 젠더 민감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표 3-72] 교사의 성차별 수준 인식(전체)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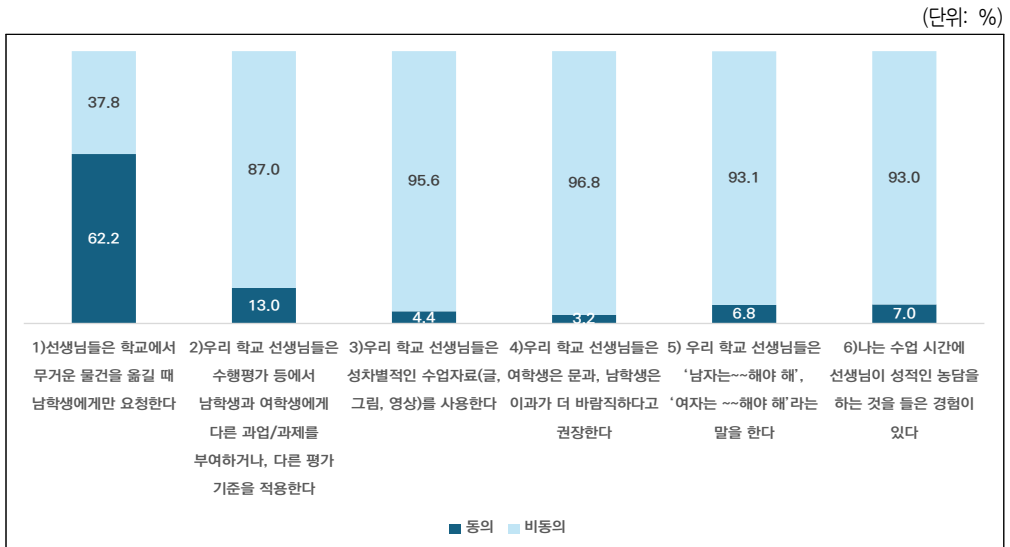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남학생에게만 요청한다	1,000	12.6	49.6	25.1	12.7	2.62 (0.86)
2)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수행평가 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다른 과업/과제를 부여하거나,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1,000	2.9	10.1	37.0	50.0	1.66 (0.77)
3)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성차별적인 수업자료 (글, 그림, 영상)를 사용한다	1,000	0.9	3.5	31.5	64.1	1.41 (0.61)
4)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여학생은 문과, 남학생은 이과가 더 바람직하다고 권장한다	1,000	1.1	2.1	30.5	66.3	1.38 (0.58)
5)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남자는~~해야 해', '여자는 ~~해야 해'라는 말을 한다	1,000	1.3	5.5	32.0	61.1	1.47 (0.66)
6)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	1,000	1.6	5.4	30.6	62.4	1.46 (0.67)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함.

교사의 성차별 동의율(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을 보았을 때 '1)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남학생에게만 요청한다'에서는 62.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항들의 동의율이 3.2~13.0%로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학교 내 교사의 성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물리적 힘이 필요한 일에 있어 남학생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그림 3-9] 교사의 성차별 동의율



주: 동의=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비동의=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에 따라 교사의 성차별 수준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교사의 성차별 수준을 높게 인식했다. 특히 차이가 크게 나타난 문항은 ‘1)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남학생에게만 요청한다’, ‘2)선생님들은 수행평가 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다른 과업/과제를 부여하거나,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3)선생님들은 성차별적인 수업자료를 사용한다’, ‘4)선생님들은 여학생은 문과, 남학생은 이과가 더 바람직하다고 권장한다’로, 성별 차이가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남학생들이 역차별과 관련한 담론의 확대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73] 교사의 성차별 수준 인식(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484)	남학생 (N=516)	T
1)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남학생에게만 요청한다	2.52	2.71	-3.52***
2)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수행평가 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다른 과업/과제를 부여하거나,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1.50	1.80	-6.33***
3)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성차별적인 수업자료(글, 그림, 영상)를 사용한다	1.29	1.53	-6.21***
4)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여학생은 문과, 남학생은 이과가 더 바람직하다고 권장한다	1.26	1.49	-6.21***
5)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남자는~~해야 해’, ‘여자는~~해야 해’라는 말을 한다	1.40	1.54	-3.43**
6)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	1.39	1.53	-3.25**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함.

2) *p<.10, *p<.05, **p<.01, ***p<.001

학교급별 교사의 성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학교 수준에서 교사의 성차별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5)남자는~ 해야해, 여자는 ~해야해'를 제외하고 학교급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74] 교사의 성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생 (N=550)	고등학생 (N=450)	T
1)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남학생에게만 요청한다	2.58	2.67	-1.73
2)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수행평가 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다른 과업/과제를 부여하거나,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1.70	1.61	1.76
3)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성차별적인 수업자료(글, 그림, 영상)를 사용한다	1.43	1.39	1.17
4)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여학생은 문과, 남학생은 이과가 더 바람직하다고 권장한다	1.42	1.32	2.72
5)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남자는~~해야 해', '여자는~~해야 해'라는 말을 한다	1.52	1.41	2.50*
6)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	1.46	1.46	0.09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함.

2) *p<.10, *p<.05, **p<.01, ***p<.00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교사의 성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거의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급보다는 성별에 의한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자 중학생이 대체로 교사의 성차별 수준이 낮다고 인식했고, 남자 중학생이 교사의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다. 상대적으로 '6)수업시간에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문항에 대해서는 0.05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었다. 최근 남성 청소년 사이의 역차별에 대한 정서가 크게 공유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자 중학생이 인식하는 성차별은 교사의 실제 성차별과 성평등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3-75] 교사의 성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151)	남자 중학생 (N=196)	여자 고등학생 (N=150)	남자 고등학생 (N=202)	F
1)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남학생에게만 요청한다	2.47	2.68	2.59	2.75	5.20**
2)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수행평가 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다른 과업/과제를 부여하거나,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1.52	1.86	1.47	1.74	14.42***
3)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성차별적인 수업자료(글, 그림, 영상)를 사용한다	1.31	1.55	1.27	1.50	13.14***
4)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여학생은 문과, 남학생은 이과가 더 바람직하다고 권장한다	1.28	1.55	1.24	1.40	15.98***
5)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남자는~~해야 해’, ‘여자는 ~~해야 해’라는 말을 한다	1.46	1.57	1.32	1.50	6.16***
6)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	1.40	1.52	1.38	1.54	3.56*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함.

2) *p<.10, *p<.05, **p<.01, ***p<.001

마.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학교에서의 성차별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학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 권리와 편의를 더 고려한다’가 2.05점으로 상대적으로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다. 한편 ‘2)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이 내신이나 학교성적이 피해를 본다’는 1.55점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6]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전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학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 권리와 편의를 더 고려한다	1,000	5.8	18.8	49.9	25.5	2.05 (0.82)
2)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은 내신이나 학교 성적에 피해를 본다	1,000	2.2	4.9	39.1	53.8	1.55 (0.69)
3)모둠활동이나 팀프로젝트 등에서 남학생들의 불성실한 학업태도 때문에 여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1,000	2.3	18.0	43.6	36.2	1.86 (0.78)
4)우리 학교 수업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발표를 많이 하는 분위기이다	1,000	4.9	15.4	43.2	36.5	1.89 (0.84)
5)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사나 또래로부터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1,000	2.8	13.6	42.3	41.3	1.78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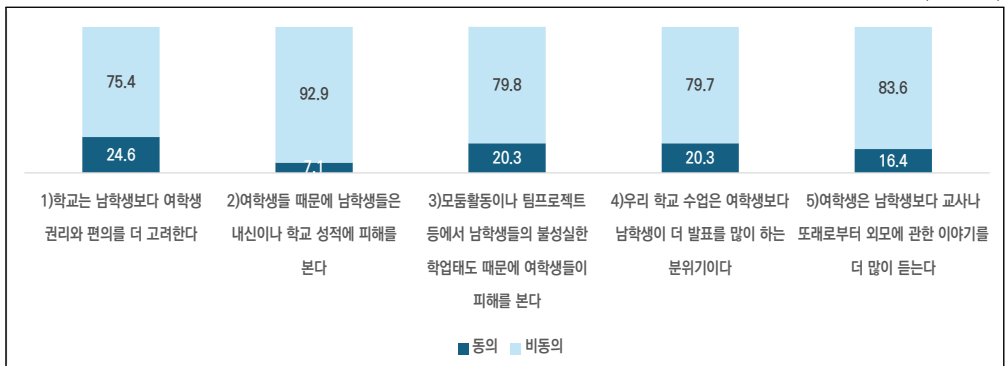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함.

학교생활에서 성차별 동의율(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2)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은 내신이나 학교 성적에 피해를 본다’에서는 7.1%에 불과했다. 한편 다른 문항의 동의율은 이보다는 높았으며, ‘1)학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 권리와 편의를 더 고려한다’ 응답은 24.6%로 나타났다.

[그림 3-10] 학교생활에서 성차별 동의율

(단위: %)



주: 동의=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비동의=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에 대한 인식을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을 한 결과, '2)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은 내신이나 학교 성적에 피해를 본다'와 '1)학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 권리와 편의를 더 고려한다'에서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여학생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으며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은 학교가 여학생에게 좀 더 편향적이고, 그에 따라 남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3)모둠활동이나 팀 프로젝트 등에서 남학생의 불성실한 학업태도 때문에 여학생이 피해를 본다'에서 남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서로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며, 이는 학교 안 성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표 3-77]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484)	남학생 (N=516)	T
1)학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 권리와 편의를 더 고려한다	1.83	2.25	-8.39***
2)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은 내신이나 학교 성적에 피해를 본다	1.34	1.76	-10.40***
3)모둠활동이나 팀프로젝트 등에서 남학생들의 불성실한 학업태도 때문에 여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1.98	1.75	4.660***
4)우리 학교 수업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발표를 많이 하는 분위기이다	1.81	1.96	-2.77**
5)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사나 또래로부터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1.78	1.78	0.14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함.

2) *p<.10, *p<.05, **p<.01, ***p<.001

한편 학교급에 따른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인식에서 차이가 두드러진 문항은 '4)학교 수업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발표를 많이 하는 분위기이다'였는데, 중학교 학교급에서 고등학교 학교급에 비하여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발표를 많이 한다고 인식했다. 또한 '3)모듬활동이나 팀 프로젝트 등에서 남학생의 불성실한 학업태도 때문에 여학생들이 피해를 본다'에서도 중학생의 평균 점수가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78]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생 (N=550)	고등학생 (N=450)	T
1)학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 권리와 편의를 더 고려한다	2.03	2.07	-0.63
2)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은 내신이나 학교 성적에 피해를 본다	1.58	1.52	1.53
3)모듬활동이나 팀프로젝트 등에서 남학생들의 불성실한 학업태도 때문에 여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1.94	1.77	3.36**
4)우리 학교 수업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발표를 많이 하는 분위기이다	2.06	1.68	7.44***
5)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사나 또래로부터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1.84	1.71	2.66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함.

2) *p<.10, *p<.05, **p<.01, ***p<.001

성별과 학교급을 모두 고려하여 여자 중학생, 남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학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권리와 편의를 더 고려한다'에서 남자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2.29점)를 보였으며, 여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이 1.8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2)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은 내신이나 학교 성적이 피해를 본다'와 '4)우리 학교 수업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발표를 많이 하는 분위기이다'에서는 남자 중학생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해당 영역에 대한 성차별을 남자 중학생이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모듬활동이나 팀프로젝트 등에서 남학생들의 불성실한 학업태도 때문에 여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여자 중학생이 2.07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남자 고등학생이 점수가 1.6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학교 학교급에서 성별에 따른 성차별 인식에 대한 차이가 큼을 보여준다.

[표 3-79]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151)	남자 중학생 (N=196)	여자 고등학생 (N=150)	남자 고등학생 (N=202)	F
1)학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 권리와 편의를 더 고려한다	1.83	2.22	1.83	2.29	23.39***
2)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은 내신이나 학교 성적에 피해를 본다	1.35	1.80	1.32	1.71	35.77***
3)모듬활동이나 팀프로젝트 등에서 남학생들의 불성실한 학업태도 때문에 여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2.07	1.82	1.88	1.67	11.32***
4)우리 학교 수업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발표를 많이 하는 분위기이다	2.01	2.10	1.57	1.78	20.81***
5)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사나 또래로부터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1.88	1.80	1.67	1.75	3.24*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함.

2) *p<.10, *p<.05, **p<.01, ***p<.001

5. 청소년의 디지털 문화

가. 온라인 활동

1) 온라인 활동 참여

청소년의 또 다른 주요 사회적 장인 온라인 공간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나 온라인 수업을 제외하고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는 온라인 활동 6가지(인스타그램, 틱톡, 개인방송 콘텐츠 시청,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인공지능 챗봇 등)로 살펴보았다. 먼저 인스타그램의 경우 약 85.5% 청소년이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매우 자주 참여한다 비율도 47.7%로 적지 않았다. 각 집단 별 응답현황을 보면 여학생은 자주 참여한다(매우 자주 참여한다+자주 참여한다) 비율이 78.9%로, 남학생이 65.2%인 것에 비해 인스타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전체 참여 경험률에서도 여학생 91.4%, 남학생 79.9%로 차이를 보인다. 학교급에서는 참여 경험률에 있어 중학생은 84.9%, 고등학생은 86.1%로 고등학생이 근소하게 높았다. 자주 참여한다(매우 자주 참여한다+자주 참여한다) 비율에서도 중학생 71.7%, 고등학생이 72.1%로, 고등학생이 약간 높으나 거의 동일하다.

성별+학교급에 따르면 참여 경험률에 있어 여자 중학생 91.5%, 여자 고등학생 91.2%, 남자 고등학생 81.3%, 남자 중학생 78.7%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참여율이 높았다. 권역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농촌에서 참여 경험률이 89.0%로 가장 높고, 도시남부에서 81.9%로 가장 낮았다.

[표 3-80] 온라인 활동 참여 1)인스타그램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자주 참여함	자주 참여함	가끔 참여함	아주 가끔 참여함	참여 경험률	전혀 없음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00	47.7	24.2	8.0	5.5	85.5	14.6	3.85 (1.44)	-
성별	여자	484	55.1	23.8	7.9	4.6	91.4	8.6	4.12 (1.26)	5.97***
	남자	516	40.6	24.6	8.2	6.4	79.9	20.2	3.59 (1.55)	
학교급	중학교	550	48.2	23.5	6.9	6.3	84.9	15.1	3.83 (1.46)	-0.37
	고등학교	450	47.0	25.1	9.4	4.6	86.1	13.9	3.87 (1.41)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57.5	23.1	6.0	5.0	91.5	8.4	4.16 (1.25)	12.34***
	남자+중학교	284	39.5	23.8	7.7	7.6	78.7	21.3	3.52 (1.58)	
	여자+고등학교	219	52.2	24.6	10.2	4.2	91.2	8.8	4.07 (1.26)	
	남자+고등학교	231	42.1	25.6	8.7	4.9	81.3	18.8	3.67 (1.52)	
권역	농촌	14	42.4	29.0	11.3	6.3	89.0	11.0	3.86 (1.37)	1.70
	도농복합남부	314	49.0	22.0	8.5	7.4	86.9	13.1	3.87 (1.43)	
	도농복합북부	136	47.7	29.6	7.6	4.1	89.0	11.0	3.99 (1.31)	
	도시남부	413	45.7	23.0	7.7	5.6	81.9	18.1	3.73 (1.52)	
	도시북부	122	51.4	27.3	7.9	2.3	88.9	11.1	4.05 (1.30)	

주: 1) 1=매우 자주 참여한다 ~ 5=전혀 하지 않는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 활동이 많은 것으로 보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3) 이용경험률은 전혀 하지 않음을 제외한 항목을 더한 값임.

4) *p<.10, *p<.05, **p<.01, ***p<.001

틱톡 참여 경험률은 인스타그램보다는 낮았는데, 전체 기준 51.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참여율이 65.0%로, 남학생 39.4%에 비해 높았다. 여학생은 매우 자주 참여한다(25.1%)와 자주 참여한다 비율(20.9%)도 적지 않았으며, 해당 응답에서 남학생과의 차이가 존재했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 참여율이 56.7%, 고등학생 46.0%로 중학생이 더 많이 틱톡을 경험했다. 매우 자주 참여한다 비율에서도 중학생 21.5%, 고등학생 10.4%로 11.1%p의 차이를 보인다. 성별+학교급별로는 참여 경험률에 있어 여자 중학생 71.3%, 여자 고등학생 57.3%, 남자 중학생 42.8%, 남자 고등학생 35.2% 순으로 나타나, 여자 중학생이 적극적으로 틱톡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역에서는 도농복합북부에서 참여 경험률이 60.2%로 가장 높았으며, 농촌에서 4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81] 온라인 활동 참여 2)틱톡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자주 참여함	자주 참여함	가끔 참여함	아주 가끔 참여함	참여 경험률	전혀 없음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00	16.5	15.3	11.6	8.5	51.9	48.1	2.43 (1.58)	-
성별	여자	484	25.1	20.9	11.3	7.7	65.0	35.0	2.93 (1.64)	10.07***
	남자	516	8.4	10.0	11.8	9.2	39.4	60.6	1.97 (1.37)	
학교급	중학교	550	21.5	14.9	12.8	7.5	56.7	43.3	2.64 (1.64)	4.52***
	고등학교	450	10.4	15.8	10.1	9.6	45.9	54.1	2.19 (1.48)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31.8	21.9	11.7	5.9	71.3	28.7	3.22 (1.63)	43.76***
	남자+중학교	284	11.8	8.3	13.7	9.0	42.8	57.2	2.09 (1.45)	
	여자+고등학교	219	16.9	19.7	10.8	9.9	57.3	42.7	2.58 (1.59)	
	남자+고등학교	231	4.3	12.1	9.5	9.3	35.2	64.8	1.82 (1.26)	
권역	농촌	14	13.3	14.6	8.1	9.0	45.0	55.0	2.22 (1.59)	1.60
	도농복합남부	314	17.8	15.7	12.2	9.6	55.3	44.7	2.52 (1.59)	
	도농복합북부	136	17.3	21.2	11.4	10.3	60.2	39.8	2.66 (1.58)	
	도시남부	413	16.0	12.6	11.4	7.3	47.3	52.7	2.32 (1.56)	
	도시북부	122	14.0	16.8	11.0	7.5	49.3	50.7	2.36 (1.58)	

주: 1) 1=매우 자주 참여한다 ~ 5=전혀 하지 않는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 활동이 많은 것으로 보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3) 이용경험률은 전혀 하지 않음을 제외한 항목을 더한 값임.

4) *p<.10, *p<.05, **p<.01, ***p<.001

개인방송 콘텐츠 시청에 있어서는 전체 참여 경험률이 76.7%로, 인스타그램에 비해서는 낮고 틱톡에 비해서는 높았으며, 매우 자주 참여한다(24.4%)와 자주 참여한다(26.2%) 비율이 청소년의 절반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참여 경험률이 80.6%로 여학생 72.5%에 비해 높았으며, 매우 자주 참여한다 응답에서도 남학생 29.0%, 여학생 19.5%로 9.5%p의 차이를 보인다. 학교급에서는 고등학생의 참여율(77.0%)이 중학생(76.4%)에 비해 높았으나 거의 유사했다. 중학생은 매우 자주 참여한다의 응답률(26.5%)이, 고등학생에서는 자주 참여한다의 응답률(28.6%)이 가장 높았다. 성별+학교급에 따르면 남자 중학생 82.8%, 남자 고등학생 77.0%, 여자 고등학생 76.2%, 여자 중학생 69.5% 순으로 참여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에서 성별 간 개인방송 콘텐츠 시청 참여율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권역에서는 도농복합남부가 78.3%로 가장 높고, 도시북부가 74.5%로 낮았으나, 권역별 뚜렷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표 3-82] 온라인 활동 참여 3)개인방송 콘텐츠 시청(유튜브, 트위치, SOOP(구 아프리카TV), 차지직 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자주 참여함	자주 참여함	가끔 참여함	아주 가끔 참여함	참여 경험률	전혀 없음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00	24.4	26.2	16.3	9.8	76.7	23.3	3.19 (1.50)	-
성별	여자	484	19.5	24.2	18.1	10.8	72.5	27.5	2.97 (1.49)	-4.40***
	남자	516	29.0	28.2	14.6	8.8	80.6	19.5	3.39 (1.47)	
학교급	중학교	550	26.5	24.2	16.7	9.0	76.4	23.6	3.21 (1.52)	0.55
	고등학교	450	21.9	28.6	15.8	10.7	77.0	23.0	3.16 (1.47)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18.0	19.3	20.3	12.0	69.5	30.4	2.82 (1.49)	11.90***
	남자+중학교	284	34.4	28.9	13.3	6.1	82.8	17.3	3.57 (1.45)	
	여자+고등학교	219	21.3	30.1	15.4	9.4	76.2	23.9	3.16 (1.48)	
	남자+고등학교	231	22.4	27.3	16.2	12.0	77.9	22.1	3.16 (1.47)	
권역	농촌	14	22.7	27.8	11.2	14.6	76.3	23.7	3.11 (1.56)	0.30
	도농복합남부	314	25.6	28.8	12.1	11.8	78.3	21.7	3.25 (1.50)	
	도농복합북부	136	24.9	19.0	23.1	10.2	77.3	22.7	3.13 (1.48)	
	도시남부	413	24.4	25.4	18.5	7.5	75.8	24.2	3.18 (1.50)	
	도시북부	122	20.6	30.4	12.6	10.9	74.5	25.5	3.10 (1.51)	

주: 1) 1=매우 자주 참여한다 ~ 5=전혀 하지 않는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 활동이 많은 것으로 보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3) 이용경험률은 전혀 하지 않음을 제외한 항목을 더한 값임.

4) *p<.10, **p<.05, ***p<.001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서는 전체 기준 참여율이 42.1%였다. 자주 참여한다는 응답보다는 가끔이나 아주 가끔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학생 39.7%, 남학생 44.2%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 45.0%, 고등학생 38.4%로 중학생의 참여율이 높았다. 성별+학교급에 따르면, 참여 경험률에 있어 남자 중학생 48.7%, 여자 중학생 41.1%, 남자 고등학생 38.7%, 여자 고등학생 38.1%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참여율에서는 성별보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다. 권역에서는 도시북부에서 47.3%, 농촌에서 39.7%로 참여 경험률을 보여 도시와 농촌 간 차이가 있었다.

[표 3-83] 온라인 활동 참여 4)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자주 참여함	자주 참여함	가끔 참여함	아주 가끔 참여함	참여 경험률	전혀 없음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00	6.4	8.4	13.2	14.1	42.1	57.9	1.91 (1.27)	-
성별	여자	484	5.1	8.2	13.0	13.4	39.7	60.2	1.85 (1.23)	-1.60
	남자	516	7.6	8.6	13.4	14.7	44.2	55.8	1.97 (1.31)	
학교급	중학교	550	7.4	9.2	13.6	14.8	45.0	54.9	1.99 (1.31)	2.26*
	고등학교	450	5.1	7.4	12.6	13.2	38.4	61.6	1.81 (1.21)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5.0	9.5	13.5	13.2	41.1	58.9	1.89 (1.24)	2.94*
	남자+중학교	284	9.7	8.9	13.7	16.4	48.7	51.3	2.09 (1.37)	
	여자+고등학교	219	5.3	6.7	12.3	13.7	38.1	61.9	1.80 (1.21)	
	남자+고등학교	231	4.9	8.2	12.9	12.7	38.7	61.3	1.83 (1.22)	
권역	농촌	14	3.7	7.3	20.3	8.4	39.7	60.3	1.86 (1.23)	0.45
	도농복합남부	314	7.8	7.3	12.3	15.1	42.5	57.5	1.93 (1.30)	
	도농복합북부	136	6.4	7.8	14.3	12.6	41.0	59.0	1.90 (1.27)	
	도시남부	413	4.9	9.2	12.8	13.5	40.6	59.4	1.87 (1.23)	
	도시북부	122	8.0	9.0	14.3	15.9	47.3	52.7	2.04 (1.33)	

주: 1) 1=매우 자주 참여한다 ~ 5=전혀 하지 않는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 활동이 많은 것으로 보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3) 이용경험률은 전혀 하지 않음을 제외한 항목을 더한 값임.

4) *p<.10, *p<.05, **p<.01, ***p<.001

온라인 게임/모바일 게임/메타버스 및 VR게임 참여에서는 전체 기준 81.7%가 참여했으며, 매우 자주 참여한다(28.0%)와 자주 참여한다(25.1%) 비중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참여 경험률이 94.2%, 여학생 68.4%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학생은 가끔 참여한다 비율(19.3%)이 높았던 한편, 남학생은 매우 자주 참여한다 비율(42.6%)이 높아, 남학생이 게임에 더 빈번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은 82.4%, 고등학생은 80.8%가 참여한다고 응답하여 중학생의 참여율이 높았다. 성별+학교급별로는 남자 고등학생 94.5%, 남자 중학생 94.0%, 여자 중학생 70.0%, 여자 고등학생 66.4% 순으로 참여율이 높다고 응답하여, 학교급보다 성별이 게임 참여율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권역에서는 도농복합북부가 88.2%로 가장 많은 참여율을, 도시남부가 77.4%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표 3-84] 온라인 활동 참여 5)온라인 게임/모바일 게임/메타버스 및 VR게임 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자주 참여함	자주 참여함	가끔 참여함	아주 가끔 참여함	참여 경험률	전혀 없음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00	28.0	25.1	16.9	11.7	81.7	18.3	3.33 (1.45)	-
성별	여자	484	12.4	18.5	19.3	18.2	68.4	31.6	2.62 (1.41)	-16.80***
	남자	516	42.6	31.3	14.6	5.6	94.2	5.8	3.99 (1.15)	
학교급	중학교	550	33.8	23.7	15.0	9.9	82.4	17.6	3.46 (1.48)	3.29**
	고등학교	450	20.8	26.8	19.2	14.0	80.8	19.2	3.16 (1.41)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13.8	21.3	19.2	15.7	70.0	30.0	2.73 (1.43)	100.90***
	남자+중학교	284	52.5	26.0	11.1	4.4	94.0	6.0	4.15 (1.16)	
	여자+고등학교	219	10.8	15.1	19.3	21.2	66.4	33.6	2.48 (1.37)	
	남자+고등학교	231	30.4	37.9	19.0	7.2	94.5	5.6	3.80 (1.12)	
권역	농촌	14	26.0	24.5	21.9	12.3	84.7	15.4	3.33 (1.43)	2.69*
	도농복합남부	314	31.0	22.6	18.9	10.6	83.1	16.9	3.40 (1.45)	
	도농복합북부	136	32.1	31.1	11.7	13.2	88.2	11.8	3.59 (1.39)	
	도시남부	413	24.8	23.7	17.1	11.8	77.4	22.6	3.16 (1.49)	
	도시북부	122	26.6	29.7	16.1	12.6	85.0	15.0	3.40 (1.39)	

주: 1) 1=매우 자주 참여한다 ~ 5=전혀 하지 않는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 활동이 많은 것으로 보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3) 이용경험률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제외항목을 더한 값임.

4) *p<.10, **p<.05, ***p<.001

인공지능 챗봇 이용에서는 전체 기준 79.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8명의 청소년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었다. 세부 응답에서는 가끔 참여한다(28.3%), 자주 참여한다(20.2%), 아주 가끔 참여한다(18.0%), 매우 자주 참여한다(13.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참여 경험률이 81.4% 남학생은 78.6%로, 여학생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 73.4%, 고등학생 88.0%로 고등학생의 이용률이 더 높았다. 성별+학교급에 따르면, 여자 고등학생 89.0%, 남자 고등학생 87.0%, 여자 중학생 75.0%, 남자 중학생 71.9% 순으로 인공지능 챗봇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권역별로는 도시북부에서 85.8%로 가장 많이, 농촌과 도농복합남부가 78.3% 가장 적은 비율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5] 온라인 활동 참여 6)인공지능 챗봇 등(챗지피티, 이루다 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자주 참여함	자주 참여함	가끔 참여함	아주 가끔 참여함	참여 경험률	전혀 없음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00	13.6	20.2	28.3	18.0	79.9	20.0	2.89 (1.31)	-
성별	여자	484	12.3	22.5	26.6	20.0	81.4	18.6	2.90 (1.29)	0.12
	남자	516	14.8	18.0	29.8	16.1	78.6	21.4	2.89 (1.33)	
학교급	중학교	550	10.9	15.8	27.5	19.1	73.4	26.6	2.65 (1.32)	-6.51***
	고등학교	450	16.8	25.5	29.2	16.5	88.0	12.0	3.19 (1.24)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7.9	18.9	25.1	23.1	75.0	24.9	2.62 (1.26)	14.51***
	남자+중학교	284	13.8	12.9	29.8	15.4	71.9	28.1	2.69 (1.38)	
	여자+고등학교	219	17.6	26.8	28.5	16.1	89.0	11.0	3.24 (1.23)	
	남자+고등학교	231	16.0	24.3	29.8	16.9	87.0	13.0	3.13 (1.25)	
권역	농촌	14	12.5	26.1	25.7	14.0	78.3	21.7	2.94 (1.38)	1.70
	도농복합남부	314	11.0	20.0	29.1	18.2	78.3	21.7	2.80 (1.29)	
	도농복합북부	136	9.4	16.9	33.6	20.9	80.8	19.2	2.76 (1.22)	
	도시남부	413	16.4	19.2	26.7	16.9	79.3	20.8	2.93 (1.36)	
	도시북부	122	15.6	26.8	25.7	17.8	85.8	14.2	3.12 (1.28)	

주: 1) 1=매우 자주 참여한다 ~ 5=전혀 하지 않는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 활동이 많은 것으로 보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3) 이용경험률은 전혀 하지 않음을 제외한 항목을 더한 값임.

4) *p<.10, *p<.05, **p<.01, ***p<.001

2) 온라인 활동 목적

다음은 앞서 살펴본 온라인 활동의 목적을 SNS와 개인방송 콘텐츠 시청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SNS 활동 목적을 보면, ‘친구들과의 소통 및 대화’가 87.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웃긴 글/영상 보기’(78.7%), ‘친구들 소식연기’(78.3%), ‘맛집, 패션, 게임 등 취미 정보 검색’(53.0%),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공유’(47.3%), ‘연예인이나 셀럽 팔로우’(44.7%) 순으로 주된 목적이었다. SNS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친구들과의 소통 및 대화’(89.9%)와 ‘친구들 소식연기’(82.4%)가 주된 목적이었다. 남학생도 ‘친구들과의 소통 및 대화’(83.8%)가 SNS 활동의 1순위 목적이었으나, 2순위에서는 ‘웃긴글/영상보기’(76.8%)로 나타나 성별 간 차이를 보인다. 학교급에서는 SNS가 사회적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고등학생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에서 ‘친구들과의 소통 및 대화’가 90%였으며, ‘친구들 소식연기’는 83.8%였다. 성별+학교급에 따르면 ‘친구들과의 소통 및 대화’에서 여자 고등학생 91.0%, 여자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 89.0%, 남자 중학생 79.6%로 응답하여, 성별이 SNS 활동 목적을 가르는 주된 기준이 되었다. 권역에서는 동일하게 ‘친구들과의 소통 및 대화’ 응답률에 있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해당 목적에서 도시북부가 92.6%로 가장 높고 농촌이 82.4%로 가장 낮았다.

[표 3-86] SNS 활동 목적(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친구들 소식얻기	친구들과의 소통 및 대화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공유	맛집, 패션, 게임 등 취미정보 검색	연예인이나 셀럽 팔로우 (팬덤활동, 덕질 등)	웃긴 글/ 영상 보기	정치, 문화, 사회적 이슈	학습	기타
전체	868	78.3	87.0	47.3	53.0	44.7	78.7	17.1	14.7	0.8
성별	여자	453	82.4	89.9	59.5	65.0	80.5	15.5	17.7	0.8
	남자	415	73.8	83.8	34.0	39.9	76.8	18.8	11.5	0.9
학교급	중학교	479	73.9	84.5	46.2	51.4	80.3	15.1	14.7	1.3
	고등학교	389	83.8	90.0	48.7	55.0	76.8	19.6	14.8	0.3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51	80.4	89.0	58.2	63.1	83.2	11.4	18.4	1.5
	남자+중학교	228	66.7	79.6	32.9	38.5	77.1	19.1	10.6	1.1
	여자+고등학교	202	85.0	91.0	61.1	67.5	77.1	20.6	17.0	0.0
	남자+고등학교	188	82.5	89.0	35.4	41.6	76.5	18.4	12.5	0.6
권역	농촌	13	76.2	82.4	42.2	38.3	83.0	18.3	15.4	2.0
	도농복합남부	278	75.4	83.5	45.2	50.9	75.7	17.4	13.1	1.7
	도농복합북부	126	77.4	91.5	46.3	54.6	82.7	13.8	13.8	0.9
	도시남부	342	78.2	86.5	47.4	56.3	80.7	18.2	18.1	0.4
	도시북부	110	87.3	92.6	54.3	48.2	45.9	75.5	9.5	0.0

주: 인스타그램과 틱톡 중 매우 자주 참여한다=1-아주 가끔 참여한다=4에 한 문항 이상 체크한 응답자

개인방송 콘텐츠 시청 내용에서는 ‘웃긴 영상’이 7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게임 65.9%, ‘먹방, 맛집’ 37.3%, ‘연예인 관련’ 32.3%, ‘뷰티, 패션’ 26.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도 ‘웃긴 영상’(76.8%)이 개인방송 콘텐츠 시청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연예인 관련’(53.1%), ‘먹방, 맛집’(51.9%), ‘뷰티, 패션’(50.2%), ‘게임’(43.5%) 순이었다. 남학생은 여학생과 다르게 ‘게임’(84.9%)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웃긴 영상’(76.2%), ‘다이어트/운동/스포츠’(31.6%), ‘먹방, 맛집’(25.1%), ‘정치, 문화, 사회적 이슈’(20.2%) 순으로 나타나,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정치, 문화, 사회적 이슈’인 경우에 있어서 여학생은 12.5%였던 것에 비해, 남학생이 7.7%p 더 높았다.

학교급에서는 성별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웃긴 영상’, ‘게임’, ‘먹방, 맛집’ 순으로 주요 목적이 동일했다.

성별+학교급별로는 주된 목적으로 남자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은 ‘게임’을(남자 중학생 87.3%, 남자 고등학생 81.9%), 여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은 ‘웃긴 영상’(여자 중학생 77.0%, 여자 고등학생 76.6%)을 꼽았다. 여자 중, 고등학생이 높게 응답한 ‘뷰티, 패션’에 남학생의 응답률은 상당히 낮았다.

권역별로는 주된 목적인 게임에 있어 도농복합북부가 74.4%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북부가 57.4%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웃긴 영상’에서는 도시북부가 80.1%로 가장 높고, 도농복합북부가 7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87] 개인방송 콘텐츠 시청 내용(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웃긴 영상	먹방, 맛집	게임	뷰티, 패션	다이어트/ 운동/ 스포츠	연애상담	웹드라마	연예인 관련	정치, 문화, 사회적 이슈	학습	기타	
전체	767	76.5	37.3	65.9	26.1	29.1	10.1	23.0	32.3	16.6	20.4	7.0	
성별	여자	351	76.8	51.9	43.5	50.2	26.3	15.2	33.0	53.1	12.5	22.4	7.1
	남자	415	76.2	25.1	84.9	5.7	31.6	5.8	14.4	14.6	20.2	18.7	7.0
학교급	중학교	420	75.8	35.0	68.1	25.0	26.7	9.9	23.6	28.9	13.3	18.6	7.6
	고등학교	346	77.3	40.2	63.3	27.4	32.1	10.3	22.2	36.4	20.7	22.6	6.4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185	77.0	49.2	43.7	50.4	23.7	16.8	36.1	48.4	7.2	19.4	9.7
	남자+중학교	235	74.8	23.8	87.3	5.0	29.1	4.4	13.8	13.5	18.2	17.9	5.9
	여자+고등학교	166	76.6	54.8	43.2	49.9	29.1	13.4	29.7	58.4	18.4	25.7	4.1
	남자+고등학교	180	77.9	26.7	81.9	6.5	34.8	7.5	15.3	16.0	22.7	19.7	8.5
권역	농촌	11	79.9	39.8	68.7	23.7	36.3	13.4	25.2	35.5	16.1	19.3	9.2
	도농복합남부	246	76.5	38.0	69.1	26.2	32.2	9.5	23.2	27.8	15.6	19.8	7.7
	도농복합북부	105	70.4	36.4	74.4	31.2	24.4	9.4	12.8	38.0	12.8	8.2	7.5
	도시남부	314	77.2	37.8	62.9	24.0	31.1	11.8	25.4	33.4	19.3	23.3	6.9
	도시북부	91	80.1	34.7	57.4	27.3	18.8	5.9	25.5	33.4	14.9	26.2	4.8

주: 개인방송 콘텐츠 시청에서 매우 자주 참여한다=1~아주 가끔 참여한다=4에 체크한 응답자

나. 디지털 관련 불안 수준

온라인 공간이 청소년의 주된 사회적 활동의 장으로 기능하는 만큼 온라인 공간에서의 안전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경기도 청소년이 인지하는 디지털 관련 불안 수준을 4가지 항목으로 살펴보았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불안수준이 높음을 의미할 때 '1)나는 온라인에서 개인신상이 노출될까 봐 불안하다'가 2.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4)나는 온라인상에서 내 사진이나 연락처, 개인정보가 공유될까 봐 두렵다'(2.30점), '2)나는 불법 촬영물에 의한 범죄 피해 대상이 될까봐 불안하다'(2.17점), '3)나는 가까운 사람끼리 있었던 일이나 갈등이 온라인 등에 폭로될까 봐 불안하다'(2.07점) 순으로 높은 불안 수준을 가진 것으로 응답했다.

[표 3-88] 디지털 불안 수준(전체)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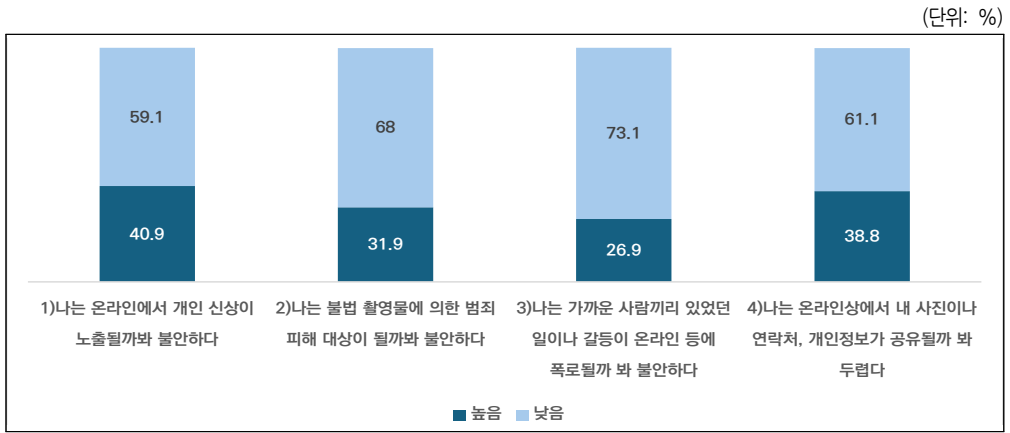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나는 온라인에서 개인 신상이 노출될까봐 불안하다	1,000	9.2	31.7	42.4	16.7	2.33 (0.86)
2)나는 불법 촬영물에 의한 범죄 피해 대상이 될까봐 불안하다	1,000	9.4	22.5	43.5	24.5	2.17 (0.91)
3)나는 가까운 사람끼리 있었던 일이나 갈등이 온라인 등에 폭로될까봐 불안하다	1,000	7.5	19.4	45.2	27.9	2.07 (0.88)
4)나는 온라인상에서 내 사진이나 연락처, 개인정보가 공유될까 봐 두렵다	1,000	11.2	27.6	41.2	19.9	2.30 (0.91)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도록 측정하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 응답을 합쳐 불안수준이 높다고 보았을 때 '1)나는 온라인에서 개인 신상이 노출될까봐 불안하다'에서는 40.9%가, '4)나는 온라인상에서 내 사진이나 연락처, 개인정보가 공유될까 봐 두렵다'에서는 38.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디지털 불안 수준



주: 높음=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낮음=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디지털 불안 수준을 성별로 보았을 때, 4개 항목 모두에서 성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이 높았던 항목의 순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에서 동일했다. 평균 점수에서 성별 차이가 가장 컸던 항목은 ‘2)나는 불법 촬영물에 의한 범죄 피해 대상이 될까봐 불안하다’였다. 평균 기준 여학생 2.35점, 남학생 1.99점으로 응답하여, 0.36점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3)나는 가까운 사람끼리 있었던 일이나 갈등이 온라인 등에 폭로될까봐 불안하다’의 경우 여학생 2.16점, 남학생 1.98점으로 성별 인식의 차이가 가장 작았다.

[표 3-89] 디지털 불안 수준(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484)	남학생 (N=516)	T
1)나는 온라인에서 개인 신상이 노출될까봐 불안하다	2.44	2.23	3.77***
2)나는 불법 촬영물에 의한 범죄 피해 대상이 될까봐 불안하다	2.35	1.99	6.44***
3)나는 가까운 사람끼리 있었던 일이나 갈등이 온라인 등에 폭로될까봐 불안하다	2.16	1.98	3.34**
4)나는 온라인상에서 내 사진이나 연락처, 개인정보가 공유될까 봐 두렵다	2.42	2.19	4.05***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2) *p<.10, *p<.05, **p<.01, ***p<.001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불안 수준이 높았다. t검증 결과 1)번을 제외한 세 항목에서 학교급 간 디지털 불안 수준의 차이가 존재했는데,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3)나는 가까운 사람끼리 있었던 일이나 갈등이 온라인 등에 폭로될까봐 불안하다'로 0.21점 차이가 존재했다.

[표 3-90] 디지털 불안 수준(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생 (N=550)	고등학생 (N=450)	T
1)나는 온라인에서 개인 신상이 노출될까 봐 불안하다	2.34	2.32	0.45
2)나는 불법 촬영물에 의한 범죄 피해 대상이 될까봐 불안하다	2.23	2.10	2.27*
3)나는 가까운 사람끼리 있었던 일이나 갈등이 온라인 등에 폭로될까봐 불안하다	2.16	1.95	3.87***
4)나는 온라인상에서 내 사진이나 연락처, 개인정보가 공유될까 봐 두렵다	2.38	2.21	2.83**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2) *p<.10, *p<.05, **p<.01, ***p<.001

성별+학교급별로 보았을 때에는 네 항목 모두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네 항목 모두에서 여자 중학생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고, 여자 고등학생, 남자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디지털 불안 수준을 가르는 기준으로 성별이 주되게, 그러나 학교급도 같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91] 디지털 불안 수준(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151)	남자 중학생 (N=196)	여자 고등학생 (N=150)	남자 고등학생 (N=202)	F
	1)나는 온라인에서 개인 신상이 노출될까봐 불안하다	2.45	2.25	2.43	
2)나는 불법 촬영물에 의한 범죄 피해 대상이 될까봐 불안하다	2.39	2.08	2.31	1.89	15.94***
3)나는 가까운 사람끼리 있었던 일이나 갈등이 온라인 등에 폭로될까봐 불안하다	2.28	2.05	2.01	1.89	9.06***
4)나는 온라인상에서 내 사진이나 연락처, 개인정보가 공유될까 봐 두렵다	2.49	2.27	2.34	2.09	8.22***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2) *p<.10, *p<.05, **p<.01, ***p<.001

6. 청소년의 성폭력 인식과 경험 및 성평등 교육 현황

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

최근 청소년이 가담하는 사이버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8)악의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은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른 문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식 수준이 낮은 문항은 '2)연인 간 폭력은 때린 사람만을 탓할 수 없다'(3.16점)와 '9)성폭력은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하는 등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3.26점) 문항이었다. 이를 통하여 데이트 폭력 및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92] 폭력에 대한 인식(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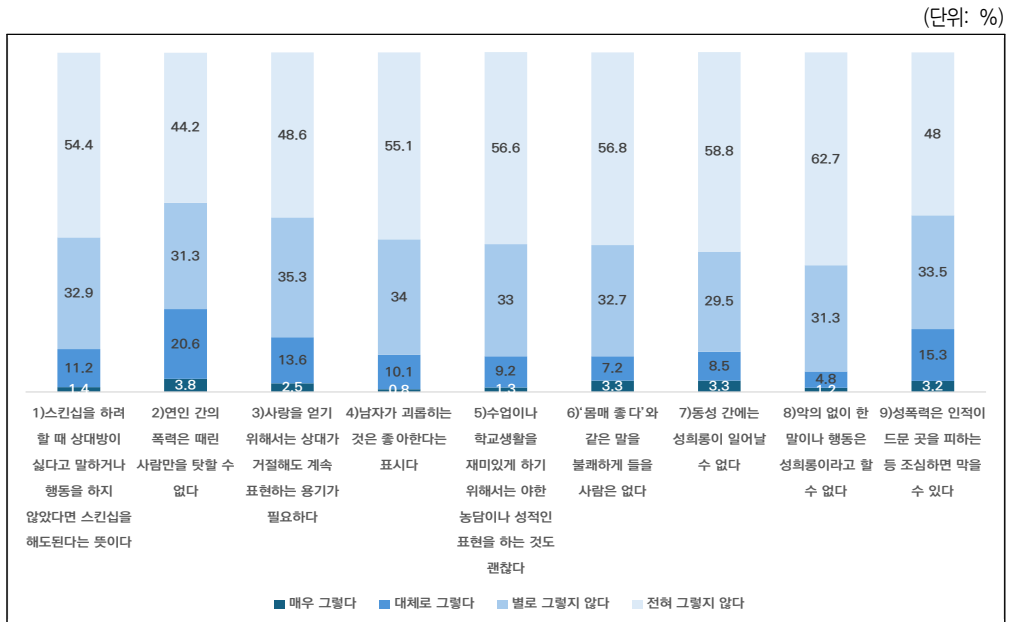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스킨십을 하려 할 때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스킨십을 해도 된다는 뜻이다	1,000	1.4	11.2	32.9	54.4	3.40 (0.74)
2)연인 간의 폭력은 때린 사람만을 탓할 수 없다	1,000	3.8	20.6	31.3	44.2	3.16 (0.88)
3)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거절해도 계속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1,000	2.5	13.6	35.3	48.6	3.30 (0.80)
4)남자가 괴롭히는 것은 좋아한다는 표시다	1,000	0.8	10.1	34.0	55.1	3.43 (0.71)
5)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야한 농담이나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다	1,000	1.3	9.2	33.0	56.6	3.45 (0.71)
6)'몸매 좋다'와 같은 말을 불쾌하게 들을 사람은 없다	1,000	3.3	7.2	32.7	56.8	3.43 (0.77)
7)동성 간에는 성희롱이 일어날 수 없다	1,000	3.3	8.5	29.5	58.8	3.44 (0.78)
8)악의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은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	1,000	1.2	4.8	31.3	62.7	3.56 (0.65)
9)성폭력은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하는 등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	1,000	3.2	15.3	33.5	48.0	3.26 (0.83)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

폭력 인식 수준(비율)을 보면, 모든 문항에서 해당 내용이 폭력이라는 인식(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8)악의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은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에서는 94%(전혀 그렇지 않다 62.7%, 별로 그렇지 않다 31.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폭력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보였다. 한편 '2)연인 간의 폭력은 때린 사람 만을 탓할 수 없다'의 경우 75.5%(전혀 그렇지 않다 44.2%, 별로 그렇지 않다 31.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폭력에 대한 낮은 수준을 보여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킬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3-12] 폭력 인식 수준



성별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인식 수준이 높았다. 앞서 전체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던 문항인 '9)성폭력은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하는 등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와 '7)동성간에는 성희롱이 일어날 수 없다'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인식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에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상대적으로 큼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2)연인 간의 폭력은 때린 사람만을 탓할 수 없다'와 '1)스킨십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스킨십을 해도 된다는 뜻이다'는 상대적으로 성별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표 3-93] 폭력에 대한 인식(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484)	남학생 (N=516)	T
1)스킨십을 하려 할 때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스킨십을 해도 된다는 뜻이다	3.46	3.35	2.35*
2)연인 간의 폭력은 때린 사람만을 탓할 수 없다	3.25	3.07	3.26**
3)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거절해도 계속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3.40	3.21	3.75***
4)남자가 괴롭히는 것은 좋아한다는 표시다	3.57	3.31	5.91***
5)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야한 농담이나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다	3.63	3.28	7.93***
6)'몸매 좋다'와 같은 말을 불쾌하게 들을 사람은 없다	3.56	3.31	5.20***
7)동성 간에는 성희롱이 일어날 수 없다	3.60	3.28	6.49***
8)악의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은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	3.68	3.44	6.10***
9)성폭력은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하는 등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	3.46	3.08	7.60***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학교급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 차이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2)연인 간 폭력은 때린 사람을 탓할 수 없다' 문항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차이가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94] 폭력에 대한 인식(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생 (N=550)	고등학생 (N=450)	T
1)스킨십을 하려 할 때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스킨십을 해도된다는 뜻이다	3.44	3.36	1.80
2)연인 간의 폭력은 때린 사람만을 탓할 수 없다	3.11	3.22	-2.00*
3)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거절해도 계속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3.27	3.34	-1.32
4)남자가 괴롭히는 것은 좋아한다는 표시다	3.40	3.47	-1.65
5)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야한 농담이나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다	3.45	3.45	0.12
6)'몰매 좋다'와 같은 말을 불쾌하게 들은 사람은 없다	3.41	3.46	-0.92
7)동성 간에는 성희롱이 일어날 수 없다	3.43	3.44	-0.17
8)약의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은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	3.53	3.58	-1.26
9)성폭력은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하는 등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	3.24	3.29	-1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성폭력 인식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여자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여자 중학생이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4)남자가 괴롭히는 것은 좋아한다는 표시다'가 여자 고등학생은 3.6점으로 매우 높은 성폭력 인식 수준을 보였으나, 남자 중학생(3.27점)과 남자 고등학생(3.36점)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5)수업이나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야한 농담이나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다'에서도 여자 고등학생의 평균은 3.68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남자 고등학생(3.22점)과 남자 중학생(3.33점)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성적 비하나 차별 발언을 일종의 유희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9)성폭력은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하는 등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 문항에서 여자 고등학생 평균 점수는 3.54점인데 반해, 남자 고등학생과 남자 중학생은 각각 3.06점과 3.09점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남학생에서 혐오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밖에 '8)악의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은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 '4)남자가 괴롭히는 것은 좋아한다는 표시다'는 남자 중학생과 남자 고등학생의 상대적으로 인식 수준이 낮았다. 또한 '7)동성 간에는 성희롱이 일어날 수 없다'에서 남자 고등학생이 남자 중학생보다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남학생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동성에 혐오 정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95] 폭력에 대한 인식(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151)	남자 중학생 (N=196)	여자 고등학생 (N=150)	남자 고등학생 (N=202)	F
1)스킨십을 하려 할 때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스킨십을 해도된다는 뜻이다	3.46	3.42	3.46	3.26	3.95***
2)연인 간의 폭력은 때린 사람만을 탓할 수 없다	3.16	3.06	3.36	3.09	5.68***
3)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거절해도 계속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3.36	3.18	3.44	3.24	5.27***
4)남자가 괴롭히는 것은 좋아한다는 표시다	3.54	3.27	3.60	3.36	12.47***
5)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야한 농담이나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다	3.58	3.33	3.68	3.22	22.66***
6)'몸매 좋다'와 같은 말을 불쾌하게 들을 사람은 없다	3.50	3.32	3.63	3.29	10.19***
7)동성 간에는 성희롱이 일어날 수 없다	3.56	3.32	3.65	3.25	14.73***
8)악의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은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	3.62	3.45	3.75	3.42	14.17***
9)성폭력은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하는 등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	3.40	3.09	3.54	3.06	20.33***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나. 학교 내외 성폭력 경험

1) 성폭력 경험

청소년들의 성폭력 경험을 살피기 위해 학교 안팎 5가지 성폭력에 대한 경험 비율을 살펴 보았다. ‘성적 농담’을 경험한 비율이 45.3%로 가장 빈번했으며, ‘성차별적 발언’(39.3%), ‘외모 등 신체에 대한 평가’(37.6%), ‘성추행이나 성폭행’(3.1%),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 강요’(2.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응답을 살펴보면 여학생은 ‘성적 농담’(43.5%), ‘외모 등 신체에 대한 평가’(41.8%), ‘성차별적 발언’(38.4%), ‘성추행이나 성폭행’(2.6%),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 강요’(2.2%) 순으로 응답한 한편, 남학생은 ‘성적 농담’(47.0%), ‘성차별적 발언’(40.2%), ‘외모 등 신체에 대한 평가’(33.7%), ‘성추행이나 성폭행’(3.7%),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 강요’(2.8%) 순으로 응답했다. 성적 농담이 성별에 관계 없이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한 성폭력이었으나 다음으로 여학생은 외모 등 신체에 대한 평가를, 남학생은 성차별적 발언을 꼽았다. 한편 외모 등 신체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남학생의 성폭력 경험률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성적 농담에서는 3.5%p 성별 차이를 보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성적 농담’(49.2%), ‘성차별적 발언’(43.3%), ‘외모 등 신체에 대한 평가’(40.9%), ‘성추행이나 성폭행’(3.7%),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 강요’(2.7%) 순으로, 고등학생은 ‘성적 농담’(40.6%), ‘성차별적 발언’(34.5%), ‘외모 등 신체에 대한 평가’(33.6%), ‘성추행이나 성폭행’(2.4%),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 강요’(2.2%) 순이었다.

성별+학교급에 따르면, ‘성차별적 발언’, ‘성적 농담’ 및 ‘외모 등 신체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여자 중학생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자 중학생의 경험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 강요’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적었으나, 남자 중학생의 경험 비율이 네 집단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도 보면 ‘성적 농담’을 경험한 비율이 모두 높았으며, 도농복합북부를 제외한 네 권역에서는 ‘성차별적 발언’을 꼽았다. 도농복합북부에서는 ‘외모 등 신체에 대한 평가’가 두 번째로 많이 노출된 성폭력 유형이었다. 한편,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 강요’는 도시북부(3.5%)에서 가장 높았으며,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농촌(5.9%)에서 다른 권역에 비해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6] 학교 안팎 성폭력 경험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성차별적 발언	성적 농담	외모 등 신체에 대한 평가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 강요	성추행이나 성폭행
전체		1,000	39.3	45.3	37.6	2.5	3.1
성별	여자	484	38.4	43.5	41.8	2.2	2.6
	남자	516	40.2	47.0	33.7	2.8	3.7
학교급	중학교	550	43.3	49.2	40.9	2.7	3.7
	고등학교	450	34.5	40.6	33.6	2.2	2.4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44.4	51.3	48.0	2.4	2.6
	남자+중학교	284	42.2	47.2	34.3	3.0	4.7
	여자+고등학교	219	31.2	34.0	34.2	1.9	2.6
	남자+고등학교	231	37.7	46.7	33.1	2.5	2.3
권역	농촌	14	39.7	48.5	33.5	2.9	5.9
	도농복합남부	314	30.8	37.1	28.7	1.6	2.6
	도농복합북부	136	39.5	55.8	45.8	2.5	3.1
	도시남부	413	44.2	46.7	40.8	2.9	3.4
	도시북부	122	44.5	49.4	41.1	3.5	3.3

2) 성폭력 경험 시 대처 방법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성폭력 경험 시 청소년들의 대처 방법을 질문한 결과이다. [표 3-97]은 성폭력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총 13개의 대처 방법 중 선택한 방법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이다. 전체 기준 가장 주된 방법으로는 '그냥 넘어감'이 6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친구에게 상담'(27.0%), '부모님께 상담'(16.6%), '담임선생님과 상담'(13.2%), '행위자(가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9.2%) 순이었다. 성폭력 경험이 있는 10명의 청소년 중 7명이 '그냥 넘어감'으로 응답하여 성폭력 경험 대처에서 소극적인 비율이 높았다. 한편, 학교 내 학생들의 전문 상담 창구로 설치된 '위(wee)클래스를 통한 상담'은 4.9%에 불과하여, 성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접근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청소년들의 상담 성폭력 경험 시 대처 방법의 성별 현황을 보면, 여학생은 ‘그냥 넘어감’이 7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친구에게 상담’(32.6%), ‘부모님께 상담’(19.4%), ‘담임선생님과 상담’(10.4%), ‘행위자(가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7.4%) 순으로 답했다. 남학생은 ‘그냥 넘어감’(67.6%), ‘친구에게 상담’(21.2%), ‘담임선생님과 상담’(16.1%), ‘부모님께 상담’(13.6%), ‘행위자(가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11.1%) 순으로 응답했으며, ‘경찰 신고 비율’(10.1%)도 적지 않았다. 여학생은 친구 및 부모님을 통한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던 한편, 남학생은 담임선생님 및 행위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처했다. 학교급 별로 보았을 때 뚜렷한 차이가 있었던 대처 방법으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 및 보건선생님과의 상담을 더 많이 응답했다면, 고등학생은 친구에게 상담을 더 많이 응답했다.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어른과의 상담을 더 주된 대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성별과 학교급에서는 전체 기준 가장 주된 대처 방법이었던 ‘그냥 넘어감’에서 여자 중학생이 71.9%로 가장 높았으며, 남자 고등학생(69.4%), 여자 고등학생(67.5%), 남자 중학생(66.3%) 순이었다. ‘친구에게 상담’에서는 여자 고등학생 34.3%, 여자 중학생 31.6%, 남자 고등학생 22.7%, 남자 중학생 2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담임선생님과 상담’에 있어 남자 중학생은 18.3%로 응답한 것에 비해 여자 고등학생은 8.4%로 응답하여 9.9%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남자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경찰 신고 비율(남자 중학생 9.7%, 남자 고등학생 10.6%)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권역별로 보면 ‘그냥 넘어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도농복합남부가 72.9%로 가장 높고, 농촌이 60.2%로 가장 낮았다. ‘친구에게 상담’ 비율에서는 농촌이 36.3%로 가장 높고, 노동복합남부가 24.9%로 가장 낮아, 지역 간 성폭력 대처 방법의 차이가 존재했다. ‘부모님께 상담’에서도 도시북부에서는 24.7%였던 한편, 도농복합남부에서는 11.2%로, 13.5%p의 차이가 존재했다. 한편 ‘위(wee)클래스 상담’에서는 도농복합북부의 이용률(11.4%)이 두드러졌으며, 가장 낮은 도시남부(3.3%)와 8.1%p의 차이를 보인다.

[표 3-97] 성폭력 경험 시 대처 방법(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담임 선생님과 상담	보건 선생님과 상담	평상시 친한 선생님과 상담	친구에게 상담	부모님께 상담	행위자 (가해자) 에게 사과요구	위(wee) 클래스 상담	교육청, 교육부에 민원 (신고)	그냥 넘어감	SNS 또는 언론제보	경찰 신고	외부 전문가 (심리상담사, 시민단체, 변호사 등) 상담	기타	
전체	559	13.2	1.6	4.7	27.0	16.6	9.2	4.9	2.1	69.0	2.1	5.8	1.7	0.3	
성별	여자	287	10.4	1.0	4.7	32.6	19.4	7.4	4.0	0.8	70.3	1.5	1.7	0.4	0.0
	남자	273	16.1	2.3	4.8	21.2	13.6	11.1	6.0	3.5	67.6	2.7	10.1	2.9	0.7
학교급	중학교	335	14.8	2.5	5.4	26.2	17.9	9.7	6.0	2.5	69.3	2.6	5.5	2.3	0.6
	고등학교	225	10.9	0.4	3.7	28.3	14.5	8.5	3.4	1.6	68.5	1.4	6.2	0.7	0.0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179	11.7	1.2	5.0	31.6	18.7	8.8	5.1	1.3	71.9	2.0	1.8	0.6	0.0
	남자+중학교	156	18.3	3.9	6.0	20.0	17.1	10.6	7.1	3.9	66.3	3.2	9.7	4.2	1.2
	여자+고등학교	108	8.4	0.7	4.2	34.3	20.5	5.1	2.2	0.0	67.5	0.7	1.4	0.1	0.0
	남자+고등학교	117	13.1	0.1	3.1	22.7	9.0	11.7	4.5	3.0	69.4	2.1	10.6	1.3	0.0
권역	농촌	8	14.3	3.0	7.5	36.3	17.7	10.2	9.3	5.4	60.2	2.3	7.8	4.0	0.0
	도농복합남부	145	12.9	1.5	5.4	24.9	11.2	7.6	4.3	0.8	72.9	0.7	5.0	0.0	0.0
	도농복합북부	86	12.7	0.0	1.7	31.2	14.5	7.9	11.4	1.7	65.3	5.3	1.7	1.7	0.0
	도시남부	245	13.5	2.4	5.2	27.9	17.9	9.7	3.3	2.2	69.7	1.4	5.0	1.0	0.0
	도시북부	76	13.3	0.9	5.1	22.8	24.7	12.0	3.4	4.3	64.5	3.4	14.3	6.8	2.4

주: 5가지 유형으로 측정된 성폭력 경험 하나라도 노출된 응답자 대상

3) 성폭력 경험 시 그냥 넘어간 이유

성폭력 경험 시 그냥 넘어갔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전체 기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28.6%),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행위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14.7%), ‘이야기해봤자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서’(4.7%)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폭력이 갖는 위험성과 더불어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경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34.8%),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29.8%),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행위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20.1%)를 차례대로 높은 순으로 응답했다. 남학생의 그냥 넘어간 이유의 순위는 여학생과 동일하나,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응답률은 51.4%로 여학생보다 16.6%p 높았으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행위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는 8.8%로 여학생보다 11.3%p 낮았다. 학교급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주요 이유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비율(45.4%)은 중학생(40.9%)에 비해 4.5%p 높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는 고등학생의 응답(25.3%)이 중학생에 비해(30.7%) 5.4%p 낮았다. 또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행위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응답에서는 고등학생(17.8%)이 중학생(12.6%)에 비해 5.2%p 더 높아 학교급 간 응답의 차이를 보인다.

성별+학교급별로는 성폭력 경험 시 그냥 넘어간 주요 세 가지 이유 항목은 네 집단에서 모두 같았으나, 여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은 같은 학교급의 남학생들에 비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비율은 중학교 13.0%p, 고등학교 21.3%p 낮았다. 또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행위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로 응답한 비율이 중학교 10.0%p, 고등학교 14.2%p 높게 나타나 동일 학교급 내 성차가 뚜렷하게 존재했다. 권역별로 보면 주요 대처 방법 순위는 동일하나,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응답에서 도시북부가 49.5%로 가장 높았으며, 도농복합남부에서 35.4%로 가장 낮아 14.1%p 차이를 보였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에서도 도시남부는 31.4%, 농촌은 13.3%로 응답하여 두 지역 간 18.1%p 차이가 있었다.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행위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에서도 도농복합남부는 20.7%, 도시남부는 11.9%로 8.8%p 차이가 나타났다.

[표 3-98] 성폭력 경험 시 그냥 넘어간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문제라고 생각 했지만 행위가 심각하지 않아서	이야기해 봤자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기타	
전체	386	42.7	28.6	14.7	4.7	3.3	3.3	2.2	0.6	
성별	여자	201	34.8	29.8	20.1	5.7	4.5	2.8	1.8	0.5
	남자	184	51.4	27.2	8.8	3.7	1.9	3.8	2.5	0.6
학교급	중학교	232	40.9	30.7	12.6	5.3	3.6	3.6	2.3	1.0
	고등학교	154	45.4	25.3	17.8	3.8	2.8	2.8	2.0	0.0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129	35.1	31.7	17.1	6.9	4.4	1.8	2.3	0.8
	남자+중학교	103	48.1	29.5	7.1	3.4	2.6	5.9	2.3	1.2
	여자+고등학교	73	34.2	26.5	25.3	3.5	4.7	4.6	1.1	0.0
	남자+고등학교	81	55.5	24.3	11.1	4.0	1.2	1.2	2.8	0.0
권역	농촌	5	48.8	13.3	13.5	7.7	0.0	7.7	9.0	0.0
	도농복합남부	105	35.4	26.0	20.7	7.2	3.9	2.8	2.9	1.1
	도농복합북부	56	45.8	27.5	10.9	5.3	4.4	2.0	4.2	0.0
	도시남부	171	44.1	31.4	11.9	4.3	2.7	4.4	0.8	0.6
	도시북부	49	49.5	27.2	16.1	0.0	3.0	1.6	2.6	0.0

주: 성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처 방법으로 ㉠그냥 넘어갔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

다. 학교 내 성평등·성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1)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 경험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의 지난 1년 동안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약 64.8%가 교육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 여부에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학교급 및 성별+학교급별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권역별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권역별로 양성평등 교육 경험을 가장 많이 한 곳은 도농복합북부 77.9%였다. 다음은 농촌 70.5%, 도시남부 66.9%, 도시북부 60.1%, 도농복합남부 57.7% 순이었다. 양성평등 교육 경험률이 가장 높은 도농복합북부와 가장 낮은 도농복합남부 간 차이는 20.2%p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성별에서는 남학생, 학교급에서는 중학생, 성별+학교급에서는 남자 고등학생,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순으로 양성평등 교육 경험률이 높았다.

[표 3-99] 양성평등 교육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χ^2
전체		1,000	64.8	35.2	-
성별	여자	484	62.6	37.4	1.99
	남자	516	66.8	33.2	
학교급	중학교	550	65.4	34.6	0.25
	고등학교	450	63.9	36.1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65.0	35.0	3.82
	남자+중학교	284	65.8	34.2	
	여자+고등학교	219	59.6	40.4	
	남자+고등학교	231	68.0	32.0	
권역	농촌	14	70.5	29.5	19.36**
	도농복합남부	314	57.7	42.3	
	도농복합북부	136	77.9	22.1	
	도시남부	413	66.9	33.1	
	도시북부	122	60.1	39.9	

주: *p<.10, *p<.05, **p<.01, ***p<.001

양성평등 교육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자를 질문한 결과 '외부 강사'가 63.9%로 가장 높았으며, '담임 교사' 19.1%, '교과 교사' 13.5%, '보건 교사' 3.4% 순이었다. 성별로는 교육 진행자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없었던 한편,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에 비해 '외부 강사' 비율이 8.6%p 적고(중학생 67.7%, 고등학생 59.1%), '담임 교사' 비율이 8.6%p 높았다(중학생 15.3%, 고등학생 23.9%). 성별+학교급별로는 동일 학교급 내에서 성차가 존재했는데, 중학생에서는 외부 강사 비율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고등학생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다. '담임 교사' 비율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권역별로는 '외부 강사' 비율에서 도시 북부가 74.1%로 가장 높았으며, 농촌은 50.2%로 약 23.9%p 차이를 보인다. 반대로 '담임 교사' 비율에서는 농촌이 35.5%로 가장 높고, 도시북부는 12.3%로 가장 낮아 23.2%p 차이가 나타났다.

[표 3-100] 양성평등 교육 진행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교과 교사	담임 교사	보건 교사	외부 강사
전체		648	13.5	19.1	3.4	63.9
성별	여자	303	15.2	18.4	3.4	63.1
	남자	344	12.1	19.8	3.5	64.6
학교급	중학교	360	15.1	15.3	1.9	67.7
	고등학교	287	11.6	23.9	5.3	59.1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173	16.5	16.8	1.9	64.8
	남자+중학교	187	13.8	13.9	2.0	70.3
	여자+고등학교	130	13.5	20.4	5.4	60.7
	남자+고등학교	157	10.0	26.9	5.2	57.8
권역	농촌	10	7.0	35.5	7.3	50.2
	도농복합남부	181	16.6	26.8	4.2	52.4
	도농복합북부	106	15.0	25.9	0.0	59.0
	도시남부	277	12.2	12.8	4.0	71.1
	도시북부	74	9.9	12.3	3.7	74.1

주: 지난 1년 간 양성평등 교육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

양성평등 교육 방식은 66.2%가 ‘학급별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집합교육’ 29.6%, ‘모듬, 개인별 교육’은 4.2%에 불과했다. 성별, 학교급, 성별+학교급, 권역별 교육 각 진행방식 비율의 순서는 모두 동일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학급별 교육’과 ‘모듬, 개인별 교육’은 적게, ‘전체 집합교육’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은 ‘학급별 교육’ 비율이 고등학생에 비해 낮았으며, ‘전체 집합교육’과 ‘모듬, 개인별 교육’ 비율은 높았다. 성별+학교급에서 주요 특징은 동일 학교급 내 여학생은 ‘학급별 교육’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권역에서는 ‘학급별 교육’에서 농촌 79.2%, 도시남부 59.4%로 약 19.8%p 차이를 보였다. 또한 도시남부에서는 ‘전체 집합교육’ 비율(37.0%)이 가장 높았다. ‘모듬, 개인별 교육’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도농복합북부(7.5%)로 가장 낮은 도시북부(2.0%)와 5.5%p 차이가 존재했다.

[표 3-101] 양성평등 교육 방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집합교육	학급별 교육	모듬, 개인별 교육
전체		648	29.6	66.2	4.2
성별	여자	303	31.1	64.9	3.9
	남자	344	28.3	67.3	4.4
학교급	중학교	360	32.5	61.5	6.0
	고등학교	287	26.0	72.0	2.0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173	33.1	60.9	6.0
	남자+중학교	187	32.0	62.1	5.9
	여자+고등학교	130	28.6	70.2	1.2
	남자+고등학교	157	23.9	73.5	2.6
권역	농촌	10	15.9	79.2	4.9
	도농복합남부	181	29.2	66.8	4.1
	도농복합북부	106	17.9	74.7	7.5
	도시남부	277	37.0	59.4	3.6
	도시북부	74	21.7	76.3	2.0

주: 지난 1년 간 양성평등 교육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

양성평등 교육의 다수는 '영상시청'(55.5%)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사(교사) 강의' 42.0%, '토론식' 1.5%, '유인물' 0.9% 순이었다. 성별, 학교급, 성별+학교급, 권역별 교육 방법 비율의 순서는 대체로 동일했으나, 각 집단별 차이가 존재했다. 먼저 성별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영상시청'이 높고, '강사(교사) 강의' 비율이 적다는 특징을 보인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영상시청' 비율이 낮고, '강사(교사) 강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중학생에서는 '영상시청'과 '강사(교사) 강의' 비율이 거의 동일했다. 성별+학교급에서는 남자 중학생은 '영상시청'(47.0%)보다 '강사(교사) 강의' 비중(49.5%)이 높았다. '토론식' 교육 방법 비율은 대체로 낮았으나, 남자 중학생에서는 3.5%로 다른 세 집단에 비해 높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도농복합남부에서 '영상시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강사(교사) 강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으며, 도시남부에서 '영상시청'과 '강사(교사) 강의' 비율이 가장 유사했다. '토론식' 방법은 도시북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 역시 3.9%에 불과했다.

[표 3-102] 양성평등 교육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영상시청	강사(교사) 강의	토론식	유인물
전체		648	55.5	42.0	1.5	0.9
성별	여자	303	57.6	39.6	0.8	1.9
	남자	344	53.7	44.1	2.2	0.0
학교급	중학교	360	48.7	48.4	2.3	0.6
	고등학교	287	64.0	34.1	0.6	1.3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173	50.6	47.2	1.0	1.2
	남자+중학교	187	47.0	49.5	3.5	0.0
	여자+고등학교	130	66.9	29.6	0.6	2.9
	남자+고등학교	157	61.6	37.8	0.6	0.0
권역	농촌	10	52.7	46.1	1.1	0.0
	도농복합남부	181	65.1	33.3	1.2	0.4
	도농복합북부	106	57.1	40.2	2.7	0.0
	도시남부	277	49.5	48.2	0.7	1.6
	도시북부	74	52.7	42.4	3.9	1.0

주: 지난 1년 간 양성평등 교육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

2) 학교 내 성교육 경험

이번에는 지난 1년 동안 학교 내 성교육을 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 기준 '성교육 경험 있음'은 77.6%로, 양성평등교육 경험 비율(64.8%)에 비해 12.8%p 높았다. 집단 간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학교급과 성별+학교급에서 유의했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83.1%)이 고등학생(70.9%)에 비해 성교육을 받았다고 한 비율이 12.2%p 높았다. 성별+학교급별로는 여자 중학생 86.8%, 남자 중학생 79.7%, 남자 고등학생 71.3%, 여자 고등학생 70.5% 순이었다. 여학생의 학교급 간 차이가 16.3%p로, 성교육 경험에 있어서는 성별보다 학교급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권역에서는 도시북부, 도농복합북부와 도시남부, 도농복합남부, 농촌 순으로 성교육 경험율이 높았다.

[표 3-103] 성교육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χ^2
전체		1,000	77.6	22.4	-
성별	여자	484	79.4	20.6	1.75
	남자	516	75.9	24.1	
학교급	중학교	550	83.1	16.9	21.55***
	고등학교	450	70.9	29.1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86.8	13.2	25.57***
	남자+중학교	284	79.7	20.3	
	여자+고등학교	219	70.5	29.5	
	남자+고등학교	231	71.3	28.7	
권역	농촌	14	69.8	30.2	5.30
	도농복합남부	314	73.8	26.2	
	도농복합북부	136	78.9	21.1	
	도시남부	413	78.9	21.1	
	도시북부	122	82.4	17.6	

주: *p<.10, p<.05, **p<.01, ***p<.001

성교육 진행자는 '외부 강사'가 5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교과 교사'(18.0%), '담임 교사'(15.5%), '보건 교사'(8.2%) 순으로 나타나, 양성평등 교육에 비해 '교과 교사'가 '담임 교사'에 비해 맞는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 보면 교육 진행자 비율 순서는 동일했으나, 여학생은 '외부 강사'의 비중이 높고, '교과 교사', '담임 교사' 및 '보건 교사'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낮았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은 '외부 강사' 다음으로 '교과 교사'가 맞는 비율(20.9%)이 높았다면, 고등학생은 '담임 교사'의 비중(23.8%)이 높았다. 성별+학교급에서는 성별보다는 학교급별 차이가 반영되어 여자, 남자 중학생은 '외부 강사', '교과 교사', '담임 교사' 순으로, 여자, 남자 고등학생은 '외부 강사', '담임 교사', '교과 교사' 순으로 교육 진행자 비율이 높다고 응답했다. 권역에서는 농촌의 경우 '외부 강사' 비중은 적고(36.3%), '담임 교사'(33.6%)와 '보건 교사'(20.8%)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도농복합북부의 경우 '보건 교사'가 성교육을 맡는 비율이 1.0%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촌 지역 성교육에서 '보건 교사'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할 수 있다.

[표 3-104] 성교육 진행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교과 교사	담임 교사	보건 교사	외부 강사
전체		776	18.0	15.5	8.2	58.3
성별	여자	385	17.8	13.5	7.9	60.8
	남자	391	18.3	17.4	8.5	55.8
학교급	중학교	457	20.9	9.7	9.1	60.3
	고등학교	319	13.9	23.8	6.9	55.4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31	19.9	9.6	9.1	61.4
	남자+중학교	227	21.9	9.7	9.2	59.2
	여자+고등학교	154	14.6	19.3	6.2	59.9
	남자+고등학교	165	13.2	28.0	7.6	51.2
권역	농촌	10	9.4	33.6	20.8	36.3
	도농복합남부	231	17.0	20.2	12.3	50.5
	도농복합북부	107	19.6	18.8	1.0	60.6
	도시남부	326	20.5	10.5	7.7	61.3
	도시북부	101	11.4	15.1	7.0	66.5

주: 지난 1년 간 학교 내 성교육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

성교육 방식으로는 ‘학급별 교육’이 6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체 집합교육’(29.1%), ‘모듬, 개인별 교육’(3.6%) 순이었다. 성별로는 큰 특징을 보이지 않으며, 학교급의 경우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전체 집합교육’과 ‘모듬, 개인별 교육’을 조금 더 많은 비율로, ‘학급별 교육’은 더 적은 비율로 응답했다. 성별+학교급에서는 학교급 차이를 반영하여 여자, 남자 중학생이 여자,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전체 집합교육’ 비율과 ‘모듬, 개인별 교육’은 높고 ‘학급별 교육’ 비율은 낮았다. 권역에서는 농촌이 ‘학급별 교육’ 비중이 83.9%로 가장 크며 ‘전체 집합교육’은 13.6%로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도시남부에서는 ‘학급별 교육’이 64.0%, ‘전체 집합교육’은 33.7%로 나타나 농촌과 차이를 보인다.

[표 3-105] 성교육 방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집합교육	학급별 교육	모듬, 개인별 교육
전체		776	29.1	67.3	3.6
성별	여자	385	29.6	67.2	3.1
	남자	391	28.6	67.4	4.0
학교급	중학교	457	31.9	63.1	5.0
	고등학교	344	28.3	67.3	4.4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31	31.8	64.3	3.9
	남자+중학교	227	32.0	62.0	6.1
	여자+고등학교	154	26.4	71.6	2.0
	남자+고등학교	165	23.9	74.9	1.2
권역	농촌	10	13.6	83.9	2.5
	도농복합남부	231	31.5	64.6	3.8
	도농복합북부	107	20.0	74.3	5.8
	도시남부	326	33.7	64.0	2.3
	도시북부	101	20.0	75.1	4.9

주: 지난 1년 간 학교 내 성교육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

학교 내 성교육 방법으로는 ‘영상시청’이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강사(교사) 강의’ 44.6%, ‘유인물’ 1.4%, ‘토론식’ 1.3% 순으로 나타나 양성평등 교육과 마찬가지로 ‘토론식’ 수업의 비중은 상당히 적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영상시청’의 비중이 높고, ‘강사(교사) 강의’ 비율은 적은 것으로 응답했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강사(교사) 강의’ 비중이 50.3%로 가장 높고, ‘영상시청’이 45.9%로 2순위였으나, 고등학생에서는 ‘영상시청’이 62.6%, ‘강사(교사) 강의’는 36.5%로, 학교급 간 차이를 보인다. 성별+학교급에서는 학교급의 차이를 반영하여 여자, 남자 중학생은 ‘강사(교사) 강의’ 비중이, 여자, 남자 고등학생은 ‘영상시청’ 비중이 높았다. 권역별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도시남부에서 ‘강사(교사) 강의’ 비중(50.3%)이 ‘영상시청’(45.8%)보다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도농복합남부와 비교하여 ‘강사(교사) 강의’ 비중은 15.1%p 높고, ‘영상시청’은 17.6%p 낮았다.

[표 3-106] 성교육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영상시청	강사(교사) 강의	토론식	유인물
전체		776	52.8	44.6	1.3	1.4
성별	여자	385	55.1	43.0	0.9	1.0
	남자	391	50.4	46.2	1.6	1.8
학교급	중학교	457	45.9	50.3	1.8	2.0
	고등학교	319	62.6	36.5	0.4	0.5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31	46.6	51.0	1.5	1.0
	남자+중학교	227	45.2	49.6	2.2	3.0
	여자+고등학교	154	67.8	31.2	0.0	1.0
	남자+고등학교	165	57.6	41.4	0.9	0.1
권역	농촌	10	53.1	44.4	1.2	1.3
	도농복합남부	231	63.4	35.2	0.5	0.9
	도농복합북부	107	56.4	40.9	1.0	1.6
	도시남부	326	45.8	50.3	1.8	2.1
	도시북부	101	46.9	51.7	1.4	0.0

주: 지난 1년 간 학교 내 성교육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

3)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경험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약 83.2%가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교육에 비해 교육이수율이 높았다. 집단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했으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성별로는 여학생이, 성별+학교급에서는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 남자 중학생 순으로, 권역에서는 도농 복합북부에서 가장 많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표 3-107]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χ^2
전체		1,000	83.2	16.8	-
성별	여자	484	84.8	15.2	1.80
	남자	516	81.6	18.4	
학교급	중학교	550	83.1	16.9	0.0023
	고등학교	450	83.2	16.8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85.8	14.2	0.78
	남자+중학교	284	80.6	19.4	
	여자+고등학교	219	83.6	16.4	
	남자+고등학교	231	82.9	17.1	
권역	농촌	14	82.4	17.6	5.98
	도농복합남부	314	80.7	19.3	
	도농복합북부	136	89.9	10.1	
	도시남부	413	83.2	16.8	
	도시북부	122	82.0	18.0	

주: *p<.10, *p<.05, **p<.01, ***p<.001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자를 질문한 결과, '외부 강사'(55.1%), '담임 교사'(21.7%), '교과 교사'(18.4%), '보건 교사'(4.9%)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에서 남학생에 비해 '교과 교사', '보건 교사' 및 '외부 강사'의 비율이 높고, '담임 교사' 비율이 낮았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에 비해 '교과 교사'와 '외부 강사' 비중은 높고, '담임 교사'와 '보건 교사' 비중은 낮았다. 특히 '담임 교사' 비중에서 14.9%p, '외부 강사' 비중에서 13.9%p 차이를 보인다. 성별+학교급별로는 성별보다는 학교급 차이가 더 많이 반영되어, 여자, 남자 중학생은 여자,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교과 교사'와 '외부 강사' 비중이 높고, '담임 교사'와 '보건 교사' 비중은 낮았다. 권역별로 드러난 특징은 농촌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외부 강사'(28.2%)보다 '담임 교사' 비중(50.2%)이 높았다는 점이다. 또한 농촌에서 '보건 교사'가 담당하는 비중(8.7%)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108]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교과 교사	담임 교사	보건 교사	외부 강사
전체		832	18.4	21.7	4.9	55.1
성별	여자	411	19.2	18.6	5.3	56.9
	남자	421	17.5	24.8	4.4	53.3
학교급	중학교	457	19.3	15.0	4.4	61.3
	고등학교	374	17.1	29.9	5.5	47.4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28	20.0	13.0	4.9	62.0
	남자+중학교	229	18.6	16.9	3.8	60.7
	여자+고등학교	183	18.1	25.6	5.7	50.6
	남자+고등학교	192	16.2	34.1	5.2	44.4
권역	농촌	12	12.9	50.2	8.7	28.2
	도농복합남부	253	21.7	26.8	4.9	46.6
	도농복합북부	122	25.5	27.4	1.7	45.3
	도시남부	344	16.0	15.6	5.3	63.1
	도시북부	100	9.8	19.5	6.5	64.2

주: 지난 1년 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방식으로는 ‘학급별 교육’(66.9%), ‘전체 집합교육’(30.2%), ‘모듬, 개인별 교육’(2.9%) 순으로 응답했다. 성별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나 여학생에서 남학생에 비해 ‘전체 집합교육’ 비율이 약간 높고, ‘학급별 교육’과 ‘모듬, 개인별 교육’ 비중은 낮았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전체 집합교육’과 ‘모듬, 개인별 교육’ 비중이 높고 ‘학급별 교육’은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성별+학교급에서는 학교급에 따른 특징을 반영하여 여자, 남자 중학생은 여자,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전체 집합교육’과 ‘모듬, 개인별 교육’ 비중이 높고, ‘학급별 교육’ 비중은 낮았다. 권역별로 보면 교육 방식 비율의 순서는 동일하나 농촌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학급별 교육’ 비중은 높고, ‘전체 집합교육’은 낮다는 특징을 보였다.

[표 3-109]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방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집합교육	학급별 교육	모듬, 개인별 교육
전체		832	30.2	66.9	2.9
성별	여자	411	30.7	66.6	2.7
	남자	421	29.7	67.2	3.1
학교급	중학교	457	33.1	63.1	3.8
	고등학교	374	26.7	71.6	1.8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28	33.6	63.5	2.8
	남자+중학교	229	32.5	62.6	4.8
	여자+고등학교	183	27.1	70.5	2.5
	남자+고등학교	192	26.2	72.7	1.1
권역	농촌	12	17.2	78.6	4.2
	도농복합남부	253	31.9	64.6	3.5
	도농복합북부	122	18.1	76.9	5.1
	도시남부	344	36.4	61.8	1.9
	도시북부	100	21.1	76.7	2.2

주: 지난 1년 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방법으로는 ‘영상시청’이 62.8%로 다수였으며, ‘강사(교사) 강의’(35.1%), ‘토론식’(1.4%), ‘유인물’(0.7%) 순이었다. 성별로 순서는 동일하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영상시청’ 비중이 높고, ‘강사(교사) 강의’는 낮았다. 학교급에도 동일한 순서였으나,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영상시청’과 유인물은 낮게, ‘강사(교사) 강의’와 ‘토론식’ 비중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성별+학교급에서는 학교급 차이가 반영되었으며, 여자, 남자 중학생이 여자, 남자 고등학생 비해 ‘영상시청’은 적게, ‘강사(교사) 강의’는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권역에서는 도농복합북부에서 ‘영상시청’ 비중이 70.5%로 가장 높고, ‘강사(교사) 강의’는 28.5%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절대적 비중은 적으나 ‘토론식’은 도시남부에서(2.6%), ‘유인물’은 농촌(2.1%)에서 높게 응답했다.

[표 3-110]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영상시청	강사(교사) 강의	토론식	유인물
전체		832	62.8	35.1	1.4	0.7
성별	여자	411	65.1	33.1	1.0	0.8
	남자	421	60.6	37.1	1.7	0.6
학교급	중학교	457	57.3	40.8	1.8	0.0
	고등학교	374	69.6	28.2	0.8	1.4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28	57.9	40.6	1.5	0.0
	남자+중학교	229	56.7	41.1	2.2	0.1
	여자+고등학교	183	74.1	23.8	0.4	1.7
	남자+고등학교	192	65.2	32.4	1.2	1.2
권역	농촌	12	68.9	29.0	0.0	2.1
	도농복합남부	253	70.0	29.7	0.0	0.3
	도농복합북부	122	70.5	28.5	0.9	0.0
	도시남부	344	57.8	38.4	2.6	1.3
	도시북부	100	52.0	46.6	1.4	0.0

주: 지난 1년 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경험이 있는 조사 대상자

4) 학교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생각

이번 절에서는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바를 정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4가지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4가지 항목 중 학교 양성평등 교육이 가장 효과 있다고 응답한 문항은 '3)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여준다'(2.48점), '2)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2.43점), '1)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늘 새롭고 흥미롭다'(2.07점), '4)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별 갈등을 완화시킨다'(1.84점) 순이었다. 응답 중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쳤을 때 3)번의 경우 54.6%가 응답했다면, 4)번은 14.1% 만이 응답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은 개선시켰으나 성별 갈등 완화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인식했다.

[표 3-111]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 동의정도(전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늘 새롭고 흥미롭다	1,000	5.3	20.1	50.8	23.8	2.07 (0.80)
2)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1,000	9.4	41.3	32.6	16.8	2.43 (0.88)
3)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여준다	1,000	9.1	45.5	29.7	15.8	2.48 (0.86)
4)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별 갈등을 완화시킨다	1,000	3.6	10.5	52.5	33.4	1.84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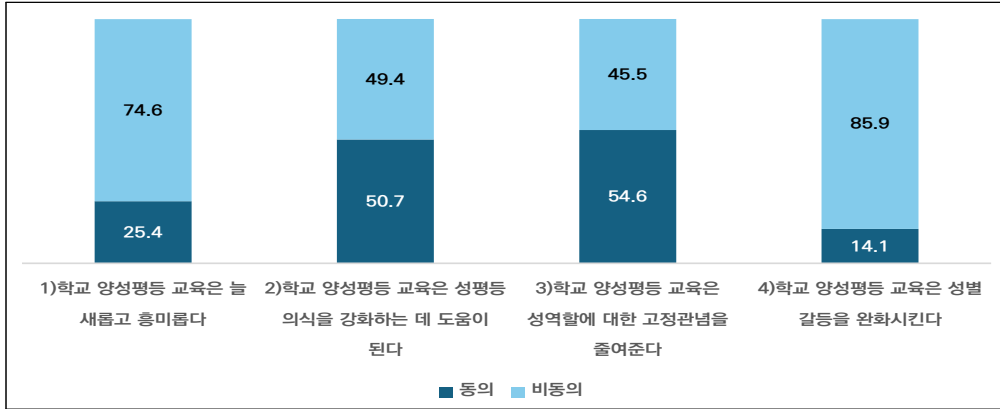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에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측정하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3) 4)번 항목은 다른 항목과 동일한 맥락에서 보기 위해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별 갈등을 발생시킨다를 수정한 문장임.

[그림 3-13] 학교 양성평등 교육 효과 동의율

(단위: %)



주: 동의=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비동의=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로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 동의 정도 결과를 보았을 때 모든 항목에서 성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1)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늘 새롭고 흥미롭다'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모두 2.07점으로 동일했다. 통계적 차이는 없으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2)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와 '3)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여준다'에서는 여학생이, '4)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별 갈등을 완화시킨다'에서는 남학생이 평균 점수가 높았다.

[표 3-112]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 동의정도(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484)	남학생 (N=516)	T
1)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늘 새롭고 흥미롭다	2.07	2.07	0.01
2)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2.46	2.41	0.71
3)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여준다	2.51	2.45	1.55
4)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별 갈등을 완화시킨다	1.76	1.92	0.61

주: 1) *p<.10, *p<.05, **p<.01, ***p<.001

2) 4)번 항목은 다른 항목과 동일한 맥락에서 보기 위해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별 갈등을 발생시킨다를 수정한 문장임.

성별 결과와 달리 학교급별로는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늘 새롭고 흥미롭다'를 제외하고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교육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번 문항의 경우 중학생(3.13점)이 고등학생(3.20점)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특히 '3)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여준다'에 있어 중학생은 2.53점, 고등학생은 2.32점으로 0.21점 차이를 보여, 4항목 중 가장 학교급별 큰 차이가 존재했다.

[표 3-113]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 동의정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생 (N=550)	고등학생 (N=450)	T
1)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늘 새롭고 흥미롭다	3.13	3.20	17.88***
2)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2.56	2.38	14.27***
3)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여준다	2.53	2.32	11.54***
4)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별 갈등을 완화시킨다	1.87	1.80	12.28***

주: 1) *p<.10, *p<.05, **p<.01, ***p<.001

2) 4)번 항목은 다른 항목과 동일한 맥락에서 보기 위해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별 갈등을 발생시킨다를 수정한 문장임.

성별+학교급별로는 ‘4)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별 갈등을 완화시킨다’를 제외하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늘 새롭고 흥미롭다’에 있어서는 평균 기준 남자 중학생(2.20점), 여자 중학생(2.13점), 여자 고등학생(2.00점), 남자 고등학생(1.91점) 순으로 나타났다. ‘2)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에는 남자 중학생(2.54점)이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여자 중학생(2.51점), 여자 고등학생(2.39점), 남자 고등학생(2.25점) 순이었다. 1)번과 2)번 항목 응답에서 남학생 내 학교급 간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존재했다. ‘3)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여준다’에서는 여자 중학생(2.57점), 남자 중학생(2.55점), 여자 고등학생(2.44점), 남자 고등학생(2.32점) 순으로 높게 평가하여, 동일 학교급 내 성별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14] 학교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 동의정도(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151)	남자 중학생 (N=196)	여자 고등학생 (N=150)	남자 고등학생 (N=202)	F
1)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늘 새롭고 흥미롭다	2.13	2.20	2.00	1.91	6.87***
2)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2.51	2.54	2.39	2.25	5.80***
3)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여준다	2.57	2.55	2.44	2.32	4.70**
4)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별 갈등을 완화시킨다	1.79	1.95	1.72	1.88	2.19

주: 1) *p<.10, *p<.05, **p<.01, ***p<.001

2) 4)번 항목은 다른 항목과 동일한 맥락에서 보기 위해 학교 양성평등 교육은 성별 갈등을 발생시킨다를 수정한 문장임.

7. 청소년의 진로, 가족 가치관

가. 진로·직업관련 성평등 태도

1)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

경기도 청소년들의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6개의 항목으로 살펴보았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임을 의미한다. 평균 점수가 가장 큰 항목은 '6)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로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부 응답을 보면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은 54.5%, 부정 응답(대체로 그렇다+별로 그렇지 않다)은 45.5%로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다른 문항의 응답에 비해 긍정과 부정 간 응답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1)남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다'(2.17점), '5)남학생이 원하는 직업과 여학생이 원하는 직업이 대체로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2.16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아동이나 환자, 노인을 돌보는 직업은 여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1.81점)와 '3)경찰, 군인,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이나 국방과 관련된 직업은 남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1.94점) 순으로 부정적 인식이 긍정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성별에 따른 일반 경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나, 특정 직업이 거론되면서 구체적인 성별 직종 분리가 제시되었을 때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표 3-115]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전체)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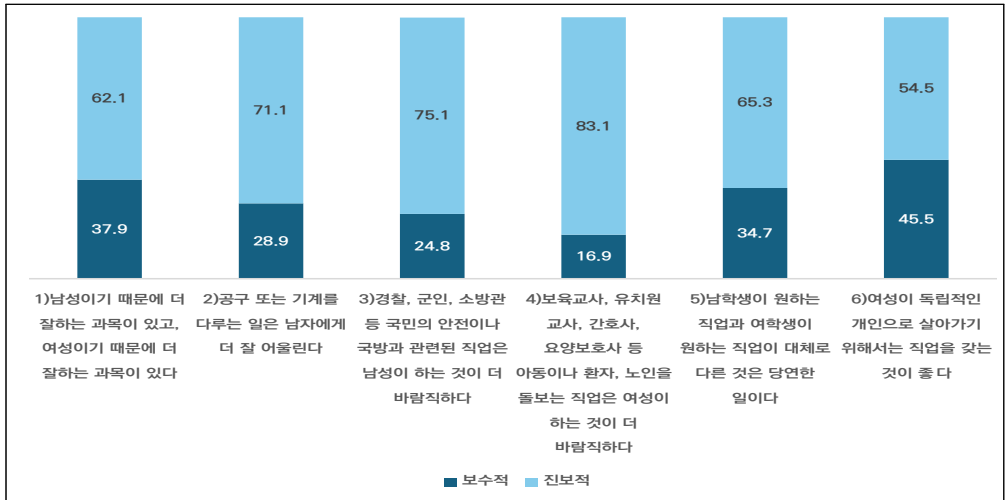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남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다	1,000	6.7	31.2	34.8	27.3	2.17 (0.91)
2)공구 또는 기계를 다루는 일은 남자에게 더 잘 어울린다	1,000	2.9	26.0	39.6	31.5	2.00 (0.83)
3)경찰, 군인,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이나 국방과 관련된 직업은 남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000	5.8	19.0	38.8	36.3	1.94 (0.89)
4)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아동이나 환자, 노인을 돌보는 직업은 여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000	2.4	14.5	44.6	38.5	1.81 (0.77)
5)남학생이 원하는 직업과 여학생이 원하는 직업이 대체로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1,000	7.5	27.2	39.2	26.1	2.16 (0.90)
6)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역코딩)	1,000	12.6	41.9	24.8	20.7	2.54 (0.96)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임을 의미하기 위해 6)문항을 제외하고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3-14]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

(단위: %)



주: 보수적=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진보적=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성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6)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를 제외하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6)번 항목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다른 문항에 비해 평균 점수가 크게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보수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6)번 항목에서 평균 기준 성차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 성차가 가장 컸던 문항은 '3)경찰, 군인,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이나 국방과 관련된 직업은 남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로 여학생 1.65점, 남학생 2.22점으로 0.57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 점수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4)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아동이나 환자, 노인을 돌보는 직업은 여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로 여학생 1.6점, 남학생 2.01점이었으며 성별 0.41점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 3-116]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484)	남학생 (N=516)	T
1)남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다	2.00	2.34	37.32***
2)공구 또는 기계를 다루는 일은 남자에게 더 잘 어울린다	1.81	2.19	56.88***
3)경찰, 군인,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이나 국방과 관련된 직업은 남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65	2.22	112.74***
4)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아동이나 환자, 노인을 돌보는 직업은 여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60	2.01	75.38***
5)남학생이 원하는 직업과 여학생이 원하는 직업이 대체로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8	2.33	40.00***
6)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역코딩)	2.61	2.47	5.61*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임.

2) *p<.10, *p<.05, **p<.01, ***p<.001

학교급별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에서는 '3)경찰, 군인,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이나 국방과 관련된 직업은 남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와 '6)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3)번에서는 중학생 1.87점, 고등학생 2.04점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6)번 문항에서는 중학생 2.68점, 고등학생 2.36점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보수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평균 점수 측면에서 2), 4), 5)번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점수가 높아 고등학생이 보수적 태도를 보였으며, 1)번에서는 반대 경향을 보였다.

[표 3-117]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생 (N=550)	고등학생 (N=450)	T
1)남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다	2.21	2.13	1.88
2)공구 또는 기계를 다루는 일은 남자에게 더 잘 어울린다	1.98	2.04	1.21
3)경찰, 군인,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이나 국방과 관련된 직업은 남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87	2.04	9.35**
4)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아동이나 환자, 노인을 돌보는 직업은 여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78	1.84	1.32
5)남학생이 원하는 직업과 여학생이 원하는 직업이 대체로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2.15	2.18	0.26
6)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역코딩)	2.68	2.36	28.37***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임.

2) *p<.10, *p<.05, **p<.01, ***p<.001

성별+학교급별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던 ‘6)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에서는 여자 중학생(2.75점), 남자 중학생(2.61점), 여자 고등학생(2.44점), 남자 고등학생(2.29점) 순으로 보수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좀 더 보수적 태도를 보였으며, 동일 학교급 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보수적이었다. 집단에 관계없이 평균 점수가 낮은 4)번 항목에서는 여자 중학생(1.61점), 여자 고등학생(1.59점), 남자 중학생(1.94점), 남자 고등학생(2.08점)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보다 성별이 각 집단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 3-118]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151)	남자 중학생 (N=196)	여자 고등학생 (N=150)	남자 고등학생 (N=202)	F
1)남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다	2.01	2.39	1.97	2.28	13.21***
2)공구 또는 기계를 다루는 일은 남자에게 더 잘 어울린다	1.82	2.12	1.79	2.27	20.50***
3)경찰, 군인,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이나 국방과 관련된 직업은 남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64	2.08	1.68	2.38	43.64***
4)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아동이나 환자, 노인을 돌보는 직업은 여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61	1.94	1.59	2.08	26.65***
5)남학생이 원하는 직업과 여학생이 원하는 직업이 대체로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1	2.28	1.94	2.40	14.40***
6)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역코딩)	2.75	2.61	2.44	2.29	11.45***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관련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임.

2) *p<.10, *p<.05, **p<.01, ***p<.001

2) 일 관련 성차별주의

일 관련 성차별주의는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성별 직무 분리, 능력과 보상의 차이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적 의견에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 중 ‘4)남성의 월급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가 평균 1.99점으로 성차별주의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는 1)번(1.62점), 3)번(1.58점), 2)번(1.56점) 순으로 높았다. 세부 응답을 살펴보면 4)번 문항에 긍정(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28.6%였다. 4)번 다음으로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았던 1)번에서 8.7%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다. 성차별주의가 낮았던 2)번 항목에서는 긍정(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비율이 7.2%로, 4)번 성별 보상 차이에 대한 긍정(28.6%)과 21.4%p 차이를 보인다.

[표 3-119] 일 관련 성차별주의 인식(전체)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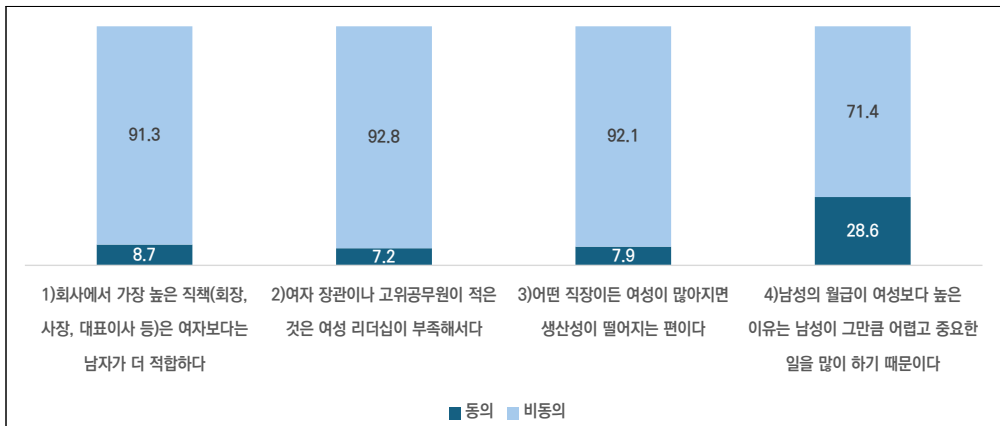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책(회장, 사장, 대표이사 등)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적합하다	1,000	2.6	6.1	42.1	49.2	1.62 (0.72)
2)여자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 리더십이 부족해서다	1,000	1.0	6.2	40.5	52.3	1.56 (0.66)
3)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1,000	1.5	6.4	41.0	51.1	1.58 (0.68)
4)남성의 월급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1,000	5.7	22.9	35.8	35.6	1.99 (0.90)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일관련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도록 측정하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3-15] 일 관련 성차별 동의율

(단위: %)



주: 동의=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비동의=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로 일 관련 성차별주의 인식을 보았을 때 4개 항목에서 모두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성차별적 의견에 동의 수준이 높았다. t검증 결과에서도 성별 차이가 유효했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평균 점수가 제일 높았던 '4)남성의 월급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에서 여학생은 1.65점, 남학생은 2.30점으로, 성별 0.65점의 차이가 존재했다. 성별 차이가 가장 적었던 문항은 '2)여자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 리더십이 부족해서다'로, 여학생은 1.36점, 남학생은 1.75점으로 0.39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3-120] 일 관련 성차별주의 인식(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484)	남학생 (N=516)	T
1)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책(회장, 사장, 대표이사 등)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적합하다	1.40	1.83	100.35***
2)여자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 리더십이 부족해서다	1.36	1.75	99.04***
3)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1.35	1.80	125.28***
4)남성의 월급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1.65	2.30	147.32***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일관련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학교급별로는 일 관련 성차별주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성차별주의 인식이 약간 낮았으나, 점수에서도 거의 동일했다.

[표 3-121] 일 관련 성차별주의 인식(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생 (N=550)	고등학생 (N=450)	T
1)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책(회장, 사장, 대표이사 등)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적합하다	1.62	1.63	0.05
2)여자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 리더십이 부족해서다	1.55	1.57	0.27
3)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1.56	1.62	1.83
4)남성의 월급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1.98	2.00	0.1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일관련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성별+학교급별 일 관련 성차별주의 인식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모든 항목에서 존재했다. 또한 여자 고등학생의 성차별주의 인식은 가장 낮고, 남자 고등학생은 가장 높아, 고등학교 내 성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학교급보다는 성별이 성차별주의 인식을 가르는 요인이 되었다. 모든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았던 '4)남성의 월급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에서는 여자 고등학생과 남자 고등학생 간 0.69점의 인식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남자 고등학생(2.33점), 남자 중학생(2.27점), 여자 중학생(1.67점), 여자 고등학생(1.64점) 순으로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았다.

[표 3-122] 일 관련 성차별주의 인식(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151)	남자 중학생 (N=196)	여자 고등학생 (N=150)	남자 고등학생 (N=202)	F
1)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책(회장, 사장, 대표이사 등)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적합하다	1.42	1.80	1.37	1.87	34.01***
2)여자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 리더십이 부족해서다	1.37	1.72	1.35	1.79	35.50***
3)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1.35	1.75	1.35	1.86	43.15***
4)남성의 월급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1.67	2.27	1.64	2.33	49.36***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일관련 성차별주의 수준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3) 희망 전공 계열과 직업선택 기준

경기도 청소년의 희망 전공 계열을 살펴보면 예체능계열이 25.6%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계열(16.7%), 공학계열(15.5%), 의약계열(12.5%), 교육계열(9.0%), 자연계열(8.5%), 인문계열(8.1%) 순으로 나타났다. 진학 예정이 없는 경우는 4.1%에 해당했다. 성별로 희망 계열 차이를 보면 여학생은 예체능계열(30.1%), 사회계열(16.8%), 의약계열(16.5%), 교육계열(13.5%), 인문계열(9.5%) 순이었으며, 남학생은 공학계열(25.3%), 예체능계열(21.5%), 사회계열(16.5%), 자연계열(10.5%), 의약계열(8.8%)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사회계열과 의약계열을, 남학생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선호 비율이 높았다. 특히 공학계열 선호에서 여학생(5.1%)과 남학생(25.3%)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에서 예체능계열이 31.6%로 가장 높고, 공학계열(15.7), 사회계열(13.0%) 순이었던 데에 비해, 고등학생

은 사회계열이 21.2%로 가장 높으며, 예체능계열(18.3%), 공학계열(15.2%) 순으로 나타나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주요 선호 계열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성별+학교급에서 주요 선호 계열로 여자 중학생은 예체능계열(37.4%), 교육계열(16.3%), 의약계열(15.0%) 순으로, 남자 중학생은 예체능계열(26.2%), 공학계열(25.8%), 사회계열(13.5%)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사회계열(22.3%), 예체능계열(21.1%), 의약계열(18.3%) 순으로, 남자 고등학생은 공학계열(24.6%), 사회계열(20.2%), 예체능계열(15.7%) 순이었다. 학교급보다는 성별 선호도에 따라 희망 계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권역별 희망 계열 선호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농촌에서 사회계열(24.1%) 선호가 두드러졌으며, 도농복합북부에서는 진학예정 없음 비율이(11.3%) 다른 권역에 비해 높았다. 특히 도시북부의 진학없음 비율(1.2%)과 비교하면 10.1%p 차이를 보인다. 또한 도시남부와 도시북부에서 의약계열 선호(도시남부 14.6%, 도시북부 16.3%)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23] 향후 대학교에서 전공하고 싶은 계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체능 계열	사회 계열	공학 계열	의약 계열	교육 계열	자연 계열	인문 계열	진학 예정 없음
전체		1,000	25.6	16.7	15.5	12.5	9.0	8.5	8.1	4.1
성별	여자	484	30.1	16.8	5.1	16.5	13.5	6.3	9.5	2.1
	남자	516	21.5	16.5	25.3	8.8	4.7	10.5	6.8	6.0
학교급	중학교	550	31.6	13.0	15.7	11.5	10.7	5.7	6.9	4.9
	고등학교	450	18.3	21.2	15.2	13.8	6.8	12.0	9.6	3.1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37.4	12.3	4.9	15.0	16.3	4.0	6.8	3.2
	남자+중학교	284	26.2	13.5	25.8	8.2	5.6	7.2	6.9	6.5
	여자+고등학교	219	21.1	22.3	5.3	18.3	10.2	9.2	12.8	0.8
	남자+고등학교	231	15.7	20.2	24.6	9.5	3.6	14.6	6.6	5.4
권역	농촌	14	23.3	24.1	14.1	10.5	9.4	7.3	7.0	4.3
	도농복합남부	314	24.3	15.9	19.9	12.6	9.4	6.7	7.5	3.8
	도농복합북부	136	28.3	19.1	13.0	2.9	9.0	6.6	9.8	11.3
	도시남부	413	24.6	15.4	13.4	14.6	10.2	11.0	7.9	2.9
	도시북부	122	29.8	19.4	14.4	16.3	3.5	6.9	8.6	1.2

청소년의 주요 직업 선택 기준은 수입, 연봉이 62.1%로 1순위였으며, 개인적 관심과 흥미(57.4%), 적성과 소질(44.2%), 일과 삶의 조화(12.6%), 고용안정성(11.3%) 순이었다. 성별 특징을 살펴보면 여학생은 개인적 관심과 흥미(59.8%), 수입, 연봉(58.6%), 적성과 소질(44.8%) 순이었던 것에 비해 남학생은 수입, 연봉(65.3%), 개인적 관심과 흥미(55.2%), 적성과 소질(43.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직업 선택 기준은 동일하나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개인적 관심과 흥미를, 남학생은 수입, 연봉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학교급에서도 주요 순위는 동일했다. 중학생은 수입, 연봉(63.3%), 개인적 관심과 흥미(61.1%), 적성과 소질(44.0%) 순으로, 고등학생은 수입, 연봉(60.6%), 개인적 관심과 흥미(53.0%), 적성과 소질(44.4%) 순으로 나타나,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수입, 연봉 및 개인적 관심과 흥미의 중요성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일과 삶의 조화를 선택한 비율(17.7%)이 중학생(8.4%)에 비해 두드러졌다.

성별+학교급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여자 중학생의 1순위로 개인적 관심과 흥미(63.5%)로 나타나, 수입, 연봉이 1순위인 다른 집단들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남자 중학생에서는 수입, 연봉(67.9%)의 비율과 더불어, 높은 순위는 아니나 사회적 지위, 명예를 꼽은 비율이 10.2%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 높았다. 여자 고등학생은 주요 세 요인을 제외하고 일과 삶의 조화(15.3%)와 고용안정성(15.2%)을 적지 않은 비율로 응답했다. 남자 고등학생은 여자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일과 삶의 조화(19.9%)를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했다. 권역에서도 직업 선택 주요 순위는 동일했으나, 농촌과 도농복합남부에서 수입, 연봉의 비율(농촌 64.1%, 도농복합남부 64.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도시북부의 경우, 1순위가 개인적 관심과 흥미(64.1%)로 수입, 연봉인 다른 권역과는 차이를 보였으며, 일과 삶의 조화는 5.9%로 낮았다.

[표 3-124] 직업 선택 기준(1+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수입, 연봉	개인적 관심과 흥미	적성과 소질	일과 삶의 조화	고용 안정성	사회적 지위, 명예	가족, 선생님 추천	기타
전체		1,000	62.1	57.4	44.2	12.6	11.3	8.3	3.3	0.8
성별	여자	484	58.6	59.8	44.8	12.0	13.2	7.2	4.0	0.3
	남자	516	65.3	55.2	43.6	13.1	9.5	9.4	2.6	1.2
학교급	중학교	550	63.3	61.1	44.0	8.4	9.5	8.5	4.5	0.6
	고등학교	450	60.6	53.0	44.4	17.7	13.4	8.1	1.8	0.9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58.5	63.5	45.0	9.3	11.5	6.8	5.5	0.0
	남자+중학교	284	67.9	58.8	43.1	7.5	7.7	10.2	3.6	1.2
	여자+고등학교	219	58.9	55.4	44.7	15.3	15.2	7.7	2.3	0.7
	남자+고등학교	231	62.2	50.7	44.3	19.9	11.7	8.5	1.4	1.2
권역	농촌	14	64.1	61.0	46.6	12.2	9.5	4.5	0.8	1.3
	도농복합남부	314	64.4	58.7	39.1	13.8	11.2	8.3	4.0	0.6
	도농복합북부	136	63.4	52.3	52.1	13.3	6.4	6.8	3.8	2.0
	도시남부	413	61.0	56.1	44.0	13.3	12.7	8.9	3.2	0.7
	도시북부	122	58.2	64.1	49.1	5.9	12.3	8.8	1.7	0.0

4) 직장 조직문화 속 차별 인식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이 인식하는 직장 조직문화 속 차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이다. 특히 조직문화 내 존재하는 성차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개의 항목 중 평균 기준 성차별이 가장 높다고 인식한 문항은 '1)우리나라 기업은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2.36점), '5)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2.34점), '4)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2.30점) 순이었다.

[표 3-125] 직장 조직문화 내 (성)차별 인식(전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1)우리나라 기업은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1,000	5.5	38.8	41.8	13.9	2.36 (0.79)
2)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1,000	2.8	24.9	51.0	21.2	2.09 (0.75)
3)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	1,000	3.7	19.8	54.1	22.4	2.05 (0.75)
4)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1,000	6.2	35.3	41.1	17.4	2.30 (0.83)
5)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1,000	7.4	36.1	39.9	16.6	2.34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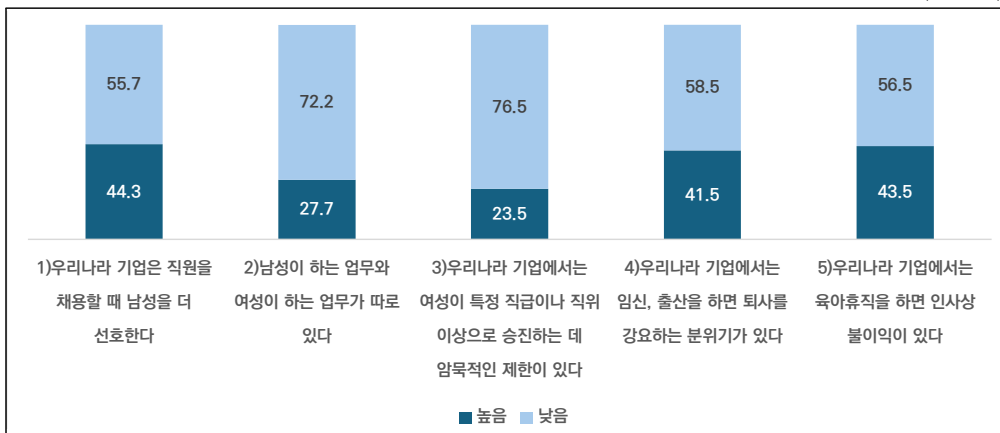
주: 1)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

2)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내 조직문화의 (성)차별 인식이 높도록 측정하기 위해 역코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응답 범주별로 보았을 때에는, 성차별 높음(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에서는 1)번이 44.3%로 가장 높았으며, 5)번(43.5%), 4)번(41.5%) 순이었다. '3)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의 점수(2.05 점) 및 비율(23.5%)이 가장 낮아,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유리천장에 대해서는 덜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림 3-16] 직장 조직문화 내 (성)차별 인식 수준

(단위: %)



주: 높음=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낮음=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로 직장 조직문화 속 (성)차별 인식을 살펴본 결과, '3)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3)번 문항 역시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내 성별에 따라 조직문화에 존재하는 차별 인식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점수 기준으로 '2)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를 제외한 4항목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차별 인식이 높았다. 성별 인식 차이가 가장 컸던 문항은 '4)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로, 여학생은 2.45점, 남학생은 2.16점으로 0.29점의 차이를 보였다. 임신, 출산의 당사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해당 성차별을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126] 직장 조직문화 내 (성)차별 인식(성별)

(단위: 명, 점)

구분	여학생 (N=484)	남학생 (N=516)	T
1)우리나라 기업은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2.41	2.30	5.00*
2)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2.04	2.15	5.04*
3)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	2.10	2.00	3.74+
4)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2.45	2.16	31.53***
5)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2.46	2.23	18.02***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내 조직문화의 (성)차별 인식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학교급별 결과를 살펴보면, '2)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를 제외하고는 학교급 간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 점수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점수가 커, 고등학생이 성차별 인식 수준이 더 높았다. 학교급 간 평균 점수의 차이가 가장 컸던 문항은 '5)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로, 중학생 2.23점, 고등학생 2.48점으로 0.25점의 차이를 보였다.

[표 3-127] 직장 조직문화 내 (성)차별 인식(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중학생 (N=550)	고등학생 (N=450)	T
1)우리나라 기업은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2.30	2.42	5.97*
2)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2.09	2.10	0.09
3)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	1.99	2.11	6.45*
4)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2.22	2.40	12.36***
5)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2.23	2.48	23.14***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내 조직문화의 (성)차별 인식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성별+학교급별로는 '2)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를 제외하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유의한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 대체로 여자 고등학생, 여자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 남자 중학생 순으로 성차별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급보다는 성별이 집단 간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인식 차이가 가장 컸던 여자 고등학생과 남자 중학생 간 차이를 중심으로 보면, '4)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여자 고등학생 2.62점, 남자 중학생 2.13점), '5)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여자 고등학생 2.65점, 남자 중학생 2.16점)에서 0.49점으로 가장 차이가 컸다.

[표 3-128] 직장 조직문화 내 (성)차별 인식(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점)

구분	여자 중학생 (N=151)	남자 중학생 (N=196)	여자 고등학생 (N=150)	남자 고등학생 (N=202)	F
1)우리나라 기업은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2.32	2.29	2.53	2.32	4.81**
2)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2.02	2.15	2.06	2.14	1.8
3)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	1.99	2.00	2.22	2.01	5.09**
4)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2.31	2.13	2.62	2.20	16.72***
5)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2.30	2.16	2.65	2.33	14.97***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내 조직문화의 (성)차별 인식이 높음.

2) *p<.10, *p<.05, **p<.01, ***p<.001

나. 연애와 결혼 및 자녀가치관

1) 현재 연애 여부 및 의향

이번 절에서는 경기도 청소년의 연애와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표 3-129]는 현재 연애 여부 응답을 보여준다. 조사 응답자 청소년 중 15.6%가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 15.8%, 남학생 15.3%로, 여학생이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 16.3%, 고등학생 14.7%로, 중학생의 연애 비율이 고등학생에 비해 1.6%p 높았다. 성별+학교급별 결과에서는 여자 중학생(17.8%), 남자 고등학생(16.0%), 남자 중학생(14.8%), 여자 고등학생(13.4%)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학교급 간 차이가 4.4%p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에서는 도시북부 청소년 중 연애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9%로 가장 높았고, 도농복합남부(17.0%), 농촌(16.6%), 도시남부(13.9%), 도농복합북부(13.4%) 순이었다. 도시북부와 도농복합북부 간 차이는 6.5%p였다.

[표 3-129] 현재 연애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1,000	15.6	84.4
성별	여자	484	15.8	84.2
	남자	516	15.3	84.7
학교급	중학교	550	16.3	83.7
	고등학교	450	14.7	85.3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17.8	82.2
	남자+중학교	284	14.8	85.2
	여자+고등학교	219	13.4	86.6
	남자+고등학교	231	16.0	84.0
권역	농촌	14	16.6	83.4
	도농복합남부	314	17.0	83.0
	도농복합북부	136	13.4	86.6
	도시남부	413	13.9	86.1
	도시북부	122	19.9	80.1

현재 비연애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향후 연애 의향을 질문한 결과, 51.4%가 긍정적(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으로 응답했다. 비연애 중인 청소년 10명 중 5명은 향후 연애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연애 의향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교급과 성별+학교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은 향후 연애 의향에 47.4%, 고등학생은 56.2%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고등학생의 의향이 높았다. 한편 부정 응답에서 중학생 24.7%, 고등학생 24.2%로 거의 동일했다. 성별+학교급별 특징을 보면, 여자 고등학생의 긍정 응답률(58.5%)이 가장 높았으며, 남자 고등학생(54%), 여자 중학생(53.2%), 남자 중학생(42.3%)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 고등학생과 남자 중학생의 차이는 16.2%p로, 집단 간 차이가 상당히 존재했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7%로, 향후 연애를 할지 아직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성별로는 여학생 55.6%, 남학생 47.5%가 긍정(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로 응답하여, 여학생이 8.1%p 더 높았다. 권역에서는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의 연애 의향(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58.9%로 높았고, 도시북부가 52%로 가장 낮았다.

[표 3-130] 향후 연애 의향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χ^2
전체		844	20.7	30.7	18.5	6.0	24.1	-
성별	여자	408	23.4	32.2	18.7	5.1	20.5	8.49
	남자	437	18.2	29.3	18.3	6.7	27.4	
학교급	중학교	461	21.7	25.7	18.8	5.9	27.8	14.8*
	고등학교	383	19.5	36.7	18.2	6.0	19.6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18	25.7	27.5	19.8	5.7	21.4	27.86*
	남자+중학교	242	18.1	24.2	17.8	6.2	33.7	
	여자+고등학교	189	20.8	37.7	17.5	4.5	19.5	
	남자+고등학교	194	18.3	35.7	18.9	7.4	19.6	
권역	농촌	12	29.6	29.3	12.2	3.9	25.0	20.11
	도농복합남부	260	16.3	30.6	20.2	7.7	25.1	
	도농복합북부	118	23.2	33.6	22.2	3.5	17.5	
	도시남부	356	21.7	30.9	15.1	7.0	25.3	
	도시북부	98	25.0	27.0	22.5	0.8	24.7	

주: 1) 현재 비연애 중으로 응답한 청소년

2) *p<.10, *p<.05, **p<.01, ***p<.001

이번에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가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연애나 결혼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했다. 걱정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은 22.1%로 약 10명 중 2명의 청소년이 해당했다. 집단별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급, 성별+학교급별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에서도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했다. 성별에서는 걱정하는 비율이 여학생 24.5%, 남학생 20%로, 여학생이 4.5% 높았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잘 모르겠다)의 응답이 여학생 15.7%, 남학생 21.9%로 약 6.2%p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인이 되었을 때 관계 맺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걱정이 된다 비율(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에서 중학생 22.8%, 고등학생 21.4%로 중학생이 1.4%p 더 높아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 응답에서도 중학생 21.9%, 고등학생 15.2%로 중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학교급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는 걱정하는 비율에서 여자 고등학생(24.5%), 여자 중학생

(24.4%), 남자 중학생(21.2%), 남자 고등학생(18.5%)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보다 성별이 집단 특징을 가르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남자 중학생의 경우 잘 모르겠다의 비중이 25.5%로 가장 높아 아직 연애나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는 경우도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권역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도시남부 청소년들이 23.2%로 가장 높고, 도시북부(23.1%), 도농복합남부(22.4%), 농촌(22.3%), 도농복합북부(17.3%) 순으로 도농복합북부를 제외한 권역의 비율은 대체로 동일했다. 걱정하는 비율이 가장 컸던 도시남부와 낮았던 도농복합북부간 차이가 5.9%p 낮다. 한편, 잘 모르겠다 비율에서 도시북부는 24.2%, 농촌은 13.5%로 10.7%p 차이를 보였으며,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미래 관계 맺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이 있었다.

[표 3-131] 성인이 되었을 때 연애나 결혼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χ^2
전체		1,000	6.0	16.1	35.1	23.9	18.9	-
성별	여자	484	6.0	18.5	34.1	25.6	15.7	9.75+
	남자	516	6.1	13.9	36.0	22.2	21.9	
학교급	중학교	550	5.7	17.1	34.7	20.6	21.9	12.47*
	고등학교	450	6.5	14.9	35.6	27.8	15.2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6.6	17.8	35.6	21.9	18.1	27.28*
	남자+중학교	284	4.8	16.4	33.8	19.5	25.5	
	여자+고등학교	219	5.3	19.2	32.4	30.2	12.8	
	남자+고등학교	231	7.6	10.9	38.6	25.5	17.4	
권역	농촌	14	6.9	15.4	36.0	28.3	13.5	13.29
	도농복합남부	314	6.4	16.0	32.6	27.5	17.5	
	도농복합북부	136	5.8	11.5	42.1	18.8	21.8	
	도시남부	413	5.4	17.8	35.5	23.6	17.6	
	도시북부	122	7.4	15.7	32.0	20.7	24.2	

주: *p<.10, *p<.05, **p<.01, ***p<.001

2) 향후 결혼의향 및 비혼 이유

경기도 청소년들의 장래 결혼 의향을 질문한 결과, 전체 기준 62.6%(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의 청소년이 향후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2%는 결혼 의향이 없었으며, 잘 모르겠다의 비율은 21.2%였다. 집단 간 결혼 의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성별에서만 9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결과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결혼 의향이 조금 더 높았다(긍정 비율 여학생 64.2%, 남학생 61%). 앞서 살펴본 연애나 결혼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 비율에서는 여학생이 높았던 것에 비해, 실제 결혼 의향 비율에서는 남학생이 낮아, 비연애 비혼을 생각하는 경우도 남학생에서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 에서 여학생 17.5%인데 비해 남학생은 24.7%로 아직 결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학교급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결혼 의향이 근소한 차이로 높았으며, 성별+학교급에서는 여자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남자 중학생 순으로 결혼 의향이 높았다. 권역별로는 농촌 청소년들의 결혼 의향이 71.7%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남부, 도시북부, 도농복합남부와 도농복합북부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32] 장래 결혼 의향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χ^2
전체		1,000	26.7	35.9	9.5	6.7	21.2	-
성별	여자	484	27.9	36.3	10.7	7.5	17.5	9.14+
	남자	516	25.4	35.6	8.4	5.9	24.7	
학교급	중학교	550	25.6	36.6	8.4	6.9	22.5	3.58
	고등학교	450	28.0	35.1	11.0	6.4	19.6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27.9	37.9	8.3	7.9	18.0	15.78
	남자+중학교	284	23.4	35.5	8.4	5.9	26.8	
	여자+고등학교	219	28.0	34.4	13.7	7.0	17.0	
	남자+고등학교	231	27.9	35.8	8.4	5.8	22.1	
권역	농촌	14	35.9	35.2	3.8	2.3	22.8	14.31
	도농복합남부	314	24.4	33.6	12.2	6.9	23.0	
	도농복합북부	136	21.3	36.7	8.7	9.5	23.8	
	도시남부	413	30.0	36.3	8.7	6.2	18.8	
	도시북부	122	26.1	40.0	7.1	4.8	22.0	

주: *p<.10, *p<.05, **p<.01, ***p<.001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혼 생각을 질문한 결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부담'이 44.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혼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서'(34.1%), '나에게 적절한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19.0%), '이성에 관심이 없거나 싫어서'(18.8%), '나의 일이나 경력을 위해서'(18.3%) 순이었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자녀계획과도 강하게 연결된다는 사회적 규범이 청소년의 인식에서도 드러났다 할 수 있다.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1, 2순위는 동일했으나 여학생이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부담'(46.5%)을 남학생(41.0%)에 비해 좀 더 높게 응답했으며, 남학생은 '혼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서'(38.1%)를 여학생(30.8%) 보다 높게 응답했다. 3순위에서 여학생은 '나에게 맞는 적절한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를, 남학생은 '가족부양 등에 대한 부담'을 응답하여 인식 차이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부담'과 '혼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서'를 응답했으며, 고등학생은 '이성에 관심이 없거나

싫어서’, ‘나에게 적절한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성별+학교급별로 보면, 여자 중학생은 전체 기준 1순위였던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부담’(51.1%)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게 응답했으며, 남자 중학생은 2순위였던 ‘혼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서’(40.6%)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나에게 맞는 적절한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32.8%)를, 남자 고등학생은 ‘이성에 관심이 없거나 싫어서’(30.0%)의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권역에서는 전체 1순위인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부담’에서 도시북부가 59.8%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인 ‘혼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서’에서는 도시남부가 42.6%로 높았다.

[표 3-133] (비혼 의향인 응답자 대상) 비혼 생각 이유(1+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부담	혼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	나에게 맞는 적절한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성에 관심이 없거나 싫어서	나의 일, 경력을 위해서	가족 부양 등에 대한 부담	자유로운 연애를 위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 같아서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서	기타	
전체	162	44.0	34.1	19.0	18.8	18.3	16.2	15.2	14.6	14.5	5.4	
성별	여자	88	46.5	30.8	25.8	19.4	17.3	11.2	15.3	14.1	11.9	7.6
	남자	74	41.0	38.1	10.9	18.0	19.5	22.1	14.9	15.3	17.6	2.8
학교급	중학교	84	49.4	36.2	15.2	12.6	17.4	19.5	15.8	13.0	15.4	5.5
	고등학교	78	38.1	31.9	23.1	25.5	19.3	12.6	14.4	16.4	13.5	5.2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43	51.1	32.0	18.5	16.6	17.6	14.1	17.9	10.9	12.7	8.5
	남자+중학교	41	47.7	40.6	11.7	8.4	17.1	25.2	13.6	15.1	18.2	2.4
	여자+고등학교	45	42.1	29.7	32.8	22.2	17.0	8.5	12.8	17.1	11.1	6.7
	남자+고등학교	33	32.5	34.8	9.8	30.0	22.4	18.3	16.7	15.4	16.8	3.2
권역	농촌	1	31.1	25.5	55.7	18.8	12.3	0.0	44.3	12.3	0.0	0.0
	도농복합남부	60	41.0	27.8	20.3	28.3	22.4	11.5	13.5	13.1	12.1	9.8
	도농복합북부	25	45.0	34.3	35.5	10.9	13.3	18.4	17.4	14.8	10.4	0.0
	도시남부	62	42.9	42.6	13.9	15.1	15.6	21.4	14.6	15.8	16.9	1.2
	도시북부	15	59.8	24.6	5.3	8.8	21.5	10.2	18.7	15.5	21.5	14.1

주: 장애 결혼 의향에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음을 선택한 응답자 대상

3) 향후 자녀 출산 생각 및 비출산 이유

[표 3-134]는 청소년의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을 질문한 결과이다. 출생 의향에 긍정으로 응답한 비율(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은 49.1%로, 결혼 의향(62.6%)보다 낮은 수치였다. 결혼 의향(21.2%)에 비해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비율(27.2%)도 높았다. 집단별 통계적 유의성은 성별에서 나타났으며, 성별+학교급에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했다.

성별 결과를 보면, 여학생이 결혼 의향(여학생 64.2%, 남학생 61%)이 높았던 것에 비해, 출산 의향(여학생 46.7%, 남학생 51.5%)은 남학생이 4.8%p 높았다. 성별과 학교급에서는 남자 고등학생(52.3%), 남자 중학생(50.8%), 여자 중학생(47.9%), 여자 고등학생(45.2%) 순으로 출산 의향이 높아,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남학생은 출산 의향에 잘 모르겠다의 비중 역시 여학생에 비해 높았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의 출산 의향이 약간 높고, 고등학생의 비출산 의향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권역에서는 농촌이 출산 의향이 가장 높고(66.7%), 도농복합북부에서 가장 낮았다(43.3%).

[표 3-134] 장래 자녀 출산 의향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χ^2
전체		1,000	16.6	32.5	12.6	11.1	27.2	-
성별	여자	484	15.5	31.2	15.4	13.8	24.1	16.94**
	남자	516	17.6	33.9	9.9	8.5	30.1	
학교급	중학교	550	16.4	33.0	11.3	10.4	28.9	3.69
	고등학교	450	16.8	32.0	14.2	11.9	25.1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266	16.7	31.2	13.4	13.3	25.5	22.56+
	남자+중학교	284	16.1	34.7	9.2	7.7	32.2	
	여자+고등학교	219	14.0	31.2	17.9	14.5	22.5	
	남자+고등학교	231	19.5	32.8	10.7	9.5	27.5	
권역	농촌	14	30.0	36.7	8.8	2.9	21.6	13.64
	도농복합남부	314	16.3	30.1	12.4	11.8	29.4	
	도농복합북부	136	15.2	28.1	11.0	15.6	30.0	
	도시남부	413	17.7	35.7	13.1	9.6	23.9	
	도시북부	122	13.6	32.6	13.5	10.2	30.0	

주: *p<.10, *p<.05, **p<.01, ***p<.001

비출산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출산 생각 이유를 질문한 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가 50.6%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 때문에'(40.3%), '출산의 고통의 두려워서'(26.0%),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25.2%), '임신, 출산으로 인한 몸의 변화가 걱정되어서'(19.2%) 순으로 응답했다.

성별로 주된 이유의 차이가 뚜렷했는데, 여학생은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39.3%)이 1순위였으며, 다음으로는 '출산의 고통'(38.4%),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35.5%) 순이었다. 그에 비해 남학생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1순위로 73.0%를 차지했으며,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41.8%),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26.7%) 순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비중'(45.9%)이 고등학생(55.3%)에 비해 적고,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과 '출산의 고통이 두려워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았다.

성별+학교급에서는 1순위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로 응답한 비율이 남자 고등학생(76.2%), 남자 중학생(70.0%), 여자 고등학생(41.5%), 여자 중학생(29.6%)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들의 인식이 두드러졌다. 그에 비해 3순위였던 ‘출산의 고통이나 임신, 출산으로 인한 몸의 변화가 걱정되어서’는 여학생 응답이 두드러져, 성차가 뚜렷하게 존재했다.

권역별로는 주된 순위는 대체로 동일했으나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에서 도시남부의 응답이 모두 높았다. 동시에, ‘일이나 경력에 영향을 받을까봐’ 비율(20.5%) 역시 높게 응답하여 다른 권역들과의 차이를 보인다.

[표 3-135] (비출산 의향인 응답자 대상) 비출산 생각 이유(1+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나 또는 파트너의) 출산의 고통이 두려워서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나 또는 파트너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몸의 변화가 걱정돼서	돌만 사는 게 좋아서	(나 또는 파트너의) 일이나 경력에 영향을 받을까봐	기타
전체		237	50.6	40.3	26.0	25.2	19.2	16.3	16.0	6.3
성별	여자	142	35.5	39.3	38.4	24.2	26.6	15.7	15.6	4.6
	남자	95	73.0	41.8	7.6	26.7	8.1	17.2	16.8	8.8
학교급	중학교	119	45.9	41.6	28.6	22.6	24.1	18.0	13.6	5.5
	고등학교	118	55.3	39.0	23.4	27.9	14.2	14.5	18.5	7.1
성별 + 학교급	여자+중학교	71	29.6	42.2	42.8	16.3	35.1	16.4	12.6	4.9
	남자+중학교	48	70.0	40.8	7.7	31.8	7.9	20.3	15.1	6.5
	여자+고등학교	71	41.5	36.4	34.0	32.1	18.0	14.9	18.5	4.4
	남자+고등학교	47	76.2	42.8	7.5	21.5	8.4	13.9	18.5	11.2
권역	농촌	2	39.2	22.0	30.5	24.1	19.6	37.1	21.1	0.0
	도농복합남부	76	50.9	36.5	27.5	22.8	14.5	18.7	18.6	10.5
	도농복합북부	36	42.7	39.8	31.6	31.2	23.4	21.8	6.0	3.4
	도시남부	94	56.4	44.1	21.8	21.3	21.6	10.6	20.5	3.6
	도시북부	29	41.7	39.6	28.7	36.7	18.3	20.0	7.3	7.8

주: 출산 의향 질문에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한 대상자

8.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인식 현황: 성평등 태도 유형화

앞서 살펴본 경기도 10대 청소년의 여러 영역으로 구성된 성평등 인식 문항들을 활용하여, 인식이 유사한 집단이 분류되는지 밝히기 위해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¹⁷⁾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9개 영역은 [표 3-136]과 같다. 각 문항들은 해당 문항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성평등 인식의 보수(1)와 평등(0), 성차별주의의 차별인식(1)과 차별 비인식(0), 폭력 인식 높음(1)과 폭력인식 낮음(0)을 가르는 점수를 기준으로 이분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분변수로 구성된 9개의 분석을 잠재집단분석에 활용하여 성평등 태도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 내 인식의 차이가 성별에 따라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별로 성평등 태도 유형을 각각 분석하였다.

[표 3-136] 잠재집단분석에 활용한 영역 및 문항

영역	문항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6문항)	맞벌이도 가능하지만 생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일의 일차적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 맞벌이 부부여도 육아와 가사일(청소, 요리 등)의 책임은 여자가 더 크다 여자는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취직시켜야 한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역코딩)
진로 영역 성역할 태도 (5문항)	남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다 공구 또는 기계를 다루는 일은 남자에게 더 잘 어울린다 경찰, 군인,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이나 국방과 관련된 직업은 남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아동이나 환자, 노인을 돌보는 직업은 여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남학생이 원하는 직업과 여학생이 원하는 직업이 대체로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 (5문항)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연애를 하려면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 데이트 비용은 남성이 더 많이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데이트에는 남성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거나 여성을 데리러 가는 것이 당연하다 스킨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크다

17) 잠재집단분석은 이질적인 특성으로 구성된 모집단 내부에서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하위집단을 식별하기 위해 활용되는 통계적 기법이다. 이러한 하위집단은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지만, 측정된 여러 지표에 대한 개인의 응답 패턴을 바탕으로 잠재된 집단 구조를 추론할 수 있다(Oberski, 2016; Nylund-Gibson & Choi, 2018). 이 방법은 연구자가 사전에 집단의 수를 임의로 설정하기보다, 모형이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수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높은 통계적 엄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모형의 적합성은 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엔트로피(Entropy) 등 다양한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된다.

영역	문항
온정적 성차별주의 (4문항)	<p>여자는 남자보다 감성적이다</p> <p>남성은 여성보다 강하므로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p> <p>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p> <p>부모님이(보호자가) 아들보다 딸에게 안전한 행동과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p>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8문항)	<p>여자들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운다</p> <p>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p> <p>여성의 권리가 늘어날수록 남성의 권리는 침해된다</p> <p>미투운동은 전체 남성들을 성범죄의 가해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p> <p>우리 사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의 입장에서만 판단한다</p> <p>별 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을 여자들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p> <p>우리 사회는 이미 평등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p> <p>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p>
직업관련 성차별주의 (5문항)	<p>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책(회장, 사장, 대표이사 등)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적합하다</p> <p>여자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리더십이 부족해서다</p> <p>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p> <p>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역코딩)</p> <p>남성의 월급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p>
학교영역 성차별주의 (6문항)	<p>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남학생에게만 요청한다</p> <p>학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 권리와 편의를 더 고려한다</p> <p>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은 내신이나 학교 성적에 피해를 본다</p> <p>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수행평가 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다른 과업 /과제를 부여하거나,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p> <p>모둠활동이나 팀프로젝트 등에서 남학생들의 불성실한 학업태도 때문에 여학생들이 피해를 본다</p> <p>우리 학교 수업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발표를 많이 하는 분위기이다</p>
남성성 규범 (6문항)	<p>남자는 겁이 나도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p> <p>남자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숨겨야 한다</p> <p>남자는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p> <p>남자는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p> <p>남자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p> <p>남자는 필요할 때 물리적인 싸움에도 기꺼이 개입해야 한다</p>
폭력에 대한 인식 (9문항)	<p>스킨십을 하려 할 때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스킨십을 해도 된다는 뜻이다</p> <p>연인 간의 폭력은 때린 사람만을 탓할 수 없다</p> <p>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거절해도 계속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p> <p>남자가 괴롭히는 것은 좋아한다는 표시다</p> <p>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야한 농담이나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다</p> <p>'몸매 좋다'와 같은 말을 불쾌하게 들을 사람은 없다</p> <p>동성 간에는 성희롱이 일어날 수 없다</p> <p>악의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은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p> <p>성폭력은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하는 등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p>

주: 1) 성역할 태도와 성차별주의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폭력에 대한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인식이 높아 반대 맥락으로 구성됨.

2) 폭력에 대한 인식 영역을 제외하고 영역별 문항의 맥락이 다르게 구성된 문항은 문항 뒤에 (역코딩)으로 표시함.

가. 성별 성평등 태도 유형화

경기도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의 하위 집단을 분류하고 유형화하기 위해,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진로 영역 성역할 태도,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학교영역 성차별주의, 남성성 규범, 폭력에 대한 인식 9개 영역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집단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집단 수를 결정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인 AIC와 BIC는 값이 낮을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높다고 본다(Nylund-Gibson & Choi, 2018).

분석 결과,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두 지표의 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4집단 모형부터는 오히려 AIC와 BIC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집단 분류의 질을 보여주는 엔트로피 값¹⁸⁾ 역시 집단 4개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여학생의 성역할 태도는 3개의 잠재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학생에서 나타난 3개 잠재집단 중 1집단은 33.3%, 2집단 52.8%, 3집단 13.9%로 구성되어 절반 이상의 여학생이 2집단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7] 여자 청소년 잠재집단 분류 기준과 비율

구분		잠재집단 수			
		1개	2개	3개	4개
AIC		4932.170	4467.835	4414.350	4418.298
BIC		4970.910	4545.315	4521.961	4551.736
Entropy		-	0.716	0.713	0.629
비율	1	1.000	.577	.333	.115
	2		.423	.528	.332
	3			.139	.44
	4				.113

남자 청소년의 경우, 집단 수를 추가할수록 AIC와 BIC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개에서 3개가 되었을 때 확연히 감소하였다. 엔트로피 역시 2개일 때에 비해 3개인 경우 증가하여, 2개보다는 3개 집단 수가 유효하다 할 수 있다. 다만, 3개에서 집단 수를 추가했을

18) 엔트로피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군집 간 구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8 이상이면 분류의 명확성이 매우 높고, 0.7 이상이면 비교적 안정적인 분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때 모형 추정값이 산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집단 수를 추가함으로써 특정 집단에 속한 수가 지나치게 작아지거나, 많아져 집단이 제대로 추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에도 3개의 잠재집단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분류된 3집단 중 1집단은 17.4%, 2집단 56.9%, 3집단 25.7%로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2집단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표 3-138] 남자 청소년 잠재집단 분류 기준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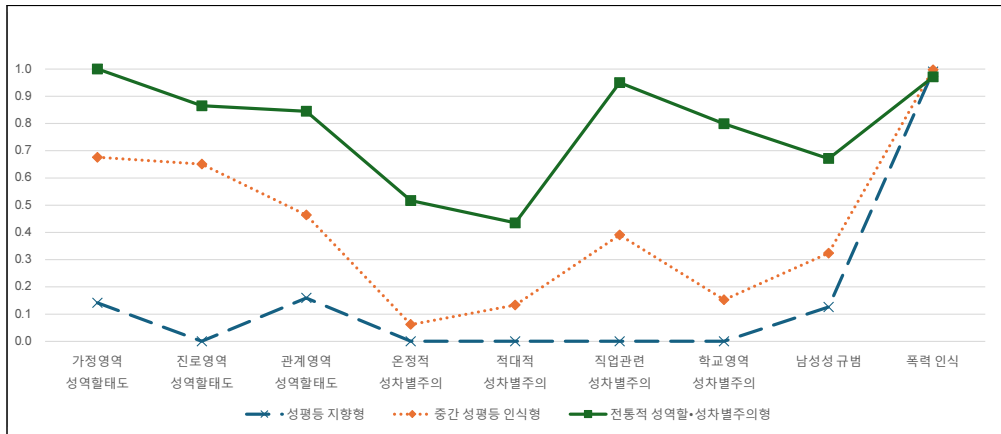
구분		잠재집단 수		
		1개	2개	3개
AIC		4896.988	4397.782	4338.952
BIC		4934.188	4476.316	4458.821
Entropy		-	0.746	0.749
비율	1	1.000	.577	.174
	2		.423	.569
	3			.257
	4			

다음으로, 성평등 태도에 대한 3개의 잠재집단을 대상으로 9개 영역별 확률 분포를 고려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림 3-17]과 [그림 3-18]은 청소년의 성별 잠재집단 별 각 영역에 '보수(혹은 차별, 폭력인식 높음)'를 선택하는 확률 분포를 제시한 것으로, 성평등 태도에 대한 3개의 하위 집단의 특성을 보여준다. 구분된 3집단에서 성역할 태도와 성차별주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폭력 인식은 높음으로 유사하여, 성역할 태도와 성차별주의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성별에 관계 없이 1집단은 다른 두 집단 대비 성역할 태도 평등적·성차별주의 인식 낮음·남성성 규범 낮음·폭력 인식 높음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성평등 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1집단과 정반대로 3집단은 다른 두 집단 대비 성역할 태도 보수적·성차별주의 인식 높음·남성성 규범 높음·폭력 인식 높음의 특성을 보인다. 폭력 인식은 높지만 성역할 태도에서 보수적이며,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다는 점에서,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여학생과 남학생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2집단은 폭력 인식을 제외하고는 '성평등 지향형'과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 가운데에 위치하여, '중간 성평등 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3-17]을 보면 여학생 중 33.3%를 차지하는 ‘성평등 지향형’은 9개 영역이 대체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진로 영역 성역할 태도와 4개 영역의 성차별주의에서는 인식이 매우 낮았다. 그에 비해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와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 및 남성성 규범은 약간 높았다. 여학생의 52.8%였던 ‘중간 성평등 인식형’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성차별주의, 학교 영역 성차별주의 및 남성성 규범에서는 ‘성평등 지향형’에 가까웠으나, 가정 영역, 진로 영역 성역할 태도에서는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 가까웠다. 또한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와 직업관련 성차별주의는 ‘성평등 지향형’과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 중간에 위치하여 ‘중간 성평등 인식형’ 안에서도 영역별로 인식의 방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13.9%)은 다른 두 영역에 비해 모든 영역의 성역할 태도와 성차별주의 및 남성성 규범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와 직업관련 성차별주의가 특히 높게 위치했다. 그에 비해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성차별주의 및 남성성 규범은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높았다. 여학생 내에서는 ‘성평등 지향형’이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의 비중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성평등 지향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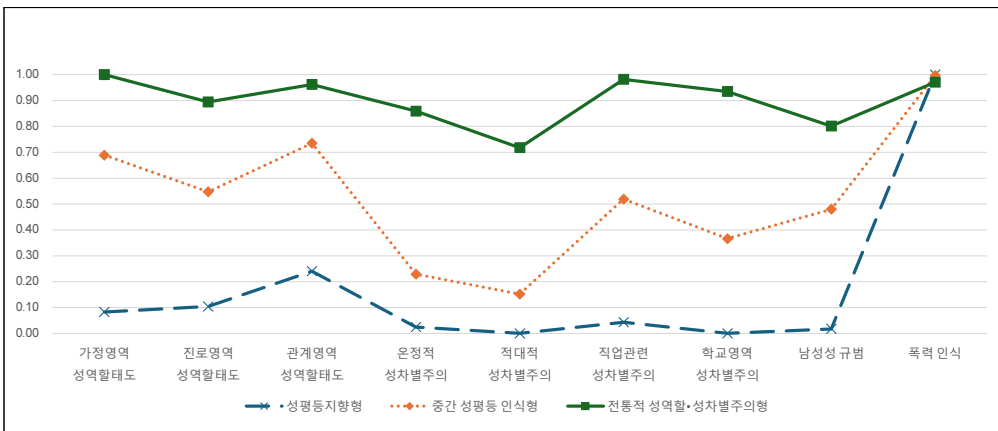
[그림 3-17] 여학생의 성평등 태도 유형화



남학생에서도 ‘중간 성평등 인식형’의 비율이 5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 25.7%, ‘성평등 지향형’은 17.4%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에 비해 ‘성평등 지향형’은 낮고,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의 비율은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3-18]에 따르면 남학생도 여학생과 동일하게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나,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서는 차이가 존재했다. 먼저, ‘성평등 지향형’에서 성역할 태도에 비해 성차별주의와

남성성 규범 인식이 낮았다. 성역할 중에서는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진로 영역,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에 비해, 4개 영역의 성차별주의 인식 및 남성성 규범은 모두 낮은 곳에 위치했다. ‘성평등 지향형’과 반대로,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은 폭력 인식을 제외한 8개 모든 영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와 직업관련 성차별주의에서 1.00에 가까운 비율로 보여, 보수적 성역할태도와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 및 남성성 규범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차별주의에서는 사회적 규범의 측면이 아니라 남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학교 영역의 성차별주의나, 향후 체감하게 될 직업관련 성차별주의 인식이 특히 높게 나타나, 성차별주의 영역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중간 성평등 인식형’의 경우 폭력 인식을 제외한 8개 영역의 비율이 ‘성평등 지향형’과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 중간에 위치했다. 이중 성역할 태도와 남성성 규범은 상대적으로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 가까웠다면,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성평등 지향형’에 가까웠다. 한편, 직업관련 성차별주의와 학교영역 성차별주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남학생 내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이 ‘성평등 지향형’ 비중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전통적 성역할 태도 및 성차별주의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3-18] 남학생의 성평등 태도 유형화



종합하면, 여학생은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이며 성차별주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아 성평등 성향이 강한 반면, 남학생은 성차별주의 역시 여학생에 비해 높지만 이보다는 성역할 태도와 남성성 규범에서 보수적 경향이 뚜렷하였다. 또한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 비중이 여학

생보다 남학생에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성평등 태도의 차이가 구조적으로 드러났다.

나. 성평등 태도 유형별 특징

이번 절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에서 각기 나타난 3개의 잠재집단 유형을 중심으로 각 유형들과 사회인구학적 배경 및 학업성적, 경제수준, 미래계층인식, 또래관계의 질, 또래압력,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 및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제곱과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여학생의 성평등 태도 유형별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또래관계의 질, 또래압력 및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학업성적은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성평등 태도 유형별 또래관계의 질을 살펴보면 먼저, 성평등 지향형에서는 또래관계의 질 높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44.69%), 중간(32.6%), 낮음(22.71%) 순이었다. 그에 비해 중간 성평등 인식형에서는 또래관계의 중간이 가장 큰 비중을(41.26%), 높음(36.15%), 낮음(22.59%) 순이었다.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는 또래관계의 질 중간이 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낮음(37.68%), 높음(20.12%) 순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지향형에서는 또래관계의 질이 높음 비율이 높았던 반면,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는 가장 작았으며, 낮음 비율이 세 유형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여학생에서는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성평등 태도 지향형에 속하며, 낮을수록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 속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성평등 태도가 단순히 개인의 가치관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또래관계를 통해 강화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또래압력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지향형에서는 또래압력 낮음(45.88%), 중간(32.99%), 높음(21.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는 정반대로 또래압력 높음(53.48%), 중간(38.60%), 낮음(7.92%) 순이었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와 성차별주의 경향은 또래집단 속에서 형성된 규범에 대한 압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중간 성평등 인식형에서는 또래압력 역시 중간 비율(38.85%)이 가장 높고, 높음(33.20%), 낮음(27.95%) 순이었다. 중간 성평등 인식형의 경우 또래관계 압력 역시 평균적 수준에 머무는 경향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중간 성평등 인식형과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 연애나 결혼을 하지 못할까봐 두렵다'라는 항목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29.42%, 29.25%로 성평등 지향형(16.02%)에 비해 높았다. 성평등 지향형에 속한 여학생은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이 덜하며, 다른 두 유형과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

다. 학업성적에서는 상위권에 속한 비율이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 29.13%으로 가장 낮았으며, 중간 성평등 인식형(40.08%), 성평등 지향형(46.65%) 순이었다.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 속한 여학생이 학업성적이 하위권인 확률은 50.06%로, 성평등 지향형(30.39%)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각 요인별 성평등 태도 유형에 속할 확률에서 나타난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세부학교급에서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 속한 확률이 중학교 2학년은 33.96%로 가장 높은 반면, 고등학교 2학년은 19.97%로 가장 낮았다. 성평등 지향형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 높은 반면, 고등학교 2학년은 21.08%로 낮았다. 다음으로는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 성평등 지향형에서는 상위층이 11.31%인데 비해, 중간 성평등 인식형에서는 12.79%,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는 14.81%로, 상위층에서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높았다. 미래계층인식에서는 성평등 지향형에서만 상승 비율(41.83%)이 인식 비율 중 가장 높았으나, 부동(40.42%)과 거의 유사했다. 다른 두 유형에서는 상승보다는 부동에 속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현재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과 10년 후 성평등 수준에서 각 유형의 여학생들은 대체로 여성에게 불평등함을 응답했으며,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만 10년 후 성평등 수준이 평등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했다.

[표 3-139] 여학생의 성평등 태도 유형별 특성

(단위: %, 점)

구분		집단1 (성평등 지향형)	집단2 (중간 성평등 인식형)	집단3 (전통적 성역할· 성차별주의형)	χ^2/F
전체		33.3	52.8	13.9	-
학교급	중학교	54.03	55.10	56.29	0.1226
	고등학교	45.97	44.90	43.71	
세부 학교급	중학교 2학년	25.47	29.00	33.96	4.3588
	중학교 3학년	28.56	26.10	22.34	
	고등학교 1학년	24.89	20.24	23.73	
	고등학교 2학년	21.08	24.66	19.97	
권역	농촌	1.22	1.74	1.06	0.3277
	도농복합남부	34.13	31.00	27.33	
	도농복합북부	12.25	14.69	15.13	
	도시남부	40.40	39.74	45.81	
	도시북부	12.00	12.83	10.67	

구분		집단1 (성평등 지향형)	집단2 (중간 성평등 인식형)	집단3 (전통적 성역할· 성차별주의형)	χ^2/F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 이하	13.31	10.94	13.41	10.4525
	전문대졸	2.45	3.04	5.81	
	대졸	42.03	50.39	45.62	
	대학원 졸업 이상	8.04	5.97	11.27	
	모름	33.06	27.64	23.89	
	해당없음	1.12	2.02	0.00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이하	14.69	19.49	28.79	11.0022
	전문대졸	3.89	6.24	2.31	
	대졸	39.53	39.75	32.17	
	대학원 졸업 이상	8.98	7.03	7.77	
	모름	32.82	27.49	28.97	
	해당없음	0.09	0.00	0.00	
형제자매 유무	있음	12.91	14.14	13.73	0.1493
	없음	87.09	85.86	86.27	
학업성적	상위권	46.65	40.08	29.13	9.9779+
	중위권	22.95	22.69	20.81	
	하위권	30.39	37.23	50.06	
경제수준	상위층	11.31	12.79	14.81	2.9257
	중산층	49.03	41.96	46.08	
	하위층	39.66	45.26	39.11	
미래계층 인식	상승	41.83	36.85	39.76	1.5412
	부동	40.42	45.81	42.85	
	하강	17.75	17.33	17.39	
또래관계의 질	낮음	22.71	22.59	37.68	17.2021*
	중간	32.6	41.26	42.2	
	높음	44.69	36.15	20.12	
또래압력	낮음	45.88	27.95	7.92	46.1712***
	중간	32.99	38.85	38.60	
	높음	21.12	33.20	53.48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	16.02	29.42	29.25	12.7386*
	두렵지 않음	65.88	55.61	58.62	
	잘 모르겠음	18.10	14.97	12.13	
현재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0.71	-0.62	-0.33	2.26
10년 후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0.11	-0.10	0.04	0.41

주: *p<.10, *p<.05, **p<.01, ***p<.001

남학생의 성평등 태도 유형별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학업성적과 미래계층인식, 포래압력 및 현재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과 10년 후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이었다.

학업성적을 살펴보면 성평등 지향형에서는 상위권(39.18%), 중위권(35.68%), 하위권(25.15%) 순으로, 중간 성평등 인식형에서는 하위권(48.89%), 상위권(31.05%), 중위권(20.07%) 순이었다.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는 하위권(42.22%), 상위권(40.44%), 중위권(17.34%)으로 나타나, 성평등 지향형에서만 상위권이 높고, 나머지 두 유형에서는 하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미래계층인식에서는 세 유형에서 모두 상승, 부동, 하강 순이었다. 그러나 성평등 지향형에서는 상승(49.02%)과 부동(44.44%) 비율이 유사하며 하강(6.54%) 비율이 상당히 적은 한편, 하강 비율에서 중간 성평등 인식형에서는 28.28%,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는 22.01%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성평등 태도 유형과 포래압력 간 관계를 살펴보면, 남학생도 성평등 지향형에서는 포래압력이 낮은 비율이 가장 높고,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에서는 포래압력 중간 비율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평등 지향형에서는 포래압력 낮음(56.71%), 중간(24.79%), 높음(18.49%) 순이었으며, 중간 성평등 인식형에서도 성평등 지향형과 순서는 같지만 포래압력 낮음 비율(39.57%)은 낮아지고, 중간(36.48%)과 높음 비율(23.95%)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은 포래압력 중간이 가장 높고(43.53%), 높음(36.41%), 낮음(20.06%) 순이었다. 남학생에서도 성평등 태도가 포래압력 맥락 속에서 나타남을 보여준다.

성평등 수준에 있어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남학생이 현재 대비 10년 후 남성에게 더 불평등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 성평등 지향형에서는 0.37점, 중간 성평등 인식형 0.90점,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 1.06점으로, 모두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 수준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미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도 동일했다. 성평등 지향형 0.51점, 중간 성평등 인식형 1.15점,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 1.60점으로,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 다른 유형에서보다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인 전망 정도가 컸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학교급에서는 중간 성평등 인식형에서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해당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다른 두 유형에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수준은 성평등 지향형에서는 중산층, 하위층, 상위층 순으로, 중간 성평등

인식형과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는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성평등 지향형에서 중산층에 속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47.65%), 나머지 두 유형에서는 하위층 비율이 높았다(중간 성평등 인식형 50.13%,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 53.71%). 한편, 여학생에게서 유의미했던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은 성평등 지향형과 중간 성평등 인식형에서 유사했으며,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는 이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3-140] 남학생의 성평등 태도 유형별 특성

(단위: %, 점)

구분		집단1 (성평등 지향형)	집단2 (중간 성평등 인식형)	집단3 (전통적 성역할 성차별주의형)	χ^2/F
전체		17.4	56.9	25.7	-
학교급	중학교	57.00	56.23	51.52	0.8394
	고등학교	43.00	43.77	48.48	
	세부 학교급				
중학교 2학년	29.54	31.29	20.92		
중학교 3학년	27.46	24.94	30.60		
고등학교 1학년	16.98	23.42	22.90		
	고등학교 2학년	26.02	20.35	25.59	5.1219
권역	농촌	0.77	1.42	1.90	
	도농복합남부	38.52	31.84	24.57	
	도농복합북부	14.95	12.66	14.04	
	도시남부	35.14	41.84	46.17	
	도시북부	10.62	12.24	13.32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 이하	9.10	10.79	13.52	9.1384
	전문대졸	7.09	3.68	3.41	
	대졸	35.51	42.50	39.21	
	대학원 졸업 이상	4.98	8.64	8.24	
	모름	43.33	34.02	33.77	
	해당없음	0.00	0.36	1.85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이하	11.53	11.89	13.83	11.7020
	전문대졸	6.96	4.91	6.61	
	대졸	31.82	41.40	40.46	
	대학원 졸업 이상	2.48	9.37	6.36	
	모름	47.21	31.70	32.74	
	해당없음	0.00	0.74	0.00	
형제자매 유무	있음	23.41	20.07	25.88	1.6839
	없음	76.59	79.93	74.12	
학업성적	상위권	39.18	31.05	40.44	17.8260**
	중위권	35.68	20.07	17.34	
	하위권	25.15	48.89	42.22	
경제수준	상위층	16.08	9.60	9.60	6.7236
	중산층	47.65	40.27	36.70	
	하위층	36.27	50.13	53.71	
미래계층 인식	상승	49.02	40.51	54.69	21.8600***
	부동	44.44	31.20	23.30	
	하강	6.54	28.28	22.01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	20.85	20.80	17.41	1.2774
	두렵지 않음	58.87	58.27	57.44	
	잘 모르겠음	20.28	20.92	25.15	

구분		집단1 (성평등 지향형)	집단2 (중간 성평등 인식형)	집단3 (전통적 성역할 성차별주의형)	χ^2/F
또래관계의 질	낮음	41.8	46.91	43.59	5.7768
	중간	32.05	31.71	41.5	
	높음	26.15	21.38	14.91	
또래압력	낮음	56.71	39.57	20.06	27.7498***
	중간	24.79	36.48	43.53	
	높음	18.49	23.95	36.41	
현재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0.37	0.90	1.06	6.21**
10년 후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0.51	1.15	1.60	12.60***

주: *p<.05, **p<.01, ***p<.001



IV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생애과정 중 청소년기에 젠더 사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때 구축된 젠더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진전될 전체 생애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다. 현 시점은 학업성취와 고등교육 진학에서 여성의 약진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지속되는 동시에,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이어진 미투운동 및 스쿨미투 운동의 확산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이다. 더불어, 페미니즘 백래시, 젠더갈등, 남성 피해자 담론 등 성평등에 역행하는 현상들이 함께 등장한 시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소라넷, N번방, 딥페이크 성범죄로 이어진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 심화되고 있다. 성평등을 둘러싼 각축이 벌어지는 현 사회환경은 청소년의 성평등 태도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평등 인식뿐 아니라 청소년의 주된 사회적 장이라 할 수 있는 가정과 또래, 학교 및 온라인에서 성역할 태도와 성차별주의 인식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초안을 구성하였으며, 관련 연구자 및 학교 교사로부터의 자문을 통해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약 1,000명의 경기도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변화가 느린 혹은 저항하는 남자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의 가정 영역에서의 성역할 태도는 대체로 평등적 성향을 띠나,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 정서에 좋다’에서는 동의율(62.8%)이 높았다. 반면, ‘맞벌이 여도 육아·가사의 책임은 여자가 더 크다’는 항목 동의율은 상대적으로 낮아(17.6%), 자녀에 대한 엄마의 정서적 돌봄 역할에 대한 기대와 실제 돌봄 역할 분담에서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한편, 가정 영역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는 모든 문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보수적이었으며, 특히 ‘여성은 출산·양육으로 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성을 더 취업시켜야 한다’ 항목에서 성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사이 성역할 태도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가족 내 돌봄에 있어서는 엄마의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성차별주의 응답에서는 모두 남학생의 점수가 높지만, 성별 격차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났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 성차가 가장

두드러졌던 문항(‘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에서 평균 점수 기준 여학생은 1.69점, 남학생은 1.97점으로, 0.28점 차이를 보인 반면, 군복무 인식 문항(‘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불평등하다’)에서는 여학생 2.09점, 남학생 2.84점으로, 0.75점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 권리가 늘어날수록 남성의 권리는 침해된다’에서도 여학생 1.78점, 남학생 2.42점으로, 0.64점의 차이를 보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 및 현대적 성차별주의 모든 항목에서 성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성별+학교급에서도 남자 중, 고등학생이 일관되게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나, 성별이 청소년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인식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는 일부 문항에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높은 동의를 보이거나(‘남성은 여성보다 강하므로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 성차가 뚜렷하지 않았다.

남성성 규범에 대한 동의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항목에 따라 동의율이 달랐다. ‘남자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숨겨야 한다’와 ‘남자는 겁이 나도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와 같이 정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정 비율이 높았으나(감정 숨겨야 한다 91.5%, 겁이 나도 티내지 말아야 한다 90.5%), ‘남자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와 ‘남자는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와 같이 적극성과 경쟁에 대한 태도(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22%,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18.3%)에서는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이 높았다. 남성성 규범을 측정하는 모든 항목에서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으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적극성과 경쟁에 대한 태도에 더 동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갈등 인식에서는 온라인 공간의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여성 대상 온라인상 차별을,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남성 대상 온라인상 차별을 더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나타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온라인 공간이 청소년의 갈등 인식을 매개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성평등 인식은 평균에서 남성에게 불평등(+0.14)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고, 10년 후에도 남성에게 불평등(+0.56) 방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여학생은 현재와 미래 모두 여성 불평등에게 불평등하며 향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남학생은 현재보다 미래에 남성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별+학교급 결과에 따르면 여자 고등학생이 가장 여성에게 불평등을, 남자 중, 고등학생이 동일 수준으로 남성 불평등을 전망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성별 인식의 차이가 좁혀져 성평등한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 청소년들의 페미니즘 뜻 인식 정도는 절반 수준이었으며(49.6%), 남자 고등학

생의 인식 정도가 67.9%로 동일 학교급인 여학생(50.7%)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페미니즘 뜻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도 페미니즘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이다’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64.4%로 나타나, 페미니즘이 평등을 위한 것이 아닌 여성의 권리만을 위한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해 속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화는 14.9%에 불과하여 인지도에 비해서도 낮아, 청소년 내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명확히 드러난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해 덜 부정적이고 정체화 수준이 높으며, 남학생은 더 부정적이고 정체화가 낮아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성별로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남성성 규범을 제외하고 권역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성평등 관련 태도가 온라인을 통해 매개되어, 지역보다는 성별 혹은 성별과 학교급이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혐오,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의 높은 공감대

경기도 청소년들은 혐오 표현, 성차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에 대체로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6개 항목의 평균 점수가 모두 3.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에서 평균 3.42점과 89.3%의 동의율을 보였다. 이어 ‘취업과 임금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3.23점), ‘온라인 사이트나 미디어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3.10점),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3.10점) 항목이 뒤를 이어 청소년들이 성평등 증진과 성차별 및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수준은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 대응 필요성에 더 강하게 동의했다. 특히 ‘취업과 임금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에서 0.38점 차이를, ‘전체 국민 성평등 의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에서 0.35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학생들이 구조적 불평등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성범죄 처벌 강화와 같은 항목에서는 높은 동의율을 보여 문제의 심각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학교급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성범죄 처벌 강화 문항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동의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제도적 대응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과 학교급을 교차해 보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여자 고등학생은 6개 문항 모두에서 가장 높은 동

의 수준을 보였고, 남자 중학생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처벌 강화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0.45점에 달해, 성별과 학교급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대응 인식에 중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 정책 기획 시 청소년 집단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 가정 내 성별화된 역할 분담과 관계 인식에서의 차이

청소년의 가족 경험에서는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평등적으로, 역할 분담에서는 성별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다수의 청소년이 부모님 간 관계가 평등하다(91.6%)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가정 내 가사일 담당은 어머니 93.7%, 아버지 49.7%로 격차가 크고, 양육 및 교육에서도 어머니 90.1%, 아버지 55.7%로 어머니의 역할 비중이 컸다. 반면, 경제활동에서는 아버지 95.3%, 어머니 70.5%로 나타나, 가사일과 양육 및 교육 담당에서의 부모님 간 차이에 비해 경제활동에서는 그 차이가 적었다.

또한 부모님 간 관계에서 여학생은 어머니에게 불평등(8.1%)을, 남학생은 아버지에게 불평등(2.4%)을 높게 보고 있었으며, 여자 고등학생은 양육에서 어머니 부담을 더 크게 인식했고(여자 고등학생의 가사 및 교육 담당 어머니와 아버지 비율 차이, 50.3%p), 남자 고등학생은 경제활동에서 아버지 비중을 더 크게 인식했다. 청소년은 자신의 성별에 따라 부모님의 역할을 해석하고 있어, 역할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는 94.4%,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는 95%가 성평등한 편으로 응답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요컨대, 청소년은 부모님 간 역할이 성별화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부모님 간 관계가 평등하다고 보았다. 또한 부모님의 양육태도는 대체로 평등하다고 보면서도 성별에 따라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라. 청소년의 또래문화에서의 성차

청소년의 또래문화는 전반적으로 동성 중심의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친한 친구의 수가 적었으며(여학생 총 31.8명, 남학생 43.5명), 특히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 수에서 차이가 컸다. 한편, 남학생은 더 많은 친구가 있음에도 또래관계의 질 점수는 여학생보다 낮았다. 반대로, 여학생은 친구 수는 적지만 관계의 질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어, 친구 규모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성별 간 차이가 존재했다.

또래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형의 또래압력을 경험했다. 특히 또래눈치와 관련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친구의 시선이 행동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여자 중학생이 압력을 가장 크게 경험했는데, 이는 여학생이 또래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평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청소년의 관계 영역에서의 성역할 태도의 경우, 성평등 의식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연애나 데이트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남성 주도 규범이 강하게 작동했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데이트에 남성이 기다리거나 여성을 데리러 가는 행동, 데이트 비용이나 데이트 주도와 같은 문항에서 더 보수적인 응답을 보였다는 점은, 관계에 있어 평등에 대한 인식과 실제 관계 규범 간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친구들과 과의 대화에서 여자(친구)의 외모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또래압력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 맥락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이어졌다.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교사의 성차별 수준을 낮게 인식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남학생에게만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성차별을 두드러지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이 교사의 성차별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최근 남성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역차별’ 담론과도 연결될 수 있다. 학교생활 전반에서도 남학생은 학교가 여학생을 더 배려한다고 느끼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의 불성실한 학업 태도로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고 인식하여, 성별로 서로 다른 피해 의식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학교 내 성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마. 온라인 활동과 디지털 불안에서 나타난 성차

청소년에게 온라인 활동은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주요 활동 유형에서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은 인스타그램과 틱톡과 같이 SNS 활용이 두드러진 반면, 남학생은 개인방송 시청과 게임 이용에 높은 참여를 보였다. 인공지능 챗봇은 전체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이용 목적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SNS 목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친구와의 소통을 1순위로 꼽지만, 여학생은 친구 소식과 일상 공유를 다음으로 응답하여, 관계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달리 남학생은 소통 다음으로, 웃긴 영상 소비 비중이 높았다. 개인방송 콘텐츠 시청 목적으로 남학생은 게임 관련 콘텐츠를 주로 꼽았다면, 여학생은 웃긴 영상, 연예인·팬덤, 먹방·맛집, 뷰티·패션 등 관심사가 넓게 나타났다.

디지털 불안에서는 약 10명 청소년 중 4명이 개인정보 노출 및 공유에 높은 불안을 보이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불안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특히 불법 촬영물 피해 우려에서 성차가 가장 컸다(여학생 2.35점, 남학생 1.99점). 학교급으로 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전반적 불안이 높고, 집단을 교차했을 때에는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남자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 순으로 디지털 관련 불안이 높았다.

요약하자면, 청소년의 온라인 경험은 성별 및 학교급에 따라 달리 나타나 서로 다른 플랫폼 이용과 콘텐츠에 접속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이용에서의 위험 인식 역시 같은 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관계 유지를 중심에 둔 여학생과 중학생에서 개인정보 노출 및 공유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게 나타났고, 게임 중심 이용이 높은 남학생은 온라인 활동 빈도는 높으나 디지털 불안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안전 체감을 이용 행태와 결합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며, 특히 성별 및 학교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바.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특성 및 학교 교육의 효과

경기도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감수성을 보였으며, 특히 여학생의 폭력 인식이 두드러졌다. 그중에서도 여자 고등학생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낮은 인식을 보였다. 이는 성폭력 인식에서도 성별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소년은 성적 농담이나 성차별적 발언 및 외모 등 신체적 평가를 빈번하게 경험했다. 전체 청소년의 45.3%가 성적 농담을 경험했으며, 성차별적 발언(39.3%)과 외모 등 신체에 대한 평가(37.6%) 역시 적지 않은 규모였다. 반면, 성추행이나 성폭행(3.1%) 및 성적 관계 강요(2.5%) 경험 비율은 낮았으나, 남자 중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성추행이나 성폭행 4.7%)을 보여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취약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급을 교차해 보면 여자 중학생에서 성적 농담(51.3%), 성차별적 발언(44.4%), 외모 평가(48.0%) 경험률이 가장 높아 언어적 성폭력의 주요 피해 집단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경험이 있음에도 청소년의 대응은 대체로 소극적이었다. 성폭력 경험자의 69.0%가 그냥 넘어갔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 대응은 친구에게 상담(27.0%)이나 부모님 상담(16.6%), 담임교사 상담(13.2%) 순이었다. 여학생은 또래나 부모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남학생은 담임교사 상담이나 행위자(가해자)에게 사과 요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했다. ‘그냥 넘어간’ 이유에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42.7%)와 ‘대응 방법을 몰라서’(28.6%)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의 응답 비율이 51.4%로 여학생

(34.8%)보다 높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사소화하거나 대응방법 인식 부족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학교 내 교육에의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전달 방식은 일방향이였다. 지난 1년간 양성평등 교육 경험률은 64.8%, 성교육은 77.6%,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83.2%로 나타나 다수 청소년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었으나, 교육 방식에서는 영상시청과 강사(교사) 강의로 진행된 비율이 높으며, 토론식은 양성평등 교육 1.5%, 성교육 1.3%,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1.4%에 불과했다. 이는 성평등과 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부분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54.6%)이 학교 양성평등 교육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았고, 특히 중학생(2.53점)이 고등학생(2.32점)에 비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성평등 의식 강화에 대해서도 긍정 응답이 높았다(50.7%). 그러나 성별 갈등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4.1%만이 동의하였으며, 양성평등 교육이 새롭고 흥미롭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25.4%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교육과정이 성평등 의식 증진과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성별 갈등 완화나 흥미 유발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의 한계는 성폭력 경험 시 대처와도 이어질 수 있다. 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다수가 성폭력을 사소한 일로 생각하거나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의 높은 응답률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그에 대한 대처로도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사. 청소년의 진로와 가족 가치관에서의 성차

경기도 청소년의 진로 영역 성역할 태도는 이중적인 양상을 보인다. 평균 점수 기준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다'(2.17점), '남학생이 원하는 직업과 여학생이 원하는 직업이 대체로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2.16점)와 같이 상대적으로 성별 차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존재했다면, '돌보는 직업은 여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1.81점)와 '안전이나 국방관련 직업은 남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1.94점)와 같은 성별 직종분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여전히 성별 능력 차이에 대한 전통적 관념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실제 직업에서는 성별에 따른 구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동시에 존재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전반적으로 더 보수적이었지만,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문항에서

는 오히려 여학생이 더 보수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여학생이 직장 내 존재하는 성차별을 민감하게 인식하며, 동시에 현실적으로 여성이 일, 가정 양립을 하기에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직업이 여성의 독립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여자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일 관련 성차별주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남성의 월급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에서 다소 높은 동의율(28.6%)을 보였다.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차별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단계임에도 일 관련 성차별주의가 성별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향후 실제 노동시장 참여 과정에서의 젠더불평등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직장 조직문화에 대한 성차별 인식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기업은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2.36점),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2.34점),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2.30점)에서 청소년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차별을 인식했으며, 여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이러한 민감성이 뚜렷했다. 예컨대,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문항에서 여자 고등학생은 2.65점, 여자 중학생 2.30점, 남자 고등학생 2.33점, 남자 중학생 2.16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경험 이전부터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민감성이 성별, 학교급별로 다르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희망 전공 계열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예체능(25.6%)이 가장 높았으나, 여학생은 예체능(30.1%)과 의약(16.5%)을, 남학생은 공학(25.3%)과 자연(10.5%)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었다. 특히 공학계열 희망 여학생 5.1%, 남학생 25.3%로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직업 선택 이유에서도 성차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개인적 관심과 흥미(59.8%)를, 남학생은 수입, 연봉(65.3%)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한편,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일과 삶의 조화를 더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고등학생 17.7%, 중학생 8.4%). 이는 청소년의 진로 가치관에 성별과 학교급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등학생은 사회 진입을 앞두고 현실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 가치관에서는 또 다른 양상이 존재한다. 청소년의 연애 경험은 15.6%에 그쳤으나, 비연애 여자 청소년은 55.6%, 남자 청소년은 47.5% 향후 연애 의향을 보였다. 다만 성인이 되었을 때 연애나 결혼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은 22.1%로, 여학생(24.5%)이 남학생(20.0%)보다 높았다. 이는 여학생이 연애 관계 형성에 더 높은 의향과 동시에 불안 역시 더 크게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래 결혼 의향은 긍정 62.6%로 절반 이상이 결혼을 계획하

고 있었지만, 출산 의향은 49.1%로 낮아, 결혼 대비 출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게 드러났다. 출산을 원치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50.6%)과 돌봄 부담(40.3%)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으나, 여학생은 출산의 고통과 신체 변화에, 남학생은 경제적 부담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형성 가치관 역시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청소년기부터 현실적 부담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 청소년의 성평등 태도 유형화

1) 성평등 지향형, 중간 성평등 인식형,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으로의 분화

앞서 살펴본 결과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인이 성별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성별 9개의 영역(가정 영역 성역할 태도, 진로 영역 성역할 태도,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적대적 성차별주의, 직업 관련 성차별주의, 학교 영역 성차별주의, 남성성 규범, 폭력 인식)을 종합하여 경기도 청소년의 성평등 태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가지 유형은 여학생과 남학생 공통적으로 ‘성평등 지향형’, ‘중간 성평등 인식형’,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으로 구분되었으나, 유형별 비중과 세부적 특성은 성별 차이가 존재했다.

여학생은 ‘성평등 지향형’(33.3%)과 ‘중간 성평등 인식형’(52.8%)이 다수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성평등 성향을 보인 한편, 남학생은 ‘중간 성평등 인식형’(56.9%)과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25.7%)의 비중이 높아 ‘성평등 지향형’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17.4%). 이는 여학생에게 성평등 의식이 더 수용되며, 남학생에게는 전통적 규범 및 차별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일 유형 내부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다. 먼저, ‘성평등 지향형’의 경우 여학생은 진로 영역 성역할 태도와 온정적, 적대적 성차별주의 등 사회구조 및 문화 측면의 차별 인식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전체적으로 평등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남학생의 ‘성평등 지향형’은 성차별주의 전반과 남성성 규범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긴 했으나, 가정과 관계 영역 성역할 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동일한 성평등 지향형에 속할지라도 여학생은 사회적, 제도적 성차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중심이라면,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가정과 관계 측면의 성역할에서 보수적 태도를 보였다.

‘중간 성평등 인식형’에서도 성별 차이는 뚜렷했다. 여학생의 ‘중간 성평등 인식형’은 가정과 진로 영역 성역할 태도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온정적, 적대적 성차별주의나 학교 영역 성차별주의 인식에서는 성평등 지향형에 가깝게 응답하는 이중적 측면이

존재했다. 일상적 역할 기대에서는 전통적 규범이 남아 있으나, 제도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차별 문제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민감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학생의 ‘중간 성평등 인식형’은 성역할 태도와 남성성 규범은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 더 가까웠고, 온정적,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는 ‘성평등 지향형’에 가까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남학생의 ‘중간 성평등 인식형’은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성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여성 권리 확대에 저항하는 적대적 태도에서는 완화된 양상을 보인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서 가정과 직업 영역 성역할 태도의 보수성이 강하게 드러났지만, 강조되는 지점에는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은 직업 관련 성차별주의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여성의 독립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데 있어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인 한편, 남학생은 직업뿐 아니라 학교 영역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아 학교 내 젠더불평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남학생이 학교 영역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주의는 학업과 학교생활에 있어 여학생이 더 유리하다고 보이는 ‘역차별’ 논의와 연관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현재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차별 관행과 일-가정 양립에 있어 여성이 더 불리하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진입에 보수적인 태도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남학생은 현재 학교 성적 및 대학 진학을 등 교육 측면에서 보여지는 여학생의 약진이 지속되는 상황과, 동시에 학교 성적과 대학 진학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학교 내 능력주의 분위기 속 학교 체계가 남학생에게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경험과 직업 전망 모두에서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이 강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점이 보수적이면서 차별적인 성평등 유형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다.

2) 청소년기 사회적 맥락 속 성평등 태도의 형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성평등 태도는 또래관계와 미래전망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되는 양상을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성평등 지향형’은 또래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하고 또래압력을 낮게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는 또래관계의 질이 낮은 한편 또래압력이 높은 비율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에서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또래관계가 성평등적 태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여학생은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성평등 유형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평등 지향형’은 연애나 결혼과 같은 성인기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과 ‘중간 성평등 인식형’에서 두려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 경험뿐 아니라 향후 관계에 대한 인식 역시 여학

생의 성평등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학생의 성평등 인식은 사회적 관계와 연관되어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학생에서는 또래관계의 질보다는 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도 ‘성평등 지향형’은 또래압력이 낮은 비율이 높았지만,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은 중간 이상 수준의 압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은 또래문화 속 일정 부분 강요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남학생에서는 학업성적과 미래계층 인식, 성평등 수준에 대한 사회적 전망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평등 지향형’은 상위권의 학업성적과 긍정적인 미래계층 인식을 보였으나, ‘중간 성평등 인식형’과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은 하위권 성적 비율이 높고, 미래 계층 전망에서도 ‘하강’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맥락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Kim(2025a)의 연구는 한국 청년 남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위 하락을 보고한 남성들이 여성에 더 적대적이고 성차별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혼인을 감소나 고용불안 증가와 같은 사회적 위협이 존재할 때, 사회적 지위의 하향이동을 경험한 집단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위 상승 혹은 정체를 경험한 집단에서는 동일한 사회적 위협이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위 불안이 성평등에 대한 태도를 보수적, 차별적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최근 청년 남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성이 평등을 지나치게 추진하면서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인식 확산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지위 상실 불안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준 연구가 실제 계층이동 경험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관적 차원의 지위 불안이 성평등 태도와 연관됨을 설명한다(Kim, 2025b). 즉, 청소년기 남학생의 성평등 태도 형성 역시 성인기로의 이행 후 지위 불안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결합하여 더욱 강화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남학생은 성평등 수준 인식에서 현재뿐 아니라 10년 후에도 남성이 더 불평등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서 이러한 부정적 전망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남학생의 성평등 태도가 사회 전반의 성평등 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성평등 태도 형성이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학생에서는 지지적이고 평등한 또래관계와 낮은 수준의 또래압력이 성평등적 태도의 강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으며, 반대로 갈등적 관계나 높은 압력은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적 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성인기 관계 맺기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집단에서 ‘성평등 지향형’이 높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성평등

태도와 연결됨을 보여주었다. 반면, 남학생의 성평등 태도에는 또래관계의 질보다 압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업 성취, 미래계층 인식, 그리고 성평등 수준 전망과 같은 미래전망에 의해 성평등 태도가 형성되고 강화된다 할 수 있다. 청소년에서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의 비율을 낮추고 성평등 지향형을 늘리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평등 태도가 형성되는 또래관계와 미래전망이라는 이중의 맥락을 고려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 정책제언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내 성평등 인식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냈던 요인은 성별이었다. 각 학생의 개별 특성보다는, 여학생 혹은 남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성평등 태도를 가르는 주요인이 되었다. 같은 성평등 태도 유형에 속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어떤 차원에 더 비중을 두는지가 달랐다. 즉, 일부 집단은 성역할 태도에 더 치우친 반면, 다른 집단은 성차별주의적 요소가 더 두드러지는 등, 핵심 특성이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성평등 태도를 파악하고 성불평등한 인식과 규범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젠더 수행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으로는, 성평등 태도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서 ‘중간 성평등 인식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물론 여학생에서는 ‘성평등 지향형’이, 남학생에서는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으나, 다수는 뚜렷하게 성평등 태도를 설정하지 않은 유형이다. 이는 향후 청소년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마주하는 성평등 이슈나 교육 방향에 따라 전체 청소년의 성평등 태도의 방향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다수 청소년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청소년기가 교육의 영향력이 집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교육에서의 성평등 방향에 따라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은 감소하고 ‘성평등 지향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경기도 청소년의 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가. 청소년의 성평등 민감성 증진을 위한 성평등 교육: 콘텐츠 측면

1) 현실을 담은 성평등 교육의 실행

교육부에서는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안내서>(2022)를 통해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의 설계와 편성·운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주된 내용이 성역할 고정관념, 차별 등에 한정되어 학생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젠더 이슈나 페미니즘에 대한 지식과 거리가 존재한다. 한정된 주제의 성평등 교육은 청소년의 성평등 민감성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다. 예컨대, 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페미니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주된 창구는 학교가 아닌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페미니즘은 왜곡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문제가 존재한다. 청소년의 절반 정도(49.6%)가 페미니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그 뜻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도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이다’라는 주장의 동의율이 64.4%로 나타났다. 즉, 페미니즘에 대한 인지 자체는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이해하는 내용은 왜곡되어 페미니즘 백래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을 정체화한 청소년은 14.9%에 불과해, 페미니즘 인식과 실천 사이에도 간극이 나타났다. 더불어 성별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는 페미니즘을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정체화 수준이 높았던 반면, 남학생은 페미니즘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체화 수준도 낮았다. 이는 청소년 시기부터 성별에 따라 페미니즘이란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도 서로 다른 내용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페미니즘이 청소년 내 ‘젠더갈등’의 용어로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 교육이 청소년들이 실제로 접하는 젠더 이슈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차별 해소뿐 아니라 젠더, 섹슈얼리티 및 페미니즘의 정의와 개념, 역사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페미니즘을 한 문장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내 강하게 자리잡은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인식, 특히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담은 정의를 성평등 교육에 담을 필요가 있다. 벨 훅스(bell hooks)는 페미니즘을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운동”(2007: 19)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가 “남성을 적으로 상정하지 않으며, 성차별적 사고와 행동이 문제라는 점을 꼬집을 수 있고, 페미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제시

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한다(ibid: 19). 이러한 정의에 따라 성평등 교육에는 사회에서 성차별주의가 어떻게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 제도화되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강조하며 ‘성차별주의 종식’이라는 페미니즘의 목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교육부에서는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교육 등 별도 수업이 아니더라도, 교과 수업 속에서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 배려를 가르칠 수 있도록 ‘초·중등 양성평등 교수 학습자료’를 발간·배포한 바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5.10.14.).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 역사 과목에서는 “여성 운동의 역사 탐구하기”를 주제로, 여성 운동이 일어난 배경, 운동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p.20)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양성평등교육에서 한 발 나아간 측면을 보인다. 해당 자료의 내용이 청소년의 젠더 민감성 증진을 위한 내용인지 살피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부에서 본래 의도한 바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학교 교과 내의 콘텐츠는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마주하는 젠더 이슈를 직접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부터 습득한 콘텐츠가 성차별적인지 혹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반영된 것인지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등장하는 젠더갈등 혹은 페미니즘 백래시 이슈와 실제 성평등 관련 개념 간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젠더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젠더 민감성이 반영된 진로 교육

경기도 청소년들은 진로 영역의 성역할 태도에서 성별에 따른 능력 차이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다’(2.17점), ‘남학생과 여학생의 희망 직업이 다르다’(2.16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별 고정관념은 여전히 청소년의 진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직종 자체를 성별로 구분하는 항목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많아, 성별 능력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성별 직무분리에 대해서는 성평등적 태도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또한 ‘남성의 월급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이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에 28.6%가 동의하는 등, 임금격차를 정당화하는 태도가 일부 청소년에게 남아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남학생에서 이러한 성차별적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시기부터 성별에 따라 직업선택과 노동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이 구조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현재 청소년이 향후 실제 노동시장 진입 과정 시 현존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젠더불평등이 재생산될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진로 교육이 주로 직업 탐색이나 적성 반영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직업에서의 성

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젠더 민감성을 반영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별직무분리나 성별직종분리로 인해 진로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대안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STEM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이나 돌봄 분야에서 활동하는 남성 등, 비전형적 진로 선택의 긍정적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진로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재단에서는 2018년부터 경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젠더와 진로특강>을 진행하고 있다¹⁹⁾. 2021년부터는 전문직업인 특강으로 주제를 변경하고, 소위 ‘여성 직업’에서 일하는 남성을, ‘남성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강사로 초청하여 경기도 중, 고등학교 내 양성평등교육으로 시행된다. 이와 같이 진로에서의 성별 제약을 넘는 실제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 선택에 성별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강사들이 경기도 청소년의 현재 전반적인 성평등 태도 및 이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진로에서의 성역할 태도를 이해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강사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직업 선택을 넘어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성차별적 관행을 살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제안하는 강의 방향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진로 교육에는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성별 임금격차, 채용 차별, 일 가정 양립의 부담을 보여주는 객관적 통계와 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이러한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남학생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태도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진로교육 담당자뿐 아니라 교과 교사, 담임 교사 등 학교 내 교사들에게 성인지 관점을 바탕으로 진로 지도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반에 성평등적 시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난 진로 가치관(여학생은 관심과 흥미, 남학생은 수입과 안정성 중시)이 청소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젠더규범의 영향을 받는 것임을 청소년 스스로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성평등 민감성이 반영된 진로 교육은 청소년들이 성별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선택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구조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19)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은 2018년부터 「진로교육법」 제5조 공공기관의 진로 교육 활성화 규정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성평등 전문강사의 강의실시로 시작되었다. 이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문직업인 특강으로 주제를 변경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을 중심으로 하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대면 중심 교육이 진행되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성평등 교육 확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청소년의 성차별주의 인식 현황과 완화를 위한 접근

청소년의 성역할 태도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바람직함'에 기초하여 평등적 경향을 보였으나, 실제로 차별을 경험하거나 이를 둘러싼 갈등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학교나 군복무 관련 문항에서는 성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 문항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일관되게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 권리가 늘어날수록 남성의 권리는 침해된다' 문항에서 여학생 1.78점, 남학생 2.42점으로 0.64점의 차이를 보였다. 학교 영역 성차별주의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학교생활과 학업성취에서 여학생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역차별'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는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문항에서 여학생 2.02점, 남학생 2.49점으로 남학생이 0.47점 더 높았으며, 군복무의 보상에 대한 의견에서도 여학생 2.87점, 남학생 3.36점으로 성별 인식 차이가 강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차별주의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청소년 개인의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성평등 교육은 성차별이 단순히 옳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규범적 접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차별 경험을 해석하고 성평등적 시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먼저,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군복무, 학교 내 성적 비교, 역차별 논쟁 등 남학생이 체감하는 불평등 경험을 배제하지 않고 교육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성평등이 특정 성의 권리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학교 영역 성차별주의에 대해서는 실제 학업성취와 진로 선택에서의 성별 격차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석과 토론을 유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개인적 경험과 구조적 현실을 구분해 이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경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보호와 배려'가 어떻게 성차별의 또 다른 형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즉,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태도가 어떻게 여성의 자율성과 평등을 제한하는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

결국 성차별주의 완화를 위한 교육은 청소년이 자신의 일상 경험을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개입은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가 성평등을 자신의 경험에 의미 있는 가치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태도의 재생산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4) 남성성 규범과 실천의 이해를 통한 성평등 교육 방향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전통적 남성성 규범에 대체로 비동의하는 비율이 높아, 사회 전반에서 ‘남성다움’에 대한 고정적 규범이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대부분 문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동의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나, 여전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남성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 청소년은 또래문화에서 규정한 남성성에 적합하지 않는 또래를 배제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보여준 선행 연구(남미자 외, 2022b)는 남성 청소년이 또래문화 속에서 규정된 남성성을 의식하며, 실제 행동으로도 나아간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은 남학생의 성평등 태도 유형 중 ‘중간 성평등 인식형’의 특성 과도 연결된다. 이 집단은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나, 성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여성 권리 확대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에서는 ‘전통적 성역할·성차별주의형’에 비해 완화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무해한 남성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즉, 노골적인 성차별은 거부하나 여전히 성별 역할의 틀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며, 성평등을 ‘여성을 배려하는 남성다움’의 문제로 한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성성 규범이 성차별을 다소 완화한 수준에만 머문다면 결과적으로 기존 성별 질서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김광원, 2025: 49-51).

한편, 청소년은 학업 중심의 학교문화 속에서 능력주의를 학습하게 된다. 특히 남성 청소년은 시험 중심의 능력주의에 따른 차등적 대우를 경험하며, ‘역차별’ 담론에 기울이게 된다. 능력주의를 내면화한 남성 청소년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러한 불공정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요인보다는 여성과 소수자에게 투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 청소년들은 ‘능력있는 남성성’으로의 동일시에 실패했을 때 ‘약한 남성’이 된다고 인식하며, 이러한 불안과 결핍감은 남성성에 대한 동일시 욕구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여성과 소수자를 방해자로 지목하게 만든다(김현수, 2025: 114-115). 그 결과 페미니즘은 남성의 위상을 위협하는 담론이 되며, 반페미니즘적 태도나 백래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능력주의와 남성성이 결합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청소년 남성의 불안과 방어적 태도는 성평등 교육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반페미니즘 정서를 강화시켜 사회적 혐오와 폭력이 재생산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성평등 교육은 능력주의적 경쟁 구조 속에서 현재 남성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위협받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남자 청소년이 남성다움이라는 고정된 틀을 벗어나, 다양한 관계 맺기와 감정 표현, 돌

봄과 협력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교육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이 고정된 남성되기 틀을 해체하고, 공정성과 성평등 혹은 페미니즘이 대립적 가치가 아닌, 동일한 방향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가치로 인식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5)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성폭력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조사 결과, 경기도 청소년들은 성적 농담(45.3%), 성차별적 발언(39.3%), 외모 평가(37.6%)와 같은 일상적 언어적 성폭력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불법 촬영물, 온라인상 사적 갈등의 폭로 등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에 대한 불안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전형적인 유형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도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성폭력 경험자의 69%가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42.7%)나 ‘대응 방법을 몰라서’(28.6%)가 꼽혔다. 이는 청소년이 피해를 사소화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약이 있음을 반영한다. 청소년들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갖추고 있었으나, 자신에게 폭력이 노출되었을 때 실질적 대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은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청소년이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 첫째, 언어적 성희롱과 같은 일상적 폭력부터 디지털 공간에서의 새로운 폭력 노출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교육과 상담 현장에서 안내해야 한다. 즉, 대처 방법의 층위를 다양하게 제안함으로써 일상적 성폭력에도 적극적인 대처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피해 발생 시 학교, 지역사회,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이어지는 여러 차원의 신고 및 상담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이 마주하는 실제 온라인 환경에 대한 검토 역시 필수적이다. 청소년은 온라인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젠더 이슈와 그에 대한 견해를 접하고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성평등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더라도, 정작 자주 마주하는 온라인 환경이 반성평등적으로 구성된다면 젠더 민감성을 갖추기 쉽지 않다. 이는 청소년에게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디지털 시민교육 수립 과정에 젠더 민감성을 포함하도록 기획해야 한다(이혜정·임혜경, 2024). 또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과정에 성평등 민감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혜정·임혜경(2024)은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온라인콘텐츠 창작자 및 관련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온라인 콘텐츠

츠 창작 활성화와 관련 사업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온라인콘텐츠는 젠더 민감성을 갖추도록,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성별평등한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는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에서도 빈번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가이드라인 내에 포함해야 한다. 조사 결과, 성폭력 경험률에서 ‘외모 등 신체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성차별적 발언, 성적 농담,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 강요 및 성추행이나 성폭행에서 남학생의 응답률이 여학생 대비 모두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은 성별에 관계 없이 경험할 수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남학생이 왜 성폭력을 더 많이 겪게 되는가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나. 청소년의 성평등 민감성 증진을 위한 성평등 교육: 교육방식

1) 성평등 교육의 통합적 시행

경기도 청소년의 다수가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64.8%), 성교육(77.6%),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83.2%)을 경험했다. 현존하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이 일정 수준 진행되고 있음과 동시에 세 유형으로 진행되는 교육 중에서도 양성평등 교육의 상대적으로 낮은 이수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유형 교육은 모두 젠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상호분리될 수 없다. 교육이 분리되어 진행되는 한계에 대한 개선으로 <제3차 양성평등정책> 4-1.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체계 개선에 따르면,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통합적 운영 기반 강화’를 들면서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의 통합 운영 기반 마련을 제시한다. 실제로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운영 안내에서는 세 유형의 교육을 따로 두지 않고 안전·건강 학습 주제에 양성평등교육 세부 주제로 접근하여 연간 15차시 이상 실시할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리되어 진행되어 온 교육들을 통합하는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 속 기존 양성평등 교육이 가진 한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세 가지 유형의 교육은 상호 분리되지 않고 성평등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합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할 것인가이다. 성평등 교육은 성적 권리, 성차별, 성폭력 예방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여러 연구에서 통합적 접근으로써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김희란, 2022; 박은하 외, 2022; 박은하, 2025; 최윤정

외, 2020: 494-495). 또한 여성폭력, 소수자 차별 및 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포괄적 성교육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포괄적 성교육안은 UNESCO에서 2018년에 발간한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국제 성교육 가이드)이다. 이 가이드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배우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으로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자신의 건강과 복지, 존엄성에 대한 인식 능력,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성적(sexual) 관계 형성 능력, 자신 및 타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선택 능력, 자신의 삶 속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호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UNESCO, 2018: 16). 인권과 성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연령(발달)단계에 적합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성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UNESCO, 2018: 16-17) 인권과 성평등 관점에서 청소년의 흥미를 유도하고 성과 관계에 대한 체계적 학습을 가능케 한다(박은하 외, 2022: 13). 전 세계 국가들의 공교육 지침으로 활용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성교육을 통해 차별과 폭력이 없는 교실과 학교, 나아가 사회를 만드는 안전교육으로 접근하고 있다(김지학, 2025). 즉, 포괄적 성교육은 인권과 성평등을 근간으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으로써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방향성을 지닌다.

박은하 외(2022)는 성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한 주요 국가 사례를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국가레짐별 대표 국가를 선정하여 살피고 있다. 주요 선진 국가의 성교육은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2018)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중 스웨덴은 우수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서구 국가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인 대만의 사례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박은하 외, 2022: 13-20). 대만은 가부장제가 강한 동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또한 서구 국가로 분리되기는 하나 영국 역시 성에 보수성이 짙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에서 포괄적 성교육이 법제화되어있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4-1] 해외 성교육프로그램 사례

국가	법적 근거	성교육 내용	시사점
스웨덴	「교육법」 제1장 제2조 ‘학생들의 출신 배경, 정체성, 성별과 관계없이 교육에 있어 모두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제1장 제2조 ‘학교는 학생의 학습, 선택 및 개발을 제한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의 성교육은 일반 교과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짐 - 성교육과 관련한 스웨덴 국립 교육청(Skolverket)의 가이드 라인 ① 다양한 과목 내에서 통합적인 주제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 ②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젠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교사와 학생은 성인지 관점 공유를 위한 소통이 필요함 ③ 특별수업 또는 행사 등을 통해 성평등 교육을 다각화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교과목 안에서 성평등 및 다양성 존중 관점에 기반하여 성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짐 - 2022년 9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교과목 커리큘럼 가이드라인은 ‘성(sex)과 동의(consent)’와 ‘재생산권’(sexual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를 보장을 강조함 - 전 교과목에 성주류화를 채택함 특히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에 관한 개념을 정립함
영국	교육법 (Education Act 2002) 80A 조항(section)과 평등법 (Equality Act 2010)에 근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자체적으로 세부 내용 구성 - 영국의 성교육은 관계 교육 (Relationships Education), 관계와 성교육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건강 교육 (Health Education)으로 구성 - 관계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관계와 성교육은 중 고등학교에서, 건강 교육은 초중고 학급에서 필수교육임 - 부모(또는 보호자)는 자녀의 성교육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학습권을 거부할 수 있으나 대신 가정 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성교육을 제공해야 함 - 성교육가이드는 학교가 현 대사회의 성차별, 여성혐오, 호모포비아, 젠더 고정관념 등의 이슈에 민감해야 하며, 그러한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고 바람직한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교육의 커리큘럼은 관계, 동의, 존중을 강조하고, 특히 온라인에서의 위험성과 신고 방법 등 실질적 문제해결에 대해 교육함 - 관계와 성교육 커리큘럼은 개인이 맺는 다양한 관계(친구, 연인, 가족, 이웃 등)와 더불어 성적 관계에서의 동의를 강조함 - 성 정체성, 성적 즐거움, 다양한 친밀성 등을 수업주제로 다루며 학생들이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성교육 내 차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지님(개인의 정체성(국적, 민족성, 언어, 계급 등)과 함께 성적(sexuality) 다양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엄격히 금지함

국가	법적 근거	성교육 내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학생 간 또는 직원 간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예방과 대처방안을 제시함 - 동성 간의 성폭력 가능성을 주지시켜, 성폭력을 이성애 규범적 관점에서 보지 않아야 함을 강조함 	
캐나다 (온타리오 주)	<p>각 주별 성평등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정책추진체계 차이 존재</p> <p>온타리오 주는 교육부 내 교육형평성 사무국에서 성평등 교육 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교과목으로서 건강과 체육(Health and Physical Education)에서 성교육이 주로 이루어짐 - 사회·정서적 학습, 운동 요소, 건강한 삶(정신건강 포함) 네 영역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sex)과 동의(consent)의 중요성 및 온라인 상의 성적 건강, 권리, 안전 등의 내용 강조 - 초등 고학년부터 성적 지향 및 개인의 성 정체성 이슈를 다룸 - 중학교부터 현실적 문제(성 행위, 성적 또는 혈액 매개 감염, 임신 등)를 다루고, 예방(피임, 콘돔 사용 등)과 대응방법 학습 - 재생산권에 대한 의사 결정, 임신 및 출산 시 가족 학교 사회적 지원 등 실질적 문제 해결방법을 수업시간에 다루고, 부모 되기 교육 실시
대만	<p>2004년 「성평등교육법(Gender Equity Education Act)」 제정²⁰⁾</p> <p>제정 이후 5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다문화·성교육을 함께 연계하여 진행 - 대만 교육부 산하 성평등교육연구회에서 성교육 내용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에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성 관련 사건(성소수자 학생 교내 따돌림과 살인사건)이 기폭이 되어 교육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됨 - 온라인 성폭력에 대응하는 것으로 대만교육부는 「성평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학생의 온라인 성폭력 사건 통계를 생산·구축 진행 - 사이버 및 인터넷 성폭력 예방을 포함하는 ‘성평등 중요 문제 추진 프로젝트(2022-2025)’를 발표

자료: 박은하 외. (2022). 2022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연구. p.13-31 내용을 재구성.

20) 대만 「성평등교육법」 제1조 목적에 “실질적 성평등을 도모하고 성차별을 없애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성평등 교육을 위한 자원과 환경을 개선·정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이라고 명시되어 있음(대만 법령정보센터,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H0080067>)(최종검색일: 2025.11.03.).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당장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더라도,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분리된 양성평등 교육, 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이라는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때 성평등은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가이드에 따라 성평등 관련 교육 목적과 방향을 따를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이 각 발달 단계별로 적합한 성평등 관련 지식을 학교 내에서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청소년들이 젠더, 섹슈얼리티 및 페미니즘에 대해 유튜브나 SNS에서 왜곡된 내용으로 처음 접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내용으로 관련 개념 뿐 아니라 ‘올바른’ 성에 관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으로써 청년세대 내 나타나는 성별 인식 차이 경향을 무분별하게 재현하거나, 지금의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성별 인식 차이를 재생산하지 않도록, 성폭력과 차별 및 혐오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다.

2) 토론회 성평등 교육

나아가 교육 방식에서도 지식 전달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 논의하고 성찰할 수 있는 참여형 토론회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실제로 세 유형의 교육 모두 강사 강의나 영상 시청 위주의 일방향적 전달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며, 토론회 참여는 성평등 교육 1.5%, 성교육 1.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4%에 불과했다. 청소년의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인식 결과를 보면, 양성평등 교육이 성별 고정관념 완화나 성평등 의식 강화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으나, 성별 갈등 완화나 흥미 유발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는 현재의 교육 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의식 수업은 년에 ‘15시간’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성평등에 관한 지식을 넘어 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모두 전달하는데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일 년에 몇 회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에게 규범으로 자리잡은 성평등 인식의 변화를 피하기엔 쉽지 않다. 더불어 사회적 올바름만을 강조하는 성평등 관련 교육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한 반발심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사 결과, 상당 수 학생들이 성평등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30.1%)였으며,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경우는 적었고(7.6%), 관심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아(64.6%), 성평등 교육 방식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또래 내 성평등 관련 지식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성평등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의 의미

를 직접 성찰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평등 가치관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강사 중심의 일방향적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및 토론식 수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겪은 성차별의 실제 사례나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쟁점과 연계하여 토론하거나,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교수 방법을 도입하여 청소년이 성평등을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 태도와 행동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성평등 교육의 질 제고

조사 결과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평등 관련 교육은 전반적으로 외부 강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양성평등 교육(63.9%), 성교육(58.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55.1%) 모두 외부 강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과 지역에 따라 담임 교사·교과 교사·보건 교사가 담당하는 비중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농촌은 다른 권역에 비해 교사 주도의 교육 비율이 높고 외부 강사 비율이 낮아, 권역에 따라 교육 운영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평등 교육이 학교별, 지역별로 교육 주체와 내용, 전달 방식에 있어 일관된 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평등과 관련해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는 제한된 시수 동안 양질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교사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클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표준 교안과 강사 관리 체계를 마련해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의 운영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젠더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계획 단계에서 성평등 교육의 목표와 핵심 전달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교육 이후에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평가를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성평등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간, 지역 간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성평등 교육 전환을 위한 토대로서 학교 문화의 민주화

아무리 교육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려 해도, 학교가 성평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청소년 스스로 주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논의를 전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서로 토론하며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및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정치적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라는 점에서 사회 및 학교 내 존재하는 성별 인식 차이는 일방향적으로 해결책을 혹은 방향을 전달하기보다,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논쟁과정을 통해 귀결

되는 것이 필요하다(남미자 외, 2022a). 즉, 학교가 성평등의 공론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의 학교 문화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16조 1항에 따르면,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성평등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교환과 의사표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젠더 사회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학교 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 법, 제도적 노력

1) 성평등 교육의 권리화 및 양적 확보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서 성평등 교육은 교육과정 내 의무화되어 교과 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의무 조항을 근거로 한 교육은 대체로 횡수와 이수 여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성평등 교육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 당사자의 성평등 가치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 운영 안내에 편성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안전·건강, 인성, 민주시민 교육 등과 통합하거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운영으로 제시되어 있어, 성평등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에도 제한될 수 있다. 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의 페미니즘 이해 수준은 전반에 불과하고, 알고 있는 페미니즘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또한 성차별주의 인식은 여전히 성별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온정적·적대적 성차별주의나 학교 영역에서의 성차별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의 성평등 교육이 단순한 제도적 의무 이행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성평등 교육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누려야 할 학습권이자 시민권의 일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김지연, 2025: 69-70). 즉, 성평등 교육을 단순히 특정 시점에 주입되는 의무적 과정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해외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법적 기반이 없는 성교육이 지역별, 학교별 편차를 초래하여 교육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반대로 성교육을 공교육 내 권리 기반 교육으로 정착시킨 국가들의 성공을 보여준 논의(유화정, 2025)에서처럼 성평등 교육은 법제화를 통해 교육의 최소 기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는 현재 ‘년에 15시간’으로 할당된 의무시간을 넘어서는 것이 필수적이다. 온전한 15시간 만으로도 학생들의 젠더 민감성을 키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며, 하물며 현재처럼 보건과 같이 다른 과목과 혼재되어 성평등 교육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다. 청소년의 태도에

존재하는 성별고정관념이나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다루고, 논의함으로써 해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성평등 교육을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자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성평등 교육의 권리화는 성평등 교육의 질과 지속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평등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2)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 협소적으로 이루어지던 조사를 전반적인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정기적인 조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내 뎀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후, 2024년 경기일보에서 도내 청소년 41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성폭력과 성교육에 집중된 한계가 존재했다. 성평등 인식 및 태도는 안전과 폭력의 범위 뿐 아니라 가정, 사회, 진로 의식 등 다양한 분야에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경기도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및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뎀페이크 사태 이후에도 별도의 실태조사나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성교육 표준안 제21)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교육부가 만든 성교육 표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매뉴얼만을 배포하고 있으며, 동일 조례에 따라 성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함²²⁾에도 구성과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경기일보, 2024.11.18.). 이러한 현실은 경기도 내 성교육 기본계획, 표준안 제공, 실태조사,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등과 관련한 일부 제도적 기반은 존재하나, 실제 학교 현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써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를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3조²³⁾에 따라 매년 학생인권 실태

21)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에서는 ①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2)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제8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받기 위하여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각 호에는 1.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관한 사항, 3.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교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해당한다.

23)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교육감은 매년 경기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실태조사²⁴⁾는 인권의식, 인권보장제도 및 수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1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권현황을 살펴보았다(심재희 외, 2024). 여기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경험이 포함되나, 성별에 따른 위계로 인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성평등,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은 인권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성평등 의식 및 실태를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성평등 현황을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또 하나의 방안은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를 「경기도 학생 성평등 교육 권리 조례」(가칭)에 포함하여 정례화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학생인권 실태조사의 경우 배경정보(성별, 학교급, 개인적 특성 등)를 제외하고도 백 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설문을 위해 상당 시간을 들여야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 본 연구에서 적용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평등 의식과 수준, 또래문화, 디지털 문화 등 각 청소년의 사회적 장별로 나타나는 성평등 현황을 포함한다면, 설문 분량으로 인해 학생들이 설문에 집중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경기도 학생 성평등 교육 조례 중 실태조사 항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성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 교육 방향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2안으로 제안한다.

3) 교육청 내 성평등 전담 부서 신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을 학교 내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교원에 대한 젠더 민감성 교육 및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내 성평등 전담 부서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내 성평등 전담 부서 현황을 보았을 때 성평등 전담 부서가 존재하는 광역자치체는 서울,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전남 및 경남의 7개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성인지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반면, 경기를 포함한 나머지 10개 교육청에서는 체육이나 보건 관련 부서에서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양성평등교육은 생활교육과에서, 성교육은 체육건강교육과에서 맡고 있어, 성평등을 바탕으로 일관된 방향의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이 시행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24) 가장 최근에 진행된 <2025 경기도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는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원, 보호자(학부모 등)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됨. 연구보고서가 작성된 2025년 11월 13일 기준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2024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술함.

[표 4-2] 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의 성평등 전담 부서 현황

	성평등 전담 부서	성평등 전담/담당 부서명	비고
교육부	○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서울	○	민주시민교육과 성평등팀	-
부산	X	인성체육급식과	인성체육급식과에서 성교육담당
대구	X	체육예술보건과 대구학생예술창작터	담당자가 간호사이며 양성평등교육 관련 업무 추진
인천	○	학생생활교육과 성인지교육팀(제3팀)	-
광주	X	인성생활교육과 마음·사회정서팀	-
대전	X	미래생활교육과	-
울산	○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성인지팀	-
세종	X	학교안전과 학생건강담당	-
경기	X	생활교육과(양성평등 담당) 체육건강교육과(성교육 담당)	-
강원	X	인성생활교육과 생활교육팀	-
충북	○	인성시민과 성인식개선팀	-
충남	○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지교육지원센터	-
전북	X	문예체건강과 학교보건담당	-
전남	○	민주생활교육과 성인지교육팀	-
경북	X	체육건강과 체육담당	-
경남	○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식개선담당	-
제주	X	교육국 정서회복과 학교생활지원	-

자료: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로 재구성(2025.11.03. 검색).

학교 내 젠더 민감성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각 시도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그 안에서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4) 교사의 젠더 민감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조사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교사의 성차별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남학생에게만 요청한다’는 항목에서 성차별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수업 중 성적 농담이나 성차별적 수업자료 사용’에서는 응답률은 적으나 여전히 존재했다. 또한 남학생이 교사의 성차별 수준을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최근 청년 남성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역차별’ 담론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젠더 민감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인식 제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교육을 넘어 교과 수업과 생활지도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젠더 민감성 증진을 주제로 한 교사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수업자료, 평가, 과제 설계 및 지도 과정에서 성차별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평등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젠더 관련 최신 이슈들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이 젠더 민감성 교육에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 및 학교 내 성차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학교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에 한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교의 성평등을 비롯한 민주주의 문화 전반을 체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평등이 특정 성별의 특혜가 아니라 모두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남학생만의 역할 분담이나 수업 중 성적 농담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단발적인 교육 및 조치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도 젠더 민감성을 주요한 가치관으로 정착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교사 역시 성평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그러한 지식을 교과내외로 적용하는 것은 장기간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느리더라도 점진적으로 교사의 젠더 민감성을 강화하는 것은 교과 내외 성평등적 교육 환경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5) 정책추진 기반 구축

앞서 제시한 성평등 교육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가 있으나, 주요 대상이 ‘성교육’에 한정되며, 제1조 목적에서도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성장기의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에 대한 학생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젠더 민감성에 대한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 또한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서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어, 학생들이 성교육에 대한 권리로서 접근하기보다 의무 시간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 교육 권리 조례」(가안)를 제정하여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성평등 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례에 가장 중요하게 포함될 내용으로 첫째, 성평등 교육을 경기도 청소년의 의무가 아닌, 권리로 접근하여 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평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성평등 교육의 최소 기준과 양적, 질적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례에는 성평등 교육의 정책협의체의 구성과 책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및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성평등 교육의 방향을 조정하는 거버넌스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조정하는 주요 기구로써 경기도교육청 내 성평등 전담부서의 역할 역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정기적인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태조사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평등 태도, 가정과 학교, 또래관계 및 온라인 상에서의 성차별경험과 인식 등을 살핌으로써 정책추진과 성평등 교육 방향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경기도 청소년 성평등 교육 권리 조례」(가안) 제정을 통해 청소년이 성평등을 하나의 가치관으로 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지우, 하정희. (2025).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36(3), 61-81.
- 김광원. (2025). “10대 남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실태 분석 및 토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14차 경기 GPS 자료집**,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와 특성, 49-51.
- 김경희, 김수아, 김은경. (2020). 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정책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12(2), 257-289.
- 김미선, 이도영, 이종원. (2019). 온라인 게임 내 혐오 표현과 게임 문화 개선에 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7(2), 299-302.
- 김선영. (2023).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로 살펴본 '이대남' 현상. **한국언론정보학보**, 118, 34-75.
- 김수아. (2024).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의 관점에서 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 **이화젠더법학**, 16(3), 187-224.
- 김수자. (2019).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 현황과 과제-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 43, 94-125.
- 김수아, 이예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여성혐오' 및 성차별 사건 관련 게시판 토론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3), 67-109.
- 김애라. (2017). 차별과 혐오가 '꿀잼'인 디지털시대 학교성문화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성평등교육정책 연속토론회3: 디지털시대 우리를 물들인 차별과 혐오의 성문화, 교육의 역할을 찾다' 자료집. 서울시교육청.
- 김영한, 이유진, 조아미, 임성택. (2020).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란. (2020).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실태조사. 인천여성가족재단.
- 김정란. (2022). 제2차 인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인천여성가족재단.
- 김정란, 김혜신. (2020). 광주지역 성평등의식 조사. 광주여성가족재단.
- 김재우, 이수정. (2024). 페미니즘 현상을 둘러싼 10대 남자 청소년의 인식과 경험: 교육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7(2), 259-283.

- 김조은. (2024). 현대적 젠더 의식의 다차원성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47(4), 55-82.
- 김지연. (2025). 이미 퍼진 혐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성평등교육을 모두의 권리로 보장하라.
- 제3차 성평등 민주주의 포럼 자료집**, 67-70.
- 김지학. (2025). 포괄적 성교육 담론의 현재와 포괄적 성교육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포괄적 성교육 법제화 토론회 자료집**, 4-14.
- 김현수. (2025).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 누가 그들의 마음속 분노, 좌절, 박탈감을 원한
과 복수로 키워 극우가 되게 하는가. **클라우드 나인**.
- 김희란. (2022). 남자 청소년 대상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청소년학연구**, 29(4), 211-235.
- 남궁연, 김현주. (2021). 남자 청소년의 남성성 정의와 여성혐오를 초래하는 또래의 역할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8(1), 1-23.
- 남미자. (2019). 지금 여기,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의 의의. **교육비평**, 43, 39-62.
- 남미자, 김자영, 배정현, 이희진. (2022a). **중고등학생의 페미니즘 백래시(backlash) 실태와
대응 방안 모색**. 경기도교육연구원.
- 남미자, 박성태, 임세원. (2022b). 웹툰에 드러난 남성 동성사회성(male homosociality)
양상: 한남동 케이하우스와 싸움독학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2(1), 31-58.
- 남미자, 배정현, 김자영, 이희진. (2023). 학교 안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 영향 요인: 남성성
규범, 능력주의 및 학교 성평등 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33(2), 87-128.
- 남미자, 배정현, 오수경. (2019). 교육열, 능력주의 그리고 교육 공정성 담론의 재고(再考):드
라마 <SKY 캐슬>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9(2), 1-37.
- 노경혜, 정형욱. (2023).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마경희, 황정임, 문희영, 이은아. (2021).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박영주. (2022). **대구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대구시행복진흥
사회서비스원.
- 박은하, 이명화, 유화정, 이유정, 윤나현, 함경진. (2022). **2022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
그램 매뉴얼 개발 연구**.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박은하. (2025). 포괄적 성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청소년 성교육의 전환과 대응. **경영권
설립연구**, 25(4), 285-294.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백근영, 최바울. (2021). 남녀대학생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차이: 개념도 방법을 중심으로. **인간이해**, 42(1), 25-49.
- 송승헌, 최가빈, 하정민, 황지섭, 이경렬. (2025).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과 대응 방안. **입법학연구**, 22(1), 61-92.
- 송요셉, 오상화, 김은미, 나은영, 정하소, 박소라. (2009). 다매체 환경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방식에 대한 FGI 연구. **언론정보연구**, 2, 33-65.
- 신진욱. (2025.9.12.). 편재하는 극우의 생태계와 담론사슬 - 안티코뮤니즘에서 안티페미니즘까지. **2025 우리 민주주의 다시보기: 한국의 극우는 누구인가**. 국회입법조사처, 경기대비교문화연구소.
- 심재휘, 이소라, 김범주, 이기혜, 최윤진. (2024).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실태조사를 통한 **교육공동체 신뢰도 제고 방안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경기도교육청.
- 안상수, 김인순, 이정현, 윤보라. (2015).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 (II):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세아. (2022). **충남 청소년 성평등 및 성태도 인식 현황 분석 연구**. 충남사회서비스원.
- 양정선. (2020). 경기도 청소년의 가족생활 실태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에스핑-앤더슨, 요스타. 주은선 역. (2014). **끝나지 않은 혁명: 성 역할의 혁명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도전**. 나눔의 집.
- 엄혜진. (2022). 소년 위기(boy crisis) 및 알파걸(alpha girls) 담론에 나타난 백래시의 의미 지형. **한국여성학**, 38(4), 43-82.
- 오운선, 황인숙. (2016). **청소년 문화론**. 파주:양서원.
- 유지연. (2017). **청소년의 포래압력과 스마트폰 사용의 관계에서의 자기결정성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화정. (2025). 해외 사례로 본 포괄적 성교육 법제화의 방향. **포괄적 성교육 법제화 토론회 자료집**, 16-29.
- 유현미, 김이선, 김정환, 장진범, 박상은. (2025). 광장에서 만난 세계: 윤석열 퇴진 집회 시민발언문 분석. **경제와사회**, 146, 153-193.
- 이선욱. (2015). 과학주의 시대-여성혐오라는 정동. **여성문학연구**, 26, 101.
- 이수정, 김자영. (2024). 10대 남자 청소년의 페미니즘 인식 유형과 그 특성에 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30(1), 257-286.
- 이혜미, 양소은, 김은미. (2016). 청소년의 온라인 유해정보 노출과 온라인 일탈 행동에 미치는 요인. **한국언론학보**, 60(3), 209-236.

- 이혜정, 김아미, 남미자, 민윤, 박진아, 이신애, 이정연. (2019).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 살림터.
- 이혜정, 김동진, 박진아, 양지혜, 이정연, (2020), **학교의 젠더 질서와 페미니즘 교육의 방향: 학교교육의 성 정치학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혜정, 김수아, 박진아. (2022). 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디지털 세계의 폭력적 젠더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한국여성학**, 38(3), 73-108.
- 이혜정, 임혜경. (2024). 청소년의 성문화와 성평등인식 분석 및 시사점. **이슈분석**, 291, 1-16.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장근영, 임지연. (202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영애, 김용미. (2010). 부모의 성역할 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양성평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8(2), 3-11.
-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규, 김문길, 이혜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형욱, 신경아. (2016).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형욱, 안태윤. (2012). **2012년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윤정, 마경희, 김애라, 장희영, 김효경, 김수아, 이종임. (2021). **포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태도 연구(II):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윤정, 박성정, 김은경, 김인순, 김애라, 김효경, 박민주. (2020). **포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의식과 태도 연구(I): 남녀 청소년의 포래문화와 젠더의식 격차 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윤정, 박성정, 장희영, 김효경, 최윤정. (2019a).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현실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윤정, 윤덕경, 선보영, 장희영, 장명선. (2019b). **중고등학교 양성평등인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연구**. 교육부.
- 최종숙. (2020).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20대와 3040세대의 이념성향과 젠더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25, 189-224.
- 한유정. (2022). 20대 남성의 성평등인식과 영향 요인: 남성성 규범과 능력주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 Amed, S. (2014/2023). 시우(역). **감정의 문화정치: 감정은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파주: 오월의 봄.
- Begall, K., Grunow, D., & Buchler, S. (2023). Multidimensional gender ideologies across Europe: Evidence from 36 countries. *Gender & society*, 37(2), 177-207.
- 벨 훅스(bell hooks). 박정애(역). (2007). **행복한 페미니즘**. 백년글사랑.
- Christ, S.L., Kwak, Y.Y. and Lu, T. (2017) "Adolescents' Experience of Parental Psychological Caregiving and Neglect: Construct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7(3): 326-336.
- Crosnoe, Robert. (2000). Friendship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Life Course and New Direct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3(4), 377-391.
- Dawson, A., Pike, A., & Bird, L. (2016).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gendered attitudes and behaviours and children's gender development across middle childhood.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4), 452-471.
- Davis, S. N., & Greenstein, T. N. (2009). Gender ideology: Components, predictor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1), 87-105.
- England, P. (2010). The gender revolution: Uneven and stalled. *Gender & society*, 24(2), 149-166.
- Faludi, S. (2009). *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Glick, P., & Fiske, S. T. (1997).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Measuring ambivalent sexist attitudes toward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1), 119-135.
- Guerrero, Sánchez L., & Schober, P. S. (2021). Socialisation influences on gender ideologies of immigrant and native youth in Germany, England, Sweden and the Netherlands. *Sex Roles*, 85(3), 113-127.

- Guerrero, Sánchez L., Schober, P. S., & van der Vleuten, M. (2023). A time of great change: how parents, friends, and classmates shape adolescents' attitudes towards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2(9), 1811-1828.
- Hook, J. L. (2010). Gender inequality in the welfare state: Sex segregation in housework, 1965-2003.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5(5), 1480-1523.
- Inglehart, R., & Norris, P. (2003). *Rising tide: Gender equality and cultural change around the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J. (2025a). Men's decline and rising support for hostile sexism: A survey experiment from South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127, 103134.
- Kim, J. (2025b). Male Victimhood Ideology Among Korean Men: Is It Economic Hardship or Perceived Status Decline?. *Sex Roles*, 91(1), 11.
- Knight, C. R., & Brinton, M. C. (2017). One egalitarianism or several? Two decades of gender-role attitude change in Europ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2(5), 1485-1532.
- Nylund-Gibson, K., & Choi, A. Y. (2018). T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latent class analysi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440.
- Oberski, D. (2016). Mixture models: Latent profile and latent class analysis. *Modern statistical methods for HCI*, 275-287.
- Off, G., Charron, N., & Alexander, A. (2022). Who perceives women's rights as threatening to men and boys? Explaining modern sexism among young men in Europe. *Frontiers in Political Science*, 4, 909811.
- Perales, F., Lersch, P. M., & Baxter, J. (2019). Birth cohort, ageing and gender ideology: Lessons from British panel data. *Social Science Research*, 79, 85-100.
- Piotrowski, M., Yoshida, A., Johnson, L., & Wolford, R. (2019). Gender role attitudes: An examination of cohort effects in Japa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1(4), 863-884.
- Rosenfield, Sarah. (1999). "Splitting the Difference." pp. 209-224 in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edited Carol S. Aneshensel, and Jo C. Phelan. New York: Springer.

- Sedgwick, Eve Kosofsky. (1985).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United States of America: Columbia University Press.
- Swim, J. K., & Cohen, L. L. (1997). Overt, covert, and subtle sexism: A comparison between the attitudes toward women and modern sexism scal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1), 103-118.
- Steinberg, L. (2014). *Age of Opportunity: Lessons from the New Science of Adolescence*. Houghton Mifflin Harcourt.
- 우에노 지즈코(2010). 나일등 역.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 Ullrich, R., Becker, M., & Scharf, J. (2022). The development of gender role attitudes during adolescence: effects of sex,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cognitive abilit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1(11), 2114-2129.
- Umberson, D., & Montez, J. K. (2010).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A Flashpoint for Health Polic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1(1), S54-S66.
- UNESCO. (2018).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an evidence-informed approach*.

3. 인터넷자료

- 교육부. (2025.10.14.). 교육부,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 발간...지도안·활동지 등 제공·중·고 워크북 등 5종...교원 전용 플랫폼 '잇다' 탑재·자유롭게 활용 가능.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0494>).
- 김경희. (2024.11.18.). “청소년 성 인식 손 놓은 경기도교육청...행감서 ‘집중 질타’”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8580330>(최종검색일: 2025.11.10.). 대만법령정보센터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H0080067>(최종검색일: 2025.11.03.).
- 여성가족부. (2022. 4. 20.). 성평등 체감도 상승했으나 일터와 돌봄의 성별 불균형, 여성폭력 현실에 높은 문제의식: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윤지원, 이재덕. (2025.3.3.). 극우 세계관, 청소년들 사이에선 차고 넘쳐...이미 주류가 됐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10900031>(최종검색일: 2025.9.23.).

- 윤지원, 이재덕. (2025.3.10.), “극우 세계관,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주류”, 주간경향.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503030600021&code=115(최종검색일: 2025.5.13.).
- 이설. (2025.3.30.). “딥페이크 10대에서 폭넓게 발생...강한 처벌 인식 심어져야”, 뉴스 1.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734018>(최종검색일: 2025.5.13.).
- 이세아. (2025.4.11.). “폭행 불법촬영 딥페이크...소년들 범죄 타겟 된 여성 교사들”,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579>
(최종검색일: 2025.5.13.).
- 참여연대. (2017.3.6.) “여우짓해서 레벨 올렸냐” 여자라서 잘해도 욕, 못해도 욕.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3974(최종검색일: 2025.9.23.).

4. 기타

-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2025). 2025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2025). 2025 학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디지털]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계획.
- 교육부. (2019).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인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연구.
- 교육부. (2025).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워크북: 학교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활동 자료집.
- 관계부처합동. (2023.2).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2023-2027).
- 여성가족부. (2023).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 여성가족부. (2024a). 청소년통계.
- 여성가족부. (2024b). 지역성평등보고서.



부 록

1. 설문조사지

부록 1. 설문조사지

ID					
----	--	--	--	--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 중·고등학생 성평등 인식 및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의 가족, 여성, 아동, 청소년 정책연구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 기관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10대 청소년 성평등 실태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경기도 중, 고등학생의 성평등 의식과 관련 경험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조사의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평소 경험하고 생각하는 대로 편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정책 개발 및 지원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끝까지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개인정보 등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② 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분석결과는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조사 문의처	수행기관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송리라 연구위원, 031-220-3938, rirasong@gwff.kr
	실시기관	(주)현대리서치 최아름 차장 02-3218-9659 (조사 담당자) 정병현 차장 02-3218-9622 (연구 담당자)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응답자 기본 사항

SQ1. 학교	<input style="width: 150px; height: 20px;" type="text"/>	학교
SQ2. 학년	<input type="radio"/> 중학교 2학년 <input type="radio"/> 중학교 3학년 <input type="radio"/> 고등학교 1학년 <input type="radio"/> 고등학교 2학년	
SQ3. 성별	<input type="radio"/> 여자 <input type="radio"/> 남자 <input type="radio"/> 기타 () <input type="radio"/> 대답하고 싶지 않음	

● ● ● ●

A.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A1 학생은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학생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맞벌이도 가능하지만 생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2)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일의 일차적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3) 맞벌이 부부어도 육아와 가사일(청소, 요리 등)의 책임은 여자가 더 크다	①	②	③	④
4) 여자는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일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취직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①	②	③	④
6)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여자는 남자보다 감성적이다	①	②	③	④
8) 남성은 여성보다 강하므로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이(보호자가) 아들보다 딸에게 안전한 행동과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A2 학생은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학생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여자들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운다	①	②	③	④
2) 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3) 여성의 권리가 늘어날수록 남성의 권리는 침해된다	①	②	③	④
4) 미투운동은 전체 남성들을 성범죄의 가해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미투운동: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다른 피해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	①	②	③	④
5) 우리 사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의 입장에서만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6) 별 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을 여자들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우리 사회는 이미 평등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8)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보다 남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9) 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불평등하다	①	②	③	④
10) 남성의 군복무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A3 다음은 남성성 규범 등에 대한 동의 정도입니다. 다음 중 학생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남자는 겁이 나도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2) 남자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숨겨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남자는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4) 남자는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5) 남자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남자는 필요할 때 물리적인 싸움에도 기꺼이 개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 ● ● ●

B. 가족문화

B1 학생은 가정에서 부모(보호자)나 형제로부터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가끔 있다
 ④ 거의 없다 ⑤ 전혀 없다

B2 학생의 가정에서는 다음의 일들을 누가 주로 담당합니까?

B2-1 학생 가정에서는 가사일 등 집안일은 누가 주로 담당합니까?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본인 ④ 본인 외 형제
 ⑤ 기타 ()

B2-2 학생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과 교육은 누가 주로 담당합니까?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본인 ④ 본인 외 형제
 ⑤ 기타 ()

B2-3 학생의 가족 중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본인 ④ 본인 외 형제
 ⑤ 기타 ()

B3 학생의 어머니와 아버지 간 관계는 성평등합니까?

① 어머니에게 불평등함 ② 평등한 편임 ③ 아버지에게 불평등함
 ④ 해당 없음

B4 학생 부모님(보호자)의 양육태도는 성평등합니까?

문항	매우 성차별적임	성차별적임	성평등함	매우 성평등함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3) 보호자 (위 1, 2 모두 해당 없음인 경우만 응답)	①	②	③	④	⑤

C. 또래문화

C1 학생은 평소에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로 나누어 기입해주세요.
 ※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0명으로 기입합니다.

문항	남자(사람) 친구 수	여자(사람) 친구 수
1)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노는) 친구	명	명
2) 방과후 시간을 같이 보내는 친구(학원을 포함한 학교 밖에서 같이 노는 친구)	명	명
3) SNS나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는 친구(오프라인으로 교류하지 않는 친구)	명	명
4) 내 취미나 관심사를 같이 하는 친구(운동, 게임, 연예인, 공부 등)	명	명
5) 나의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명	명

● ● ● ●

C2 학생은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현재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3)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나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	①	②	③	④
9)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10) 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11)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12)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C3 학생은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학생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웃을 입을 때 친구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2) 유행과 다르지만 남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옷을 즐겨 입는다	①	②	③	④
3) 친구들과 사이에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4) 신체적인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숨기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5) 별로 관심이 없더라도 또래친구들이 좋아한다면 유행하는 유튜브, TV프로그램, 영화, 음악 등을 보고 듣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6) 친구들 시선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순간을 주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친구들이 거는 기대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8) 친구들이 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임에 참석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9) 다른 친구들을 비웃거나 놀리는 무리에 함께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집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친구들이 독서실에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면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1) 버스를 타고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중에 친구들이 무질서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행동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수학여행이나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을 친구들과 함께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자율학습시간에 떠들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수업 중에 내가 한 질문에 대해 친구들이 웃는다면 당황해 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알리거나 학급에서 그러한 생각을 나누는 것을 부끄럽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C4 학생은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학생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평소 친구들과 여자(친구)의 몸(매)이나 얼굴에 대한 이야기(얼핏, 몸평 등) 를 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평소 친구들과 남자(친구)의 몸(매)이나 얼굴에 대한 이야기(얼핏, 몸평 등) 를 한다	①	②	③	④
3) 데이트는 남성이 주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연애를 하려면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5) 데이트 비용은 남성이 더 많이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6) 데이트에는 남성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거나 여성을 데리러 가는 것이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7) 스킨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크다	①	②	③	④
8) 스킨십을 하려 할 때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스킨십을 해도 된다는 뜻이다	①	②	③	④
9) 연인 간의 폭력은 때린 사람만을 탓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10)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거절해도 계속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1) 남자가 괴롭히는 것은 좋아한다는 표시다	①	②	③	④

C5 학생은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학생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야한 농담이나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2) '몸매 좋다'와 같은 말을 불쾌하게 들을 사람은 없다	①	②	③	④
3) 동성 간에는 성희롱이 일어날 수 없다	①	②	③	④
4) 약의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은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5) 성폭력은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하는 등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D. 디지털 문화

D1 학생은 평소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단, 인터넷 강의나 온라인 수업은 제외합니다.

문항	매우 자주 참여한다	자주 참여한다	가끔 참여한다	아주 가끔 참여한다	전혀 하지 않는다
1) 인스타그램	①	②	③	④	⑤
2) 틱톡	①	②	③	④	⑤
3) 개인방송 콘텐츠 시청(유튜브, 트위치, SOOP(구 아프리카TV), 치지직 등)	①	②	③	④	⑤
4)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①	②	③	④	⑤
5) 온라인 게임/모바일 게임/메타버스 및 VR게임 등	①	②	③	④	⑤
6) 인공지능 챗봇 등(챗지피티, 이루다 등)	①	②	③	④	⑤

[D1의 1)인스타그램과 2)틱톡 중 ①~④에 한 문항 이상 체크한 경우만 응답]

D1-1 학생은 SNS에서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친구들 소식 얻기
- ② 친구들과의 소통 및 대화
- ③ 나의 일상생활에 대한 공유
- ④ 맛집, 패션, 게임 등 취미정보 검색
- ⑤ 연예인이나 셀럽 팔로우(팬덤활동, 덕질 등)
- ⑥ 웃긴 글/영상 보기
- ⑦ 정치, 문화, 사회적 이슈
- ⑧ 학습
- ⑨ 기타()

[D1의 3)개인방송 콘텐츠 시청에서 ①~④에 체크한 경우만 응답]

D1-2 학생이 평소 유튜브, 트위치, SOOP, 치지직 등 개인방송에서 주로 시청하거나 생산하는 콘텐츠는 어떠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웃긴 영상
- ② 먹방, 맛집
- ③ 게임
- ④ 뷰티, 패션
- ⑤ 다이어트/운동/스포츠
- ⑥ 연애상담
- ⑦ 웹드라마
- ⑧ 연예인 관련
- ⑨ 정치, 문화, 사회적 이슈
- ⑩ 학습
- ⑪ 기타()

D2 다음은 디지털과 관련한 불안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학생이 느끼는 불안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소 학생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온라인에서 개인 신상이 노출될까 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불법 촬영물에 의한 범죄 피해 대상이 될까 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가까운 사람끼리 있었던 일이나 갈등이 온라인 등에 폭로될까 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온라인상에서 내 사진이나 연락처, 개인정보가 공유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D3 아래 문항들은 온라인에서의 특정 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문항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사귀는 사이에 성적인 사진, 동영상 등 동의 없이 찍거나 촬영하는 것	①	②	③	④
2) 상대방의 촬영 동의를 받은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①	②	③	④
3) 게임 캐릭터나 메타버스의 아바타 등에게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농담하는 것	①	②	③	④
4) 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 신체, 음성을 딥페이크 하거나 성적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편집, 합성 등 가공하는 것 <small>*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small>	①	②	③	④
5) 딥페이크 성폭력물을 보는 것	①	②	③	④
6) 인터넷 게시판, SNS, 온라인 게임 등에서 댓글이나 메시지로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것	①	②	③	④

E. 학교생활

E1 학생은 남학생 또는 여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며 있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학생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남학생에게만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 권리와 편의를 더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3) 여학생들 때문에 남학생들은 내신이나 학교 성적에 피해를 본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수행평가 등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다른 과업/과제를 부여하거나,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①	②	③	④
5) 모둠활동이나 팀프로젝트 등에서 남학생들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여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①	②	③	④
6) 우리 학교 수업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발표를 많이 하는 분위기이다	①	②	③	④
7)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교사나 또래로부터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①	②	③	④
8)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성차별적인 수업자료(글, 그림, 영상)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9)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여학생은 문과, 남학생은 이과가 더 바람직하다고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남자는~~해야 해', '여자는~~해야 해'라는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11)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장난스럽게 몸을 안거나 만지는 것도 성적 괴롭힘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F. 일, 가족 가치관

F1 학생은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학생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남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과목이 있다	①	②	③	④
2) 공구 또는 기계를 다루는 일은 남자에게 더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3) 경찰, 군인,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이나 국방과 관련된 직업은 남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4)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아동이나 환자, 노인을 돌보는 직업은 여성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5) 남학생이 원하는 직업과 여학생이 원하는 직업이 대체로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6)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책(회장, 사장, 대표이사 등)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7) 여자 장관이나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은 여성의 리더십이 부족해서다	①	②	③	④
8) 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으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9)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10) 남성의 월급이 여성보다 높은 이유는 남성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F2 학생이 향후 대학교에서 전공하고 싶은 계열은 무엇입니까? 가장 희망하는 계열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인문계열(언어·문학, 인문과학)
- ② 사회계열(경영·경제, 법률, 사회과학)
- ③ 교육계열(교육일반,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 ④ 공학계열(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항공 등)
- ⑤ 자연계열(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생활과학, 수학·물리·천문·지리)
- ⑥ 의약계열(의료, 간호, 약학, 치료·보건)
- ⑦ 예체능계열(디자인, 응용예술, 무용·체육, 미술 조형, 연극·영화, 음악)
- ⑧ 진학하지 않을 예정이다

F3 학생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로 2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2순위까지 필수 응답)

- ① 적성과 소질
- ② 개인적 관심과 흥미
- ③ 수입, 연봉
- ④ 고용안정성
- ⑤ 일과 삶의 조화(워라밸)
- ⑥ 사회적 지위, 명예
- ⑦ 가족이나 선생님의 추천
- ⑧ 기타 ()

F4 직장 내 조직문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생각을 기준으로 항목별 응답해 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나라 기업은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2)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데 엄격한 제한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5)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①	②	③	④

G. 일반적 사항

G1 학생 부모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지: _____ 어머니: _____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졸 (2~3년제) ④ 대졸 (4년제 이상)
 ⑤ 대학원 졸업 이상 ⑥ 잘 모르겠음 ⑦ 해당 없음

G2 학생에게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 ① 형제자매가 없다 ② 형제자매가 있다 [☞ G2-1로 이동](#)

[G2의 ② 응답자]

G2-1 총 몇 명의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형제자매 수를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남자 형제: _____ 명 (숫자로 기입)

여자 형제: _____ 명 (숫자로 기입)

G3 학생의 학업 성적(2025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하위권	←-----			중위권	-----→			최상위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G4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은 수준	←-----			보통 수준	-----→			매우 높은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G5 학생은 미래 부모님의 현재 나이가 될 때 현재 부모님 보다 형편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나요?

- ① 훨씬 좋아질 것이다 ② 약간 좋아질 것이다 ③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④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⑤ 훨씬 나빠질 것이다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Tel 031-220-3900 **Fax** 031-220-3994



www.gwff.kr

